# 護國戰歿勇士功勳錄

第 2 卷

(創軍期 : 김숙봉~류지열)

國 防 部

# 序　　文

우리 민족은 半萬年의 悠久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外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不屈의 護國精神을 발휘하여 나라의 自主獨立과 民族의 正統性을 면면히 이어온 자랑스런 전통을 지니고 있습니다.

祖國守護의 主役인 우리 국군은 光復이후 극히 어려운 환경에서 창설되어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해 왔으며, 북한공산집단의 6·25남침으로 인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수많은 장병들이 고귀한 목숨을 바쳐 祖國을 구하고 自由民主主義體制를 守護하였습니다. 또한 휴전이후에는 북한의 수많은 무력도발을 분쇄하였으며, 有史이래 처음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의 十字軍으로서 偉容을 떨쳤고 최근에는 平和維持軍(PKO)에 참여하여 世界平和와 國威宣揚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祖國의 自由와 平和를 위해 散華한 護國戰歿勇士의 수는 16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가장 崇高하고 값진 犧牲이며 또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들 호국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쳤지만 그동안 우리는 그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너무나 無關心하였고, 아직도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늦게나마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각종 폭동 및 반란의 鎭壓作戰과 軍事作戰을 수행하던 중 목숨을 바친 군인과 경찰관의 숭고한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그 후손들에게 自矜心을 고취시키며, 전 국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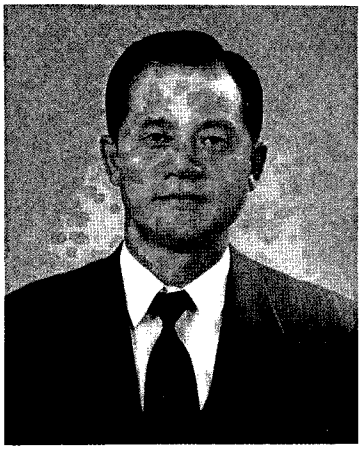
게 護國思想을 昂揚시키고 후세에 敎訓으로 남기기 위하여 1996년부터 國防軍史硏究所에서 연차적으로 『護國戰歿勇士功勳錄』을 편찬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 『護國戰歿勇士功勳錄』 편찬사업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戰歿軍警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 후손들에게 긍지를 갖도록 하며 전 국민의 호국사상 앙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자료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1997년도에도 『護國戰歿勇士功勳錄』 4권을 편찬하는데 최선을 다한 國防軍史硏究所 嚴燮駙 所長을 비롯하여 집필을 담당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1997년 6월

國 防 部 長 官 金 東 鎭

# 發 刊 辭



1990년대에 들어와 공산국가의 종주국인 蘇聯의 붕괴와 함께 美·蘇間 冷戰體制가 사라짐으로써 국제정세는 和解와 協力時代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냉전시대에는 적성국가였던 러시아,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北韓에 대한 警覺心이 해이해졌으며 일부 左傾容共勢力들은 感傷的 民族主義나 幻想的 統一論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의 反共意識을 약화시키고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등 國家安保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잠수함을 이용하여 동해안으로 武裝共匪를 남파시킨 바 있으며, 또한 서해상에서 북한경비정이 우리의 海域을 침범한 후 해군경비정을 향해 艦砲射擊을 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자행함으로써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이후 북한의 사주에 의해 南勞黨이 일으킨 제주 4·3폭동사건과, 여수·순천반란사건 및 대구폭동사건 등 일련의 폭동 및 반란의 진압작전과 그후 계속된 共匪討伐作戰, 38도선경비작전, 한국전쟁 및 월남전쟁 등에서 조국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세계평화유지와 국위선양을 위해 싸우다가 戰死하였거나 負傷당하신 軍人과 警察官 및 反共鬪士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준 조국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떳떳한 韓國人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高度經濟成長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결과 世界 第12位의 交易國으로 급부상하였으며, 국민소득 1만불에 이르는 선진국의 문

턱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祖國守護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散華하신 護國戰歿勇士들에 대하여 정신적인 名譽宣揚과 물질적 생활보장을 충분히 해주었는지에 대해 깊이 反省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1996년부터 國防軍史硏究所에서는 광복이후 오늘날까지 발생한 폭동 및 반란의 진압작전과 각종 군사작전 등에 참가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散華하신 16만명에 이르는 국군과 경찰관에 관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여 『護國戰歿勇士功勳錄』으로 편찬하여 역사에 길이 보존함으로써 그분들의 숭고한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그 後孫들에게 自矜心을 鼓吹하며 전 국민의 호국사상을 앙양시킴과 동시에 後世에 敎訓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人間의 生命은 東西古今이나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가장 所重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꽃다운 20대의 나이에 共産侵略으로부터 祖國을 守護하기 위해 싸우다가 自己의 生命을 草芥와 같이 버리신 護國戰歿勇士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愛國者들입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이어받고 역사에 기록하기 위한 이 『護國戰歿勇士功勳錄』 편찬사업은 1996년에 제1권을 편찬한 것을 시초로 금년 전반기에 제2권과 제3권을, 후반기에 제4권과 제5권을 편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매년 계속적으로 편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軍·警 遺家族은 물론 일반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료지원과 指導鞭撻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 편찬사업이 조국을 위해 獻身하신 호국전몰용사들의 靈魂을 달래고 그분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전 국민의 護國思想을 昂揚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인원 및 자료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편찬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宣揚事業團長을 비롯한 執筆硏究員 여러분의 勞苦를 致賀하는 바입니다.

1997년 6월

國防軍史硏究所長 嚴 燮 駉

# 祖國光復과 創軍期

(1945. 8. 15~1950. 6. 24)

##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國立 大田顯忠院 全景

顯忠詩

# 招魂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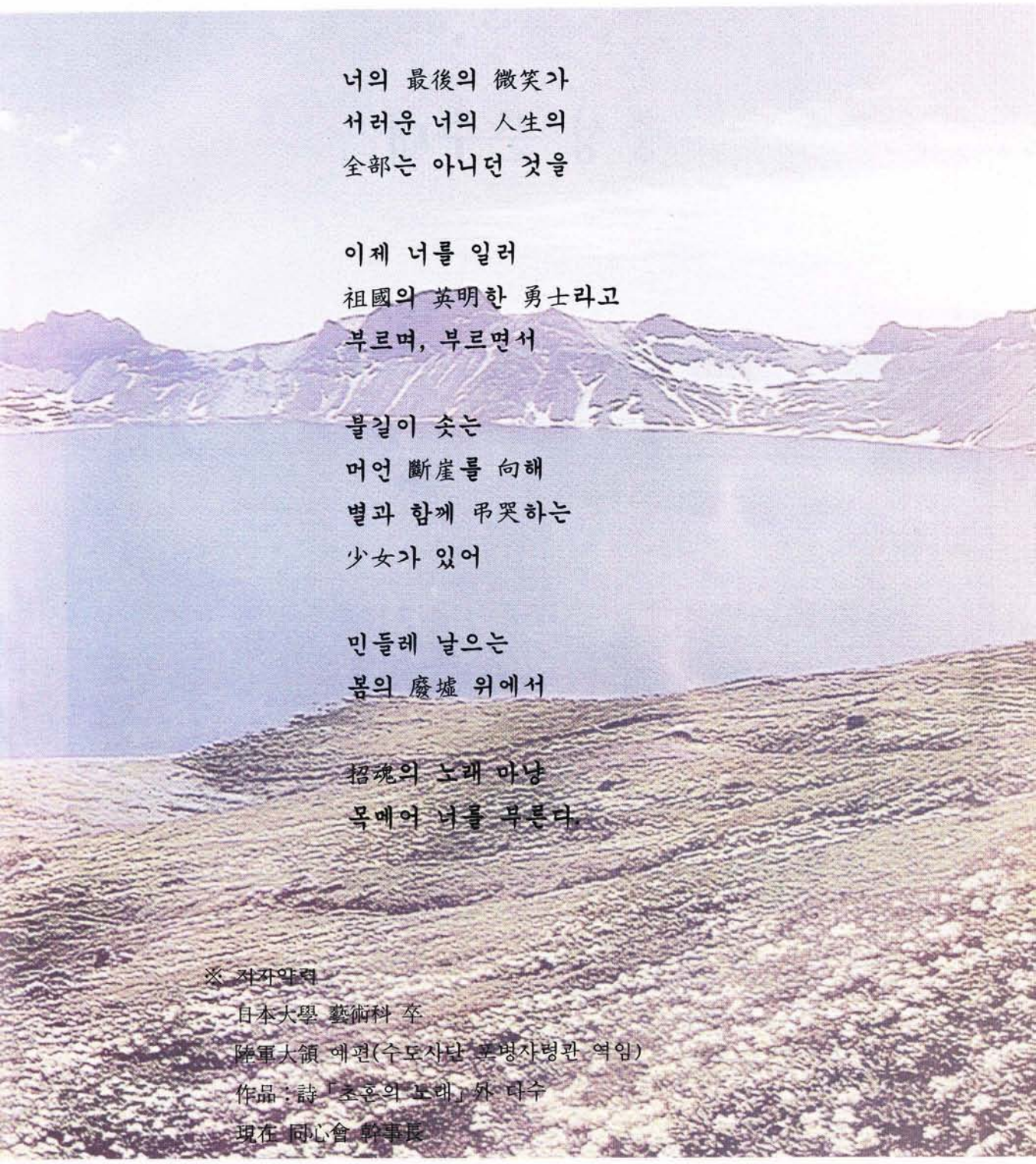
白 道 欽

荒涼한
이 廢墟 위
어느 곳에도
너의 무덤은 없었다.

다만
祖國을 위한
젊은 너의 生命이

祖國의
하늘 밑
여기 沃野의 焦土된
悽絶한 戰野에서
너, 죽어감을
어느 少女가 記憶할 따름이다.

타끌 하나 없는
戰線의 精白속에
告別마냥 少女에로 보내던



너의 最後의 微笑가
서러운 너의 人生의
全部는 아니던 것을

이제 너를 일러
祖國의 英明한 勇士라고
부르며, 부르면서

불길이 솟는
머언 斷崖를 向해
별과 함께 弔哭하는
少女가 있어

민들레 날으는
봄의 廢墟 위에서

招魂의 노래 마냥
목메어 너를 부른다.

※ 저자약력
日本大學 藝術科 卒
陸軍大領 예편(수도사단 포병자병관 역임)
作品 : 詩「초혼의 노래」外 다수
現在 同心會 幹事長

# 충성 분수대

이 분수대는 國家의 自由 平和와 繁榮을 위하여 밑거름이 된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의 偉勳과 그 精神을 象徵하여 建立하였다. 상단의 월계수잎을 든 남녀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국가를 상징하고, 중단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며 愛國愛族하는 국민을 상징하며, 하단은 국가와 국민의 守護에 헌신하는 군·경·예비군을 상징하고 있다.

# 현충탑 및 위패봉안관

國家와 民族을 위해 散華한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의 忠義와 偉勳을 推仰하고자 세워진 탑으로 민족의 성역인 국립묘지를 상징하고 있다.
탑 내부의 位牌奉安館에는 同族相殘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의 전사자중 屍身을 찾지 못한 10만 2천여 護國勇士들의 位牌와, 屍身은 찾았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5천7백여 無名勇士 遺骸를 모시고 있다.

# 육탄 10용사 현충비

6·25전쟁 직전인 1949년 5월 4일 북한공산군이 불법점령한 개성 송악산 고지를 奪還하기 위해 포탄을 안은 채 敵陣에 뛰어들어 진지를 粉碎하고 散華한 徐富德 少尉 등 10용사의 鬪魂을 기리고자 顯忠碑가 건립되었다.

# 천마웅비상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의 거룩한 넋을 원동력으로 祖國을 영원토록 躍進·繁榮으로 이끄는 未來指向의 象徵物이다.

# 현 충 탑

국가와 민족을 위해 散華하신 殉國先烈과 護國英靈의 忠義와 偉勳을 기리고자 세운 탑으로서, 민족의 聖域인 국립묘지를 상징하고 있다.
이 탑은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 民族文化를 나타내는 탑신을 중심으로 나라 위해 가신 님들께 바치는 獻詩, 조국과 겨레를 수호하는 愛國, 愛族, 護國像과 自由와 平和를 바탕으로 세계속의 한국으로 雄飛하는 의지를 담은 좌·우 부조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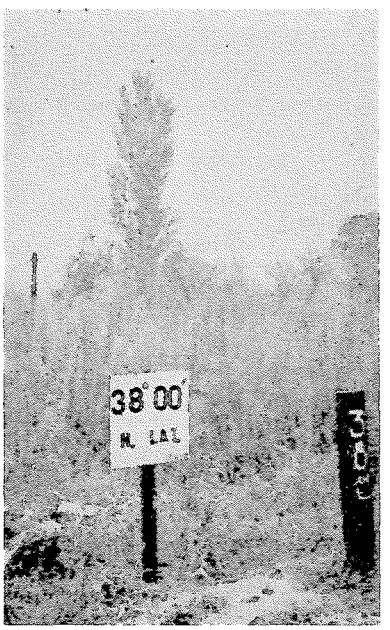
# 함양 순직경찰위령비

- 위　치 : 慶尙南道 咸陽郡 咸陽邑 운림리 46-2
- 1948년 12월 智異山과 德裕山 일대를 근거로 하는 공비들이 마천면 등에서 良民虐殺, 放火 및 掠奪을 자행함에 따라 咸陽경찰서는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장렬히 戰死한 경감 金錫七 외 11위 영령의 護國精神을 기리기 위해 1949년 10월 함양경찰서장이 위령비를 건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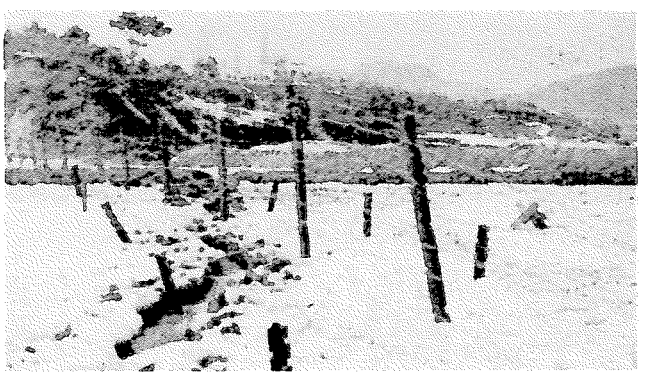
# 故 지용호 봉화경찰서장 동상

- 위　치 : 慶尙北道 奉化郡 鳳城面 봉양리 산 60
- 1949년 12월 19일 봉화경찰서 재산지서가 武裝共匪에 의해 기습 점거되었다는 急報를 받고 직원 50여명을 인솔 출동하던 故 池龍浩 서장은 200여명의 공비들로부터 奇襲攻擊을 받아 직원 7명과 같이 장렬히 戰死하여 1994년 6월 24일 봉화경찰서에서 그 넋을 추모하기 위해 동상을 건립하였다.

解放의 感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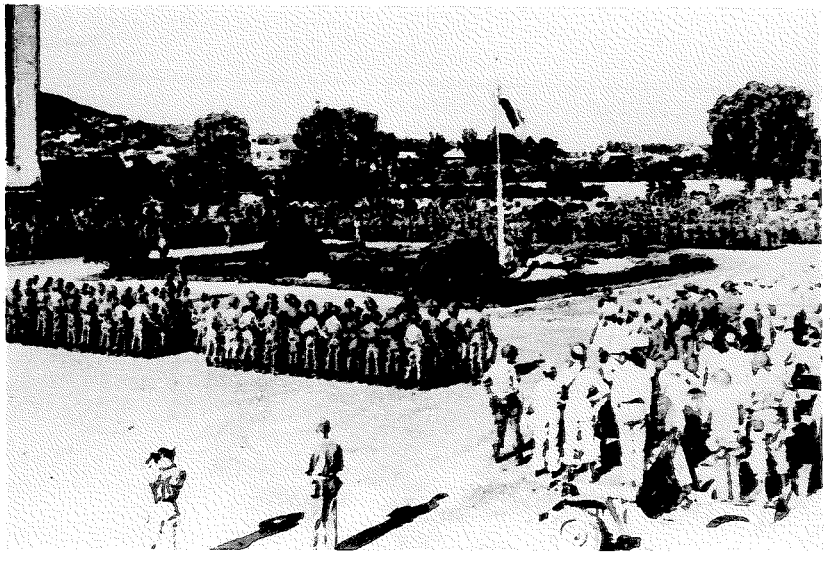



38도선으로 分斷된 國土



38도선을 따라 설치된 철조망

【자료 : 한국전쟁사 구판 1권, 1968, pp. 2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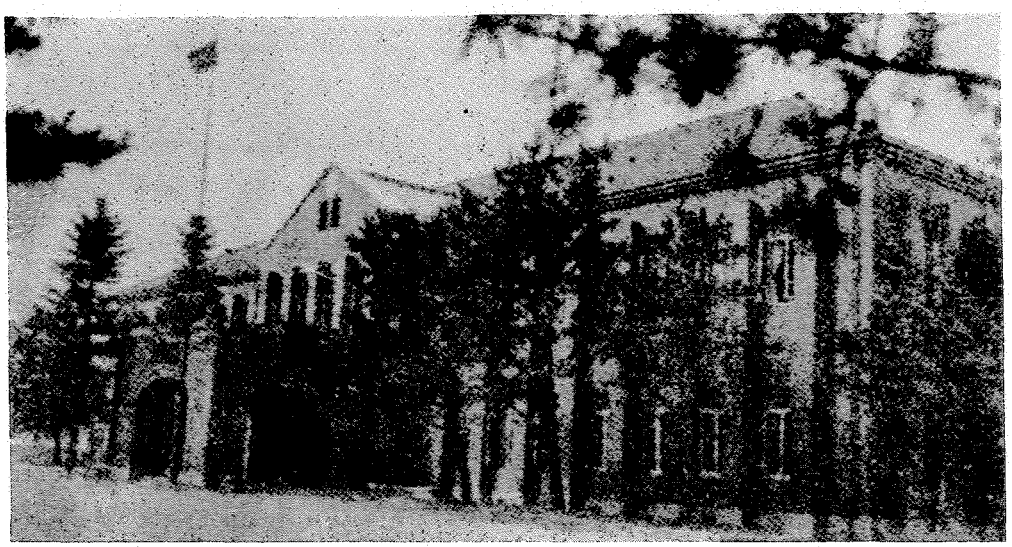
光復後 서울에 들어온 미군(1945. 9. 9)

北韓에 共產政權을 수립하려는 야욕을 품고 平壤에 진주한 소련군(1945. 8. 26)

【자료 : 한국전쟁의 실상, 전쟁기념사업회, 1997, p. 10】

軍事英語學校(구, 감리교 신학교)

【자료 : 국방사 1, 국방부 전편위, 1984, p. 212】



南朝鮮 國防警備隊 總司令部(2층)와 國防警備隊 第1聯隊本部(1층)
(현, 陸軍士官學校 구 본관)

【자료 : 국방사 1, 국방부 전편위, 1984, p. 189】

# 麗水·順天地區 戒嚴令 宣布文

《戒嚴令 宣布文》

本官에게 賦與된 權限에 依하여 10月 22日부터 別名時까지 下記와 같이 戒嚴令을 宣布함(萬一 此에 違反하는 者는 軍法에 依하여 死刑 其他에 處함)

1. 午後 7時부터 翌朝 7時까지 一切 運行을 禁함(運行證을 所持한 者는 此限에 不在함)
2. 屋內外의 一切 集會를 禁함
3. 流言蜚語를 造出하여 民衆을 煽動하는 者는 嚴罰에 處함
4. 叛徒의 所在를 알時 本旅團司令部에 報告할 것. 萬一 叛徒를 隱匿하거나 叛徒와 密通하는 者는 死刑에 處함
5. 叛徒의 武器 其他 一切 軍需品은 本司令部에 返納할 것. 萬一 隱匿하거나 秘藏하는 者는 死刑에 處함

1948年 10月 22日

大統領 李承晩

자료 :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 p. 207.

麗水·順天반란사건시 평정된 시가지에서 태극기를 총에 매달고
경계임무중인 진압군(1948. 11. 15)

【자료 : 한국전쟁의 실상, 전쟁기념사업회, 1997, pp. 12~13】

麗水·順天반란사건으로 폐허가 된 麗水시가지

【자료 : 국방사 1, 국방부 전편위, 1984, p. 432】

智異山地區 전투사령관 丁一權 준장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남원)사령관 정일권 준장과 지휘관 및 참모들
(전열좌 咸俊鎬 중령, 丁一權 준장, 李極星 대위, 朴鍾珉 소령,
2열좌 韓雄震 소령, 작업복 차림의 작전참모 孔國鎭 소령)

【자료 : 한국전쟁사 구판 1권, 국방부 전편위, 1968, p. 429, 434】

# 일 러 두 기

## 1. 收錄範圍

이 공훈록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부터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국권과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전하기 위해 각종 군사작전에서 전사(戰死)하신 1천여명(김숙봉~류지열)을 수록하였다.

## 2. 收錄內容 및 記述方法

가. 수록인물은 위국헌신한 군·경 전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물 배열은 군별, 계급별, 전사일자 등에 관계없이 성명별 가·나·다 순으로 하였다.

나. 제 I 부 내용에 8·15광복이후 남조선국방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계급제도(階級制度)와 복식제도(服飾制度) 등을 수록함으로써, 군(軍)의 태동(胎動)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객관성이 인정되는 주요 인용문헌을 제시하여 자료의 출처를 밝혔으며,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성명의 한자 및 군번, 생년월일, 출신지, 소속부대, 전사일자 및 전사장소 등 공훈록에 포함될 모든 내용 중 불확실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가 없는 사항은 생략하였다.

마. 개별 공훈록

(1) 전치란(前置欄)

전치란은 표제인명, 군별, 계급, 군번(경찰 제외) 순으로 기술(記述)하였다.

(2) 표제인명(表題人名)

인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倂記)하였으며, 전사자명부에 기록된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3) 본　　문(本文)

(가) 기재(記載) 내용은 생년월일, 출신지, 소속부대 등과 참가전투 및 공적사항, 전사일자, 전사장소, 무공훈장 수훈사항, 안장처 및 안장번호, 위패번호, 기타내용 등 각종 자료에 의거하여 확인된 내용만을 기술(記述)하였다.

(나) 전사하신 분들의 개인별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자료가 대부분 없는 실정이므로 소속부대별(사단, 연대, 기타)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기술하였으나, 개인별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는 개인별 내용을 기술하였다.

(다) 참전사실 및 공적사항의 기재방법은 연대(年代)와 일자순(日字順)으로 개인 및 소속부대의 주요 활동내용을 전사일까지 서술(敍述)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의 활동배경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라) 연대(年代)는 모두 서기(西紀)로 표기(表記)하였으며, 불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마) 계급, 관직명 및 지명 등은 자료에 기록된 내용이나 또는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재명을 사용하였다.

(바) 한자표기(漢字表記)는 인명, 지명 및 혼동하기 쉬운 단어에만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 본문의 내용은 6하원칙(六何原則)에 의하여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3. 補完增刊

전사자 개인의 참전 및 공적(공훈)내용이 새로 발견되거나 본 공훈록에 잘못 수록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앞으로 『護國戰歿勇士功勳錄』을 보완, 증간시 반영할 예정이다.

### * 參考事項

본 공훈록의 연구 편찬에 필요한 사진 및 각종 자료를 소장(所藏)하고 계신 분은 국방부로 우송 또는 전화 연락요망.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국방군사연구소 선양사업단

○ 전 화 : (02)709－3008 / 3151 / 3194
ＦＡＸ : (02)709－3111

# 目　　次

序　　文
發 刊 辭
畫　　報
顯 忠 詩
일러두기

第 I 部　南朝鮮國防警備隊의 創設과 發展 …… 1
1. 美 軍政廳의 國防司令部 設置 …… 3
2. 南朝鮮國防警備隊의 創設 …… 6
3. 南朝鮮國防警備隊의 發展 …… 11
4. 階級制度 및 服飾制度 …… 23

第 II 部　護國戰歿勇士功勳錄 …… 37

主要 引用文獻資料 …… 642

# 人名 찾아보기


김숙봉(金淑奉) ····· 39
김순곤(金順坤) ····· 39
김순권(金順權) ····· 40
김순대(金順大) ····· 40
김순덕(金順德) ····· 41
김순만(金淳萬) ····· 42
김순명(金順明) ····· 42
김순복(金淳福) ····· 43
김순상(金順祥) ····· 43
김순실(金順實) ····· 44
김순영(金順影) ····· 44
김순영(金順榮) ····· 45
김순영(金順永) ····· 46
김순옥 ····· 46
김순용(金順龍) ····· 47
김순제(金淳濟) ····· 47
김순조(金順祚) ····· 48
김순철(金順徹) ····· 48
김순칠(金順七) ····· 49
김순학(金順學) ····· 49
김순한(金順漢) ····· 50
김승규(金昇圭) ····· 50
김승래(金升來) ····· 51
김승록(金乘錄) ····· 52
김승림(金承林) ····· 52
김승만(金承萬) ····· 53
김승은(金承銀) ····· 53
김승초(金承初) ····· 54
김승하(金承河) ····· 55
김승희(金承熙) ····· 55
김시관(金時寬) ····· 56
김시명(金是明) ····· 56
김시명(金時明) ····· 57
김시연(金時淵) ····· 58
김시태(金侍泰) ····· 58
김시택(金始澤) ····· 59
김시환(金是煥) ····· 59
김신곤(金信坤) ····· 60
김신동(金辛東) ····· 60
김신동 ····· 61
김신희(金信喜) ····· 61
김안중(金安中) ····· 62
김양기(金陽起) ····· 62
김양만(金陽萬) ····· 63
김양탁(金良鐸) ····· 64
김양형(金良形) ····· 64
김업동(金業東) ····· 65
김여국(金呂國) ····· 65
김여성 ····· 66
김 연 ····· 66
김연규(金演圭) ····· 67
김연길(金連吉) ····· 68
김연두(金連斗) ····· 68
김연석(金淵錫) ····· 69
김연순(金鉛淳) ····· 69
김연한(金延漢) ····· 70
김영겸(金英謙) ····· 70
김영경(金榮經) ····· 71
김영구(金永九) ····· 72
김영규(金永圭) ····· 72
김영규(金永奎) ····· 73
김영규(金榮圭) ····· 73
김영근(金永根) ····· 74
김영근(金永根) ····· 74
김영금(金永今) ····· 75
김영기(金令起) ····· 75
김영기(金永基) ····· 76
김영기(金永基) ····· 77
김영길(金榮吉) ····· 77
김영길(金榮吉) ····· 78
김영남(金永男) ····· 78
김영달(金永達) ····· 79
김영도(金榮道) ····· 79
김영돈(金永敦) ····· 80
김영동(金榮東) ····· 80
김영락(金榮洛) ····· 81
김영래(金榮來) ····· 81
김영래(金瑛來) ····· 82
김영록(金永錄) ····· 83
김영록(金永錄) ····· 84
김영만(金永萬) ····· 84
김영만(金永滿) ····· 85
김영만(金榮萬) ····· 85
김영목(金永睦) ····· 86
김영목(金永穆) ····· 86
김영민(金永珉) ····· 87
김영배(金英培) ····· 88
김영복(金泳福) ····· 88
김영봉(金永奉) ····· 89
김영삼(金永三) ····· 90
김영석(金永錫) ····· 90
김영석(金英錫) ····· 91
김영선(金永先) ····· 91
김영수(金榮洙) ····· 92
김영수(金榮洙) ····· 93
김영수(金永洙) ····· 93
김영수(金英洙) ····· 94
김영수(金榮秀) ····· 94
김영수(金永秀) ····· 95

김영수(金永守) …… 96
김영수(金榮守) …… 96
김영순(金永淳) …… 97
김영술(金永戌) …… 97
김영식(金榮植) …… 98
김영식(金榮植) …… 99
김영식(金永植) …… 99
김영식(金永植) …… 100
김영식(金永植) …… 100
김영식(金永植) …… 101
김영식(金永植) …… 101
김영안(金永安) …… 102
김영안(金永安) …… 102
김영연(金永年) …… 103
김영열(金永烈) …… 104
김영옥(金永玉) …… 104
김영욱(金永旭) …… 105
김영욱(金永郁) …… 105
김영원(金永元) …… 106
김영을(金永乙) …… 106
김영조(金英祚) …… 107
김영주(金永柱) …… 107
김영주(金永周) …… 108
김영주 …… 108
김영진(金永珍) …… 109
김영진(金永振) …… 109
김영진(金永鎭) …… 110
김영진(金永鎭) …… 110
김영차랑(金英次浪) … 111
김영창(金永昌) …… 111
김영철(金永喆) …… 112
김영출(金永出) …… 112
김영출(金榮出) …… 113
김영태(金永泰) …… 113
김영태(金榮泰) …… 114
김영태(金永太) …… 114
김영택(金泳澤) …… 115
김영팔(金永八) …… 116
김영하(金永夏) …… 116
김영한(金榮瀚) …… 117
김영향(金寧鄕) …… 117
김영현(金永鉉) …… 118
김영호(金永浩) …… 118
김영화(金泳和) …… 119
김영환(金永煥) …… 119
김영환(金永煥) …… 120
김영환(金永煥) …… 120
김영환(金永煥) …… 121
김영환(金英煥) …… 122
김예식(金藝植) …… 122
김예식(金藝植) …… 123
김오동(金五東) …… 123
김오봉(金悟鳳) …… 124
김옥두(金玉斗) …… 124
김옥배(金玉培) …… 125
김옥성(金玉星) …… 126
김옥술(金玉述) …… 126
김옥암(金玉岩) …… 127
김옥현(金玉鉉) …… 127
김완기(金完基) …… 128
김완기(金完基) …… 128
김완수(金完洙) …… 129
김완식(金完植) …… 129
김완식(金完植) …… 130
김왕수(金旺洙) …… 131
김외곤 …… 131
김욕선(金欲善) …… 132
김욕진(金慾振) …… 132
김용각(金龍珏) …… 133
김용걸(金容杰) …… 133
김용구(金龍九) …… 134
김용권(金容權) …… 134
김용규(金龍圭) …… 135
김용균(金容均) …… 135
김용근(金龍根) …… 136
김용근(金容根) …… 136
김용기(金容基) …… 137
김용기(金龍基) …… 137
김용길(金勇吉) …… 138
김용대 …… 139
김용덕(金容德) …… 139
김용덕(金容德) …… 140
김용도(金容道) …… 140
김용득(金龍得) …… 141
김용락(金容烙) …… 141
김용래(金容來) …… 142
김용만(金龍萬) …… 143
김용만(金龍萬) …… 143
김용문(金龍文) …… 144
김용본(金龍本) …… 144
김용석(金容錫) …… 145
김용선(金龍善) …… 145
김용섭(金龍燮) …… 146
김용성(金溶成) …… 147
김용수 …… 147
김용수(金龍守) …… 148
김용수(金龍水) …… 148
김용수(金龍洙) …… 149
김용순 …… 149
김용술(金龍述) …… 150
김용식(金容植) …… 151
김용식(金用植) …… 151
김용아(金容兒) …… 152
김용안(金龍安) …… 153
김용암(金龍岩) …… 153
김용연(金容連) …… 154
김용옥(金用玉) …… 154
김용운(金龍雲) …… 155
김용익(金容翼) …… 155
김용익(金容翼) …… 156
김용인(金龍寅) …… 156
김용재(金容再) …… 157
김용재(金龍載) …… 158
김용재(金龍載) …… 158

김용조(金龍祚) …… 159
김용준(金容俊) …… 159
김용진(金容眞) …… 160
김용채(金容綵) …… 161
김용철(金容哲) …… 161
김용출(金龍出) …… 162
김용태(金容泰) …… 162
김용하(金容夏) …… 163
김용현(金容鉉) …… 163
김용현(金龍炫) …… 164
김용호(金容浩) …… 165
김용호(金用鎬) …… 165
김용호(金龍浩) …… 166
김용화(金龍華) …… 166
김용환(金容煥) …… 167
김용효(金龍孝) …… 167
김용흡(金龍洽) …… 168
김용희(金龍熙) …… 168
김우곤(金遇坤) …… 169
김우룡(金佑龍) …… 169
김우배(金禹培) …… 170
김우백(金祐白) …… 170
김우석(金宇錫) …… 171
김우섭(金雨燮) …… 172
김우영(金祐永) …… 172
김우원 …… 173
김우윤(金遇允) …… 173
김우희(金祐熙) …… 174
김운갑(金○甲) …… 174
김운재(金雲在) …… 175
김운종(金運鍾) …… 176
김웅백(金熊伯) …… 176
김웅천(金雄天) …… 177
김원규(金元奎) …… 177
김원달(金元達) …… 178
김원덕(金元德) …… 178
김원동(金苑東) …… 179
김원록(金元錄) …… 179
김원모(金元模) …… 180
김원배(金元培) …… 181
김원봉(金源鳳) …… 181
김원석(金元錫) …… 182
김원순(金元淳) …… 182
김원용(金元龍) …… 183
김원일(金元一) …… 183
김원재(金元載) …… 184
김원종(金元鍾) …… 184
김원진(金元鎭) …… 185
김원태(金源泰) …… 185
김원한(金園漢) …… 186
김원홍(金元弘) …… 186
김원희(金元熙) …… 187
김월성(金月星) …… 187
김유복(金有福) …… 188
김유석(金有石) …… 189
김유영(金裕榮) …… 189
김유태(金裕泰) …… 190
김유한(金有漢) …… 190
김유현(金裕顯) …… 191
김윤곤(金潤昆) …… 191
김윤규(金潤圭) …… 192
김윤규(金潤圭) …… 192
김윤난(金潤蘭) …… 193
김윤배(金允培) …… 194
김윤천(金潤天) …… 194
김윤철(金潤哲) …… 195
김윤홍(金允洪) …… 195
김윤환(金允煥) …… 196
김은석(金銀石) …… 196
김은수(金恩洙) …… 197
김은수(金銀水) …… 197
김은영(金殷永) …… 198
김은조(金殷祚) …… 198
김을술(金乙述) …… 199
김을호(金乙鎬) …… 200
김응구(金應九) …… 200
김응규(金應奎) …… 201
김응규(金應圭) …… 201
김응규(金應奎) …… 202
김응규(金應奎) …… 202
김응배(金應培) …… 203
김응식(金應植) …… 203
김응룡(金應龍) …… 204
김응일(金應鎰) …… 204
김응철(金應哲) …… 205
김의생(金義生) …… 205
김의천(金義天) …… 206
김이갑(金二甲) …… 206
김이갑(金二甲) …… 207
김이곤(金理坤) …… 207
김이식(金二植) …… 208
김이영(金利永) …… 208
김이용(金利龍) …… 209
김이천(金理川) …… 210
김익권(金益權) …… 210
김익규(金益圭) …… 211
김익동(金翼東) …… 211
김익두(金益斗) …… 212
김익수(金益洙) …… 212
김익영(金翼泳) …… 213
김익정(金益正) …… 214
김익철(金益喆) …… 214
김익화(金益化) …… 215
김인각(金仁珏) …… 215
김인규(金仁奎) …… 216
김인규(金仁奎) …… 216
김인랑(金仁○) …… 217
김인배(金仁培) …… 217
김인복(金仁福) …… 218
김인석(金仁石) …… 218
김인석(金仁錫) …… 219
김인선(金仁先) …… 219
김인섭(金仁燮) …… 220
김인섭(金仁燮) …… 221

김인섭(金仁燮) …… 221
김인섭(金仁燮) …… 222
김인수(金仁守) …… 222
김인수(金仁守) …… 223
김인수(金仁洙) …… 223
김인수(金寅洙) …… 224
김인식(金仁植) …… 225
김인식(金仁植) …… 225
김인영(金寅英) …… 226
김인옥(金仁玉) …… 226
김인제(金仁濟) …… 227
김인채(金仁采) …… 228
김인철(金仁喆) …… 228
김인태(金仁泰) …… 229
김인하(金仁河) …… 229
김인호(金絪鎬) …… 230
김인환(金仁換) …… 230
김인후(金仁厚) …… 231
김일규(金日圭) …… 231
김일동(金日東) …… 232
김일만(金一萬) …… 232
김일배(金一培) …… 233
김일상(金一祥) …… 234
김일수(金一洙) …… 234
김일수(金日洙) …… 235
김일연(金日煙) …… 235
김일영(金日永) …… 236
김일영(金日永) …… 237
김일용(金逸龍) …… 237
김일종(金一宗) …… 238
김일호(金一浩) …… 238
김장곤(金壯坤) …… 239
김장길(金障吉) …… 239
김장배(金長培) …… 240
김장복(金長福) …… 240
김장석(金長石) …… 241
김장숙(金長淑) …… 241
김장옥(金長玉) …… 242
김장용 …… 242
김장하(金章河) …… 243
김장한(金張漢) …… 244
김장호(金長鎬) …… 244
김장환(金張煥) …… 245
김재군(金在群) …… 245
김재균(金在均) …… 246
김재균(金在均) …… 246
김재근(金在根) …… 247
김재남(金在南) …… 247
김재두(金在斗) …… 248
김재득(金再得) …… 248
김재만(金在萬) …… 249
김재문(金在文) …… 249
김재민(金在民) …… 250
김재복(金在卜) …… 251
김재복(金在福) …… 251
김재봉(金在鳳) …… 252
김재성(金在成) …… 252
김재수(金在壽) …… 253
김재수(金在守) …… 253
김재수(金在洙) …… 254
김재수(金在洙) …… 254
김재수(金在洙) …… 255
김재수(金在洙) …… 256
김재수(金在洙) …… 256
김재식(金在植) …… 257
김재열(金在烈) …… 257
김재영(金再榮) …… 258
김재영(金在榮) …… 259
김재영(金在永) …… 259
김재영(金在永) …… 260
김재용(金在龍) …… 260
김재용(金載瑢) …… 261
김재원(金在源) …… 261
김재정(金在正) …… 262
김재주(金宰柱) …… 262
김재준(金在俊) …… 263
김재창(金在昌) …… 264
김재천(金在天) …… 264
김재철(金在喆) …… 265
김재풍(金在豊) …… 265
김재학(金在學) …… 266
김재헌(金在憲) …… 266
김재헌(金在憲) …… 267
김재협(金在協) …… 267
김재화(金在華) …… 268
김재환(金在煥) …… 269
김재환(金在煥) …… 269
김재희 …… 270
김재희(金在喜) …… 270
김적산(金積山) …… 271
김점동(金占同) …… 271
김점석(金点石) …… 272
김점식(金點植) …… 272
김점식(金點植) …… 273
김점용(金點龍) …… 274
김점준(金點俊) …… 274
김정곤(金正坤) …… 275
김정곤(金貞坤) …… 275
김정권(金正權) …… 276
김정규(金偵圭) …… 276
김정규(金正奎) …… 277
김정기(金定基) …… 277
김정기(金正淇) …… 278
김정길(金正吉) …… 279
김정남(金正男) …… 279
김정로(金正魯) …… 280
김정덕(金正德) …… 280
김정래(金正來) …… 281
김정립(金正立) …… 281
김정배(金正培) …… 282
김정석(金正錫) …… 283
김정수(金定洙) …… 283
김정수(金正守) …… 284
김정수(金正守) …… 284

김정수(金正洙) …… 285
김정수(金正洙) …… 285
김정순(金正淳) …… 286
김정순(金貞淳) …… 286
김정식(金正植) …… 287
김정식(金貞植) …… 287
김정실(金珽實) …… 288
김정오(金正午) …… 288
김정옥(金正玉) …… 289
김정완 …… 289
김정웅(金政雄) …… 290
김정윤(金正潤) …… 291
김정의(金正義) …… 291
김정중(金正中) …… 292
김정진(金正鎭) …… 292
김정출(金正出) …… 293
김정필(金楨弼) …… 293
김정학(金正學) …… 294
김정협(金正協) …… 295
김정호(金正浩) …… 295
김정화(金正化) …… 296
김정환(金正煥) …… 296
김정효(金正孝) …… 297
김정희(金正熙) …… 297
김제경(金濟京) …… 298
김제규(金濟圭) …… 298
김제동(金濟東) …… 299
김종권(金鐘權) …… 300
김종규(金鐘圭) …… 300
김종규(金鐘圭) …… 301
김종근(金鐘根) …… 301
김종근(金鐘根) …… 302
김종근(金鐘根) …… 302
김종근(金鐘根) …… 303
김종기(金鐘基) …… 303
김종길(金鐘吉) …… 304
김종낙(金鐘樂) …… 304
김종대(金鐘大) …… 305
김종덕(金鐘德) …… 305
김종록 …… 306
김종묵(金鐘默) …… 306
김종배(金鐘培) …… 307
김종배(金鐘倍) …… 308
김종범(金鐘範) …… 308
김종봉(金鐘鳳) …… 309
김종상(金鐘祥) …… 309
김종서(金宗瑞) …… 310
김종석(金鐘石) …… 311
김종석(金鐘錫) …… 311
김종선(金鐘鮮) …… 312
김종섭(金鐘涉) …… 312
김종성(金鐘成) …… 313
김종성(金鐘聲) …… 314
김종성(金鍾聲) …… 314
김종수 …… 315
김종수(金宗洙) …… 315
김종수(金鍾壽) …… 316
김종수(金鍾洙) …… 316
김종식(金琮植) …… 317
김종식(金鍾植) …… 317
김종식(金鍾植) …… 318
김종식(金鍾植) …… 318
김종식(金鍾植) …… 319
김종식(金鍾植) …… 320
김종오(金鍾吾) …… 320
김종옥(金鍾玉) …… 321
김종완 …… 321
김종완(金鍾完) …… 322
김종요(金鍾要) …… 322
김종우(金鍾友) …… 323
김종우(金鍾友) …… 324
김종욱(金鍾旭) …… 324
김종욱(金鍾旭) …… 325
김종원(金鍾元) …… 325
김종은(金鍾殷) …… 326
김종의(金鍾義) …… 327
김종일(金鍾日) …… 327
김종정(金鍾井) …… 328
김종조(金鍾祚) …… 328
김종직(金鍾直) …… 329
김종진(金鍾振) …… 329
김종진(金鍾璡) …… 330
김종천(金鍾千) …… 330
김종철(金鍾喆) …… 331
김종철(金鍾鐵) …… 332
김종치(金宗治) …… 332
김종태(金鍾太) …… 333
김종태(金鍾泰) …… 333
김종하(金鍾河) …… 334
김종학(金鍾鶴) …… 335
김종해(金鍾海) …… 335
김종현(金鍾玄) …… 336
김종현(金鍾賢) …… 337
김종호(金鍾皓) …… 337
김종호(金鍾浩) …… 338
김종호(金鍾浩) …… 338
김종호(金鍾浩) …… 339
김종호(金鍾浩) …… 339
김종호(金鍾浩) …… 340
김종호(金鍾鎬) …… 341
김종호(金鍾鎬) …… 341
김종환(金鍾煥) …… 342
김종환(金鍾煥) …… 342
김종환(金鍾煥) …… 343
김종효(金鍾孝) …… 343
김종후(金鍾厚) …… 344
김종훈(金鍾勳) …… 345
김주곤(金注坤) …… 346
김주덕(金周德) …… 346
김주락 …… 347
김주봉(金珠鳳) …… 348
김주선(金周善) …… 348
김주성(金周星) …… 349
김주수(金柱洙) …… 349

김주영(金周榮) …… 350
김주영(金周永) …… 350
김주용(金柱龍) …… 351
김주철(金胄喆) …… 352
김주철(金柱喆) …… 352
김주환(金朱煥) …… 353
김준경(金俊卿) …… 354
김준권(金準權) …… 354
김준규(金俊奎) …… 355
김준규(金準奎) …… 355
김준록(金俊祿) …… 356
김준배(金俊培) …… 357
김준섭(金俊燮) …… 357
김준섭(金俊燮) …… 358
김준수(金俊洙) …… 358
김준식(金俊植) …… 359
김준영(金俊榮) …… 360
김준의(金俊依) …… 360
김준현(金俊鉉) …… 361
김준현(金俊鉉) …… 361
김준호(金俊浩) …… 362
김준환(金俊煥) …… 363
김준환(金俊煥) …… 363
김중곤(金重坤) …… 364
김중공(金衆孔) …… 364
김중근 …… 365
김중섭(金仲燮) …… 366
김중용(金重龍) …… 366
김중인(金仲仁) …… 367
김중환(金仲煥) …… 367
김중환(金重煥) …… 368
김지규(金知圭) …… 368
김지순(金止○) …… 369
김지영(金知永) …… 370
김지옥(金智玉) …… 370
김지우(金知佑) …… 371
김지원(金支源) …… 371
김지현(金志鉉) …… 372
김진갑(金鎭甲) …… 373
김진광(金鎭光) …… 373
김진구(金振求) …… 374
김진구(金振龜) …… 374
김진근(金鎭瑾) …… 375
김진길(金鎭吉) …… 376
김진달(金鎭達) …… 376
김진만(金鎭萬) …… 377
김진명(金眞明) …… 377
김진방(金振邦) …… 378
김진배(金辰培) …… 378
김진범(金鎭範) …… 379
김진벽(金振壁) …… 380
김진상(金鎭尙) …… 380
김진섭(金鎭燮) …… 381
김진섭(金陳燮) …… 381
김진수(金振洙) …… 382
김진수(金振洙) …… 383
김진수(金振洙) …… 383
김진수(金鎭洙) …… 384
김진수(金鎭洙) …… 384
김진실(金進實) …… 385
김진열(金鎭烈) …… 385
김진오(金鎭五) …… 386
김진용(金鎭龍) …… 386
김진우(金珍祐) …… 387
김진우(金鎭宇) …… 388
김진욱(金振旭) …… 388
김진원(金鎭原) …… 389
김진원(金鎭遠) …… 389
김진천(金鎭川) …… 389
김진태(金鎭泰) …… 390
김진택(金鎭澤) …… 391
김진학(金振學) …… 391
김진해(金鎭海) …… 392
김진호(金津湖) …… 392
김진호(金珍昊) …… 393
김진호(金鎭浩) …… 393
김진홍(金振弘) …… 394
김진화(金珍華) …… 394
김진황(金珍黃) …… 395
김진황(金振黃) …… 395
김진후(金鎭厚) …… 396
김진훈(金鎭勳) …… 396
김차수(金且洙) …… 397
김착술(金搾述) …… 397
김찬성(金燦星) …… 398
김찬옥(金贊玉) …… 399
김찬한(金贊漢) …… 399
김찬호(金贊鎬) …… 400
김창권(金昌權) …… 400
김창규(金昌奎) …… 401
김창근(金昌根) …… 401
김창영(金昌寧) …… 402
김창동(金昌東) …… 403
김창동(金蒼東) …… 403
김창래(金昌來) …… 404
김창만(金昌萬) …… 404
김창민(金昌珉) …… 405
김창배(金昌培) …… 405
김창배(金昌培) …… 406
김창배(金昶培) …… 407
김창복(金昌福) …… 407
김창복(金昌福) …… 408
김창사(金昌舍) …… 408
김창상(金昌祥) …… 409
김창수(金昌洙) …… 410
김창순(金昌淳) …… 410
김창식 …… 411
김창식(金昌植) …… 411
김창식(金昌植) …… 412
김창옥(金昌玉) …… 412
김창옥(金昌玉) …… 413
김창용(金昌龍) …… 414
김창용(金昌龍) …… 414
김창윤(金昌潤) …… 415

김창윤(金昌潤) ····· 415
김창윤(金昌潤) ····· 416
김창일(金昌一) ····· 416
김창조(金昌祚) ····· 417
김창주(金昌周) ····· 417
김창진(金昌振) ····· 418
김창하(金昌夏) ····· 418
김창헌(金昌憲) ····· 419
김창현(金昌鉉) ····· 420
김창호(金昌鎬) ····· 420
김창호(金昌鎬) ····· 421
김창호(金昌鎬) ····· 421
김창환(金昌煥) ····· 422
김창훈(金昌勳) ····· 423
김채진(金埰珍) ····· 423
김천배(金天培) ····· 424
김천섭(金千燮) ····· 424
김천수 ····· 425
김천식(金天植) ····· 425
김천우(金千宇) ····· 426
김천호(金泉浩) ····· 426
김철규(金喆圭) ····· 427
김철기(金喆起) ····· 427
김철락(金喆洛) ····· 428
김철수(金哲洙) ····· 429
김철수(金喆守) ····· 430
김철수(金喆洙) ····· 430
김철이(金喆伊) ····· 431
김철접(金喆接) ····· 431
김철현(金喆鉉) ····· 432
김철환(金喆煥) ····· 432
김추병(金秋炳) ····· 433
김춘경(金春京) ····· 433
김춘곤(金春坤) ····· 434
김춘광(金春光) ····· 434
김춘기(金椿基) ····· 435
김춘성(金春成) ····· 436
김춘성(金春城) ····· 436
김춘식(金春植) ····· 437
김춘태(金春泰) ····· 437
김춘호(金春浩) ····· 438
김춘희(金春熙) ····· 438
김충규(金忠圭) ····· 439
김충린(金忠麟) ····· 439
김충식(金充植) ····· 440
김충인(金沖仁) ····· 441
김충현(金忠顯) ····· 441
김치곤(金致坤) ····· 442
김치만(金致萬) ····· 442
김치숙(金致淑) ····· 443
김치운(金致雲) ····· 443
김치호(金致浩) ····· 444
김칠곤(金七坤) ····· 444
김칠만(金七萬) ····· 445
김칠성(金七星) ····· 445
김태곤(金泰坤) ····· 446
김태권(金太權) ····· 446
김태권(金泰權) ····· 447
김태균(金泰均) ····· 447
김태기(金泰基) ····· 448
김태련(金泰練) ····· 448
김태백(金態伯) ····· 449
김태봉(金泰鳳) ····· 449
김태섭(金泰燮) ····· 450
김태수(金太守) ····· 450
김태수(金泰洙) ····· 451
김태수(金泰洙) ····· 452
김태순(金泰純) ····· 452
김태술(金台述) ····· 453
김태식(金台式) ····· 453
김태식(金泰植) ····· 454
김태안(金泰安) ····· 454
김태연(金泰年) ····· 455
김태영(金泰榮) ····· 456
김태영(金泰永) ····· 456
김태용(金泰用) ····· 457
김태원(金泰元) ····· 457
김태원(金泰源) ····· 458
김태인(金泰仁) ····· 458
김태인(金太仁) ····· 459
김태인(金泰仁) ····· 459
김태인(金泰仁) ····· 460
김태주(金泰住) ····· 461
김태진(金泰鎭) ····· 461
김태진(金泰震) ····· 461
김태하(金台河) ····· 462
김태형(金泰亨) ····· 462
김태호(金泰浩) ····· 463
김태화(金太和) ····· 463
김택기(金澤起) ····· 464
김택부(金澤富) ····· 464
김택이(金澤伊) ····· 465
김택주(金澤柱) ····· 466
김판기(金判基) ····· 466
김판기(金判基) ····· 467
김판동(金判童) ····· 467
김판복(金判福) ····· 468
김판술(金判述) ····· 468
김판열(金判烈) ····· 469
김판용(金判用) ····· 469
김팔예(金八禮) ····· 470
김평준(金平準) ····· 470
김포식(金抱植) ····· 471
김풍래(金豊來) ····· 471
김풍영(金豊泳) ····· 472
김필수(金弼洙) ····· 472
김필수(金必洙) ····· 473
김하달(金下達) ····· 473
김하두(金何斗) ····· 474
김하봉(金河鳳) ····· 475
김하삼(金河三) ····· 475
김하식(金夏植) ····· 475
김하식(金河植) ····· 476
김하식(金河植) ····· 477

김하현(金河顯) …… 477
김학구(金鶴九) …… 478
김학규(金學圭) …… 478
김한용(金漢容) …… 479
김한용(金漢鏞) …… 479
김한우(金韓羽) …… 480
김한원(金漢源) …… 480
김한태(金漢太) …… 481
김한태(金漢泰) …… 481
김한호(金漢鎬) …… 482
김항돈(金恒敦) …… 482
김해교(金害橋) …… 483
김해구(金海求) …… 483
김해근(金海根) …… 484
김해복(金海福) …… 484
김해성(金海成) …… 485
김해수(金海洙) …… 485
김해용(金海龍) …… 486
김해운(金海雲) …… 486
김해원(金海源) …… 487
김해진(金解振) …… 487
김해청(金海淸) …… 488
김향만(金香萬) …… 489
김헌선(金憲善) …… 489
김헌태(金憲泰) …… 490
김혁두(金赫斗) …… 490
김현기(金賢起) …… 491
김현대(金顯大) …… 491
김현상(金顯尙) …… 492
김현성(金鉉聲) …… 492
김현수(金賢洙) …… 493
김현식(金玄植) …… 494
김현식(金鉉植) …… 494
김현양(金顯良) …… 495
김현어(金賢御) …… 495
김현오(金鉉五) …… 496
김현주(金鉉洲) …… 496
김현철(金鉉哲) …… 496
김현태(金玄泰) …… 497
김현태(金玄泰) …… 498
김현호(金鉉晧) …… 498
김협술(金浹述) …… 499
김형규(金馨圭) …… 499
김형기(金亨起) …… 500
김형남(金亨南) …… 500
김형대(金炯大) …… 501
김형도(金炯道) …… 501
김형문(金炯文) …… 502
김형배(金炯培) …… 502
김형병(金炯炳) …… 503
김형봉(金炯奉) …… 503
김형석(金炯石) …… 504
김형섭(金亨燮) …… 505
김형수(金亨水) …… 505
김형수(金亨洙) …… 506
김형수(金炯洙) …… 506
김형수(金炯洙) …… 507
김형식(金亨植) …… 507
김형식(金炯植) …… 508
김형식(金炯植) …… 508
김형엽(金炯燁) …… 509
김형엽(金炯燁) …… 510
김형용(金亨龍) …… 510
김형우(金炯禹) …… 511
김형원(金亨源) …… 511
김형인(金亨仁) …… 512
김형제(金炯濟) …… 512
김형준(金亨俊) …… 513
김형진(金炯辰) …… 513
김형칠(金炯七) …… 514
김형휘(金炯輝) …… 514
김호권(金浩權) …… 515
김호권(金鎬權) …… 515
김호달(金浩達) …… 516
김호덕(金好德) …… 516
김호방(金好方) …… 517
김호석(金昊錫) …… 517
김호연(金浩連) …… 518
김호열(金鎬烈) …… 518
김호익(金昊翊) …… 519
김호준(金浩俊) …… 520
김호중(金鎬中) …… 520
김호지(金好地) …… 521
김호진(金鎬鎭) …… 521
김호진(金浩鎭) …… 522
김호택(金湖澤) …… 522
김홍곤(金洪坤) …… 523
김홍국(金洪國) …… 523
김홍국(金鴻國) …… 524
김홍규(金洪圭) …… 525
김홍기(金鴻基) …… 525
김홍대(金洪大) …… 526
김홍래(金洪來) …… 526
김홍량(金洪亮) …… 527
김홍배(金洪培) …… 527
김홍식(金洪植) …… 528
김홍식(金弘植) …… 528
김홍재(金洪再) …… 529
김홍제(金弘濟) …… 530
김홍조(金弘祚) …… 530
김홍진(金洪鎭) …… 531
김홍훈(金洪勳) …… 531
김화영(金華榮) …… 532
김환돈(金煥敦) …… 532
김황해(金黃海) …… 533
김회섭(金會燮) …… 533
김효범(金孝範) …… 534
김효태(金孝泰) …… 534
김흥달(金興達) …… 535
김흥래(金興來) …… 535
김흥수(金興洙) …… 536
김흥시(金興時) …… 536
김흥식(金興植) …… 537
김흥영(金興永) …… 537

김홍용(金興溶) …… 538
김홍용(金興龍) …… 539
김홍준(金興俊) …… 539
김홍철(金興鐵) …… 540
김희도(金喜道) …… 540
김희석(金喜錫) …… 541
김희식(金喜植) …… 541
김희열(金曦烈) …… 542
김희용(金喜龍) …… 542
김희천(金熙川) …… 543
김희철(金熙哲) …… 543
김희춘(金熙春) …… 544
나예범(羅禮範) …… 544
나종열(羅鍾烈) …… 545
남계창(南啓昌) …… 546
남궁일(南宮一) …… 546
남궁엽(南宮燁) …… 547
남궁축(南宮祝) …… 547
남궁환(南宮煥) …… 548
남규채(南奎採) …… 548
남금용(南金容) …… 549
남금용(南金溶) …… 550
남기병(南基炳) …… 550
남기성(南基成) …… 551
남기성(南基盛) …… 551
남기영(南基永) …… 552
남기엽(南基燁) …… 552
남기우(南基佑) …… 553
남기형(南基炯) …… 553
남도원(南道元) …… 554
남동암(南東岩) …… 554
남두현(南頭鉉) …… 555
남모현(南耗賢) …… 555
남문희(南文熙) …… 556
남복규(南福圭) …… 556
남상원(南相元) …… 557
남석택(南錫澤) …… 558
남성희(南聖熙) …… 558
남용문(南龍文) …… 559
남 윤(南 潤) …… 559
남응용(南應容) …… 560
남인수(南麟洙) …… 560
남일성(南一星) …… 561
남일우(南一祐) …… 561
남정혁(南延赫) …… 562
남종수(南鍾洙) …… 562
남종수(南鍾洙) …… 563
남종우 …… 563
남준규(南俊圭) …… 563
남준우(南俊佑) …… 564
남진봉(南鎭鳳) …… 565
남진희(南振熙) …… 565
남찬식(南贊植) …… 566
남창기(南昌起) …… 566
남춘우(南春祐) …… 567
남충빈(南忠彬) …… 567
남한규(南漢奎) …… 568
남현주(南現住) …… 568
노광춘(盧光春) …… 569
노기용(盧基容) …… 569
노동구(盧東九) …… 570
노동래(盧東來) …… 570
노동희(盧東熙) …… 571
노두수(盧斗洙) …… 572
노병기(盧炳基) …… 572
노병연(盧炳連) …… 573
노병천(盧炳天) …… 573
노복주(盧福住) …… 574
노상갑(盧相甲) …… 574
노성근(盧成根) …… 575
노성용(盧成容) …… 575
노성환(盧成煥) …… 576
노손석(盧孫錫) …… 576
노순만(盧順万) …… 577
노승우(盧承雨) …… 578
노안석(盧安石) …… 578
노영길(盧榮吉) …… 579
노용호(盧龍浩) …… 580
노원곡(盧元谷) …… 580
노윤환(盧允煥) …… 581
노을식(盧乙植) …… 581
노익수(盧益洙) …… 582
노인구(盧寅九) …… 582
노인수(盧仁守) …… 583
노일창(盧一昶) …… 583
노재용(盧在龍) …… 584
노재술(盧在述) …… 584
노재을 …… 585
노종환(盧鍾煥) …… 585
노종환(盧鍾歡) …… 586
노준용(盧俊龍) …… 587
노준호(盧俊鎬) …… 587
노준호(盧俊鎬) …… 588
노진용(盧鎭龍) …… 588
노찬호(盧讚鎬) …… 589
노창섭(盧昌燮) …… 589
노태운(盧胎雲) …… 590
노학문(盧學文) …… 590
노희식(盧熙植) …… 591
노희열(盧熙烈) …… 591
도달균(都達均) …… 592
도상효(都商孝) …… 593
도일조(都日祚) …… 593
도재열 …… 594
라경천(羅景千) …… 594
라긍수(羅肯洙) …… 595
라명삼(羅明三) …… 595
라명식(羅明植) …… 596
라봉의(羅鳳儀) …… 596
라삼용(羅三龍) …… 597
라상수(羅尙洙) …… 597
라상주(羅尙珠) …… 598
라석환(羅錫煥) …… 598
라승용(羅昇龍) …… 599

라영복(羅永福) …… 599
라옥돌(羅玉乭) …… 600
라완흥(羅完興) …… 600
라용덕(羅鏞德) …… 601
라재근(羅在根) …… 601
라재덕(羅在德) …… 602
라진옥(羅珍玉) …… 602
라창호(羅昌浩) …… 603
라태조(螺台祚) …… 603
라판균(羅判均) …… 604
라형수(羅馨洙) …… 604
류건우(柳建宇) …… 605
류경열(柳京烈) …… 605
류 관(柳 琯) …… 606
류광엽(柳光燁) …… 606
류광진(柳光鎭) …… 607
류귀남(柳貴南) …… 607
류규열(柳奎烈) …… 608
류근만(柳根萬) …… 608
류근술(柳根述) …… 609
류기영(柳基永) …… 610
류기욱(柳基旭) …… 610
류기창(柳基昌) …… 611
류기호(柳基浩) …… 611
류길현(柳吉鉉) …… 612
류대권(柳大權) …… 612
류덕영(柳德永) …… 613
류동열(柳東烈) …… 613
류동철(柳東哲) …… 614
류동환(柳東煥) …… 614
류동희(柳東熙) …… 615
류두석(柳斗錫) …… 616
류명수(柳明洙) …… 616
류명열 …… 617
류명우(柳明佑) …… 617
류문암(柳文岩) …… 618
류봉구(柳奉九) …… 618
류상림(柳尙林) …… 619
류상욱(柳相旭) …… 619
류석헌 …… 620
류선수(柳宣洙) …… 620
류섭남(柳燮南) …… 621
류성완(柳成○) …… 621
류수복(柳壽福) …… 622
류승철(柳乘喆) …… 623
류시규(柳時奎) …… 623
류인학(柳仁學) …… 624
류연기(柳然基) …… 624
류연식(柳淵植) …… 625
류영곤 …… 625
류영범(柳永範) …… 626
류영종(柳永鍾) …… 626
류 완(柳 玩) …… 627
류완근(柳完根) …… 627
류용남(柳龍男) …… 628
류웅열(柳雄烈) …… 628
류원갑(柳元甲) …… 629
류윤호(柳潤鎬) …… 629
류은수(柳殷洙) …… 629
류인수(柳仁秀) …… 630
류인천(柳寅千) …… 631
류일규(柳一圭) …… 632
류일혁(柳溢赫) …… 633
류장근(柳長根) …… 633
류장우(柳壯雨) …… 634
류장호(柳章鎬) …… 634
류재덕(柳在德) …… 635
류재동(柳在東) …… 635
류재수(柳在洙) …… 636
류재윤(柳載潤) …… 636
류재진(柳載珍) …… 637
류정만(柳正萬) …… 638
류제이(柳濟伊) …… 638
류종열(柳鍾烈) …… 639
류중갑(柳重甲) …… 640
류중영(柳重映) …… 640
류중탁(柳重卓) …… 641
류지열(柳趾烈) …… 641

# 第 I 部

# 南朝鮮國防警備隊의 創設과 發展

# 1. 美 軍政廳의 國防司令部 設置

8·15 광복후 한국에 대한 미 군정(軍政)의 주목적은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공안전유지(公共安全維持)에 있었다. 따라서 최초에 설치된 군정청(軍政廳)의 기구는 비정치적(非政治的), 비군사적(非軍事的)인 행정관리(行政管理)와 치안유지(治安維持)에 국한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편제(編制)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기구로 군정을 실시한 군정당국의 가장 큰 애로는 치안유지에 필요한 경찰인원의 확보가 커다란 문제였다.[1] 따라서 군정청은 9월중 경찰관 후보생을 모집하여 10월 21일 국립경찰을 창설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에 한정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38도선경비를 미군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미군과 교체하여 경비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준군사적(準軍事的) 경비요원의 양성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군정청 치안책임자인 쉬크(Lawrence E. Schik) 준장은 국가방위를 주목적으로 한 국방준비계획안(國防準備計劃案)을 수립하여 주한 미 육군사령관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건의하였다.

이 건의안에 따라 주한 미 육군사령부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준비계획안을 심의 검토하여, 우선 경비업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軍政法令) 제28호에 의하여 국방사령부(Office of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와 군무국(軍務局)을 설치하는 한편, 이미 설치되었던 경무국(警務局)을 군무국과 함께 국방사령부 예하에 두었다. 그리고 군무국에는 육군부(陸軍部)와 해군부(海軍部)를 두어 경비대가 창설됨으로써 이 기구가 곧 국군으로 발전하는 모태(母胎)가 되었다.[2]

---

1)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182.

2) 前揭書, p. 182.

국방사령부의 설치근거인 군정법령 제28호의 내용과 국방사령부의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3)]

## 駐朝鮮 美 陸軍司令部
## 美 軍政廳, 서울

法令 第28號 1945. 11. 13

**第1條** 國防司令部의 設置

朝鮮의 窮極的 獨立을 準備하고, 國際社會에서 朝鮮의 獨立과 特權을 保存하고 保護하는데 필요한 軍事力을 漸進的으로 養成하며, 社會的 混亂으로부터 國民의 權利를 保護하고 國民의 平和와 安全을 유지하는 民間警察機關을 보조하고, 宗敎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 및 財産權을 維持하며, 陸上과 海上에서 필요한 軍事力을 募集, 編成(組織), 訓練 및 裝備시키고, 國家行政體制를 向上시키는 것 등을 保障하기 위하여 美 軍政廳內에 國防司令部를 設置한다.

**第2條** 軍務局의 創設과 陸軍部, 海軍部의 設置

朝鮮政府의 軍務局을 政府次元의 局으로서 創設한다. 軍務局내에 陸軍部와 海軍部를 設置한다.

現在의 警務局과 軍務局은 國防司令部의 指揮, 監督을 받는다.

**第3條** 기타 警察 및 軍事團體 活動禁止

어떠한 個人이나 團體도 警察, 陸軍 및 海軍의 軍事活動을 遂行하기 위해 어떠한 人員을 募集하거나 訓練시키거나 編成 또는 裝備시키는 일에 종사할 수 없으며 또한 警察이나 軍의 權限에 屬하는 活動에 從事할 수 없다. 단 國防司令官이나 또는 國防司令官이 權限을 委任한 代表機關으로부터 書面 許可를 받는 경우에는 除外된다.

---

3) 前揭書, pp. 183~185. 군정법령 제28호는 創軍期 번역내용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國防軍史硏究所 高在南 선임연구원이 원문(영문)을 재번역한 것임.

**第4條** 罰　　則

이 布告令의 條項을 위반한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軍事裁判에 회부되어 그 判決에 따라 處罰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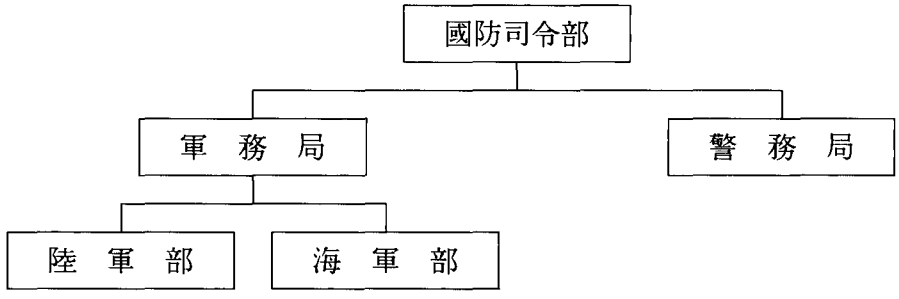
**第5條** 施行日字

이 布告令은 1945년 11월 13일 오전 0시부터 有效하다.

駐朝鮮 美 陸軍司令官 命에 의하여
朝鮮軍政長官 美 陸軍少將
A.V. ARN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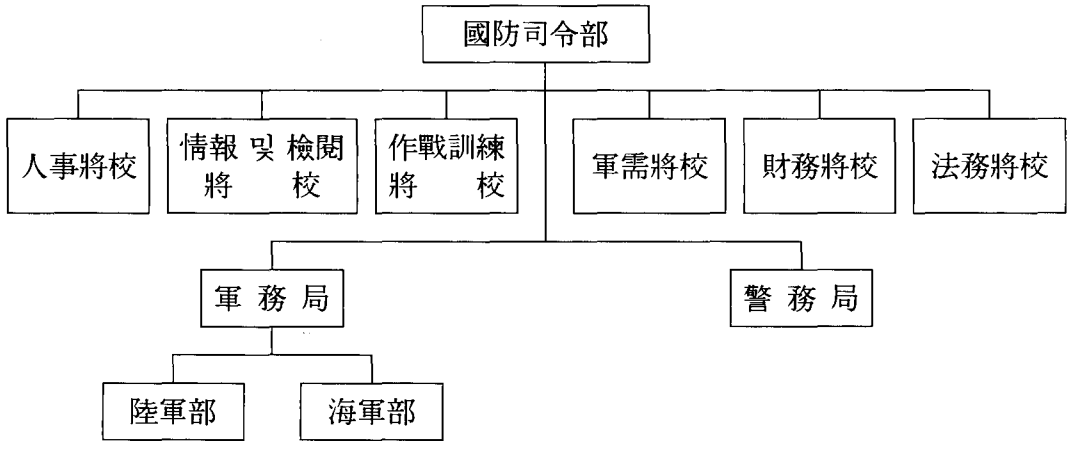
## 國防司令部 機構表

1945. 11. 13




## 國防司令部 機構表(增編)

1945. 12. 1



# 2. 南朝鮮國防警備隊의 創設

## 가. 創設背景 및 經緯

미 군정청 산하에 국방사령부를 발족시킨 주한 미 육군사령부는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측(李應俊, 元容德)이 제시한 국방조직 및 편제에 관한 안과 미국측 참모진이 제시한 계획안을 중심으로 국방준비계획(안)을 작성하여 미국정부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 건의안은 미국의 3부 합동조정위원회(SWNCC : The State War Navy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정치적 문제가 개재되기 쉽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즉, 한국을 5개년간 신탁통치한다는 모스크바결정(1945. 12. 27)에 의하여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를 한국에 설치하여 세부문제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미국정부는 "미·소공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의 국방군 창설문제는 결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4] 다만 미 점령군의 경비책임 부담을 덜기 위하여 미군의 무기로 장비한 경비대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본국의 결정을 예측한 하지 중장은 12월 20일 쉬크 준장의 후임자인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에게 "45,000명 규모의 최초 국방준비계획(안)은 실효성이 없으니 새로운 방안을 건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점령군사령관의 의도에 따라서 새로 작성한 것이 병력을 25,000명으로 축소한 필리핀식 경찰예비대의 창설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남한의 국내 치안병력의 증강을 위한 대체방안으로 "뱀부(Bamboo)계획"이라고 불리었다. 뱀부(Bamboo)계획이란 일정한 주둔지를

---

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사(제1권), 1967, pp. 260~261.

기준으로 편성된 경찰예비대의 성격을 띤 것으로서 남한 8개 도(道)에 1개 중대씩 8개 중대를 설치하되, 편성은 중화기가 없는 미군 보병중대(步兵中隊)에 준하여 장교 6명, 사병 225명으로 하며, 장교양성은 중앙에서 훈련시키며, 경찰지원 및 국가비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병력을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군측에서는 경찰예비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교 2명, 사병 4명으로 구성된 미 군사훈련단을 배치하여 부대편성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였다.[5]

각도의 중대(中隊)는 편성시 정원의 20%를 초과 편성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단기간 훈련이 끝나면 초과병력을 기준으로 제2중대를 추가 편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차 중대를 확대 편성하여 대대(大隊)수준이 되면 대대본부와 대대본부중대를 만들어 대대를 편성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시 제2, 제3대대를 편성하여 각도에 1개 연대(聯隊)규모의 국방경비대를 창설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 뱀부계획은 미 국방성에서 승인되어 1946년 1월 14일 군정청 국방사령부 군무국 관할 아래 국내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경찰예비대의 성격을 띤 국방경비대(國防警備隊)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의 정식명칭은 조선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였으나, 한국측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라 호칭하였다.[6]

한편, 창군 준비에 착수한 국방사령부는 국방군 창설에 앞서 언어의 소통과 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군사영어학교(Military Language School)를 설치하였다.

---

5) 前揭書, p. 261.

6) 陸軍本部, 創軍前史, 1980, p. 322.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187.

## 나. 軍事英語學校의 設置 및 創軍要員의 輩出

미 군정청은 1945년 12월 5일 서울 감리교 신학교(監理敎神學校 : 西大門區 冷泉洞31番地 所在)에 군사영어학교를 개설하고, 교장에 미 육군장교인 리스(Rease) 소령을 임명하고, 부교장에는 한국인 원용덕(元容德)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교관은 미국인 3명, 한국인 3명을 기용하였다.[7]

군사영어학교의 설치목적이 최초에는 기초적인 군사영어를 교육시켜 주로 미군 지휘관의 통역관을 양성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의 입학자격을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 장교 및 준사관 중에서 중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영어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구비한 자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실력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있었다.

입교인원은 당초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 각각 20명씩을 선발 60명을 입교시킬 계획이었으나, 좌익계 사설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國軍準備隊)와 학병동맹(學兵同盟)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대하였으며, 광복군은 법통을 고집, 응시를 기피하였다.

따라서 적격자 추천을 의뢰받은 중국군 출신 조개옥(趙介玉)은 광복군 출신 2명만을 추천했고, 만주군 출신 원용덕(元容德)과 일본군 출신 이응준(李應俊)이 대부분을 추천하게 되어 균형이 유지되지 못했다.[8] 교사(校舍)는 최초 서대문 소재 감리교 신학교를 사용하였으나 1946년 2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京畿道 楊州郡 蘆海面 孔德里)에 있는 국방경비대 제1연대(현 陸士)의 막사로 이전하였다.[9]

그후 경비대 창설이 진행되자 장교 소요가 급증되어 당초계획보다 많은 인원이 입교하게 되었는데,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될 때까지 총 200명이 입교했다.

---

7) 前揭書, p. 305.

8) 韓容源, 創軍, 1894, pp. 72~73.

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한국전쟁사(제1권), 1967, pp. 260~261.

교육내용은 군사영어(軍事英語)가 주과목이었으며, 참모학(參謀學), 한국역사(韓國歷史), 자동차교육(自動車敎育), 소화기훈련(小火器訓練) 등이었으며, 임관일자는 입교이전의 군사경력과 학교에서의 교육성적에 따라 일정치는 않았지만 18회에 걸쳐 임관하였다.[10]

입교인원 200명 중 110명이 국방경비대 장교로 임관하였고, 23명은 해방병단 장교로, 20명은 경찰과 군정청 통역관으로 채용되었다.[11]

임관하지 못한 인원은 대부분 미·소의 신탁통치(信託統治)결정을 둘러싸고 반탁지지학생(反託支持學生, 주로 右翼)들과 찬탁지지학생(讚託支持學生, 주로 左翼)들 간에 대립으로 인한 퇴교자와, 재학중 장래 신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자퇴한 자들이었다.

졸업자의 계급은 우선 전원을 참위(參尉=少尉)로 임관시키고, 실력에 따라 진급을 시킨다는 원칙을 세우고 군번 1번부터 5번까지(李亨根, 蔡秉德, 劉載興, 張錫倫, 丁一權)는 정위(正尉=大尉)로 임관시키고, 중국군 참령(參領) 출신 이성가(李成佳)와 연대 창설요원으로 바로 부임한 3명(白善燁, 金白一, 崔楠根)은 부위(副尉 : 中尉)로, 부교장 원용덕(元容德)은 참령(參領 : 少領)으로, 창군 산파역을 맡았던 이응준(李應俊)은 정령(正領 : 大領)으로 임관하였다.[12]

군사영어학교는 1946년 4월 30일 해체되었으며, 임관하지 못한 인원은 곧이어 창설된 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임관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13] 임관자 인적사항은 별지 #1을 참고할 것.

---

10)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212.

11) 前揭書, pp. 212~213.

12) 韓容源, 創軍, 1984, p. 73.

1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212.

## 軍事英語學校出身 任官者 現況

| 區 分 | 卒業日字 | 人 員(名) | 備 考 |
|---|---|---|---|
| 1차 | 1946년 1월 15일 | 21 | |
| 2차 | 1월 22일 | 4 | |
| 3차 | 1월 28일 | 8 | |
| 4차 | 2월 3일 | 5 | |
| 5차 | 2월 7일 | 2 | |
| 6차 | 2월 9일 | 4 | |
| 7차 | 2월 11일 | 2 | |
| 8차 | 2월 12일 | 1 | |
| 9차 | 2월 18일 | 3 | |
| 10차 | 2월 21일 | 2 | |
| 11차 | 2월 26일 | 5 | |
| 12차 | 2월 28일 | 3 | |
| 13차 | 3월 4일 | 5 | |
| 14차 | 3월 15일 | 1 | |
| 15차 | 3월 23일 | 19 | |
| 16차 | 4월 25일 | 8 | |
| 17차 | 5월 1일 | 16 | |
| 18차 | 6월 12일 | 1 | 閉校後 追認 |
| 計 | | 110 | 海防兵團 任官者 23명은 除外됨 |

資料：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212.

# 3. 南朝鮮國防警備隊의 發展

## 가. 南朝鮮國防警備隊 總司令部 및 海防兵團本部 設置

뱀부(Bamboo)계획에 의거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제1연대 제1대대 1개 중대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京畿道 楊州郡 蘆海面 孔德里 : 현 陸士)에서 입대식(入隊式)을 거행하였다.[14]

이 중대의 창설을 효시(嚆矢)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제1연대 본부에 남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부 군무국 참모기능을 흡수하여 모병 및 인사업무를 전담하였다.

또한 미 군정당국은 1월 24일 미 육군 제24군단 예하 미 제40사단이 해체됨에 따라 위관급 장교 16명을 각도에 2명씩 중대장 요원으로 임명하였다.

1946년 1월 18일 군정법령 제42호에 의하여 교통국 해사과(交通局 海事課)의 해방병단(海防兵團)이 국방사령부로 이관되어 국방사령부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

해방병단의 창설은 군정당국이 해안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 1일 유일한 해사관계 조직체인 조선해사협회(朝鮮海事協會 : 會長 孫元一)가 군정청과 절충하여 해안경비를 위한 코스트 가드(Coast Guard)의 조직편성을 건의한데서 비롯되었다.

군정당국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945년 11월 11일에 이미 모집된 70명의 인원으로 표훈전(表勳殿, 寬勳洞 所在)에서 해방병단 결성식을 갖고, 11월 14일 경상남도 진해(鎭海, 현 海軍統制府)에 해방병단본부를 설치하였다.

따라서 해방병단은 1946년 1월 17일 진해에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를

---

14)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187.

설립하고, 1945년 12월에 이미 모집한 사관후보생의 교육훈련에 착수하였다. 또한 진해기지(鎭海基地)를 중심으로 기지확장도 계속되어 1946년 4월 15일에는 인천기지(仁川基地)를 설치하고 60명의 대원을 인천기지에 배치하였다.[15]

## 나. 國防司令部를 國防部로 改稱

1946년 3월 29일 미 군정청은 군정법령 제63호로 국방사령부 지휘감독하에 있던 경무국(警務局)을 독립된 경찰업무만 수행하도록 분리시키고, 같은 날 군정법령 제64호로 군정청 집행부서의 국(局)을 부(部)로 개정하였다.[16]

즉, 학무국(學務局)을 문교부(文敎部)로, 국방사령부를 국방부(國防部)로 개편하고, 국방사령부 산하에 있던 군무국(軍務局)을 국방부의 국으로 하였으며, 경무국(警務局)은 농무국(農務局) 등 각 국과 함께 부(部)로 승격시켰다.

이와 같이 군정청 행정기구가 국(局)에서 부(部)로 개편됨에 따라 명실상부한 정부조직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국방부의 임무와 기능은 국방사령부와 별다른 차이는 없었으나, 국방사령부가 창군업무의 준비단계였다면 국방부는 이미 편성된 부대의 증편과 장비지원업무 그리고 인사관리업무 등의 시행단계에 임하였다.

## 다. 國防部를 統衛部로 改稱

국방부가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된 것은 1946년 3월 2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남한 임시정부 문제가 토의되었을 때 소련측

15) 前揭書, pp. 188~190.

16) 前揭書, p. 190.

이 미 군정청 기구의 국방부 명칭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로 개칭하도록 한 것으로, 미 군정청은 동년 6월 15일 군정법령 제86호(1946. 6. 15)로 국방부(國防部)를 국내경비부(國內警備部 :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로 개칭하고 군무국(軍務局)을 폐지하였다.

또한 이미 설치되었던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로, 조선국방경비사령부는 조선경비사령부로 개칭되었으며, 해방병단은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국방의 뜻을 살리기 위하여 조선왕조(朝鮮王朝) 말기 군제(軍制)의 명칭인 통위영(統衛營)을 따서 통위부(統衛部)로 호칭할 것을 주장하였다.[17]

미 군정청은 통위부 산하에 조선경비국(朝鮮警備局)과 조선해안경비국(朝鮮海岸警備局)을 설치하였으며, 조선경비대는 조선경비국 관할하에 임무를 수행하고, 조선해안경비대는 조선해안경비국 관할하에 연해(沿海) 해상과 도서(島嶼)를 순찰, 경비하기 위한 해안경비대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군정법령 제86호의 내용과 통위부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18]

## 朝鮮警備隊 及 朝鮮海岸警備隊

法令 第86號

**第 1 條** 國防部 改稱, 軍務局 廢止

朝鮮政府의 國防部는 茲에 國內警備部로 改稱함.

朝鮮政府의 國內警備部 軍務局은 茲에 廢止함.

1945년 11月 13日附 法令 第28號 第2條는 茲에 廢止함.

---

1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p. 192~193.

18) 前揭書, 1984. pp. 192~194.

**第2條** 朝鮮警備隊

朝鮮警備隊가 茲에 創設되고, 1946年 1月 14日附로 國內治安을 維持하기 위하여 朝鮮政府 豫備警察隊를 準備할 目的으로 國家機關으로서 活動함.

朝鮮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3條** 朝鮮海岸警備隊

朝鮮海岸警備隊가 茲에 創設되고, 1946年 1月 14日附로 朝鮮海岸 海上의 近海岸 및 島嶼巡察을 維持하기 위한 朝鮮政府 海防兵團으로 活動함.

朝鮮海岸警備隊는 國內警備部의 朝鮮海岸警備局 管理下에 屬함.

**第4條** 朝鮮警備廳에 對한 規程

朝鮮警備廳에 대한 規程이 茲에 制定되며, 朝鮮警備廳은 언제, 어디서나 朝鮮警備隊를 管理함.

**第5條** 朝鮮海岸警備廳에 대한 規程

朝鮮海岸警備廳에 대한 規程이 茲에 制定되고 朝鮮海岸警備廳은 언제, 어디서나 朝鮮海岸警備隊를 管理함.

**第6條** 施行日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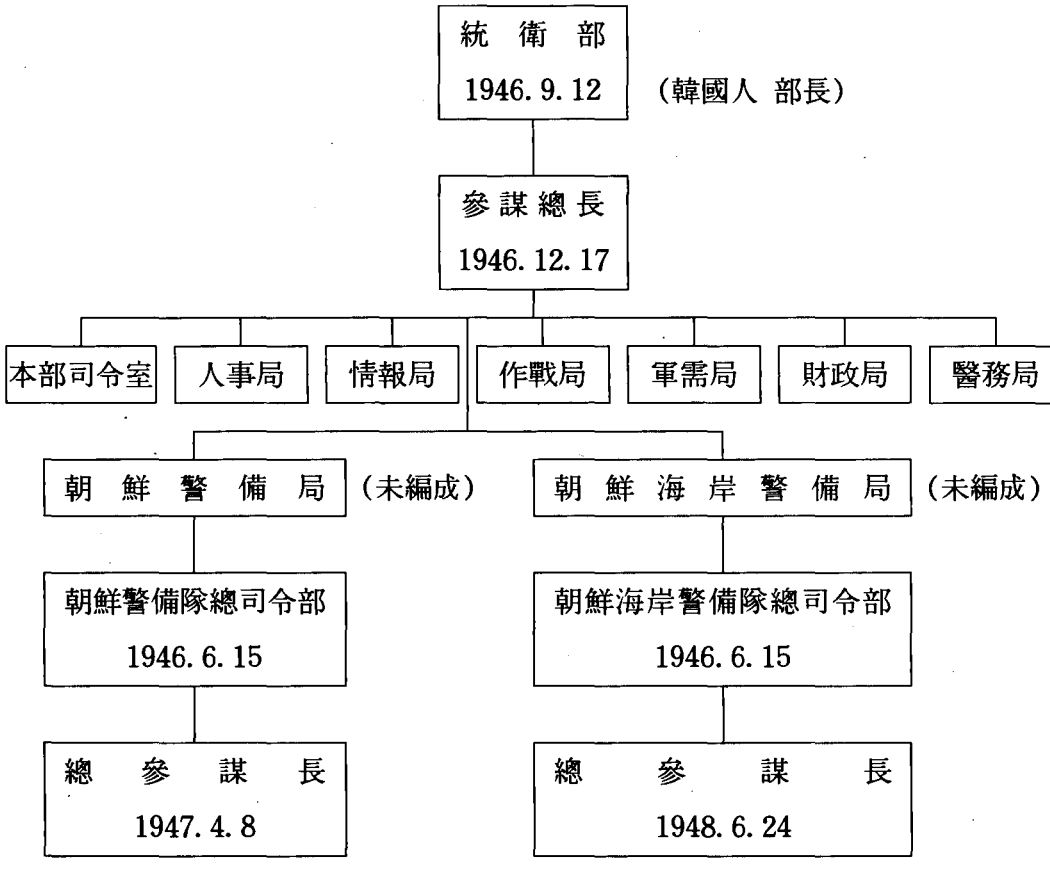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效力을 發生함.

1946年 6月 15日

朝鮮軍政長官

美 陸軍少將 ARCHER L. LERCH

## 統衛部 機構表




資料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194.

통위부는 1946년 9월 12일 종전의 미국측 통위부장(T. E. Price 대령)이 통위부 수석고문관으로 임명되고, 한국측에서 유동열(柳東悅 : 上海臨時政府 軍務部 參謀總長)이 통위부장(統衛部長)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통위부의 기구개편에 따라 참모총장제(參謀總長制)를 신설하고 이형근(李亨根) 중령이 취임하였으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조선경비대 및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하도록 함으로써 경비대는 종래의 경비임무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친 국토방위임무로 확대되었다.

또한 조선경비대 총사령부는 1947년 4월 8일 총참모장제(總參謀長制)를 신설하고, 총참모장에 김상겸(金相謙) 대령을 임명하고, 예하 각 참모부의 과(課)를 처(處)로 승격시키고, 법무처(法務處), 감찰감실(監察監室), 통신과(通信課), 군악대(軍樂隊) 등 특별참모기구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각 도에 편성된 연대를 지역별로 묶어 서울, 부산, 대전에 각각 1개 여단(旅團)을 창설하고 제10, 제11, 제12, 제13, 제14, 제15연대가 계속 창설됨에 따라 제4, 제5여단을 추가로 편성하였다.[19]

통위부는 1948년 5월 정부수립을 위한 5·10총선거를 전후하여 5만명의 병력으로 확충하기 위한 국방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끝에, 새로이 기술병과부대(技術兵科部隊)를 창설함으로써 경찰예비대가 아닌 정규군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후 주한 미 육군의 철수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조선경비대를 국토방위와 국내치안을 독자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강한다는 방침 아래 기구를 다시 개편하여 처(處)를 국(局)으로 각각 승격시켰다.

조선해안경비대도 1946년 8월 10일 인천(仁川)기지에 김포(金浦)파견대가 설치되어 김포지구에 저장되어 있는 유류(油類)의 경비임무까지도 수행하였다.

이어 목포기지(木浦基地, 8월 8일), 묵호기지(墨湖基地, 8월 22일), 군산기지(群山基地, 1947년 1월 6일), 포항기지(浦項基地, 2월 8일), 부산기지(釜山基地, 9월 24일)를 설치하고 각 기지사령관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묵호기지 소속으로 주문진파견대(注文津派遣隊, 3월 26일), 목포기지 소속으로 제주수영(濟州水營, 6월 21일), 여수수영(麗水水營, 7월 1일)을 설치함으로써 주요 해안지역의 전역을 방호할 수 있는 경비망을 갖추게 되었다.

해안경비대사령부는 9월 12일 군정당국이 행정권을 한국측에 이양하게 되자 이를 계기로 진해(鎭海)에 특설기지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년 통위

19) 前揭書, p.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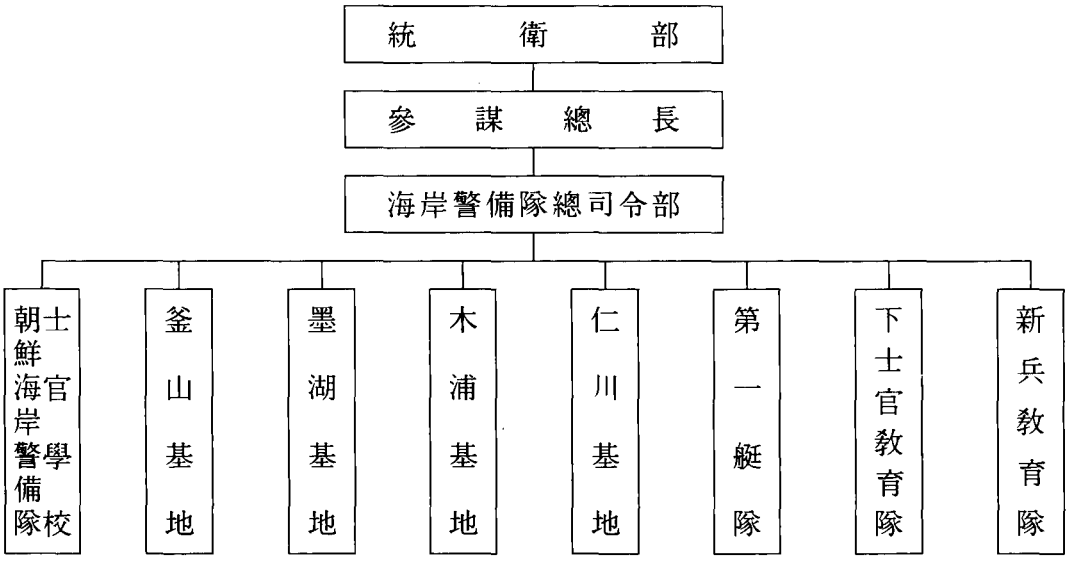
부의 기구개편을 계기로 조선해안경비대 총참모장(總參謀長)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해안경비대 병력은 정부수립 직전까지 3천명, 함정은 105척으로 증강되었다.[20]

조선해안경비대 기구표는 다음과 같다.

**朝鮮海岸警備隊 機構表**

1946. 6. 15




통위부는 1948년 5월 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 위치한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내에 직할부대인 항공기지사령부를 창설하였다.

항공부대 요원으로는 중국 국부군(國府軍) 항공군(航空軍) 출신 최용덕(崔容德)과 일본군 비행전대장 출신 김정열(金貞烈)을 비롯한 항공경력자 출신 7명이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를 거쳐 경비사관학교 특별반 교육을 받고 항공부대 창설간부로 보직되었다.

항공기지부대(部隊長 : 崔容德 中尉)는 1948년 6월 23일 통위부로부터 조

20) 前揭書, pp. 196~199.

선경비대 총사령부에 다시 예속된 다음, 항공병 모집을 실시하여 7월 12일에는 항공병 제1기생으로 77명(申原均 외)을 입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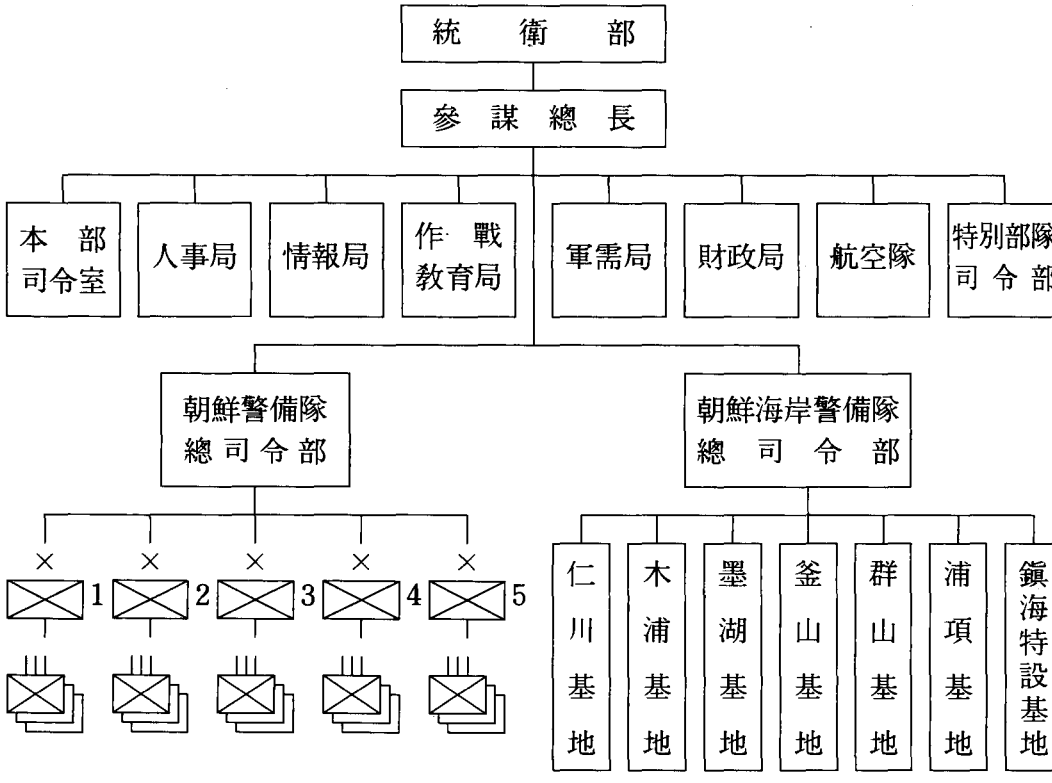
이와 함께 7월 17일 항공기지부대는 항공기지사령부로 승격되었으며, 항공기지도 수색(水色)에서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金浦郡 楊西面 松亭里)로 이동하였다.

이에 따라 통위부의 부대편성은 조선경비대의 15개 연대를 5개 여단으로 편성완료하고, 항공부대와 조선해안경비대의 7개 기지 그리고 2개 함대의 전투부대를 증편하였다.[21]

증편된 통위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統衛部 機構表**

1948. 7. 20 現在




資料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201.

21) 前揭書, p. 202.

## 라. 朝鮮警備士官學校 設置 및 警備隊 幹部養成

1946년 4월 30일 군사영어학교가 해체되자 동년 5월 1일 태릉에 국방경비사관학교(國防警備士官學校)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경비대 간부를 양성하였다.

원래 미 군정청에서는 이 학교를 사관학교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조선경비대훈련소(朝鮮警備隊訓練所, Korean Constabulary Training Center)로 창설한 것을 한국측에서는 경비사관학교(警備士官學校, 간판) 또는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校旗)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영문으로는 Officer Training School이라고 표기하였다.

조선경비사관학교 출신 장교현황은 뒤의 표와 같다.[22]

## 마. 朝鮮海岸警備隊 士官學校 設置

해안경비대(海岸警備隊)의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미 진해특설기지(鎭海特設基地)에서 시작되었다.

해안경비사관학교(海岸警備士官學校)의 전신(前身)인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는 이미 1946년 1월 17일에 설립되어 장교 양성에 임하였다가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 사관학교(朝鮮海岸警備隊 士官學校)로 개칭되었다.[23]

조선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제1기생은 1946년 2월 8일 103명이 입교하여 1947년 2월 7일 1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61명이 장교로 임관하였다.[24]

해안경비대 사관학교는 6월 1일 진해기지에서 독립부대로 발족하여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으로 개칭되었다.[25]

---

22) 韓容源, 創軍, 1984, p. 81.
23)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 213.
24) 前揭書, p. 216.
25) 前揭書, p. 216.

## 朝鮮警備士官學校 將校任官 現況

| 期 別 | | 入校者數(名) | 入 校 日 | 任 官 日 | 教育期間 | 任官者數(名) |
|---|---|---|---|---|---|---|
| 1 期 | | 88 | 1946. 5. 1 | 1946. 6. 15 | 1個月半 | 40 |
| 2 期 | | 263 | 1946. 9. 23 | 1946. 12. 14 | 3個月(－) | 196 |
| 3 期 | | 338 | 1947. 1. 13 | 1947. 4. 19 | 3個月(＋) | 296 |
| 4 期 | | 120 | 1947. 5. 16 | 1947. 9. 10 | 3個月(－) | 107 |
| 5 期 | | 420 | 1947. 10. 23 | 1948. 4. 6 | 3個月(－) | 380 |
| 6 期 | | 282 | 1948. 5. 5 | 1948. 7. 28 | 3個月(－) | 235 |
| (小計) | | (1,511) | | | | (1,254) |
| 7 期 | 正期 | 602 | 1948. 8. 9 | 1948. 11. 11 | 3個月(＋) | 561 |
| | 特別 | 246 | 1948. 8. 17～9. 13 | 1948. 10. 12 | 2個月(－) | 190 |
| | 後期 | 350 | 1948. 11. 12 | 1948. 12. 21 | 1個月(＋) | 345 |
| 8 期 | 正期 | 948<br>37<br>315 | 1948. 12. 7<br>1949. 1. 27<br>1949. 3. 19 | 1949. 5. 23 | 6個月(－) | 1,264 |
| | 特別 1 | 11 | 1948. 12. 7 | 1949. 1. 1 | 3週 | 11 |
| | 特別 2 | 160 | 1948. 12. 7 | 1949. 1. 14 | 5週 | 145 |
| | 特別 3 | 190 | 1948. 12. 7 | 1949. 3. 2 | 3個月(－) | 181 |
| | 特別 4 | 250 | 1949. 7. 15 | 1949. 3. 29<br>1949. 4. 27 | 3週<br>9週 | 148<br>99 |
| 9 期 | | 674 | 1949. 7. 15 | 1950. 1. 14 | 6個月 | 580 |
| 10 期 | | 313 | 1949. 7. 15 | 1950. 7. 10<br>1950. 7. 15 | 1年 | 134<br>50 |
| 合 計 | | 5,607 | | | | 4,962 |

資料：韓容源, 創軍, 1984, pp. 82～83.

제7기 특별(246명)부터 정부수립과 동시에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됨.

## 海軍幹部 養成現況

| 任官區分 | 期別 | 入校日字 | 卒業日字 | 修學期間 | 修了人員(名) | 備　考 |
|---|---|---|---|---|---|---|
| 海　士 | 1 | 1946. 1.17 | 1947. 2. 7 | 1年 | 61 | 海軍兵學校('46.1.17)<br>朝鮮海岸警備隊<br>士官學校('46.6.15) |
| | 2 | 1947. 2. 7 | 1948.12.25 | 1年<br>10個月 | 48 | 海岸警備大學('46.8.10)<br>海士大學('46.8.14) |
| | 3 | 1947. 9. 2 | 1950. 2.25 | 2年<br>6個月 | 54 | 海軍大學('48.11.16) |
| | 4 | 1948. 9. 4 | 1951. 8. 31 | 3年 | 71 | 海軍士官學校('49.1.15) |
| | 小計 | | | | 234 | |
| 特教隊 | 1 | 1948. 6.29 | 1948. 7.20 | 22日 | 60 | 下士官出身 포함 |
| | 2 | 1948. 7.30 | 1948. 8.31 | 33日 | 66 | |
| | 3 | 1948.11. 4 | 1949. 1.25 | 83日 | 27 | |
| | 4 | 1949. 2. 8 | 1949. 3. 8 | 29日 | 14 | |
| | 5 | 1949. 3.12 | 1949. 3.25 | 14日 | 17 | |
| | 6 | 1949. 4. 7 | 1949. 5. 5 | 29日 | 19 | |
| | 7 | 1949. 8.10 | 1949.10.10 | 62日 | 46 | |
| | 8 | 1949.11. 1 | 1950. 2. 1 | 93日 | 68 | |
| | 9 | 1950. 3.17 | 1950. 4.20 | 35日 | 98 | |
| | 小計 | | | | 415 | |
| 海兵幹候 | 1 | 1949. 7.15 | 1950. 1. 1 | 5個月<br>15日 | 30 | 步兵教育은 陸士에서<br>修了 |
| | 2 | 1950. 2.17 | 1950. 8. 1 | 〃 | 41 | 〃 |
| | 小計 | | | | 71 | |
| 合　計 | | | | | 720 | (特任者 제외) |

資料：韓容源, 創軍, 1984, p. 89.

한편, 정부수립을 목전에 두고 해군의 확장이 요구되자 1948년 6월 29일 사관후보생 과정인 특교대(特敎隊)를 설치, 하사관을 포함한 군사경력자와 항해 유경험자를 단기간 교육시켜 임관시켰는데, 6·25전쟁 직전까지 9개기 415명의 사관을 배출했으며, 1949년 해병대(海兵隊)가 창설되자 1949년 7월 15일 해병간부후보생 과정(海兵幹部候補生 科程)을 설치하여 보병교육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수료하게 한 후 해군단기교육을 실시하게 했는데, 6·25전쟁 발발 직후까지 2개기 71명을 임관시켰다.[26]

해군간부 양성현황은 앞의 표와 같다.

---

26) 韓容源, 創軍, 1984, p. 88.

# 4. 階級制度 및 服飾制度

## 가. 階級制度

남조선국방경비대(南朝鮮國防警備隊)의 계급장(階級章)과 계급호칭(階級呼稱)은 1946년 1월 15일 국방경비대 창설과 동시에 제정하여 사용하였으며, 하사관 및 사병의 계급장은 동년 4월 5일에 제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계급명칭이 상하 구별이 어렵고 호칭에도 불편하다는 여론에 따라 합리적인 계급제도를 연구 검토한 끝에 1946년 12월 1일 미 육군의 계급제도를 참고하여 개정하였다.

### 國防警備隊의 階級章

**草創期 陸軍階級呼稱**

(1946. 1. 15 ~ 11. 31)

| 將 校 | 下士官 | 兵 士 |
|---|---|---|
| 參 尉 | 參 校 | 二等兵士 |
| 副 尉 | 副 校 | 一等兵士 |
| 正 尉 | 正 校 | |
| 參 領 | 特務 副校 | |
| 副 領 | 特務 正校 | |
| 正 領 | 大特務正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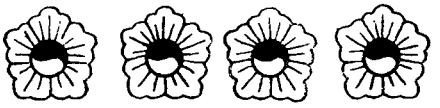
**變更된 陸軍階級呼稱**

(1946. 12. 1 ~ 1954. 5. 14)

| 將 校 | 下士官 | 兵 士 |
|---|---|---|
| 少 尉 | 下 士 | 二等兵 |
| 中 尉 | 二等中士 | 一等兵 |
| 大 尉 | 一等中士 | |
| 少 領 | 二等上士 | |
| 中 領 | 一等上士 | |
| 大 領 | 特務上士 | |
| 准 將 | | |
| 少 將 | | |
| 中 將 | | |
| 大 將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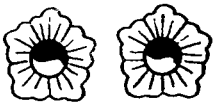
# 草創期 陸軍階級章(將校)

1946. 1. 15 ~ 11.31



參領(少領) 1946. 2. 1 制定

正尉(大尉)



副尉(中尉)

參尉(少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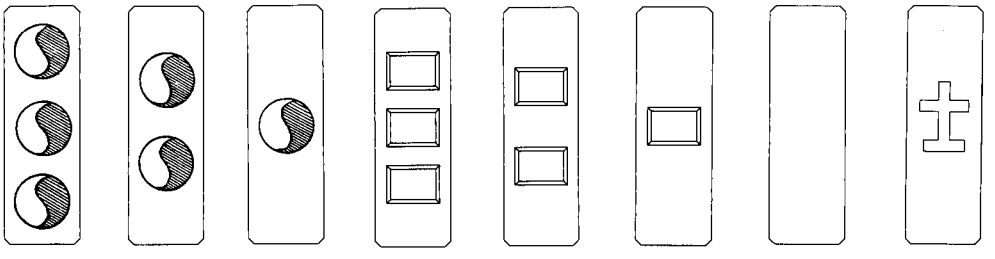
참고 : ( ) 안의 명칭은 1946. 12. 1 이후 호칭임.

資料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p. 206~207.

1946. 12. 1 ~ 1954. 5. 14

少 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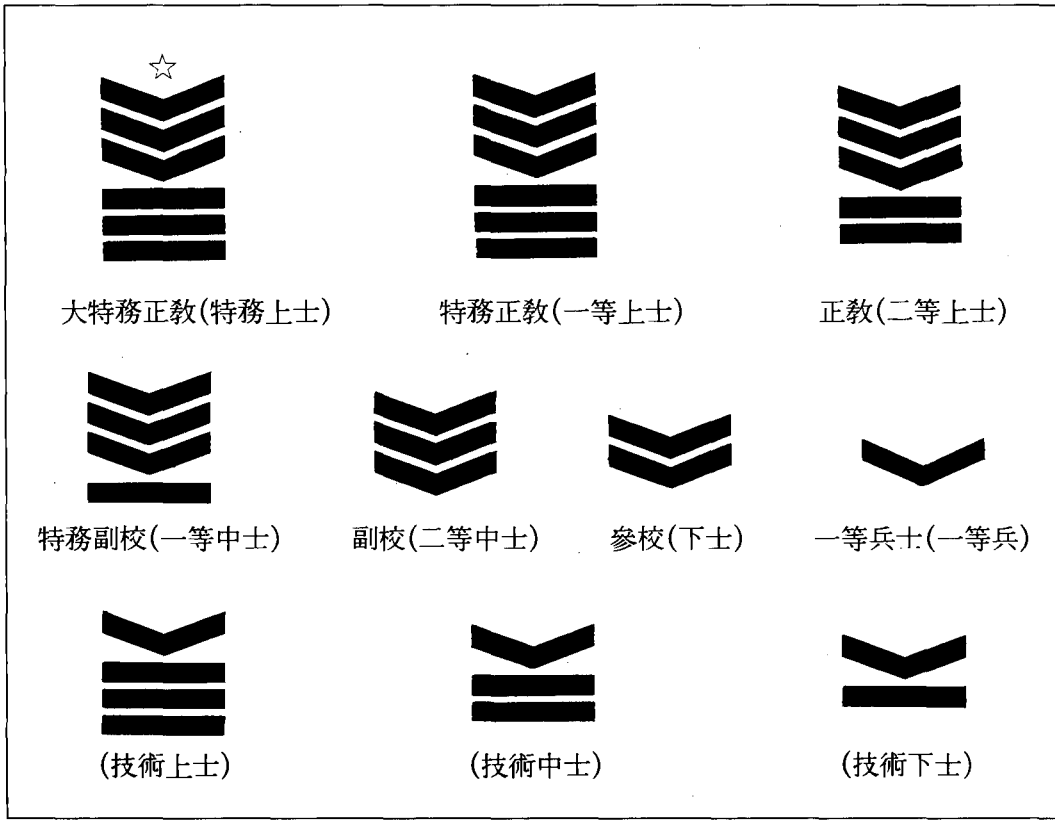
准 將



大領 中領 少領 大尉 中尉 少尉 准尉 士官候補生

## 草創期 陸軍階級章(士兵)

1946. 4. 5 ~ 1962. 4. 26




참고 : ( ) 안의 명칭은 1946. 12. 1 이후 호칭임.
국방생 바탕에 階級 標識는 赤色. 단, 技術將校와 技術兵 階級에는 "技術"을, 軍醫將校에는 "軍醫"를, 軍醫下士官에는 "衛生"을, 軍樂將校에는 "軍樂"을 階級章 上部에 表示하였다.

한편, 해방병단(海防兵團)의 계급은 1946년 2월 1일 구한말시대(舊韓末時代)의 계급을 참고로 하여 장교에게 정식계급을 부여하고, 6월 1일에 다시 미국 해군의 계급을 참작하여 하사관 및 사병의 계급까지 제정 사용하였다.

해방병단은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되면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해군을 상징하는 군기(軍旗)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 海軍 階級號稱 및 階級章

## 草創期 海軍階級呼稱

(1946. 2. 1 ~ 5. 31)

| 將校 | 下士官 | 兵士 |
|---|---|---|
| 參尉 | 二等兵曹 | 見習水兵 |
| 副尉 | 上等兵曹 | 二等水兵 |
| 正尉 | 兵曹長 | 一等水兵 |
| 參領 | 見習士官 | |
| 副領 | | |
| 正領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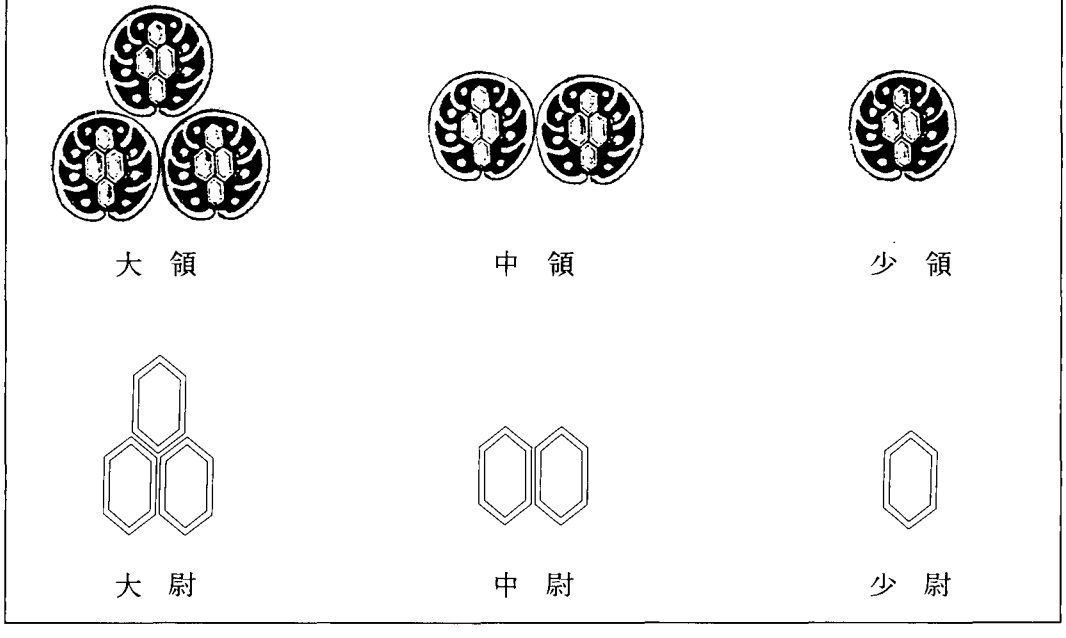
## 2次 改定後 海軍階級呼稱

(1946. 6. 1 ~ 1954. 5. 14)

| 將校 | 下士官 | 兵士 |
|---|---|---|
| 少尉 | 三等兵曹 | 見習水兵 |
| 中尉 | 二等兵曹 | 二等水兵 |
| 大尉 | 一等兵曹 | 一等水兵 |
| 少領 | 兵曹長 | |
| 中領 | | |
| 大領 | | |
| 准將 | | |
| 少將 | | |
| 中將 | | |
| 大將 | | |

## 草創期 海軍階級章(將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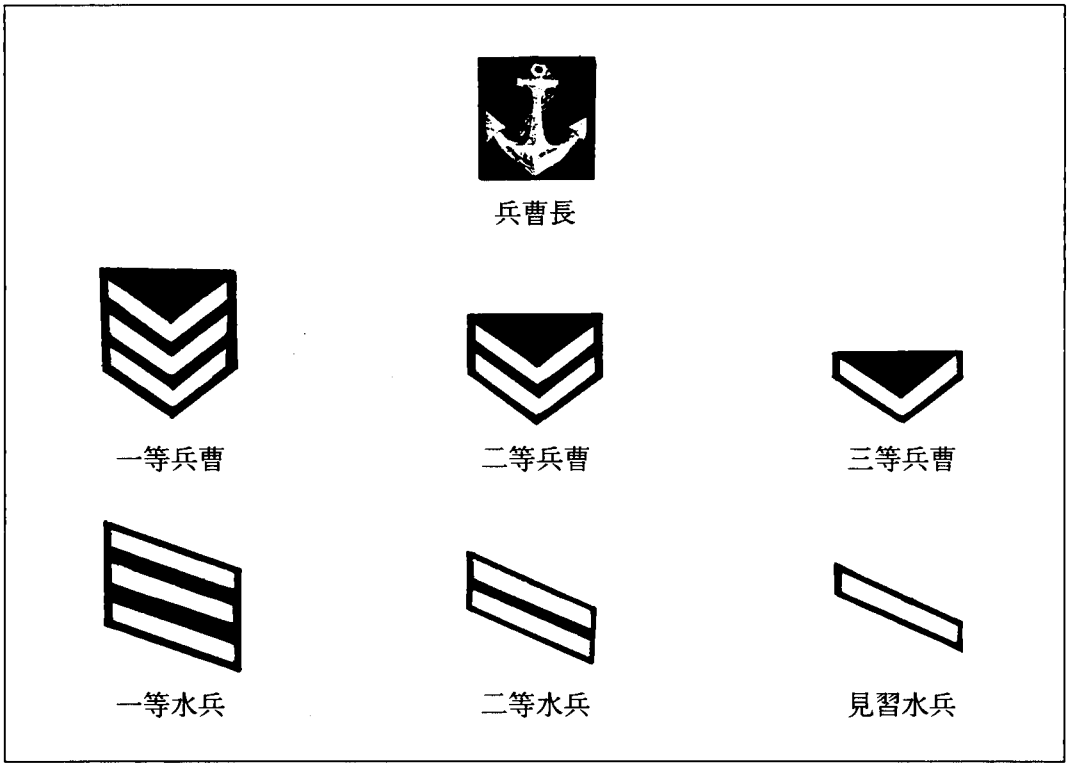
1946. 6. 1 ~ 1954. 5. 14




資料：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pp. 208~209.

草創期 海軍階級章(士兵)

1946. 6. 1 制定




참고 : 黑色 바탕에 계급 표지는 白色

## 나. 服飾制度

남조선국방경비대의 복장은 경비대 창설과 함께 일본식 군대의 복장을 착용하고, 모자의 모표(帽標)만을 무궁화 모형을 달아 사용하다가, 3월 30일부터 경비대 복장을 착용하였던바, 장교의 경우 상의(上衣)는 잠바를 착용하고 하의(下衣)는 승마복을 개조하여 착용하였으며, 신발은 가죽장화, 모자는 미군 정모 형태로 바꾸고, 모자의 테는 평화를 상징하는 녹색테로 하였다. 또한 모표는 무궁화꽃 속의 태극표지(太極標識)를 넣어 자수(刺繡)로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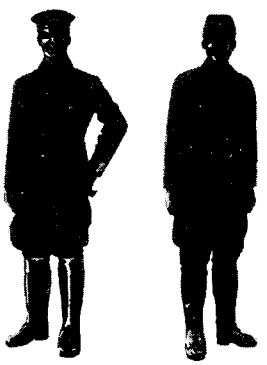
사병은 장교와 같은 군복에 가죽장화 대신 반각반(半脚絆)을 하도록 하

고 편상화(編上靴 : 短靴)를 신었으며, 모자의 모표는 무궁화꽃 속의 태극 표시를 자수제 대신 금속제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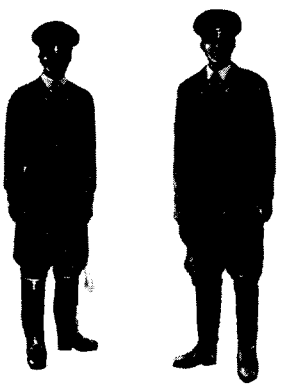
그러나 1946년 9월 1일 그동안 착용하였던 일본식 복장을 전면 폐지하고 미국식 복장으로 개정하였으므로, 복장에 있어서는 미군 복장을 그대로 착용하게 되었다.

한편, 해방병단은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로 개칭된 후에도 큰 변함없이 일본군이 사용하던 복장을 그대로 착용하였다.

## 南朝鮮國防警備隊 服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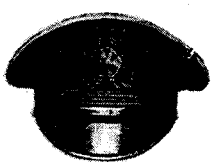


將校服裝　士兵服裝
舊日本軍服裝(1946. 1)



將校服裝　士兵服裝
美軍服裝(1946. 9)

將校帽(1946. 1)



將校冬正帽(1946. 4)

士兵帽(1946. 1)

士兵夏正帽(1946. 4)

資料 :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國防史(1), 1984.

별지 #1

# 軍事英語學校出身 任官者 現況

임관인원 110명 : 군번 10001~10110번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1 | 李 亨 根 | 1920 | 忠南 | 水原高農<br>日本陸士(56期) | 日軍大尉 | 大將 | 合參議長<br>參謀總長 |
| 2 | 蔡 秉 德 | 1921 | 平南 | 平 壤 中<br>日本陸士(49期) | 日軍少領 | 中將 | 參謀總長 |
| 3 | 劉 載 興 | 1921 | 忠南 | 龍 山 中<br>日本陸士(55期) | 日軍大尉 | 中將 | 軍司令官<br>合參議長 |
| 4 | 張 錫 倫 | 1892 | 서울 | 普 成 中(5期)<br>日本陸士(55期) | 日軍中尉<br>滿軍中領 | 大領 | 聯 隊 長<br>(瓮津地區<br>戰鬪<br>司令官) |
| 5 | 丁 一 權 | 1917 | 咸北 | 光 明 中<br>奉天軍校(5期)<br>日本陸士(55期) | 滿軍大尉 | 大將 | 參謀總長<br>合參議長 |
| 6 | 楊 國 鎭 | 1916 | 平南 | 滿洲新京<br>法 政 大 | 滿軍大尉 | 中將 | 軍 團 長 |
| 7 | 文 履 楨 | | | | 滿軍大尉 | | |
| 8 | 金 洪 俊 | | | | 滿軍大尉 | 大尉 | 大 隊 長 |
| 9 | 李 永 純 | 1922 | 忠北 | 日 本<br>東京帝大 | 日海軍中尉<br>(經理) | 大領 | 聯 隊 長 |
| 10 | 崔 周 鍾 | 1922 | 咸北 | 新京軍校(3期)<br>日本陸士(58期) | 滿軍中尉 | 少將 | 師 團 長<br>軍需基地<br>司 令 官 |
| 11 | 崔 慶 祿 | 1922 | 忠北 | 日本態本<br>縣 立 中 | 志願兵出身<br>日軍准尉 | 中將 | 參謀總長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12 | 李 春 景 | 1922 | 平北 | 日 本<br>廣 島 中 | 志願兵出身<br>日軍准尉 | 准尉 | 國防研究<br>院 長 |
| 13 | 張 昌 國 | 1924 | 서울 | 京 畿 中<br>日本陸士(59期) | 日軍少尉 | 大將 | 合參議長 |
| 14 | 李 丙 胄 | 1921 | 咸北 | 新京軍校(2期) | 滿軍中尉 | 少領 | 聯 隊 長 |
| 15 | 李 尙 振 | 1919 | 咸北 | 新京軍校(2期) | 滿軍中尉 | 少領 | 旅團軍需<br>參 謀 |
| 16 | 金 英 煥 | 1920 | 京畿 | 日本大阪<br>法 大 | 學兵出身 | 准將 | 訓飛團長 |
| 17 | 姜 文 奉 | 1923 | 咸北 | 京畿軍校(5期)<br>日本陸士(59期) | 滿軍少尉 | 中將 | 軍司令官 |
| 18 | 閔 機 植 | 1921 | 忠北 | 滿洲新京<br>建 國 大 | 學兵出身 | 大將 | 參謀總長 |
| 19 | 林 善 河 | 1923 | 咸北 | 日 本<br>明 治 大 | 學兵出身 | 少將 | 管 區<br>司 令 官 |
| 20 | 朴 炳 權 | 1920 | 忠南 | 延 禧 專 | 學兵出身 | 中將 | 軍司令官 |
| 21 | 朴 基 丙 | 1918 | 平南 | 日 本<br>早稻田大 | 志願兵出身<br>日軍下士官 | 少將 | 管 區<br>司 令 官 |
| 22 | 沈 彦 俸 | 1922 | 忠南 | 普 成 專 | 學兵出身 | 准將 | 2訓練所長 |
| 23 | 白 仁 燁 | 1923 | 平南 | 日 本<br>明 治 大 | 學兵出身 | 中將 | 軍 團 長 |
| 24 | 安 光 銖 | 1922 | 서울 | 日本陸士<br>(58期) | 日軍少尉 | 大領 | 美參謀<br>大 卒 |
| 25 | 尹 炳 晧 | 1921 | 忠南 | 日 本<br>明治學院 | 學兵出身 | 少領 | |
| 26 | 元 氣 燮 | 1923 | 忠南 | 日 本<br>早稻田大 | 學兵出身 | 中尉 | |
| 27 | 元 泰 燮 | 1918 | 忠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准將 | 參謀總長<br>補 佐 官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28 | 趙 岩 | 1921 | 咸北 | 日 本<br>大 正 大 | 學兵出身 | 中領 | 陸士大隊長<br>聯 隊 長<br>(初代15<br>聯隊長) |
| 29 | 李 貞 錫 | 1923 | 서울 | 日 本 大 | 學兵出身 | 准將 | 師 團 長 |
| 30 | 金 鍾 甲 | 1922 | 忠北 | 延 禧 專 | 學兵出身 | 中將 | 國 防 部<br>管理局長 |
| 31 | 金 鐘 五 | 1921 | 忠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大將 | 參謀總長<br>合參議長 |
| 32 | 朴 東 均 | 1919 | 咸北 | 鏡 城 中 | 滿軍大尉<br>(軍醫) | 少將 | 兵務局長 |
| 33 | 河 在 八 | 1923 | 慶北 | | 學兵出身 | 少尉 | |
| 34 | 李 致 業 | 1922 | 慶南 | 日 本<br>東華高普 | 學兵出身 | 准將 | 輸 送 監 |
| 35 | 金 桂 元 | 1923 | 慶北 | 延 禧 專 | 學兵出身 | 大將 | 參謀總長 |
| 36 | 兪 海 濬 | 1917 | 서울 | 中 國<br>中 山 大 | 中軍大尉 | 少將 | 軍<br>副司令官 |
| 37 | 李 成 佳 | 1922 | 서울 | 中國陸士 | 中軍少領 | 少將 | 陸大總長 |
| 38 | 咸 炳 善 | 1920 | 平南 | | 志願兵出身<br>日軍准尉 | 中將 | 國防研究<br>院 長 |
| 39 | 劉 興 守 | 1922 | 서울 | 日 本<br>專 修 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br>副司令官 |
| 40 | 丁 來 赫 | 1926 | 全南 | 光州西中<br>日本陸士<br>(58期) | 日軍少尉 | 中將 | 軍司令官 |
| 41 | 元 容 德 | 1908 | 서울 | 京城帝大 | 滿軍中領<br>(軍醫) | 中將 | 憲 兵<br>司 令 官 |
| 42 | 金 東 英 | 1921 | 平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中領 | 軍需局長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43 | 金 炳 吉 | 1922 | 黃海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准將 | 副軍團長 |
| 44 | 崔 泓 熙 | 1917 | 서울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 團 長 |
| 45 | 金 炯 一 | 1923 | 京畿 | 서울法專 | 學兵出身 | 中將 | 參謀次長 |
| 46 | 黃 憲 親 | 1918 | 咸北 | 日 本<br>早稻田大 | 學兵出身 | 准將 | 軍參謀長 |
| 47 | 金 益 烈 | 1921 | 慶南 | 日 本<br>神戶高商 | 學兵出身 | 中將 | 國防大學<br>院 長 |
| 48 | 鄭 萬 基 | 1921 | | 京城高商 | 學兵出身 | 准將 | 財 務 監 |
| 49 | 安 東 淳 | 1920 | 平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准將 | 陸 本<br>管理副長 |
| 50 | 咸 俊 鎬 | 1921 | | 서울法專 | 學兵出身 | 准將 | 聯 隊 長 |
| 51 | 崔 榮 喜 | 1920 | 서울 | 日 本<br>專 修 大 | 學兵出身 | 中將 | 參謀總長<br>合參議長 |
| 52 | 文 容 彩 | 1916 | 平北 | | 滿軍大尉 | 准將 | 副軍團長 |
| 53 | 崔 楠 根 | 1916 | 滿洲 | 滿洲吉川<br>中·奉天軍校<br>(7期) | 滿軍大尉 | 中領 | 聯 隊 長<br>旅 團<br>參 謀 長 |
| 54 | 白 善 燁 | 1918 | 平南 | 平壤師範<br>奉天軍校<br>(9期) | 滿軍中尉 | 大將 | 參謀總長<br>合參議長 |
| 55 | 金 白 一 | 1916 | 咸北 | 普 成 中<br>奉天軍校(5期) | 滿軍大尉 | 中將 | 軍 團 長 |
| 56 | 李 翰 林 | 1921 | 咸南 | 奉 天 中<br>新京軍校(2期)<br>日本陸士(57期) | 滿軍中尉 | 中將 | 軍司令官 |
| 57 | 鄭 震 晥 | 1923 | 忠北 | 滿 洲<br>建 國 大 | 學兵出身 | 少將 | 國 防 部<br>5 局 長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58 | 申 尙 澈 | 1924 | 忠南 | 公州中<br>日陸士(58期)<br>航空 士官學校 | 日軍少尉 | 少將 | 師 團 長<br>政訓局長 |
| 59 | 吳 德 俊 | 1921 | 慶南 | 日本 關西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 團 長 |
| 60 | 權 石 玟 | | | | 學兵出身 | 少尉 | |
| 61 | 韓 麟 俊 | | 서울 | 日本陸士(61期) | 日本陸士<br>生 徒 | | 兵 器 司<br>課 長 |
| 62 | 金 宗 平 | 1923 | 咸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准將 | 1訓副所長 |
| 63 | 白 善 鎭 | 1922 | 平南 | 日 本<br>同 志 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需參謀<br>副 長 |
| 64 | 蘇 炳 基 | 1920 | 慶北 | | 日軍軍務員<br>(兵器) | 准將 | 兵 器 監 |
| 65 | 崔 昌 武 | | | | 學兵出身 | 少尉 | |
| 66 | 魏 大 善 | | | | 學兵出身 | 大領 | 聯 隊 長 |
| 67 | 趙 炳 乾 | 1925 | 咸南 | 日本陸士(60期) | 日本陸士<br>生 徒 | 少領 | 陸士教官 |
| 68 | 金 賢 洙 | | | 日 本<br>國學院大 | 學兵出身 | 准將 | 弘報處長 |
| 69 | 白 南 權 | 1922 | 慶南 | 日本陸士<br>橫濱商專 | 學兵出身 | 少將 | 陸士校長 |
| 70 | 金 鍾 碩 | 1918 | 京畿 | 日本陸士(56期) | 日軍大尉 | 中領 | 旅團長 代理 |
| 71 | 金 完 龍 | 1918 | 咸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少將 | 國 防 部<br>徵發補償<br>委 員 長<br>法 務 監 |
| 72 | 吳 一 均 | 1926 | 忠北 | 淸州中<br>日本陸士(60期) | 日本陸士<br>生 徒 | 少領 | 大 隊 長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73 | 崔相斌 | | 咸南 | 滿洲 新京法大 | 學兵出身 | 少領 | |
| 74 | 金炳徽 | 1920 | 江原 | 서울法專 | 學兵出身 | 少將 | 訓練少將 |
| 75 | 崔 錫 | 1917 | 咸南 | 日 本<br>早稻田大 | 學兵出身 | 中將 | 軍 團 長 |
| 76 | 金相福 | 1923 | 平南 | 滿 洲<br>奉天醫大 | 日軍中尉<br>(軍醫) | 中將 | 參謀次長 |
| 77 | 金容培 | 1923 | 京畿 | 서울法專 | 學兵出身 | 大將 | 參謀總長 |
| 78 | 金基鴻 | 1916 | 咸南 | 日本明治大 | 學兵出身 | 少將 | 師 團 長 |
| 79 | 李厚洛 | 1924 | 慶南 | 日 本<br>岐 阜 高 | 學兵出身 | 少將 | 駐美武官<br>最高會議<br>代 辯 人 |
| 80 | 張都映 | 1923 | 平北 | 日 本<br>東 洋 大 | 學兵出身 | 中將 | 參謀總長 |
| 81 | 李相喆 | 1919 | 慶北 | 日 本<br>立命館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 團 長 |
| 82 | 李喜權 | 1920 | 全北 | 日 本<br>立 正 大 | 學兵出身 | 准將 | 師 團 長<br>陸 軍<br>政 訓 監 |
| 83 | 金三吉 | | 江原 | | 學兵出身 | 大尉 | |
| 84 | 張好珍 | 1922 | 江原 | 普 成 專 | 學兵出身 | 准將 | 厚 生 監 |
| 85 | 李昌一 | | | 日 本<br>拓 殖 大 | 學兵出身 | 大領 | 師團參謀 |
| 86 | 閔丙權 | 1918 | 黃海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中將 | 軍需參謀<br>副 長 |
| 87 | 張萬錫 | | 慶北 | | 學兵出身 | 少尉 | |
| 88 | 白仁基 | 1921 | 忠北 | | 學兵出身 | 大領 | 聯 隊 長 |
| 89 | 李賢宰 | 1922 | 全南 | 日本 立教大 | 學兵出身 | 中領 | |
| 90 | 羅鍾荷 | 1919 | 全南 | 木 浦 商 | 學兵出身 | | |
| 91 | 朴珍景 | 1917 | 慶南 | 日本大坂外大 | 學兵出身 | 大領 | 聯 隊 長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92 | 韓 椿 | | 平南 | 日 本<br>明 治 大 | 學兵出身 | 少尉 | |
| 93 | 金 一 煥 | 1914 | 江原 | 滿 軍<br>經理學校 | 滿軍大尉<br>(經理) | 中將 | 陸本管理<br>副 長 |
| 94 | 吳 圭 範 | 1918 | 滿洲 | | 滿軍大尉 | 中領 | 후방부대<br>參 謀 長 |
| 95 | 崔 昌 彦 | 1921 | 咸北 | 新京軍校(1期)<br>日本陸士(56期) | 滿軍大尉 | 中將 | 國防大學院<br>院 長 |
| 96 | 宋 堯 讚 | 1918 | 忠南 | 峰 山 中 | 志願兵出身<br>日軍下士官 | 中將 | 參謀總長 |
| 97 | 羅 學 善 | 1915 | 全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少領 | |
| 98 | 李 白 雨 | 1919 | 全南 | 光州師範 | 日軍志願兵 | 准將 | 師 團 長 |
| 99 | 張 銀 山 | 1925 | 咸北 | 新京軍校 | 滿 軍<br>군관생도 | 中領 | 第2訓練<br>學 校 長 |
| 100 | 金 雄 洙 | 1923 | 慶北 | 日本京都<br>帝 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 團 長 |
| 101 | 姜 英 勳 | 1921 | 平北 | 滿 軍<br>建 國 大 | 學兵出身 | 中將 | 陸士校長 |
| 102 | 李 贊 衡 | 1921 | 慶北 | 日 本<br>中 央 大 | 學兵出身 | 准將 | 軍 史 監 |
| 103 | 李 旬 英 | 1913 | 慶南 | 日 本<br>明 治 大 | 學兵出身 | 准將 | 軍 史 監 |
| 104 | 金 宗 文 | 1919 | 黃海 | 日本東京<br>아 테 네<br>프 랑 세 | 學兵出身 | 少將 | 訓練局長 |
| 105 | 朴 炫 洙 | 1920 | 全南 | 日 本<br>上 智 大 | 學兵出身 | 少將 | 軍需基地<br>司 令 官 |
| 106 | 朴 璟 遠 | 1923 | 全南 | | 學兵出身 | 少將 | 軍司令官 |

| 軍番 | 姓 名 | 出生年度 | 出生地 | 入校前(1945) 學·經歷 | | 最終階級 및 職責(經歷) | |
|---|---|---|---|---|---|---|---|
| | | | | 學 歷 | 經歷(階級) | 階級 | 職責(經歷) |
| 107 | 申 鶴 鎭 | 1911 | 慶北 | 大邱醫專 | 滿軍中領 (軍醫) | 中將 | 醫 務 監 |
| 108 | 李 明 載 | 1922 | 黃海 | 日 本 武藏高工 | 學兵出身 | 少將 | 副軍團長 |
| 109 | 尹 秀 鉉 | 1919 | 咸北 | | 滿軍中尉 | 准將 | 副軍團長 |
| 110 | 李 應 俊 | 1890 | 平南 | 日本陸士(26期) | 日軍大領 | 中將 | 參謀總長 |

資料：韓容源, 創軍, 박영사, 1984, pp. 75~81.

# 第 II 部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 —創軍期—

## 김숙봉~류지열

## 김 숙 봉 (金 淑 奉)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3872

김숙봉 일등중사는 1924년 3월 2일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연초면(延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시켜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하였다.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반란사건 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여수 신항에 상륙하여 반란군진압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한 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경상북도 안동지구에 출동,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하는 혁혁한 전과(戰果)를 올리고, 동년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 충남지역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숙봉 일등중사는 충남지역 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50년 5월 15일 전사(戰死)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追慕)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位牌番號) 29－5－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곤 (金 順 坤)　경찰 순경

김순곤 순경은 5월 5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해룡면(海龍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 좌익세력이 가세하여 여수·순천을 무법천지의 공산천하로 돌변시킨 사건이었다. 반란군들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내의 경찰서 관공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반란군은 여수를

완전 장악하고 10월 20일에는 순천으로 진출하여 순천 전 시가지를 점령하였다. 이때 경찰관 400여명이 반란진압작전을 펼치던 중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김순곤 순경은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권 (金 順 權) 육군 일등병 군번 2701677

김순권 일등병은 1929년 6월 10일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경주면(慶州面) 성동리(城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의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한 후, 계속하여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순권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宣揚)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2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대 (金 順 大) 육군 하사 군번 5201901

김순대 하사는 1931년 2월 12일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강경읍(江景

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38도선경비강화를 위해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연대는 동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주둔지를 이동함과 동시에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순대 하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덕 (金 順 德) 육군 일등병 군번 0388576

김순덕 일등병은 1924년 1월 25일 대구시(大邱市) 봉덕동(鳳德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으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2차 옹진지구전투에서 적을 격퇴하여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후 1950년 1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순덕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만 (金 淳 萬) 육군 일등병 군번 8201054

김순만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송악산(松嶽山)지구전투, 1949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개성부근 488고지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연대는 1950년 4월 12일 제12연대와 교대하여 경기도 수색 및 인천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문산·개성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순만 일등병은 문산·개성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과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명 (金 順 明) 육군 하사 군번 200627

김순명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광적면(廣積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제8사단으로 예속 변경됨으로써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제10연대는 1949년 2월 여수·순천반란진압 후 도주한 반란군과 남로당계 공비들이 지리산, 일원산을 거쳐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여 오대산으로 잠입하려 하자 이를 차단하고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동년 2월 하순 북한군 제766군부대 일부병력이 서림리와 잔교리로 침투하자 연대가 출동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였다.

김순명 하사는 강릉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2-25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복 (金 淳 福)　육군 이등병 군번 0239075

김순복 이등병은 황해도 황주(黃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백운산(白雲山), 지리산(智異山)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순복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상 (金 順 祥)　육군 이등상사 군번 2603662

김순상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북천면(北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8월 11일 1개 대대가 창원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연대는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3월 27일까지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2개 대대는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순상 이등상사는 이 작전기간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실 (金 順 實) 경찰 경위

김순실 경위는 1926년 3월 5일 황해도 송미군 진유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충청북도경찰국 괴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은 1948년 4월 3일 제주도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제주지구에서 전개된 것이 처음이었으며, 이후 북한에서 남파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공비가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준동하자 각 지역에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김순실 경위는 1949년 6월 20일 괴산경찰서에서 근무 중 공비의 출현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에서 무장공비와 교전 중 적 2명을 사살한 후 흉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영 (金 順 影) 경찰 경사

김순영 경사는 1921년 7월 18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면(翰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한라산에서 계속 준동하고 있던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

해 1949년 3월 2일 제주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제주지구전투사령부는 경찰에게 해안지역 부락경비를 담당하게 하는 한편, 군인·경찰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혼성부대를 편성하여 한라산을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1948년 초 약 1,500여명에 달하던 공비들은 1949년 5월 제주지구전투사령부작전이 종료된 때에는 약 100여명으로 감소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순영 경사는 이 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6일 북제주군 구좌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영 (金 順 榮) 육군 일등병 군번 0324556

김순영 일등병은 서울시 중구(中區) 을지로(乙支路)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무장공비들이 출몰하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제5사단장을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전투경찰대와 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 토벌작전에서 제5사단은 포위, 수색작전 및 귀순공작 등을 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순영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영 (金 順 永)　육군 하사 군번 2604566

김순영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忠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가 증가되고 그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丹陽)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예천, 안동, 울진 등에서 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거의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순영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20일 태백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2－1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옥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2103797

김순옥 이등병은 1928년 7월 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면(統營面) 봉평리(鳳坪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보충대에서 복무하였다. 보충대는 1949년 9월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었다.

1949년 중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순옥 이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용 (金 順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39530

김순용 일등병은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봉남면(鳳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잔당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으로써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순용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제 (金 淳 濟)　경찰 경위

김순제 경위는 1925년 2월 1일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건국 초기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이에 지방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여 여수·순천을 공산천하의 무법천지로 돌변시켰다.

김순제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계속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던

중 1948년 11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追敍)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5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조 (金 順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143396

김순조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9년 3월 1일 호남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1개 대대가 출동하여 백운산 일대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는 제15연대 예하 2개 대대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전투경찰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김순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철 (金 順 徹) 육군 소령 군번 10252

김순철 소령은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비아면(飛鴉面)에서 태어나 1946년 12월 14일 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임관된 후 제1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읍 신월리에서 창설되었으며, 10월 19일에는 제1대대가 제주도 출동을 앞두고 연대 내의 좌익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을 점거하고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순철 소령은 반란진압작전을 지휘하다가 1948년 10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칠 (金 順 七) 경찰 순경

김순칠 순경은 1924년 4월 16일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영흥리(永興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강원도경찰국 영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북한군은 1948년 11월 이후 38도선상 전면에 걸쳐 수시로 불법 침입하여 아군의 경비상황과 전투력을 정찰하는 한편, 인민유격대를 남한에 침투시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려 하였다.

영월경찰서는 1949년 8월 4일 김달삼부대 300여명이 태백산맥을 타고 침투하여 준동함에 따라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순칠 순경은 영월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교전 중 1949년 8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학 (金 順 學) 경찰 경사

김순학 경사는 1920년 4월 16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양평동(楊平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순학 경사는 서울의 치안유지를 위해 경비근무 중에 1948년 12월 13일 공비들의 흉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1-07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순 한 (金 順 漢) 육군 일등병 군번 0181906

김순한 일등병은 1919년 11월 9일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강천면(康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소탕(共匪掃蕩)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1948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을 중심으로 잔존공비가 준동하자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동년 11월 20일에는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1개 대대를 출동시켜 많은 전과를 올리고 그후 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순한 일등병은 제10연대가 태백산, 오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과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규 (金 昇 圭) 육군 이등상사 군번 5100763

김승규 이등상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가 배속되어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였다. 1950년 1월 3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동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농촌재건사업 및 민심수습, 원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승규 이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敍)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래 (金 升 來) 경찰 경사

김승래 경사는 1923년 3월 3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담양면(潭陽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반란주모자와 350여명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은 지리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한 후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김승래 경사는 1948년 12월 18일 담양군 월산면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敍)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록 (金 乘 錄) 육군 일등병 군번 0345606

김승록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창군(居昌郡) 고제면(高梯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육군통신학교에서 복무하였다.

보병연대의 계속적인 증편에 따라 통신업무도 급증하여 통신기술병의 양성이 시급해져 육군본부는 1948년 8월 26일 서울 영등포에 육군통신학교를 설치하였다.

당시 육군본부는 끊임없이 준동하는 공비들을 섬멸하기 위해 1949년 9월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지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통신학교에서도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승록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림 (金 承 林) 육군 일등병 군번 0306899

김승림 일등병은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읍(濟州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3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9월까지 북한이 8차에 걸쳐 인민유격대를 38도선 동북방면으로 남파시키자 강원도 오대산 일대에서는 인민유격대소탕작전이 수차례 실시되었다. 남파된 북한인민유격대 일부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시키자,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승림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2-13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만 (金 承 萬) 육군 일등병 군번 0332820

김승만 일등병은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함양읍(咸陽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에 위치했던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50년 3월까지 북한이 총 2,345명에 이르는 인민유격대를 10차에 걸쳐 38도선 동북방면 오대산 일대로 남파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시키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오대산, 보현산 일대에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승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8-0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은 (金 承 銀) 경찰 경위

김승은 경위는 1930년 4월 15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경면(翰京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한라산을 근거지로 준동하던 공비들이 1948년 4월 3일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경찰지서를 습격하자, 군·경이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격퇴시켰으며, 동년 12월 28일에는 공비 100여명이 남원읍 위미리

마을을 습격하였다는 급보를 받고 경찰토벌대가 출동하여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9년 1월 4일부터는 해군 함정과 항공대의 경비행기를 지원받아 육·해군 및 경찰이 합동작전을 실시하여 공비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김승은 경위는 이 합동작전 기간 중 1949년 1월 24일 북제주군 애월면 고내리에서 약 50여명의 공비와 교전 중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초 (金 承 初)　육군 이등중사 군번 6100010

김승초 이등중사는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노고산동(老姑山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육군수색학교 독립제1대대에서 복무하였다.

육군수색학교는 1948년 12월 6일 독립제1대대를 창설하여 유격훈련을 실시한 후 1949년 3월 1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보병 4개 연대와 함께 덕유산을 완전포위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 종료후 독립제1대대는 통상명칭을 38부대로 개칭하고 옹진지구전투에 투입되었다. 38부대는 1949년 6월 7일 새벽 1시를 기해 태탄으로 침투, 북한군 38경비여단 본부를 습격하였으나 엄호부대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김승초 이등중사는 독립제1대대의 태탄기습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하 (金 承 河)　경찰 순경

김승하 순경은 1914년 8월 3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장성면(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반란주모자와 350여명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라남·북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김승하 순경은 1949년 9월 5일 장성군 수련사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서(西) 23－147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승 희 (金 承 熙)　육군 이등병 군번 8500597

김승희 이등병은 1928년 6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강원도 평창, 충청북도 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9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승희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

번호 45-7-1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관 (金 時 寬) 육군 하사 군번 1505833

김시관 하사는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삼랑진면(三浪津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부터 1개 대대가 11연대에 배속되어 70여일간에 걸쳐 전개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온양으로 복귀하였다.

김시관 하사는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명 (金 是 明) 육군 일등병 군번 5101856

김시명 일등병은 1929년 12월 26일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1950년 1월 3일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동한 후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농촌재건사업 및 민심수습, 원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연대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이 종료된 후 4월 26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시명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명 (金 時 明)　육군 하사 군번 1805807

김시명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 홍천, 원주지역(제3대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3월 26일부터 인제군지역으로 침투(제10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50여명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시명 하사는 인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21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연 (金 時 淵)　육군 일등병 군번 0401338

김시연 일등병은 1932년 3월 27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봉양면(鳳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지방공비들이 9월공세설을 퍼뜨리며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본부 직할각 특과부대와 독립제1대대를 지원하여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다.

전투경찰대와 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된 이 토벌작전으로 군은 지리산지구와 태백산지구에서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시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태 (金 侍 泰)　경찰 순경

김시태 순경은 1931년 6월 7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어모면(禦侮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북도경찰국 김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천경찰서는 광복 이후 관내 지역에서 준동하던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주력하였고, 1950년 초부터 4월까지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시태 순경은 1950년 1월 28일 상주군 화북면에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택 (金 始 澤) 경찰 경위

김시택 경위는 1928년 9월 1일 제주도 제주읍(濟州邑) 이도리(俚道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경무과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일, 한라산을 근거지로 준동하던 공비들이 경찰지서를 습격하자, 군·경이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펼쳐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으며, 동년 12월 28일에는 공비 100여명이 남원면 위미리 마을을 습격하자 경찰토벌대가 출동하여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1월 4일부터는 해군 함정과 항공대의 지원을 받으며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김시택 경위는 이 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1월 24일 북제주군 애월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시 환 (金 是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627280

김시환 일등병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성당면(聖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3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지역내 공비소탕(共匪掃蕩)임무도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던 잔여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동년 11월 14일 제1차침투 인민유격대 180명이 오대산을 거쳐 정선(旌善)까지 침투하였으나 제10연대 제1대대가 출동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시환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신 곤 (金 信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36379

김신곤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아군 전초진지가 있는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제1연대 예하 2개 중대를 투입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함으로써 북한군의 남침 기도를 무산시켰다. 또한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2개 대대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신곤 일등병은 동두천 및 포천 북방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신 동 (金 辛 東) 육군 일등중사 군번 2700943

김신동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8월 말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예천, 안동, 울진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신동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신 동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25686

김신동 이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수도경비작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7월 1일부터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38도선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였다.

김신동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신 희 (金 信 喜) 육군 일등병 군번 0326944

김신희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풍각면(風角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함으로써 이 지역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신희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안 중 (金 安 中) 경찰 경사

김안중 경사는 1927년 2월 11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서호면(西湖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후반 인민유격대의 계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들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남원(南原)에 설치하고,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와 군·경합동작전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안중 경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5일 영암군 긍정면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敍)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양 기 (金 陽 起) 육군 일등병 군번 9398659

김양기 일등병은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금성면(錦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국방경비대 제3·제4·제9연대를 기간으로 경기도 고양군 수색에서 창설되어, 동년 5월 4일 전라남도 광주로 주둔지를 옮긴 후 모병활동을 통한 부대편성 및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시 국내정세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때였으며, 이 틈을 탄 북한은 대남적화공작을 강화하여 정부수립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지방 곳곳에서는 공산분자들이 관공서를 습격, 살인, 방화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김양기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6월 25일 주남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양 만 (金 陽 萬) 육군 이등병 군번 5101989

김양만 이등병은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가양동(佳陽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지리산지역의 공비들은 그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전라남·북도의 동부지역, 경상남도 북서부지역 진주부근까지 출몰하여 양민학살, 약탈 및 방화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군·경합동으로 덕유산을 포위공격하였으나 공비들이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후 3월 29일 괘관산전투에서는 공비들을 거의 소탕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양만 이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2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양 탁 (金 良 鐸) 육군 일등병 군번 1901846

김양탁 일등병은 1929년 8월 31일 강원도 속초(束草)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제7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여단은 1949년 1월 7일 창설된 이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동년 2월 1일부로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양탁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양 형 (金 良 形) 육군 일등병 군번 0344786

김양형 일등병은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도양면(道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50년 3월까지 북한이 총 2,345명에 이르는 인민유격대를 10차에 걸쳐 38도선 동북방면 오대산 일대로 남파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시키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오대산, 보현산 일대에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군은 잔여공비들의 준동을 근절시키기 위해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양형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

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업 동 (金 業 東) 경찰 순경

김업동 순경은 1926년 9월 19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용산면(蓉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반란주모자와 350여명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白雲山), 지리산(智異山) 등지로 분산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당시 광양경찰서는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이 작전에 참가한 김업동 순경은 1949년 9월 15일 공비들과 교전 중 백운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여 국 (金 呂 國) 육군 일등병 군번 0334118

김여국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강릉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38도선 동부지역의 26km에 달하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오대산 및 태백산 동부지역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

까지 김달삼부대소탕작전, 동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김상호부대소탕작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전개된 이호제부대소탕작전 등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공비토벌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여국 일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여 성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10382016

김여성 이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수도경비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수도경비작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7월 1일부터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38도선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였다.

김여성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10342069

김연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차 송악산(松嶽山)전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배천(白川)지구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적을 격퇴하여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또한 제1사단은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옹진지구 국사봉 일대를 침공하자 제12연대를 투입, 방어하였으며, 이때 편성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제12연대와 제13연대 2대대를 배속시켜 기타 배속부대와 함께 총반격을 감행하여 동년 6월 30일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김연 이등병은 제1사단이 옹진·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규 (金 演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22235

김연규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서성동(西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제3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연규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길 (金 連 吉) 경찰 경사

김연길 경사는 1929년 7월 26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일로면(一老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반란주모자와 350여명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김연길 경사는 1947년 9월 15일 월산면 용흥사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두 (金 連 斗) 경찰 경사

김연두 경사는 1925년 9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시(順天市) 매곡동(梅谷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9일간 여수·순천지역을 무법천지로 돌변시킨 제14연대의 반란사건이었다. 반란군은 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살해하며 양민을 학살하는 등 여수시내를 완전히 휩쓸고 말았다.

김연두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군에 맞서 용감히 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다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해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석 (金 淵 錫)　경찰 경위

김연석 경위는 1922년 7월 8일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월산동(月山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켰으나 사건 발생 9일만에 진압되자, 반란주모자는 잔여반란군 350여명과 함께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김연석 경위는 1949년 6월 20일 광산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해서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50－6－15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순 (金 鉛 淳)　경찰 경사

김연순 경사는 1926년 3월 21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학산면(鶴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은 호남의 동부지역과 경상남도 북서부지역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연순 경사는 보성경찰서에서 근무 중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6일 화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연 한 (金 延 漢) 육군 이등중사 군번 6601998

김연한 이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서울-강릉 도로 이남에서 사단 후방지경선(강원도계)까지의 책임지역 내에서 주요시설경비와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북상하던 김달삼부대토벌작전을 펼쳐 김달삼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1950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는 이호제부대토벌작전을 5일간에 걸쳐 전개하여 이들의 대부분을 소탕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김연한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2일 백봉령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겸 (金 英 謙) 경찰 경사

김영겸 경사는 1928년 11월 29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풍양면(豊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 진압되었으며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은 호남의 동부지역, 경상남도 북서부지역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영겸 경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월산면 용흥사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경 (金 榮 經)　육군 하사 군번 6300724

김영경 하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소사면(素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51통신가설중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1통신가설중대는 보병연대의 계속적인 증편에 따른 통신업무의 증가로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색의 제1여단 사령부에서 각 연대로부터 차출된 통신장병 63명을 기간으로 동년 5월 20일 서울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전 육군의 유무선통신 가설·수리 및 보급을 담당하여 일선 통신망 구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김영경 하사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된 지리산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구 (金 永 九)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6854

김영구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이산면(伊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군 사천면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일 발생한 대구반란사건진압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하였으며, 그 이후 1949년 2월 20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일 춘천으로 다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이 기간 중 8월 4일 홍천군 신남지역에 대규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하여 적을 대부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구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규 (金 永 圭)　경찰 경사

김영규 경사는 1924년 1월 15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손불면(孫佛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9일만에 진압되었으나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은 호남의 동부지역, 경상남도 북서부지역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9년 3월 1일부로 호남 및 지리산 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1949년 5월 9일까지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한 후 해체하자 공비들은 영·호남지역 일대에서 다시 활동을 계속

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규 경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3일 곡성군 옥과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규 (金 永 奎) 육군 이등중사 군번 8103029

김영규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감포면(甘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제3여단으로 창설된 이래,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폭동사건 진압작전에 참가후 이어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부터는 여수·순천 반란사건 진압 및 백운산과 지리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영규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규 (金 榮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49673

김영규 일등병은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어 부대정비 및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규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근 (金 永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38813

김영근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근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근 (金 永 根) 육군 일등병 군번 2704534

김영근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정부수립 후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하자,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

고, 육군본부 예하 독립제1대대와 포병, 공병, 통신, 의무대 등 특과부대를 지원하여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영근 일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금 (金 永 今)　육군 일등중사 군번 5100480

김영금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서천면(舒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1월 30일 호남방면전투사령부가 해체되어 지리산지역의 공비들이 행동반경을 확대하고 각종 만행을 자행하자, 1949년 3월 1일부로 1개 대대가 지리산지구 및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5월 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그후에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였다.

김영금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기 (金 令 起)　경찰 경위

김영기 경위는 1925년 3월 6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삼례면(參禮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순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1949년 5월 9일 호남·경남서부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해체되었으나, 일부 경찰대와 군부대는 잔류하여 분산 도주한 잔존공비들을 토벌하고 있었다.

그후 1949년 7월 초, 북한이 3차로 약 200명의 유격대를 남파시켜 지방 공비와 합세하여 야산대를 조직, 경찰지서와 부락을 습격하는 등 발호가 극심하였다.

김영기 경위는 순창군 복흥면 낙덕정에서 공비와 교전 중에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기 (金 永 基) 육군 중위 군번 205559

김영기 중위는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나포면(羅浦面)에서 태어나 종합학교 4기로 임관된 후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어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를 소탕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기 중위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기 (金 永 基) 육군 하사 군번 1101947

김영기 하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에서 태어나 육군 제1연대에 입대한 후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수도경비작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1949년 7월부터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38도선 침공을 격퇴하고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기 하사는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길 (金 榮 吉) 경찰 경사

김영길 경사는 1924년 4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진동면(鎭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남도경찰국 고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후 좌익분자들은 혼란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살인, 방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며 경찰관서 및 공공기관의 습격을 계속하였다.

김영길 경사는 고성군 하이면 지서에서 무장공비의 기습을 받아 이에 응전하다가 1948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길 (金 榮 吉)　육군 대위 군번 10903

김영길 대위는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이태원동(梨泰院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1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 남산동에서 창설되었으며, 12월 28일 경기도 수색으로 이동하여 교육훈련에 주력하다가 1948년 1월 10일 1개 중대를 문산에 주둔시켜 임진강 나루터 부근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보병부대와 함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길 대위는 여단이 1949년 1월 10일 예하 연대를 경기도 수색으로 이동 옹진지구 및 파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敍)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8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남 (金 永 男)　육군 하사 군번 1111114

김영남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1949년 5월 23일부터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 동두천 및 포천 북방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2일 200여명의 북한군이 아군 전초진지가 있는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입해 오자 제1연대의 2개 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적 12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남 하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2-0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달 (金 永 達) 육군 일등병 군번 0145211

김영달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압량면(押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전투력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달 일등병은 경상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7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도 (金 榮 道)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0255

김영도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진양군(晋陽郡) 문산면(文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5연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3월 1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共匪討伐)에 주력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포항 방면으로 출동, 경북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영도 일등중사는 사단이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던 기간 중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

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돈 (金 永 敦) 육군 일등병 군번 0220208

김영돈 일등병은 1930년 3월 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광도면(光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여단으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어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영돈 일등병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동 (金 榮 東)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3592

김영동 이등상사는 1932년 7월 3일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강경읍(江景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한 후 경기도 옹진반도로 이동,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연대는 11월 15일부로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동 이등상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락 (金 榮 洛) 육군 일등병 군번 5207299

김영락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강진면(江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부터 옹진지구의 국사봉과 두락산 일대를 공격·점령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두락산 일대를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인천에서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 후 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1950년 4월 12일 제11연대와 임무교대하고 개성으로 이동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영락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래 (金 榮 來)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2423

김영래 이등중사는 국방경비대 제8연대에 입대한 후 제10연대에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강릉에 주둔하면서 태백산지역 일대에 대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였다. 여수·순천반란군의 일부와 남로당계 공비들이

1949년 2월 지리산을 거쳐 태백산맥을 따라 북상하여 오대산으로 잠입하려 하자, 강릉에 주둔 중이었던 제10연대는 이를 포착 격멸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영래 이등중사는 태백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9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래 (金 瑛 來) 육군 하사 군번 1304049

김영래 하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입암면(笠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우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철수시 원대 복귀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서울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래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194번으로 봉

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록 (金 永 錄) 육군 이등중사 군번 5302712

김영록 이등중사는 1929년 10월 20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점암면(點岩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밤에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일으켜 여수시내를 점령하고, 20일 17:00시경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파괴하고 경찰관을 살해한 후 관공서와 은행 등을 점거하고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10월 21일 광주에 설치된 반군토벌전투사령부는 5개 연대(10개 대대)와 1개 비행대를 투입하여 진압작전을 전개,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및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반란이 진압되자 반란군잔당과 반란에 가담했던 지방 좌익분자들은 백운산(白雲山)과 지리산(智異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전라남·북도지역과 경상남도 북서부지역 일대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1948년 11월 30일까지 지리산지구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록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5일 전라남도 구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13－5346번으로 안장(安葬)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록 (金 永 錄) 육군 일등병 군번 0333759

김영록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동촌(東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에 위치해 있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50년 3월까지 북한이 총 2,345명에 이르는 인민유격대를 10차에 걸쳐 38도선 동북방면 오대산 일대로 남파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시키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오대산, 보현산 일대에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만 (金 永 萬) 육군 하사 군번 1201646

김영만 하사는 1929년 11월 20일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광석면(光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2연대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북한군의 불법침입을 받아 육탄 10용사로 유명한 송악산전투, 배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북한군이 1949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송악산 부근 및 개성시내에 무차별 박격포사격을 가하면서 침공해 오자, 7월 25일 제11연대는 즉시 반격을 개시하여 피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계속하던 중, 8월 3일에는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제11연대는 송악산전투 이래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문산지구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만 하사는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만 (金 永 滿) 육군 이등병 군번 9802823

김영만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육군보병학교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 인민유격대가 계속적으로 남파되고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육군본부는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제주도지역을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영만 이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 지리산지구·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만 (金 榮 萬) 육군 이등중사 군번 2603215

김영만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진주군(晋州郡) 봉곡면(鳳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8월 말,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가 증가되고 그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영만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일 태백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1-1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목 (金 永 睦) 경찰 경사

김영목 경사는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관산면(冠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여수·순천반란사건은 사건 발생 9일만에 일단 진압되었으나 잔여반란군은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분산 도주하였다. 이들은 구례, 하동, 곡성, 광양, 무주, 장수, 남원, 거창, 산청, 함양, 진주 등지에 출몰하여 관공서 습격을 위시한 방화, 약탈, 살인 및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영목 경사는 곡성경찰서에서 근무 중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1948년 12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목 (金 永 穆) 육군 소령 군번 10811

김영목 소령은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면(水原面) 신안리(新安里)에서 태어나 1948년 4월 6일 경비사관학교 제5기로 졸업 후 임관되어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김달삼 일당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에서 4·3폭동사건을 일으키자 제11연대는 동년 5월 5일 제주도로 출동하여 7월 24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수원으로 이동하였다.

1949년 1월 12일 연대는 수원에서 문산지역으로 이동하여, 제2대대(대대장, 김종훈 대위)를 48km에 이르는 개성지구38도선에 배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5월 3일 미명에 송악산 488고지의 능선을 타고 침공하여 송악산을 점령하자 연대는 5월 4일부터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5월 8일 저녁에야 적을 격퇴시키고 비둘기고지와 292고지를 탈환하였다.

김영목 소령은 제11연대 하사관 교육대장으로서 제1차 송악산전투에 참가하여 반격작전을 지휘하던 중 1949년 5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민 (金 永 珉) 육군 일등병 군번 0321207

김영민 일등병은 1924년 12월 30일 전남 광양군(光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여수·순천반란군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소탕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괘관산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을 사살하는 등 혁

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영민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배 (金 英 培)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7510

김영배 일등중사는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내가면(內可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육군수색학교 독립제1대대에서 복무하였다.

독립제1대대는 1948년 12월 6일 무장공비소탕을 위한 유격부대로 창설되어 1949년 3월 1일부터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덕유산을 완전 포위하고 공비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독립제1대대(38부대)는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949년 6월 7일 새벽을 기해 태탄주둔 북한군 38경비여단 본부를 습격하였으나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철수하였다. 또한 독립제1대대는 두락산 공격의 일익을 담당하여 6월 17일 은파산을 점령 후 고지를 인수받아 방어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배 일등중사는 독립제1대대가 옹진지구에서 고지탈환을 위해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던 중 1949년 6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복 (金 泳 福)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09

김영복 이등병은 1924년 9월 9일 강원도 홍천군(洪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동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복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봉 (金 永 奉)　육군 일등병 군번 0215512

김영봉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진동면(鎭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행동반경이 확대되고 납치, 학살, 약탈, 방화 등의 만행이 계속 자행되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사단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1950년 3월 15일까지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전투경찰대와 합동으로 약 5개월간에 걸쳐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수천여명의 공비를 귀순시키는 등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영봉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삼 (金 永 三)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0663

김영삼 이등중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연희동(延禧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14일 이후 북한은 10차례에 걸쳐 인민유격대를 남파시켜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보현산, 오대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다. 5개월여에 걸친 토벌기간동안 육군본부는 직할부대인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독립제1대대 등을 지원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데 성공하였다.

김영삼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1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석 (金 永 錫)　경찰 경사

김영석 경사는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남양면(南陽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지방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을 가담시켜 여수·순천을 공산천하로 돌변시킨 반란사건이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를 완전 장악한 반란군의 주력은 10월 20일 여수에서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순천의 전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특히 순천지역에서는 경찰관 400여명이 반란군진압작전을 펼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김영석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948년 10월 20일 반란 진압차 순천으로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敍)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석 (金 英 錫) 육군 일등병 군번 0362513

김영석 일등병은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부곡면(富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된 후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 창설 이후 충청북도 충주와 청주로 이동하였다가 1949년 2월 22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한 후에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1950년 3월에는 홍천지구 홍정산 일대에 북한군 500여명이 침투하자 이를 완전 포위하여 두목을 포함하여 400여명을 사살하고 45명을 포로로 잡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석 일등병은 홍천지구 홍정산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5-0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선 (金 永 先) 경찰 경사

김영선 경사는 1917년 12월 12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담양면(潭陽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순천반란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지방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을 가담시켜 일으킨 군대의 반란사건이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를 완전 장악한 반란군의 주력은 10월 20일 여수에서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순천의 전 시가지를 완전 점령하였다. 특히 순천지역에서는 경찰관 400여명이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던 중에 전사하거나 반란군에 의해 학살되었다.

김영선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차 순천으로 출동하여 1948년 10월 20일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敍)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榮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43056

김영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 제2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8사단에 편입된 후 다시 태백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투입되어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1950년 5월 5일 제8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2사단에 예속됨과 동시에 청주로 이동하여 충청남·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수 일등병은 제6연대가 청주에 주둔하면서 잔여공비토벌작전과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榮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48593

김영수 일등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이해 8월 13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11월 15일 작전임무를 마치고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수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永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63527

김영수 일등병은 1929년 8월 11일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지곡면(池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수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향토방위작전 및 잔여공비소탕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

顯忠院)에 위패번호 22-8-1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英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805962

김영수 일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 홍천, 원주지역(제3대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3월 26일부터는 인제군지역으로 침투(제10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50여명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영수 일등병은 인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5일 강원도 홍천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2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榮 秀)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0656

김영수 일등상사는 1928년 4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문창동(文昌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북한군의 불법침입을 받아 육탄 10용사로 유명한 송악산전투, 배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북한군이 1949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송악산 부근 및 개성시내에 무차별 박격포사격을 가하면서 침공해 오자, 7월 25일 제11연대는 즉시 반격을 개시하여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계속하던 중, 8월 3일에는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제11연대는 송악산지구전투 이래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문산지구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수 일등상사는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永 秀)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3272

김영수 일등중사는 1925년 6월 5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공주읍(公州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경기도 옹진반도로 이동,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1월 15일부터는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수 일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19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永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5754

김영수 일등중사는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되어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 2월 22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한 후에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1949년 6월부터 오대산지역 및 홍천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김영수 일등중사는 홍천지구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수 (金 榮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511

김영수 일등중사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되어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1949년 2월 22일 청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후에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기간 중 1949년 6월부터 오대산지역 및 홍천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김영수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08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순 (金 永 淳) 육군 하사 군번 1805747

김영순 하사는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주산면(舟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8연대에 입대한 후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고, 1948년 10월 30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다시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영순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무주에서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술 (金 永 戌) 육군 일등병 군번 0329093

김영술 일등병은 전라북도 남원군(南原郡) 화정면(花井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참가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 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영술 일등병은 지리산지구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榮 植)　육군 하사 군번 1805610

김영식 하사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육군 제8연대에 입대한 후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 이후에도 지역내에서 준동하던 잔여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영식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榮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29506

김영식 일등병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8월 말,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은 제2사단 제16연대와 제3사단 제22연대, 제8사단 제21연대가 각각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가 증가되고 그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공비들을 거의 소탕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영식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永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4226

김영식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풍산면(豊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5월 이후 남한의 국내정세는 적화통일을 무력으로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공산분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특히 각 지방의 관공서를 습격하고 살인, 납치, 방화 및 약탈을 자행하여 사회를 혼란 속에 몰아넣었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마산에서 창설된 후 부대편성과 훈련에 주력하면서 좌익폭동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영식 이등중사는 이 좌익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5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永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703545

김영식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군외면(郡外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경찰과 합동으로 좌익폭동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진압을 위해 출동하였다. 1949년 3월 10일에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9년 5월 9일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식 이등중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5-2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永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0046

김영식 일등병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서수면(瑞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수색대로 창설되어 서울 용산으로 이동후 1948년 12월 10일부로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발생시 장갑중대를 출동시켜 반란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함으로써 강필원 대위 이하 전 장병이 일계급씩 특진하는 영광을 안으며 부대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다.

김영식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永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4473

김영식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3월 1일 1개 대대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5월 9일까지 경찰과 합동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동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식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식 (金 永 植)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3131

김영식 일등중사는 1926년 10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용남면(龍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제3대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정예요원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3월 26일부터는 인제군지역으로 침투(제10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50여명을 추격 소탕하였다.

김영식 일등중사는 인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안 (金 永 安) 육군 일등병 군번 5306999

김영안 일등병은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대촌면(大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로 개편하여 창설된 후 나주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로 제1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영안 일등병은 나주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2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안 (金 永 安) 육군 하사 군번 9521685

김영안 하사는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문내면(門內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제5여단에 편입된 후, 동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그후 인민유격대의 계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대되자 군·경수뇌회의에서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사살 365명, 생포 187명, 귀순 4,964명, 아지트 파괴 168개소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안 하사는 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연 (金 永 年)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3927

김영연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인현동(仁峴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9년 5월 21일 북한군이 송악산지역 국사봉 일대로 침공해 오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탈취당했던 아군의 진지를 거의 회복하는 전과를 올렸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인천에서 문산과 수색으로 이동후 문산지역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시 제12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개성으로 이동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영연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열 (金 永 烈)　육군 이등병 군번 0161597

김영열 이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성서면(城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춘천, 홍천, 원주 지역(제3대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 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홍천군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소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잔여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영열 이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옥 (金 永 玉)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5178

김영옥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기성면(杞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복귀하여 경기도 옹진반도로 이동,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옥 이등중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욱 (金 永 旭) 경찰 경위

김영욱 경위는 1921년 9월 15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서창면(西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김영욱 경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있던 육군 제14연대의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진압병력으로 출동하여 1948년 10월 20일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追敍)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욱 (金 永 郁) 육군 일등병 군번 0341890

김영욱 일등병은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혜화동(惠化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었으며, 1949년 11월 15일부터 1950년 3월 1일까지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욱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원 (金 永 元)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1695

김영원 일등중사는 1930년 2월 23일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이화동(梨花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군토벌사령부 지시에 의거, 출동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호남방면전투사령부,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3차례의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사단은 4월 30일까지 순천·남원지역에서 잔여공비소탕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원 일등중사는 순천·남원지역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을 (金 永 乙)　육군 이등중사 군번 3101191

김영을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외서면(外西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제1차 송악산전투,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개성·배천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제2차 송악산전투 등에서 아군의 진지를 모두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영을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4-08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조 (金 英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36665

김영조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49년 6월 10일부터 1950년 6월까지 오대산 일대에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당시 북한은 소위 인민유격대를 남한으로 침투시켜 사회 혼란을 꾀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특히 제천, 영월, 정선, 삼척, 단양, 예천, 안동, 울진지역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김영조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5-2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주 (金 永 柱) 육군 일등병 군번 1504322

김영주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釜山)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부터 70일간에 걸쳐 전개된 제주지역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영주 일등병은 계속되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2월 1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1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주 (金 永 周)　육군 일등병 군번 5303019

김영주 일등병은 경상북도 문경군(聞慶郡) 영순면(永順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8월 13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주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주 (한자미상)　육군 일등중사 군번 1303646

김영주 일등중사는 1928년 11월 28일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여산면(礪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여단으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어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소탕(共匪掃蕩)에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주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진 (金 永 珍) 경찰 경사

김영진 경사는 1928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신광면(神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경상북도경찰국은 1949년 초부터 태백산맥 일대의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약 200명과 경상북도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영진 경사는 1949년 2월 3일 영일군 동해면 대동배리 뒷산에서 공비와 교전 중 납치되어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追敍)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진 (金 永 振) 육군 일등병 군번 0153201

김영진 일등병은 1926년 3월 30일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상남면(上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되어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은 1949년 6월 북한군 1개 대대병력이 오대산지역 일대로 남하하자 이를 격퇴하고, 동년 8월 6일 강원도 홍천 북방 신남지역에 침입한 북한군 1개 대대규모를 포착하여 8월 26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 완전히 적을 격퇴시켜 대전과를 거두었다.

김영진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진 (金 永 鎭) 육군 일등병 군번 0332962

김영진 일등병은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모현면(慕賢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옹진으로 이동하여 동년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 2차 옹진지구 전투에서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진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8-2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진 (金 永 鎭) 육군 일등병 군번 0340931

김영진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녹번동(碌磻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1949년 5월 23일부터 경기도 의정부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 동두천 및 포천 북방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2일 200여명 북한군이 아군 전초진지가 있는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입해 오자 제1연대의 2개 중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진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5

-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차 랑 (金英次浪) 육군 일등병 군번 0341966

김영차랑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온양면(溫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야전공병단에서 복무하였다.

야전공병단은 1948년 8월 20일 경기도 부평에서 육군 제1공병단으로 창설되었다. 1949년 1월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은 후, 38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방해사격 속에서도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야간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김영차랑 일등병은 38도선 일대에서 방어진지구축작업을 실시하던 중 1949년 9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창 (金 永 昌) 육군 일등병 군번 0347359

김영창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남정면(南亭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남·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영창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향토방위작전 및 잔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0-2-0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철 (金 永 喆) 육군 일등병 군번 0217959

김영철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면(統營面) 태평리(太平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50년 3월까지 북한이 총 2,345명에 이르는 인민유격대를 10차에 걸쳐 38도선 동북방면 오대산 일대로 남파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와 합세하여 후방을 교란시키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오대산, 보현산 일대에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철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출 (金 永 出) 육군 하사 군번 0339617

김영출 하사는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고령읍(高靈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3교육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초부터 38도선 동북방면으로 북한인민유격대가 계속 남파되어 강원도 오대산지역에서는 인민유격대토벌작전이 수차례 실시되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를 중심으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출 하사는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출 (金 榮 出)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4118

김영출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삼성면(三成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일 발생한 대구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이후 1949년 2월 20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0일 춘천으로 다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이 기간 중 8월 4일 홍천군 신남지역에 대규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하여 적을 대부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출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追敍)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태 (金 永 泰) 육군 이등중사 군번 8812927

김영태 이등중사는 1927년 1월 20일 경상남도 산청군(山靑郡) 신안면(新安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38도선경비강화를 위해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연

대는 동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태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태 (金 榮 泰) 육군 일등병 군번 0326062

김영태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포항읍(浦項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군은 개성지구 송악산 침공에 뒤이어 1949년 5월에는 옹진지구를 침공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북한군의 대공세에 대비하였는데, 특히 제12연대는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육탄 10용사의 빛나는 용전에 힘입어 아군진지를 완전탈환하는 전승을 거두었다. 이후에도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문산과 수색으로 이동 후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영태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8-21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태 (金 永 太) 육군 하사 군번 1302618

김영태 하사는 1925년 10월 25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북면(北面)

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제1차 송악산전투, 1949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개성·배천지구전투, 1949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제2차 송악산지구전투 등에서 아군의 진지를 모두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영태 하사는 제1사단이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0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택 (金 泳 澤) 육군 일등병 군번 0325517

김영택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포항읍(浦項邑) 학산리(鶴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수도경비작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7월 1일부터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38도선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였다.

김영택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수행 기간 중, 1950년 6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6-2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팔 (金 永 八)　육군 일등병 군번 5102209

김영팔 일등병은 1928년 7월 8일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소제동(蘇堤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가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1950년 1월 3일 서울에서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동,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농촌재건사업 및 민심수습, 원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키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팔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하 (金 永 夏)　육군 대위 군번 15921

김영하 대위는 1950년 1월 14일 육군사관학교 제9기로 임관하여 육군본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육군본부는 반란군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도주한 반란군 잔여병력을 섬멸하기 위해 1948년 10월 30일부터 한달여간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다.

한편, 1949년 초 국군이 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후 옹진, 개성, 춘천지구 등 38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침공이 계속되었으며, 북한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준동이 계속되자 육군본부는 각 지구

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영하 대위는 1950년 3월 22일 공비토벌작전을 지휘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2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한 (金 榮 瀚) 경찰 경위

김영한 경위는 1925년 7월 1일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회화면(會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남도경찰국 거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영한 경위는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 기간 중, 1949년 2월 11일 거제군 장승포읍에 침입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향 (金 寧 鄕) 육군 일등병 군번 2202273

김영향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연평면(蓮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948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던 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1월 20일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고자 1개 대대가 출동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2월 하순에는 서림리와 잔교리로 침투한 북한군 제766군부대 일부 병력을 대부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영향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현 (金 永 鉉) 육군 하사 군번 1703037

김영현 하사는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보은면(報恩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7연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육군통신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육군통신학교는 보병연대의 계속적인 증편에 따른 통신업무가 급증하자, 통신기술병의 양성을 위해 1948년 8월 26일 육군본부 직할로 서울 영등포에 설치되었다.

당시 육군본부는 준동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리산, 오대산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 작전을 위해 교육기관요원들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영현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17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호 (金 永 浩) 경찰 경사

김영호 경사는 1926년 7월 7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압해면(押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여 9일만에 완전히 진압하고,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영호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27일 영광군 군남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화 (金 泳 和) 경찰 경위

김영화 경위는 1924년 2월 5일 출생하여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부대 내로 침투한 좌익세력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폭동진압차 출동하던 제14연대 제1대대를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이에 지방 좌익세력과 동조자들이 가담하게 되어 여수·순천을 공산천하로 돌변시킨 건군사상 그 유례가 없는 군대의 반란사건이다.

김영화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반란진압 후 계속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48년 1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환 (金 永 煥) 경찰 경사

김영환 경사는 1925년 3월 8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곡성면(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 이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영환 경사는 공비토벌을 위하여 영광군 군남면지역으로 출동 도중 적의 기습을 받아 교전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환 (金 永 煥) 경찰 경위

김영환 경위는 1924년 8월 10일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진보면(眞寶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북도경찰국 영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양경찰서는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약 200명과 경상북도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영환 경위는 1949년 6월 25일 영양군 청기면에서 2개 소대규모의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환 (金 永 煥) 경찰 경위

김영환 경위는 1930년 1월 26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읍(和順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장홍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 이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계속된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영환 경위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공비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교전하다가 1949년 7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환 (金 永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79061

김영환 이등중사는 1930년 11월 6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동구면(東區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총출동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또한 지리산 일대에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3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2차에 걸쳐 지리산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참가하여 대대적인 포위·수색작전 및 귀순공작 등을 전개하였다.

김영환 이등중사는 1950년 4월 30일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이 종료된 후, 제5사단이 원대복귀하여 지역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영 환 (金 英 煥) 육군 일등병 군번 2903981

김영환 일등병은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광천면(廣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 침공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 아군진지를 완전 탈환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적을 격퇴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후 1950년 1월 20일까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영환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예 식 (金 藝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29885

김예식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완월동(玩月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보충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예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

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예 식 (金 藝 植) 육군 일등병 군번 6800201

김예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은척면(銀尺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8월 30일부터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 30일까지는 경상북도 일대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예식 일등병은 이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3일 경주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오 동 (金 五 東)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4255

김오동 이등상사는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

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으로써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오동 이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2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오 봉 (金 悟 鳳) 육군 일등병 군번 0117001

김오봉 일등병은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하장면(下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수색대로 창설되어 서울 용산으로 이동후 1948년 12월 10일부로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발생시 장갑중대를 출동시켜 반란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하였다.

김오봉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두 (金 玉 斗) 경찰 경사

김옥두 경사는 1916년 9월 20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곡성면(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의 좌익분자들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켜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여수시내를 완전히 휩쓸고, 좌익단체와 합세하여 각 관공서와 은행 등 주요 공공기관을 점령하였다.

김옥두 경사는 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을 위하여 최후까지 용전분투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배 (金 玉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401139

김옥배 일등병은 1928년 8월 12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함창면(咸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이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소위 9월공세설을 퍼트리며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등 발호가 극심해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태백산지구에서는 육군본부 직할 서울유격대도 참가하였으며, 군경의 협조된 공비토벌작전으로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옥배 일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실시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성 (金 玉 星)　육군 일등병 군번 2499638

김옥성 일등병은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 양산면(梁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에서 수색대로 창설되어 서울 용산으로 이동후 1948년 12월 10일부로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발생시 장갑중대를 출동시켜 반란군을 효과적으로 진압한 후 복귀시켰다.

김옥성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술 (金 玉 述)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4159

김옥술 일등중사는 충청남도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여수·순천지역을 다시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그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다가 동년 12월 29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옥술 일등중사는 이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암 (金 玉 岩) 육군 일등병 군번 5204844

김옥암 일등병은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안성면(安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5월 하순에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두락산과 국사봉 탈환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은 탈환하였으나 국사봉은 탈환하지 못한 채 7월 5일 제18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수색과 문산으로 철수하였다. 그후 연대는 연대본부를 문산에서 개성으로 이동하여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옥암 일등병은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옥 현 (金 玉 鉉) 육군 하사 군번 9300306

김옥현 하사는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동강면(洞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에서 수도방위를 목적으로 창설된 이래, 수도경비작전 및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7월 1일부터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38도선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였다.

김옥현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금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완 기 (金 完 基) 경찰 경사

김완기 경사는 1926년 10월 1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석곡면(石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토벌부대에 쫓겨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완기 경사는 1949년 5월 21일 담양군 월산면 용흥사지역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완 기 (金 完 基)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7225

김완기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으로써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완기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용전분투하였으

나 1949년 11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완 수 (金 完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3300907

김완수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홍성면(洪城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에 임하여 오던 중, 1949년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제7사단 예하 제1연대 2개 중대규모가 이를 포착하여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또한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2개 대대규모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완수 이등중사는 1950년 1월 3일부터 의정부지구 동두천 및 포천 북방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완 식 (金 完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58899

김완식 이등중사는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여단은 서울 태릉 주둔 제1연대, 청주 주둔 제7연대, 춘천 주둔 제8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남산 예장동에서 창설되었으며, 1947년 12월 28일 사령부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제1여단이 수색에서 훈련에 임하고 있을 때, 북한군은 문산지역 38도선 일대에서 수시로 38도선을 불법침입하여 남한사회의 혼란을 기도하였다. 이에 제1여단은 예하 제1연대 1개 중대를 문산에 주둔시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김완식 이등중사는 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완 식 (金 完 植) 육군 하사 군번 1134600

김완식 하사는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송광면(松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군토벌사령부에 배속,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한 후, 1949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완식 하사는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왕 수 (金 旺 洙)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왕수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1월,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은 후 북한군이 38도선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불법침공과 총격을 가해 와 38도선 일대에서는 끊임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한국전쟁 발발전까지 38도선 동북방면으로 10차에 걸쳐 북한 인민유격대가 태백산맥을 타고 침투해 와,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왕수 일등병은 육군이 전·후방에서 공비토벌에 주력하던 당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외 곤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1038616

김외곤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8일까지의 제1차 송악산전투, 1949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의 개성·배천전투, 1949년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의 제2차 송악산전투 등에서 아군의 진지를 모두 회복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북한군은 1949년 5월 21일 옹진지구를 불법침공해 왔는데, 사단은 1949년 11월 15일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적을 격퇴하였다.

김외곤 이등병은 옹진·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욕 선 (金 欲 善)　육군 일등병 군번 0165123

김욕선 일등병은 1933년 6월 16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 중부면(中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었다. 제8사단은 강릉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제10연대는 주로 38도선 동부지역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제21연대는 태백산맥 동부지역에 대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전사에 배속되어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욕선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욕 진 (金 慾 振)　육군 일등병 군번 0322714

김욕진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동부면(東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경기도 옹진으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1·2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욕진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각 (金 龍 珏)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997

김용각 이등상사는 1928년 3월 31일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 송정리(松亭里)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동해안지역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도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50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38도선 부근 명리 및 정족산지역에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였으며, 1950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인민유격대 김상호부대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50년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정족산전투에서도 북한군을 격퇴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김용각 이등상사는 정족산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동(東) 15-15485번으로 안장(安葬)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걸 (金 容 杰) 육군 일등병 군번 0400705

김용걸 일등병은 1928년 1월 26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대창면(大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여단은 1949년 1월 7일 창설된 이래, 부대정비 및 교육훈련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동년 2월 1일부로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걸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7-2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구 (金 龍 九)　육군 일등병 군번 0345488

김용구 일등병은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작천면(鵲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되었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강원도 태백산지구의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등 산악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구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권 (金 容 權)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3890

김용권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읍 사천리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일 발생한 대구반란진압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하였으며, 그 이후 1949년 2월 20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0일 춘천으로 다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이 기간 중 8월 4일 홍천군 신남지역에 대규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을 8월 26일까지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용권 일등중사는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규 (金 龍 圭) 경찰 경사

김용규 경사는 1934년 8월 5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암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 이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호남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규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보성에서 1949년 1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균 (金 容 均) 경찰 경사

김용균 경사는 1923년 9월 9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칠양면(七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진압군의 반격으로 형세가 불리해진 반란군들은 지리산, 백운산 등으로 분산 도주하여 각 지역 경찰서를 습격 파괴하였으며, 경찰관과 양민을 살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며 영호남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용균 경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월 18일 영암군 도갑사에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근 (金 龍 根) 육군 중위 군번 14422

김용근 중위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 아군진지를 완전 탈환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적을 격퇴하고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그후 연대는 1950년 1월 20일까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용근 중위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근 (金 容 根) 육군 하사 군번 1307395

김용근 하사는 전라남도 광주시(光州市) 지산동(芝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잔여반란군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戰功)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

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용근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3-1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기 (金 容 基) 경찰 경사

김용기 경사는 1915년 2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미암면(美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보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과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9일만에 완전히 진압하고, 그후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계속해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기 경사는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27일 보성군 율어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기 (金 龍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24331

김용기 일등병은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출동한 이래로, 광주, 순천, 남원 등 호남지역에 주둔하며 공비소탕(共匪掃蕩)에 주력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지리산의 공비들이 계속 납치,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약 5개월여에 걸쳐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기 일등병은 전라북도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길 (金 勇 吉)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용길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1월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은 이후 북한군이 38도선 일대에서 불법침공과 총격을 가해 와 옹진, 개성, 춘천 등 38도선 일대에서는 교전이 끊이질 않았으며, 북한은 1948년 11월 14일부터 1950년 3월 28일까지 38도선 동북방면으로 10차례에 걸쳐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여 후방을 교란시키고자 획책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한국전쟁 전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는데, 직할부대에서도 병력을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용길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장소와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대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5307175

김용대 일등병은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나주읍(羅州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1950년 5월 초에 광주시 주둔지로 복귀하여 책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대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덕 (金 容 德) 육군 일등병 군번 1805835

김용덕 일등병은 1929년 5월 26일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용두동(龍頭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 원주지역(제3대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을 사살 및 생포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1949년 5월 초 38도선경비임무를 인계하고 원주지역으로 이동 후 동년 8월 4일부터 강원도 홍천군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덕 일등병은 홍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9일 강원도 홍천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는 30-7-21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덕 (金 容 德)　육군 일등병 군번 5803776

김용덕 일등병은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계곡면(溪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옹진지구로 침공해 오자 공방전을 벌인 끝에 탈취당했던 아군의 진지를 거의 탈환하는 전승을 거둔 바 있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인천에서 문산 및 수색으로 이동 후 북한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덕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도 (金 容 道)　육군 일등병 군번 1201717

김용도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송악산전투 및 배천(白川)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북한군이 1949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송악산 부근 및 개성시내에 무차별 박격포사격을 가하면서 침공해 오자, 7월 25일 제11연대는 반격을 개시하여 피아간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를 계속하던 중, 8월 3일에는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진지를 탈환한 후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도 일등병은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

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 번호 28-3-171번으로 봉안하였다.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득 (金 龍 得) 육군 이등상사 군번 2701324

김용득 이등상사는 1925년 2월 14일 경상북도 청도군(靑道郡) 화양면(華陽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송악산전투, 배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또한 북한군이 1949년 7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송악산 부근 및 개성시내에 무차별 박격포사격을 가하면서 침공해 오자, 7월 25일 제11연대는 즉시 반격을 개시하여 8월 3일에는 적을 완전히 격퇴하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제11연대는 송악산전투 이래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문산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득 이등상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18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락 (金 容 烙) 경찰 경위

김용락 경위는 1925년 1월 25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경상북도경찰국 구미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사회 질서가 어지러운 시기를 이용하여 남한에서의 좌익세력

은 1946년 9월 철도노조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과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 군내부 좌익세력의 침투 등 연쇄적인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군과 경찰은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좌익분자들은 산악지대로 도주하여 공비로 전락된 후 각 지역 경찰관서 습격 등 각종 만행을 저지르자, 군부대와 각 경찰서는 지속적인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용락 경위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1948년 5월 6일 선산군 고아면에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래 (金 容 來)　경찰 경사

김용래 경사는 전라남도 순천(順天)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벌교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전라남도경찰국 지시에 의해서 순천경찰서 주암지서에 설치한 전투지휘소에 지원병력을 파견, 죽두봉과 풍덕천을 경계로 반란군 세력 확장 저지에 공헌하였다.

김용래 경사는 순천지역으로 이동한 반란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만 (金 龍 萬) 육군 일등병 군번 0324411

김용만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만석동(萬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경기도 옹진으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1·2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등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우고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이후부터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만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3-0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만 (金 龍 萬) 육군 일등병 군번 5300343

김용만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진북면(鎭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제4여단에 예속되었다가 1949년 2월 1일에 제5여단으로 예속되었다. 그후 연대는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호남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김용만 일등병은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

에 위패번호 34-4-0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문 (金 龍 文) 육군 일등병 군번 2700453

김용문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백운산에서 공비의 은거지를 파괴하고 매복조를 운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구례군의 공비조직망이 수록된 문서를 습득하여 공비와 내통한 공산분자들을 색출, 검거하는 등의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험준한 산간지대에서 포위, 수색작전을 펼치며 용전분투하였다.

김용문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순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0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본 (金 龍 本) 경찰 경사

김용본 경사는 1923년 3월 5일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 안좌면(安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강진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전라남도경찰국 제8관구경찰청 지시에 의해 순천경찰서 주암지서에 설치한 전

투지휘소에 지원병력을 파견, 죽두봉과 풍덕천을 경계로 반란군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계속해서 지리산,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본 경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강진군 성전면에서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3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석 (金 容 錫) 경찰 경사

김용석 경사는 1929년 5월 17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보성면(寶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고흥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전라남도경찰국 제8관구경찰청 지시에 의해서 순천경찰서 주암지서에 설치한 전투지휘소에 지원병력을 파견, 죽두봉과 풍덕천을 경계로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석 경사는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선 (金 龍 善) 육군 하사 군번 2605061

김용선 하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삼성면(三成面)에서 태어나 육

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공비들을 소탕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50년 4월 5일부로 제2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8사단에 편입된 후 다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선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10-1728번으로 안장(安葬)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섭 (金 龍 燮) 육군 이등병 군번 0112517

김용섭 이등병은 1931년 12월 25일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구공비토벌(共匪討伐)작전에 주력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함으로써 사회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후 사단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김용섭 이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성 (金 溶 成)　육군 이등상사 군번 1500933

김용성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대동면(大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8월 11일 1개 대대가 경상남도 창원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연대는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경상남도 양산, 밀양, 울산지역과 경상북도 안동지구를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성 이등상사는 공비토벌작전 중 부상을 당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50년 5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수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0339310

김용수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陽州郡) 이담면(伊淡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1949년 4월 20일까지 지리산, 보성 및 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및 보현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용수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7－0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수 (金 龍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3398

김용수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김종원(金宗元) 대위가 지휘하는 1개 대대(377명)를 10월 23일 LST(天安號)로 여수신항에 상륙시켜 반란군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1949년 1월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제3대대(대대장 李重漢 대위)를 배속시켜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5월 9일에 개선하였다.

제5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박기성(朴基成) 중령 이하 1,158명이 안동지구에 출동하여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김용수 일등중사는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후송된 후 1950년 5월 26일 제2육군병원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수 (金 龍 水)　육군 일등병 군번 0120331

김용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구(東區) 수정동(水晶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水原)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에는 제주도 제주읍(濟州邑)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5월 30일 연대

본부를 문산(汶山)에서 개성(開城)으로 이동,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수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수 (金 龍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0180

김용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 남산동(南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光州)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에는 전라북도 남원(南原)으로 이동하여 제5사단에 예속되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하여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수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1950년 6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6－2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순 (한자미상) 육군 하사 군번 9302847

김용순 하사는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한천면(寒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光州)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월 3일에는 남원(南原)으로 이동하여 제5사단에 예속되어 지리산 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原州)로 이동, 5월 1일부로 제6사단에 편입되어 춘천지구38 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순 하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지역내로 침투한 무장 공비와 교전하다가 1950년 5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술 (金 龍 述) 육군 일등병 군번 6803848

김용술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온양면(溫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대구 주둔 제6연대를 개편(改編)하여 창설되었으며, 그후 1949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군 비슬산 일대와 안동군 학가산 일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50년 1월 5일부터는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2월 28일까지 운문산과 화악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술 일등병은 이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식 (金 容 植)　육군 일등상사 군번 1306016

김용식 일등상사는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와 구례, 광양, 하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위천,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공비두목 김지회(金智會), 홍순석(洪淳錫) 등 일당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1949년 5월 9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어 지리산 일대에 은거하던 공비들이 활동을 재개하자 육군본부는 9월 28일부로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다시 설치하고 제3연대와 제15연대 및 제20연대를 투입하여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용식 일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식 (金 用 植)　육군 일등병 군번 2301955

김용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水原)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8년 11월미 제32연대로부터 고랑포(高浪浦)에서 청단(靑丹)에 이르는 지역을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1949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7

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적을 격퇴시키고 송악산(488고지) 일대를 탈환하였으며, 그후에도 1950년 4월 12일까지 연대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용식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아 (金 容 兒) 육군 일등중사 군번 1305047

김용아 일등중사는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춘천면(春川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와 구례, 광양, 하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김지회, 홍순석 등 두목일당을 사살하였으며, 그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용아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안 (金 龍 安)　육군 특무상사 군번 1200462

김용안 특무상사는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논산면(論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大田)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는 육·해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용안 특무상사는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일 지역내로 침투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암 (金 龍 岩)　경찰 경사

김용암 경사는 1916년 5월 8일 경기도 옹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건국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의 좌익분자들이 군·경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 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살인, 납치, 방화,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용암 경사는 지역내에서 실시된 공비토벌작전(共匪討伐作戰)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월 27일 영광군 소재 대청산에서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

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연 (金 容 連) 경찰 순경

김용연 순경은 1928년 7월 27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평창면(平昌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6월 1일 북한 인민유격대 약 400명이 오대산(五臺山) 일대로 침투 남하하였으며, 7월 6일에도 약 200명이 침투 남하하였다.

김용연 순경은 지역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7일 평창읍에서 공비를 추격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옥 (金 用 玉) 육군 일등병 군번 1900958

김용옥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기성면(杞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慕瑟浦)에서 창설되어 1948년 9월부터 한라산 일대에서 토끼몰이식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성과가 없자 연대는 "귀순자는 신원(身元)과 생계(生計)를 보장한다"는 전단을 살포하여 천여명의 공비를 귀순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제9연대는 제1대대를 제주읍, 제2대대를 성산포, 제3대대를 모슬포에 주둔시켜 중대 또는 대대단위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공비들의 보급창고, 병기수리소 및 아지트 등을 파괴하고 10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8년 12월 29일 제2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충청남도 대전으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옥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19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운 (金 龍 雲) 경찰 경사

김용운 경사는 1927년 4월 5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금정면(金井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에는 반란군을 완전진압하였다. 그후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김용운 경사는 계속해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보성(寶城)경찰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12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功勳)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익 (金 容 翼) 경찰 경사

김용익 경사는 1920년 1월 3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보성면(寶城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경찰관서 및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자, 여수경찰서는 전 경찰병력을 동원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김용익 경사는 초기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0일 여수시내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익 (金 容 翼) 경찰 경위

김용익 경위는 1930년 8월 25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해룡면(海龍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도(叛徒)들은 군·경진압부대에 쫓겨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후 근거지를 구축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영·호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면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용익 경위는 광양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9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인 (金 龍 寅) 육군 이등병 군번 8101566

김용인 이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대덕면(大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馬山)에서 창설되어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한 후 1949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및 부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안동, 밀양, 양산, 언양, 울산 등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인 이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재 (金 容 再) 육군 일등병 군번 6600478

김용재 일등병은 1927년 8월 1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영암면(靈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의 주요시설경비를 담당하였다. 제1대대는 9월 28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동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김달삼부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 인민유격대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용재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재 (金 龍 載) 경찰 경사

김용재 경사는 1922년 6월 5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강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초 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특히 전라남도 남부지역에서 테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용재 경사는 함평경찰서 관내지역에 증원부대로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재 (金 龍 載) 경찰 경사

김용재 경사는 1927년 2월 27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초부터 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삼아 특히 전라남도 남부지역에서 테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김용재 경사는 영암경찰서 관내지역에 증원부대로 출동하여 월출산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조 (金 龍 祚) 육군 일등병 군번 2705673

김용조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성남면(城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馬山)에서 창설된 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속시켜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잔당을 대부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용조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0일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준 (金 容 俊) 육군 하사 군번 1305464

김용준 하사는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백산면(白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裡里邑)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고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에는 위천,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등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려 제3대대 전장병이 1계급 특진의 영광을 안았다. 그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준동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다시 설치하고 제3, 제15 및 제20연대를 배속시켜

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규모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용준 하사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14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진 (金 容 眞)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3760

김용진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조치원면(鳥致院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9월 5일에는 경기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고 철수하였다.

김용진 이등상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1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채 (金 容 綵)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4221

김용채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3일 반란진압차 출동하여 여수, 보성, 화순지역을 탈환하였으며 10월 30일부로 설치된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제3연대와 제6연대 예하 1개 대대 및 제15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함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채 일등중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철 (金 容 哲) 육군 이등병 군번 1503433

김용철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개 대대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포위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철 이등병은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02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출 (金 龍 出)　육군 이등병 군번 : 미상

김용출 이등병은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삼락면(三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와 동해안 서림리와 잔료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오대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 및 김상호부대의 주력을 소탕하였다.

김용출 이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동(東) 20－20832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태 (金 容 泰)　육군 소령 군번 10565

김용태 소령은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대동면(大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1947년 4월 19일 육군사관학교 제3기로 임관되어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裡里邑)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한 공비들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일당을 사살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용태 소령은 잔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하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하 (金 容 夏)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5630

김용하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안성면(安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裡里邑)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1일 반란진압차 출동하여 10월 27일에 반란을 완전 진압하였다. 그후 반군잔당 350여명과 지방 좌익분자들이 합세하여 백운산, 지리산 등지로 도주하자 육군본부는 10월 30일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용하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현 (金 容 鉉)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1289

김용현 이등중사는 1925년 5월 7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용현 이등중사는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현 (金 龍 炫) 육군 일등중사 군번 1304414

김용현 일등중사는 1929년 8월 6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여의도(汝矣島)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6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대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하순에는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국사봉과 두락산탈환작전을 전개, 두락산은 탈환하였으나 국사봉은 탈환하지 못한 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5일 제18연대와 교대하고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용현 일등중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49년 6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0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호 (金 容 浩) 경찰 경위

김용호 경위는 1926년 2월 10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지산면(芝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장흥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 합동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잔여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반란군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용호 경위는 장흥경찰서 관내에 침투한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한 동료의 사체를 후송하던 중 1949년 7월 14일 공비들의 기습사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호 (金 用 鎬) 경찰 경위

김용호 경위는 1927년 8월 1일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어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용호 경위는 1949년 9월 24일 밀양군 무안면 양효리(良孝里)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호 (金 龍 浩)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5734

김용호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강구면(江口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였다.

김용호 이등중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08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화 (金 龍 華) 육군 하사 군번 1106305

김용화 하사는 1930년 8월 20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북평면(北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등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용화 하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환 (金 容 煥) 육군 일등상사 군번 5302228

김용환 일등상사는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대촌면(大村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용환 일등상사는 호남지역 잔여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효 (金 龍 孝) 육군 하사 군번 1101774

김용효 하사는 1927년 2월 7일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안룡면(安龍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1연대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 헌병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옹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지구 등에서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용효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흡 (金 龍 洽) 경찰 경위

김용흡 경위는 1918년 12월 10일 평안남도 진남포(鎭南浦)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포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포항경찰서는 영일군 신광면 반석리 일대에 침투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용흡 경위는 이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용 희 (金 龍 熙)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0721

김용희 이등중사는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원삼면(遠三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11월부터 1950년 4월 2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안동지역에 준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그후 1950년 3월 15일부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제2사단은 제25연대를 주축으로 단독작전을 전개하여 북한인민유격대 제1병단과 제3병단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김용희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곤 (金 遇 坤)　육군 이등병 군번 1102647

김우곤 이등병은 1926년 8월 23일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상운면(祥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우곤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2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룡 (金 佑 龍)　경찰 경사

김우룡 경사는 1921년 1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하동면(河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여수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반란군이 여수경찰서를 습격하자 초기 진압작전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반란군은 10월 20일 오후에는 순천시내를 점령한 후 경찰관과 우익단체 인사들을 학살하고 시민들을 위협하여 반란에 가담시켰다. 순천시내를 점령한 반란군은 일부 병력을 광양, 벌교, 고흥, 보성지역으로 진출시켜 각 지역의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이에 육군은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사령관 宋虎聲 준장)

를 설치하고 제2여단과 제5여단을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군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우룡 경사는 초기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시내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배 (金 禹 培) 육군 이등중사 군번 2701595

김우배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강구면(江口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잔여반란군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육군본부에서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자 제15연대는 각 사령부에 1개 대대씩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그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우배 이등중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2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백 (金 祐 白) 육군 하사 군번 1803974

김우백 하사는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신동면(新東面)에서 태어나 국방

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제4차 침투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는 홍천 북방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우백 하사는 홍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과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1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석 (金 宇 錫) 경찰 경사

김우석 경사는 1915년 12월 26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풍양면(豊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벌교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진압된 후 일부 잔당들이 지리산, 백운산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구축하고 광양, 구례, 곡성, 벌교, 보성, 화순 일대까지 출몰하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우석 경사는 벌교경찰서 관내지역에 침투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섭 (金 雨 燮)　경찰 경사

김우섭 경사는 1927년 9월 29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봉산면(鳳山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은 여수를 점령한 후 10월 20일에는 순천으로 이동하여 순천을 점령하여 공산천하로 만들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7일에는 반란을 완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우섭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2일 순천시내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영 (金 祐 永)　육군 하사 군번 0339551

김우영 하사는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왜관면(倭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공병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우영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원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829316

김우원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1949년 2월에 춘천으로 이동하였고, 5월에 다시 원주로 이동후 1950년 4월에는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인민유격대(18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8월 4일 김달삼부대(약 300명)가 공작산지역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군·경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1950년 3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인제군 율전리지역과 매봉산, 홍정산 일대에서 김무현부대를 소탕하였다.

김우원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윤 (金 遇 允) 육군 하사 군번 1705342

김우윤 하사는 경기도 가평군(加平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일 춘천으로 이동,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11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는 대구의 제6연대 본부요원과 김천, 포항지역에 파견된 중대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반란군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38경비 제1여단 소속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에 침입하자 제7연대 제1대대와 홍천경찰 1개 중대를 투입하고 이어 제8연대를 증원받아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김우윤 하사는 신남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1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우 희 (金 祐 熙) 육군 대위 군번 : 미상

김우희 대위는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덕곡면(德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원주를 거쳐 5월에 춘천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에 침입하자 제7연대 제1대대와 경찰 1개 중대를 투입, 토벌작전을 전개한 후 제8연대 병력을 증원받아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김우희 대위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운 갑 (金 ○ 甲) 경찰 순경

김운갑 순경은 1913년 4월 25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현북면(縣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주문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주문진경찰서는 1950년 3월 16일 김상호(金尙昊)부대 약 300여명이 오대산 일대로 침투하자 제8사단 제10연대 예하 1개 대대와 합동으로 노인봉과 청계동 계곡에서 4월 11일까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주력을 섬멸하

였으며, 3월 26일 김무현(金武顯)부대 약 350명이 인제지역으로 남하하여 방대산(芳臺山)을 거쳐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운갑 순경은 오대산지역에 침투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50년 6월 2일 양양군 현북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운 재 (金 雲 在) 육군 이등상사 군번 5501664

김운재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공병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공병단은 1948년 8월 20일 경기도 부평(富平)에서 창설되어 전방부대에 대한 공병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태백산맥 일대에서 준동하였고,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운재 이등상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7-21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운 종 (金 運 鍾) 육군 일등병 군번 0307296

김운종 일등병은 1922년 3월 23일 출생하여 육군에 입대한 후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10차에 걸쳐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반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들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운종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웅 백 (金 熊 伯) 육군 중위 군번 13569

김웅백 중위는 1927년 11월 10일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돈암동(敦岩洞)에서 태어나 육사 제8기로 임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5일에는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다.

김웅백 중위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웅 천 (金 雄 天)　육군 일등병 군번 0331811

김웅천 일등병은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원당면(元堂面)에서 태어나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제1, 제9, 제19연대 및 포병 제18대대를 기간으로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가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으며,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50년 1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웅천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규 (金 元 奎)　육군 이등병 군번 1504877

김원규 이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하상면(下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보충대에서 복무하였다. 보충대는 1949년 9월 15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징병업무를 수행하였다.

김원규 이등병은 지역내 침투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22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달 (金 元 達) 육군 일등중사 군번 6601013

김원달 일등중사는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신동면(新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 제8사단 후방지역의 주요시설 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제21연대 제1대대가 태백산 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두타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원달 일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2일 봉화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4-08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덕 (金 元 德) 육군 이등병 군번 0321077

김원덕 이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금천면(錦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50년 3월 말까지 제22연대는 경상북도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덕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7-086번으로 봉안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동 (金 苑 東) 육군 이등병 군번 5501404

김원동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공병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공병단은 1948년 8월 20일 경기도 부평(富平)에서 창설되어 전방에 배치된 보병부대에 대한 공병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고,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원동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록 (金 元 錄) 육군 이등상사 군번 6100138

김원록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독립제1대대에서 복무하였다.

독립제1대대는 1948년 12월 6일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수색(水色)에 있던 수색학교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공비토벌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서울유격대로 개칭하여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49년 5월 9일 수원(水原)으로 복귀하였다가 6월 4일 38부대로 개칭한 후 옹진지구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6월 20일 수원으로 이동하였으며, 7월 15일에는 제주도로 이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원록 이등상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1949년 6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2-1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모 (金 元 模) 육군 일등병 군번 1381178

김원모 일등병은 평안남도 평해군 서해면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이후에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송악산을 탈환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원모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배 (金 元 培)　해군 대위 군번 80220

김원배 대위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신촌동(新村洞)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1947년 6월 1일 해군 소위로 임관된 후 통천호에 승조하여 동해의 38도선 부근 해상을 초계하던 중 1948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봉 (金 源 鳳)　육군 하사 군번 2902392

김원봉 하사는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군내면(郡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제1대대를 1949년 6월 5일부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그후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제12연대로부터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원봉 하사는 제2차 은파산전투에 참가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석 (金 元 錫) 육군 일등병 군번 8385103

김원석 일등병은 함경남도 함흥시 남문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수색에서 수색대(2개 중대규모)로 창설된 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2월 10일 기갑연대로 승격된 후, 1949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후 연대는 11월 15일부로 수경사에서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예속 변경되어 김포지역으로 철수, 교육훈련 및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원석 일등병은 김포지역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순 (金 元 淳)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371

김원순 이등중사는 1924년 7월 17일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용강동(龍江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이후에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2차에 걸친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송악산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원순 이등중사는 송악산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21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용 (金 元 龍)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원용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성남면(城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원용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일 (金 元 一)　육군 중위 군번 13917

김원일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임관되어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제3여단으로 창설되어 1949년 5월 12일 제3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제22연대는 6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포항, 청도군, 영일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23연대는 8월 11일부터 1950년 1월 15일까지 창원, 양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일 중위는 양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1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재 (金 元 載) 육군 하사 군번 5100101

김원재 하사는 1924년 1월 27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신당동(新堂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지리산, 순천, 보성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2월 1일부로 제2여단에 예속되었다.

그후에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14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및 보현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원재 하사는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종 (金 元 鍾)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9478

김원종 일등중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오정면(吾丁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기갑연대, 제2연대, 제17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옹진지구 및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원종 일등중사는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49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6-2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진 (金 元 鎭) 경찰 경위

김원진 경위는 1920년 1월 20일 강원도 철원군(鐵原郡) 갈말면(葛末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 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李德九) 등이 주동이 되어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제주경찰은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규모)와 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가 치안부재와 행정마비에 이르게 되자 경무부에서는 각 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을 차출, 1,700명의 경찰병력을 제주도에 급파시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하였다.

김원진 경위는 한라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태 (金 源 泰) 육군 이등병 군번 1607750

김원태 이등병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소래면(蘇萊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원태 이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

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한 (金 園 漢) 육군 이등중사 군번 0212994

김원한 이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시 감천동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15일부터 제2대대를 제주도에 출동시켜 7월 말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제1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1948년 10월 23일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투입하여 반란을 진압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제1대대는 잔당을 추격하여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원한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홍 (金 元 弘) 육군 이등병 군번 0310327

김원홍 이등병은 경기도 용인군(龍仁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1월 30일까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 사이에는 덕유산, 괘관산, 산내면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덕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은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원홍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원 희 (金 元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195194

김원희 일등병은 1923년 4월 18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면(涯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을 중심으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해체하였다. 그후 제5사단 제15연대(순천 주둔)와 제19연대(남원 주둔)는 1950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원희 일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30일 사이에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월 성 (金 月 星)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57

김월성 이등병은 1926년 2월 17일 서울시 중구(中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虎林部隊)는 1949년 2월 25일 북한에서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永登浦)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수색(水色)학교에서 유격전 교육을 받고 시흥(始興)으로 이동하여 호국군(護國軍)에 편입되었다. 그후 8월 13일 호림부대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고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월성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복 (金 有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31967

김유복 일등병은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청암면(靑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유복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5-10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석 (金 有 石)　경찰 경사

김유석 경사는 1924년 7월 25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안평면(安平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군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8월 중순 태백산맥을 따라 침투한 이호제(李昊濟)부대 약 360명이 경북지역 일대에서 준동하자 군위경찰서는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유석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군위군 고로면지역에 침투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50년 3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영 (金 裕 榮)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595

김유영 이등중사는 경기도 옹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동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규모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유영 이등중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1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태 (金 裕 泰) 육군 이등병 군번 1101953

김유태 이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숭의동(崇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등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유태 이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1-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한 (金 有 漢) 육군 하사 군번 5302556

김유한 하사는 1930년 8월 11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담양면(潭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50년 3월 31일까지 제22연대는 경상북도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유한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3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유 현 (金 裕 顯)　육군 일등병 군번 0200566

김유현 일등병은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무안면(武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원호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 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고,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유현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곤 (金 潤 昆)　육군 일등상사 군번 1501519

김윤곤 일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진해면(鎭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에도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윤곤 일등상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규 (金 潤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31179

김윤규 일등병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옥구면(沃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1948년 6월 2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어 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대한 기계훈련과 조포훈련을 실시하였다.

1949년 9월부터 지리산지구, 오대산지구, 태백산지구 등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윤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규 (金 潤 圭) 육군 하사 군번 2903554

김윤규 하사는 경기도 옹진군(甕津郡) 백령면(白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그후 6월 27일에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규모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윤규 하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0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3-0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난 (金 潤 蘭) 해병대 하사 군번 9100429

김윤난 하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에서 태어나 해병대에 입대하여 모슬포부대 제1대대 제2중대에서 복무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진주지구에서 4개월간의 공비토벌작전을 마치고 1949년 12월 28일 제주항에 도착, 다음날 육군 독립제1대대로부터 제주도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해병대사령부는 제주읍에 사령부와 제주읍부대를 배치하고 모슬포에 모슬포부대를 배치하였다. 모슬포부대는 제1대대를 북제주군에, 제2대대를 남제주군에 배치하여 1950년 6월 25일까지 주민계몽 및 대민지원활동과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윤난 하사는 한라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3-09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배 (金 允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401043

김윤배 일등병은 1922년 9월 27일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여주면(驪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태백산맥 일대에서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과 지방공비들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김윤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1－0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천 (金 潤 天)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1143

김윤천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김해면(金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馬山)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과 보현산 일대의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예천,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시켰다. 그후에도 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잔여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윤천 일등중사는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4-0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철 (金 潤 哲) 경찰 경사

김윤철 경사는 1919년 10월 2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광주경찰서는 병력을 출동시켜 군·경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윤철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여수지역으로 출동하여 1948년 10월 20일 반군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홍 (金 允 洪) 경찰 경감

김윤홍 경감은 1902년 9월 20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지산면(智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南勞黨) 지하조직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탐지되어 전국적으로 좌익계에 대한 검거에 착수함으로써 남로당은 붕괴되고 체포되지 않은 분자들은 입산 도주하여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김윤홍 경감은 광주시 외곽지역에 출현한 지방공비를 소탕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교전 중 1948년 3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1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윤 환 (金 允 煥) 경찰 경위

김윤환 경위는 1930년 6월 4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북안면(北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의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의성경찰서는 1949년 2월부터 경상북도 봉화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윤환 경위는 공비토벌작전을 위하여 출동하여 이동 중 1949년 2월 13일 봉화군(奉化郡) 재산면(才山面)에서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은 석 (金 銀 石) 해군 三等兵曹(하사) 군번 8111351

김은석 삼등병조는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포항경비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8월 중순 이호제가 지휘하던 제7차 침투 인민유격대 약 360명이 태백산맥을 타고 침투하여 경상북도 일대에서 준동하였으며, 11월 6일에는 제9차 침투 인민유격대 100여명이 영일군 송라면 지경리로 해상침투하여 보현산(普賢山) 일대에서 준동하였다.

김은석 삼등병조는 포항경비부지역내 침투한 공비와 교전 중 1950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은 수 (金 恩 洙) 경찰 경사

김은수 경사는 1925년 1월 21일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개진면(開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경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에 완전히 진압되고,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경주경찰서는 1949년 4월 경주군 양북면 일대에 침투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은수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0일 양북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2－03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은 수 (金 銀 水) 육군 일등병 군번 0140220

김은수 일등병은 1927년 5월 23일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동촌면(東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

도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은수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은 영 (金 殷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22624

김은영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부평동(富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에는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은영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은 조 (金 殷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43726

김은조 일등병은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사천면(泗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1948년 6월 2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어 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대한 기계훈련과 조포훈련을 실시하였다.

1950년 초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지구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대대적인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이 전개되었는데, 이때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은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을 술 (金 乙 述) 경찰 경위

김을술 경위는 1921년 11월 15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단북면(丹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군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8월 중순 이호제가 지휘하던 제7차 침투 인민유격대 약 360명이 태백산맥을 타고 침투하여 경상북도 일대에서 준동하였으며, 지방공비들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김을술 경위는 군위경찰서 소보지서(召保支署)를 습격해 온 공비 30명과 교전 중 공비 1명을 사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리고 1949년 9월 3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을 호 (金 乙 鎬) 육군 일등병 군번 5500803

김을호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釜山)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들을 탈환하였으며,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을호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구 (金 應 九) 육군 일등병 군번 2903697

김응구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만석동(萬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그후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응구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1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05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규 (金 應 奎) 경찰 경사

김응규 경사는 1921년 12월 27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영일면(迎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포항경찰서에 근무하였다.

김응규 경사는 1947년 5월 9일 경주군 천북면(川北面)지역에 침투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규 (金 應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30120

김응규 일등병은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구림면(龜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괘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15일 남원에서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응규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2일 전사하

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규 (金 應 奎) 경찰 경위

김응규 경위는 1923년 1월 6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온양면(溫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응규 경위는 1949년 11월 19일 울산군 범서면 중리부락에 침투한 무장공비 약 40명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규 (金 應 奎)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2233

김응규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삼승면(三升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읍(淸州邑) 사천리(斜川里)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대구 주둔 제6연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대구의 제6연대 본부요원과 김천과 포항에 파견된 병력을 무장해제시켰다. 또한 1948년 11월 20일부터 중동부전선 130km에 달하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응규 일등중사는 1948년 12월 2일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배 (金 應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338939

김응배 일등병은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7일 제12연대로부터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임무수행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응배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식 (金 應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4731

김응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화북면(華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50년 3월 말까지 제22연대는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응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7－02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룡 (金 應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49049

김응룡 일등병은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원효로(元曉路)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용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6월 12일 새벽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해 오자 제1연대의 2개 중대를 투입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각각 1개 대대씩을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50년 6월 24일까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제1연대가 동두천 정면, 제9연대가 포천 정면을 경비하였다.

김응룡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일 (金 應 鎰) 육군 일등병 군번 0401277

김응일 일등병은 1928년 10월 1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북후면(北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례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들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육군본부에서는 지리산지구와 태백산지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응일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응 철 (金 應 哲) 경찰 경사

김응철 경사는 1924년 8월 18일 황해도 송목군 연정면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평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평창경찰서는 1949년 9월 평창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응철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4일 공비들에게 납치되어 무참하게 피살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고,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6-54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의 생 (金 義 生) 경찰 경위

김의생 경위는 1923년 2월 17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진영면(進永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울산경찰서는 1949년 11월 울산군 범서면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의생 경위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무장공비 약 40명과 교전하다가 1949년 11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

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의 천 (金 義 天) 육군 하사 군번 2903402

김의천 하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제1대대가 1949년 6월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제12연대로부터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진지를 탈환하였다.

김의천 하사는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갑 (金 二 甲) 육군 일등병 군번 0203288

김이갑 일등병은 경상남도 동래군(東來郡) 기장면(機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개된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작전지역을 제17연대에 인계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

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이갑 일등병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갑 (金 二 甲) 육군 일등병 군번 0113975

김이갑 일등병은 1926년 9월 21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2, 제3, 제4연대를 기간으로 제2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19일부터 1949년 4월 2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지리산, 보성, 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14일까지 태백산지구의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안동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이갑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곤 (金 理 坤) 육군 이등상사 군번 3702495

김이곤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내서면(內西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연대는 제1대대를 춘천지역에 제2대대를 홍천지역에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태기산, 영월, 사자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이곤 이등상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식 (金 二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26242

김이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今陵郡) 지례면(知禮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194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이식 일등병은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 수행 기간 중 1950년 4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영 (金 利 永) 육군 이등병 군번 0248750

김이영 이등병은 1927년 8월 6일 경상북도 울진군(蔚珍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水色)에서 제1여단 예하 수색대(搜索隊)로 창설되어 12월 10일에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裝甲中隊)가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출동하여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전 장병이 일계급씩 특진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출동하여 까치산전투에 참가한 후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로 편입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이영 이등병은 수도권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6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용 (金 利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32552

김이용 일등병은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연곡면(連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수색(水色)에서 제1여단 예하 수색대(搜索隊)로 창설되어 12월 10일에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1948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장갑중대(裝甲中隊)가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출동하여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여 전 장병이 일계급씩 특진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출동하여 작산전투에 참가한 후 11월 15일 김포지역으로 철수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편입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이용 일등병은 수도권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이 천 (金 理 川) 육군 이등상사 군번 3702495

김이천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내서면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이천 이등상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7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권 (金 益 權) 육군 일등병 군번 2701627

김익권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제3여단에 편입되었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10월 27일 군·경진압부대에 의해 진압되어 반란군 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연대전 병력이 11월 25일 출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익권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규 (金 益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21641

김익규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 중구(中區) 동광동(東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여·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익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1-0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동 (金 翼 東)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6654

김익동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춘양면(春陽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여 경비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규모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익동 이등중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4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두 (金 益 斗)　육군 일등병 군번 0332641

김익두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시(慶州市) 서부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1948년 6월 2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어 기관총, 박격포, 로켓, 대전차포 등에 대한 기계훈련과 조포훈련을 실시하였다.

1949년 9월부터 지리산지구, 오대산지구, 태백산지구 등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익두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수 (金 益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900

김익수 이등상사는 강원도 홍천군(洪川郡) 내면(內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에는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8월 4일 김달삼부대 약 300명이 공작산지역으로 침투

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소양강을 도하하여 신남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증원받아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으며 그후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익수 이등상사는 신남전투에 참가한 후 공비토벌작전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영 (金 翼 泳) 육군 하사 군번 1805822

김익영 하사는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판부면(板富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8월 4일 김달삼부대 약 300명이 홍천군내 공작산지역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규모가 신남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증원받아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김익영 하사는 신남전투에 참가한 후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정 (金 益 正)　육군 일등병 군번 2202052

김익정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연평면(蓮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결과를 올렸다.

김익정 일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철 (金 益 喆)　경찰 경사

김익철 경사는 1924년 10월 26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천산면(天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장흥경찰서는 경찰병력을 차출하여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군·경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익철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순천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익 화 (金 益 化)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726

김익화 이등중사는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면 도두리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가 옹진지역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그후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진지를 탈환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익화 이등중사는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0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각 (金 仁 珏)　육군 일등병 군번 0397584

김인각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홍제동(弘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2, 제3, 제4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19일부터 1949년 4월 20일까지 여수·순천 반란진압작전과 지리산, 보성, 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 14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안동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인각 일등병은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

다가 1950년 2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규 (金 仁 奎) 육군 일등중사 군번 5200672

김인규 일등중사는 1929년 9월 22일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림동(松林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국사봉 및 두락산탈환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하였으나, 국사봉은 탈환하지 못한 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부로 제18연대와 교대하고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인규 일등중사는 국사봉 및 두락산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규 (金 仁 奎) 경찰 경사

김인규 경사는 1922년 3월 5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창평면(昌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담양경찰서는 1949년 2월 담양군 월산면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인규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1949년 2월 28일 담양군 월산면에서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랑 (金 仁 ○) 육군 하사 군번 6501724

김인랑 하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김인랑 하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9년 11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3-0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배 (金 仁 培) 육군 이등병 군번 7905298

김인배 이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와 동해안의 서림리와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오대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 및 김상호부대의 주력을 소탕하였다.

김인배 이등병은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복 (金 仁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30537

김인복 일등병은 경상남도 진해시(鎭海市) 태평동(太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9월 28일부로 제1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4월 30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대대는 6월 24일까지 광양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인복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석 (金 仁 石) 경찰 경사

김인석 경사는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보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병력을 출동시켜 군·경합동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잔여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인석 경사는 보성경찰서 관내지역에 침투한 공비들과 교전 중 전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석 (金 仁 錫) 경찰 경사

김인석 경사는 1925년 12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시(木浦市) 동명동(東明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장성경찰서는 여수·순천반란군잔당들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여 호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자 관내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인석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4일 장성군 삼서면 수해리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선 (金 仁 先) 육군 일등병 군번 0332409

김인선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연대본부 및 제1대대를 의정부에, 제2대대를 동두천에, 제3대대를 의정부 북방 삼리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인선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섭 (金 仁 燮)　육군 이등병 군번 0156087

김인섭 이등병은 1925년 8월 4일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산동면(山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 사단후방지역의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인섭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섭 (金 仁 燮)　경찰 경위

김인섭 경위는 1924년 2월 2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김인섭 경위는 김제군 무량면 일대에 출현한 지방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2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섭 (金 仁 燮)　육군 하사 군번 9302045

김인섭 하사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하고 제17연대에 작전지역을 인계하고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인섭 하사는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섭 (金 仁 燮)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3052

김인섭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신암면(新岩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하여 동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1949년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인섭 이등상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9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05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수 (金 仁 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2992

김인수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농소면(農所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군진압작전과 잔당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12월 29일부터 이듬해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은파산 및 까치산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인수 일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 중 1950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

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수 (金 仁 守) 해병대 하사 군번 9100322

김인수 하사는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곤양면(昆陽面)에서 태어나 해병대에 입대하여 제266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창설된 해병대는 그해 7월 말까지 기초훈련을 마치고 공비토벌작전을 위해 8월 26일 진주부대를 편성하고 김성은 중령을 부대장으로 임명하여 8월 31일 진주로 이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진주부대는 12월 27일 제주도에 도착한 후 육군 독립제1대대로부터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해병대사령부는 제주읍에 사령부본부와 제주읍부대를 배치하고 모슬포에 모슬포부대(2개 대대)를 배치하여 주민계몽, 순회진료 및 대민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950년 2월부터 6월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인수 하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3-0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수 (金 仁 洙) 경찰 경위

김인수 경위는 1922년 11월 2일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한수면(寒水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북도경찰국 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14일 양양(襄陽)에서 오대산(五臺山)지역으로 침투한 제1차 침투 인민유격대 180명이 정선지역에서 대부분 소탕되고, 일부 공비들이 제천지역으로 침투하자 제천경찰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인수 경위는 1949년 5월 22일 월악산(月岳山)에 출현한 공비를 추격하다가 제천군 덕산면 고산사(高山寺) 고개에서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수 (金 寅 洙) 경찰 경사

김인수 경사는 1921년 10월 16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20:00시경 여수 주둔 제14연대 인사계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반란군 약 2개 대대 병력은 장교들을 닥치는 대로 사살한 후 여수시내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여수시내를 완전 장악한 반란군은 10월 20일 09:00시경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홍순석 중위가 지휘하던 2개 중대를 합류시켰다.

순천경찰서는 여수와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에 1개 소대를 배치하고 순천교 제방에 주력부대를 배치하여 반란군의 순천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각개격파당하고 20일 17:00시에는 순천시를 반란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말았다. 반란진압작전 중 순천지역에만 경찰관 400여명이 전사 또는 학살당했으며, 우익인사 500여명이 인민재판을 받고 학살당했다.

김인수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

월 21일 순천시내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식 (金 仁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643393

김인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인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식 (金 仁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3892

김인식 이등중사는 경기도 옹진군(甕津郡) 옹진읍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보성, 화순, 구례, 남원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철수하였다.

김인식 이등중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후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영 (金 寅 英) 육군 일등병 군번 0336669

김인영 일등병은 강원도 원주시(原州市) 봉산동(鳳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인영 일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5-2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옥 (金 仁 玉) 경찰 경사

김인옥 경사는 1921년 4월 9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삼도면(三道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장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 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잔여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공비들은 지리산을 근거지로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인옥 경사는 장성군 삼서면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3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제 (金 仁 濟)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3353

김인제 이등중사는 1928년 9월 17일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신창면(新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터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두락산(斗落山) 탈환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2대대는 6월 17일에는 은파산(銀波山)을 공격 점령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공격을 재개하여 작산 일대를 완전 점령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汶山)으로 복귀하였다.

김인제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7-08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채 (金 仁 采) 경찰 경위

김인채 경위는 1932년 2월 14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대구면(大口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분자 검거에 착수하자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나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월북하거나 입산도주한 후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납치 및 테러, 약탈 등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김인채 경위는 장흥군 장평면 장평지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5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철 (金 仁 喆)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99850

김인철 이등중사는 1933년 11월 27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동상면(東上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인철 이등중사는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태 (金 仁 泰) 경찰 경위

김인태 경위는 1926년 4월 9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지도면(智島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남도경찰은 도경 및 예하 각 경찰서에서 지원병력을 출동시켜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인태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여수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하 (金 仁 河) 경찰 경위

김인하 경위는 1921년 6월 12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애월면(涯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이 주동이 되어 4·3폭동을 일으키자 제주도경찰국은 군·경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제주도는 치안부재와 행정마비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차출 총 1,700명의 병력을 제주도에 급파시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김인하 경위는 한라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5월 13일 북제주군 한경면지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호 (金 綑 鎬) 육군 일등상사 군번 1302318

김인호 일등상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정주면(井州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괘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등을 포함한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인호 일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환 (金 仁 換) 해군 一等兵曹(상사) 군번 8102634

김인환 일등병조는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산동면(山東面)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정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정대는 해상방위를 위해 1949년 2월 14일 인천에서 경비정 7척으로 창설되어 서해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인환 일등병조는 제302정에 승조하여 서해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23일 월미도 부근 해상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인 후 (金 仁 厚)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01

김인후 이등병은 1922년 1월 12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虎林部隊)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 및 영덕지역 등 여러 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인후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1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규 (金 日 圭)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0818

김일규 일등중사는 1925년 5월 22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상고면(上考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병참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육군병참학교는 1949년 5월 1일 서울 용산에 설립된 육군경리학교를 개편하여 동년 10월 15일에 설립하여 병참장교의 질적향상으로 보급지원업무의 발전을 목표로 교육에 힘썼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

켰다.

김일규 일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동 (金 日 東) 육군 중위 군번 14564

김일동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소위로 임관된 후 육군본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일동 중위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044번으로 봉안하였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만 (金 一 萬) 육군 일등병 군번 5204514

김일만 일등병은 1927년 1월 4일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12일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일만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배 (金 一 培)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41

김일배 이등병은 1924년 1월 9일 서울시 용산(龍山)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그해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5월부터 수색(水色)학교에서 유격전 교육을 받고 시흥으로 이동하여 호국군(護國軍)에 편입되었다. 그후 8월 13일 호림부대는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 각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일배 이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상 (金 一 祥)　경찰 순경

김일상 순경은 1924년 12월 1일 부산시 동래구(東萊區) 연산동(蓮山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경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에 완전히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영·호남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경주경찰서는 1949년 4월 경주군 양북면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에도 관내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일상 순경은 이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수 (金 一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45522

김일수 일등병은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복내면(福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일수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

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수 (金 日 洙) 육군 중위 군번 16439

김일수 중위는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학성면(鶴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9기로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일수 중위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4-00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연 (金 日 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0810

김일연 이등중사는 서울시 중구(中區) 남창동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

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김일연 이등중사는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영 (金 日 永) 육군 소령 군번 10232

김일영 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제2기로 입교하여 1946년 12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14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4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전라남도 여수읍 신월리(新月里)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저녁 제1대대가 공비토벌차 제주도로 출동직전에 연대내 좌익분자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홍순석 중위 등이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켰다.

여수·순천반란군은 10월 20일 09:00시경 여수시내를 완전 장악한 후 열차편으로 순천으로 이동하여 순천에 배치되어 있던 2개 중대를 합류시키고 광주에서 반란진압차 출동한 제4연대 예하 1개 중대도 합류시켰다. 반란군은 20일 17:00시경 순천시내를 완전히 장악한 후 일부병력은 광양, 고흥, 벌교, 보성 방면으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점령하였다.

국방부에서는 1948년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 총참모장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제2여단과 제5여단을 지휘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고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일영 소령은 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영 (金 日 永) 육군 일등병 군번 5306796

김일영 일등병은 1930년 8월 25일 충청남도 예산군(禮山郡) 신양면(新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일영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용 (金 逸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169231

김일용 일등병은 서울시 성동구(城東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된 후 9월 5일부터 제2연대를 옹진지역에, 제18연대와 기갑연대를 은파산과 까치산에 투입하여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일부 진지를 탈환하였다.

김일용 일등병은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개된 제3차 옹진지구 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종 (金 一 宗) 경찰 경사

김일종 경사는 1924년 9월 21일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영일면(迎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경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경주경찰서는 1949년 8월 1일 경주군 양남면 석읍리(石邑里)에 공비 6명이 출현하자 즉각 병력을 출동시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일종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교전 중 공비 1명을 사살한 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고,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8-785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일 호 (金 一 浩) 육군 이등병 군번 1902745

김일호 이등병은 1928년 6월 23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구좌면(舊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경비를 담당하였다. 제1대대는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일호 이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곤 (金 壯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42950

김장곤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 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9월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장곤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길 (金 障 吉)　경찰 경위

김장길 경위는 1910년 5월 6일 전라남도 여수읍(麗水邑) 둔덕리(屯德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단체 인사들을 학살하자, 여수경찰서는 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김장길 경위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0일 순천역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배 (金 長 培) 육군 일등병 군번 6800514

김장배 일등병은 경상북도 김천군(金泉郡) 김천면(金泉面) 감호리(甘湖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대구 주둔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군 비슬산 일대와 안동군 학가산 일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장배 일등병은 안동군 학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2일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복 (金 長 福)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1394

김장복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홍동면(洪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및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 후 1949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와 교대하고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장복 일등중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

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석 (金 長 石) 육군 이등병 군번 0178649

김장석 이등병은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구로동(九老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장석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숙 (金 長 淑) 육군 일등병 군번 6803635

김장숙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 중구(中區) 보수동(寶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군 비슬산, 안동군 학가산 일대를 비롯하여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부로 영

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2월 28일까지 운문산과 화악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장숙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옥 (金 長 玉) 육군 일등병 군번 0348282

김장옥 일등병은 경기도 고양군(高陽郡) 송포면(松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9년 2월 1일 서울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에는 경기도 포천(抱川)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장옥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용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0338106

김장용 이등병은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읍(光州邑) 남금리(南錦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이후에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에 참가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전개된 제2

차 송악산전투에서 비둘기고지와 송악산을 탈환하는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후에도 연대는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사단의 예비연대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장용 이등병은 경기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하 (金 章 河) 경찰 경위

김장하 경위는 1926년 3월 21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면 일도리(一徒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金達三)과 이덕구(李德九) 등이 주동이 되어 무장폭동을 일으켜 경찰관서와 행정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고 제주도를 치안부재 상태로 만들었다.

이에 제주도경찰은 제9연대(1개 대대규모)와 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경무부에서는 각 도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총 1,700명을 차출 제주도에 급파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장하 경위는 초기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1948년 4월 3일 제주읍 화북리에서 공비 10여명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한 (金 張 漢) 육군 일등병 군번 0340064

김장한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진부면(珍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달하는 강릉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김장한 일등병은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호 (金 長 鎬) 육군 소위 군번 227116

감장호 소위는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서천면(舒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장호 소위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장 환 (金 張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5303006

김장환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봉황면(鳳皇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5월 30일에는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장환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군 (金 在 群) 육군 일등병 군번 0164889

김재군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경주면(慶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을 중심으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해체하였다. 그후 사단은 제15연대를 순천에, 제19연대를 남원에 주둔시켜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재군 일등병은 이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후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균 (金 在 均) 육군 일등병 군번 0321331

김재균 일등병은 1926년 12월 30일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균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1월 1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균 (金 在 均) 육군 일등병 군번 3800279

김재균 일등병은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임회면(臨淮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미육군 공병대에 배속되어 복무하였다.

김재균 일등병은 전방 38도선경비부대에 대한 공병지원작업 중 북한군으로부터 기습을 받아 교전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5-26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근 (金 在 根) 육군 일등상사 군번 1504650

김재근 일등상사는 1929년 8월 25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방어진면(方漁津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제2연대, 제17연대, 독립제1대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서울 용산구 삼각지에서 창설되어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옹전사를 설치하고 1949년 6월 5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3차에 걸친 옹진지구전투에서 적에게 점령당했던 대부분의 진지를 탈환하였으나 은파산은 탈환하지 못한 채 작전을 종료하였다.

김재근 일등상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남 (金 在 南) 육군 일등병 군번 0335484

김재남 일등병은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해리면(海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에는 경기도 포천(抱川)지역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남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1－1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두 (金 在 斗)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2596

김재두 이등중사는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삼청동(三淸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로 제2대대를 옹전사에 배속시켜 두락산 탈환전을 수행한 후 6월 17일에는 은파산(銀波山)을 탈환하고 6월 22일에는 까치산을 탈환한 후 1949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汶山)으로 복귀하였다.

김재두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6－1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득 (金 再 得) 육군 일등중사 군번 6800541

김재득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논공면(論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북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득 일등중사는 경북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9년 11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만(金 在 萬) 육군 일등병 군번 1804919

김재만 일등병은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호저면(好楮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에는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고, 1949년 8월 4일 김달삼부대 약 300명이 공작산지역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소양강을 도하하여 신남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7연대 제1대대를 증원받아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키고 그후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재만 일등병은 홍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7-0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문 (金 在 文) 육군 일등병 군번 6801045

김재문 일등병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인동면(仁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

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북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3월 17일까지 용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문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6-08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민 (金 在 民) 육군 대위 군번 14007

김재민 대위는 1924년 4월 28일 서울시 강남구(江南區) 대치동(大峙洞)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8기로 입교하여 1949년 5월 23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괘관산, 반선리 일대에서 공비두목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민 대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1949년 7월 18일 덕유산 일대에서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2-770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복 (金 在 卜) 경찰 경사

김재복 경사는 1924년 3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일로면(一老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광경찰서는 1949년 10월 19일 영광군 묘량면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재복 경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10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복 (金 在 福)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1081

김재복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읍(江陵邑) 성남리(城南里)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복 일등중사는 오대산,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4일 강릉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3-06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봉 (金 在 鳳) 육군 일등병 군번 0327242

김재봉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원남면(遠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으며, 그후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봉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3일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5-0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성 (金 在 成) 육군 일등병 군번 9802213

김재성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영도구(影島區) 대평동(大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 병력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재성 일등병은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5일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

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壽) 육군 하사 군번 6600904

김재수 하사는 1927년 5월 20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북평면(北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1대대는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수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9년 10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守) 육군 일등병 군번 0218115

김재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서포면(西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은파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된 후 수도권지역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수 일등병은 수도권지역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5703851

김재수 이등중사는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소양면(昭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26km에 이르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을 담당하여 오대산과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수 이등중사는 오대산과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洙) 육군 일등중사 군번 8100906

김재수 일등중사는 1931년 12월 12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 정량리(貞梁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

산, 부산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재수 일등중사는 경주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9년 1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洙) 육군 일등병 군번 6801185

김재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대합면(大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차 연대본부를 여수로 이동하고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반란군이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고,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50년 5월 3일 연대본부를 순천에서 전주로 이동하여 전라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수 일등병은 전라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5306867

김재수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덕진면(德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계기로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한 후 제4여단에 예속되었다가 1949년 2월 1일부로 제5여단으로 예속변경되었다.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개 대대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호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수 이등중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제27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49년 4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수 (金 在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1214

김재수 일등병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팔봉면(八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3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3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재수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식 (金 在 植)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재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재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열 (金 在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338273

김재열 일등병은 경상북도 봉화군(奉化郡) 봉성면(鳳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재열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영 (金 再 榮) 육군 일등병 군번 0333820

김재영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음성면(陰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2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중화기 및 야포훈련을 교육하기 위해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재영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3-2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영 (金 在 榮) 육군 일등병 군번 1791645

김재영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남후면(南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경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재영 일등병은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영 (金 在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40790

김재영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남후면(南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12일부터 제11연대로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받아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영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영 (金 在 永) 경찰 경사

김재영 경사는 1927년 2월 28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석곡면(石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담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지원병력을 출동시켜 군·경합동진압작전을 전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여수·순천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이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일대에서 만행을 저지르자 이에 군·경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재영 경사는 담양군 월산면 지역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용 (金 在 龍) 경찰 경사

김재용 경사는 1924년 5월 9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다시면(多侍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담양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지원병력을 출동시켜 군·경합동작전을 전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여수·순천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이 백운산과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지역 일대에서 만행을 저지르자 이에 군·경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재용 경사는 담양군 월산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2월 2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용 (金 載 瑢)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1961

김재용 이등중사는 1925년 10월 23일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주문진면(注文津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 사이에 오대산,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용 이등중사는 오대산,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4일 강릉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1-4-0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원 (金 在 源) 육군 일등중사 군번 2300314

김재원 일등중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오정면(吾丁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

하여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원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정 (金 在 正) 경찰 순경

김재정 순경은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군서면(郡西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진압되어 여수·순천지역의 치안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부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1950년 6월까지도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영암경찰서는 관내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순경찰서를 습격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김재정 순경은 이 토벌작전에 지원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50년 6월 12일 화순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주 (金 宰 柱) 육군 일등병 군번 5203823

김재주 일등병은 1924년 5월 5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황전면(黃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적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하순에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두락산을 탈환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주 일등병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준 (金 在 俊) 육군 일등병 군번 5301467

김재준 일등병은 1929년 11월 1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학동리(鶴洞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광주에서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제20연대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6월 24일까지 광양지역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준 일등병은 광양지역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1-14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창 (金 在 昌) 육군 이등병 군번 6802956

김재창 이등병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미면(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경상북도 청도,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창 이등병은 청도, 안동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천 (金 在 天)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4388

김재천 일등중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청주읍(淸州邑) 사천리(斜川里)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중동부전선 130km에 달하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북한군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반격작전을 직접지휘, 8월 26일 격퇴시켰다.

김재천 일등중사는 신남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제2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가료를 받던 중 1949년 8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

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철 (金 在 喆) 육군 일등병 군번 0330314

김재철 일등병은 경상남도 함양군(咸陽郡) 안의면(安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면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 경기도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철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풍 (金 在 豊) 육군 일등병 군번 6605274

김재풍 일등병은 건국 초기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삼척으로 이동하여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특히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풍 일등병은 이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학 (金 在 學) 경찰 경위

김재학 경위는 1921년 6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대산면(大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전라남도경찰국은 초기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진압에 실패하고 많은 피해만 입었다. 이에 육군은 10월 21일 여수·순천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 사건 발생 9일만에 여수·순천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학 경위는 장성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헌 (金 在 憲) 육군 일등병 군번 0659638

김재헌 일등병은 1930년 12월 3일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효창동(孝昌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괘관산 및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을 포함한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재헌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헌 (金 在 憲) 육군 일등병 군번 2206304

김재헌 일등병은 1931년 2월 24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재헌 일등병은 오대산,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협 (金 在 協) 육군 일등병 군번 1107086

김재협 일등병은 1927년 9월 30일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

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재협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화 (金 在 華)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3096

김재화 이등중사는 1929년 6월 12일 경상남도 동래군(東來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이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194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개된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공방전을 벌였으나 은파산을 탈환하지 못한 채 제17연대에 인계하고 철수하여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화 이등중사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후 수도권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환 (金 在 煥) 육군 이등병 군번 8101587

김재환 이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신평면(新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 등 경남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재환 이등병은 이 경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환 (金 在 煥) 경찰 경사

김재환 경사는 1924년 11월 17일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 음암면(音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히 진압되고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재환 경사는 청도군 운문면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 중 1950년 1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희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804211

김재희 일등병은 1932년 4월 22일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돈암동(敦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을 맞아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제4차 침투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재희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재 희 (金 在 喜) 경찰 경사

김재희 경사는 1922년 10월 26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입면(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반란이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재희 경사는 공비토벌차 출동 중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에서 매복 중이던 공비들로부터 기습사격을 받고 교전하다가 1949년 12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

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적 산 (金 積 山) 육군 일등병 군번 0330953

김적산 일등병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미면(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鐘根)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였다.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김적산 일등병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동 (金 占 同) 경찰 경사

김점동 경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점동 경사는 보성경찰서 관내지역에서 실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

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23일 보성군 회천면지역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석 (金 点 石)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3297

김점석 이등중사는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매송면(梅松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군 사천면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대구 주둔 제6연대 반란사건의 진압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청주로 복귀하여 충북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2월 20일 원주로 이동하였다가 5월 3일 다시 춘천으로 이동한 후 제8연대로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점석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23일 침투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20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식 (金 點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8502

김점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선산면(善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

양하게 됨에 따라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치되었으며,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대전차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인민유격대가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직할부대에서도 최대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김점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식 (金 點 植)　육군 일등병 군번 5300511

김점식 일등병은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장산면(長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점식 일등병은 구례, 광양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15일 공비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4－05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용 (金 點 龍) 경찰 순경

김점용 순경은 1923년 8월 27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도포면(都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으로 진압되고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점용 순경은 보성군 문덕면 문덕지서를 습격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점 준 (金 點 俊) 경찰 총경

김점준 총경은 1911년 3월 25일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의령면(宜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하동경찰서에서는 지원병력을 차출하여 김점준 총경을 책임자로 하여 반란진압차 출동시켜 잔압작전을 수행한 후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한 잔당을 추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점준 총경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진두지휘하다가 공비와 교전 중 1949년 3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총경으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곤 (金 正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62567

김정곤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읍(全州邑) 노송리(老松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6월 12일 제1연대가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으며,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 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에는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곤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5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5-1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곤 (金 貞 坤)　육군 이등병 군번 1812318

김정곤 이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1948년 5월 원주로 이동하였으며, 1949년 2월 춘천으로 이동하였다가 5월에 원주로 이동한 후 1950년 4월에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18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으며, 1949년 8월 4일 김달삼(金達三)이 이끄는 300여명의 공비가 공작산지역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군·경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정곤 이등병은 홍천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권 (金 正 權) 육군 이등중사 군번 2706029

김정권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다인면(多仁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그들을 추격하여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정권 이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규 (金 偵 圭) 육군 소위 군번 16074

김정규 소위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수색동(水色洞)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제9기로 입교하여 1950년 1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경상남·북도에 대한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 창설 직후부터 제

22연대는 포항, 청도, 안동지역 등 경상북도 일대에서, 제23연대는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 등 경상남도 일대에서 1950년 3월 27일까지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정규 소위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나 그후 계속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규 (金 正 奎) 육군 이등중사 군번 1604980

김정규 이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0월 20일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과 수색에 주둔하면서 부대정비와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규 이등중사는 문산 및 수색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49년 9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기 (金 定 基)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0680

김정기 이등중사는 1930년 12월 5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칠보면

(七寶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0월 20일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5월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문산과 수색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기 이등중사는 수색, 문산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1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기 (金 正 淇)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4570

김정기 일등중사는 1927년 7월 1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도산면(道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정기 일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길 (金 正 吉)　육군 일등병 군번 0335308

김정길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상북면(上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1개 대대(대대장 김종원 대위)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2월 20일 부연대장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4월 22일 대전으로 복귀하였다.

김정길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남 (金 正 男)　경찰 경사

김정남 경사는 1924년 5월 4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석곡면(石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은 지방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10월 20일 17:00시경에는 여수와 순천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였으며, 일부 반란군은 광양, 벌교, 보성, 고흥방면으로 진출하여 그곳 경찰관서를 점령하고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국방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5개 연대를 투입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 순천, 벌

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정남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8년 10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로 (金 正 魯) 육군 하사 군번 8200777

김정로 하사는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홍성면(洪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의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는 비운을 겪었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김정로 하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2일 안동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6-4-1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덕 (金 正 德)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56

김정덕 이등병은 1924년 2월 5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

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고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정덕 이등병은 설악산지역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래 (金 正 來) 육군 일등병 군번 0343396

김정래 일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신동면(新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김정래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6월 1일 적의 기습을 받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립 (金 正 立) 육군 일등병 군번 0336224

김정립 일등병은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면 일도리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대구 주둔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되었으며, 그해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군 비슬산 일대와 안동군

학가산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50년 1월 5일부터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운문산 및 화악산 일대에서 2월 28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정립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배 (金 正 培)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3299

김정배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서구(西區) 서대신동(西大新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제2사단에 편입된 후 1950년 2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안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정배 이등중사는 지리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후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석 (金 正 錫)　경찰 순경

김정석 순경은 1921년 7월 9일 전라남도 목포읍(木浦邑) 죽리(竹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의 좌익분자들이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정석 순경은 경상남도 마산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지원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수 (金 定 洙)　경찰 경위

김정수 경위는 1924년 12월 26일 경상남도 합천군(陜川郡) 대양면(大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토벌부대에 의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지방 좌익분자들과 함께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호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정수 경위는 거창군 마리면(馬利面) 마리지서에서 입초근무 중 지서를 습격해 온 폭도(暴徒)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수 (金 正 守)　육군 이등병 군번 0219568

김정수 이등병은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원면(漆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대구에서 제3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된 후 1950년 3월 말까지 제22연대는 경상북도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정수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수 (金 正 守)　경찰 경사

김정수 경사는 1924년 6월 14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진월면(津月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반란군 일부가 장성경찰서 관내지역으로 침투하자 장성경찰서는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해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정수 경사는 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에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수 (金 正 洙)　경찰 경사

김정수 경사는 1924년 4월 9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장성면(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병력이 일으킨 여수·순천 반란사건은 군·경토벌부대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진압되어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주로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담양경찰서는 1949년 초부터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정수 경사는 1949년 2월 28일 담양군 월산면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다가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수 (金 正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0620121

김정수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면(和順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치되었으며,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대전차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인민유격대가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직할부대에서도 최대한 병력을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정수 이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많은 전공을 세우고 1950년 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순 (金 正 淳) 경찰 경사

김정순 경사는 1921년 7월 11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평면(長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2월 여수·순천반란군잔당들이 지리산을 근거지로 하여 호남지역 일대에서 준동하자 최대한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정순 경사는 공비토벌 지원차 강진군 방두산지역에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1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순 (金 貞 淳) 육군 일등병 군번 0329158

김정순 일등병은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신당동(新堂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대구에서 제3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된 후 1950년 3월 말까지 제22연대는 경상북도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

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정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3-09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식 (金 正 植) 육군 일등병 군번 5304876

김정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정식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5-19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식 (金 貞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33977

김정식 일등병은 충청북도 보은군(報恩郡) 탄부면(炭釜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9년 5월 30일 문산에서 개성으로 이동

하여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식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실 (金 斑 實) 육군 하사 군번 2902196

김정실 하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정실 하사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오 (金 正 午) 경찰 경사

김정오 경사는 1924년 1월 11일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장천면(長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창녕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김정오 경사는 의령군 부림면 부림지서를 습격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지원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 중 1946년 10월 9일 흉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옥 (金 正 玉) 육군 일등상사 군번 1801386

김정옥 일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7월 5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 사단후방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연대는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정옥 일등상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많은 전과를 올린 후 1950년 5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완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5308201

김정완 일등병은 1932년 9월 15일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동교동(東橋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김정완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5일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웅 (金 政 雄) 육군 일등병 군번 0337131

김정웅 일등병은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함창면(咸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7월 5일에는 제21연대를 편입하였다. 제10연대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1연대는 태백산맥 동부지역에 대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의 주력을 격멸하고, 3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오대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 60여명을 완전 소탕하였다.

김정웅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윤 (金 正 潤)　육군 일등병 군번 1700281

김정윤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응암동(鷹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정윤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의 (金 正 義)　육군 대위 군번 11780

김정의 대위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대방동(大方洞)에서 태어나 육군경비사관학교 제7기로 입교하여 1948년 11월 10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창설되었다. 사단 예하 제11연대는 1949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개성, 배천전투,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국사봉 일대를 탈환하였다.

김정의 대위는 옹진지구국사봉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

년 6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18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중 (金 正 中) 경찰 경사

김정중 경사는 1928년 1월 20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비아면(飛雅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 잔당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정중 경사는 함평경찰서 관내지역에서 실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海保面)지역에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진 (金 正 鎭) 경찰 경사

김정진 경사는 1920년 3월 5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북구(北區) 주례동(周禮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남 및 호남지역 일대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정진 경사는 함양군 안의면지역에서 잠복근무 중 1950년 3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출 (金 正 出) 경찰 경사

김정출 경사는 1914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진량면(珍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으며, 잔여반란군은 지방 좌익분자들과 함께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정출 경사는 영천군 신령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46년 10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필 (金 楨 弼) 육군 이등병 군번 0336533

김정필 이등병은 전라남도 완도군(莞島郡) 청산면(靑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1949년 9월 5일 경기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 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필 이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5-1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학 (金 正 學) 육군 일등병 군번 1205384

김정학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도원동(桃源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독립제1대대에 인계하고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김정학 일등병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9년 3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0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협 (金 正 協) 경찰 경위

김정협 경위는 1917년 2월 6일 경상남도 의창군(義昌郡) 진동면(鎭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김해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정협 경위는 김해군 장유면 장유(長有)지서에서 근무 중 장유지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7년 12월 1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호 (金 正 浩) 육군 일등병 군번 1504490

김정호 일등병은 1927년 1월 20일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 원동면(院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를 제주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으며,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0월 23일 1개 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4월 14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정호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화 (金 正 化)　육군 이등병 군번 0331941

김정화 이등병은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천안면(天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전라남도 광주로 복귀하여 부대정비 및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화 이등병은 제20연대가 광주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5-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환 (金 正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 미상

김정환 이등중사는 1928년 4월 21일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읍에서 창설된 후 1950년 2월 1일부로 제2사단에 편입되었다가 6월 15일 다시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 변경되었다.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정환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효 (金 正 孝)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4856

김정효 이등중사는 1924년 2월 27일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부본면(夫本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23일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로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1950년 6월 24일까지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정효 이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09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정 희 (金 正 熙) 육군 일등병 군번 1400452

김정희 일등병은 1930년 4월 29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봉동(大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정희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제 경 (金 濟 京) 육군 하사 군번 2202158

김제경 하사는 1930년 3월 1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진부면(珍富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와 동해안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3월 16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오대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 및 김상호부대의 주력을 소탕하였다.

김제경 하사는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제 규 (金 濟 圭) 경찰 경위

김제규 경위는 1925년 4월 17일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로당 좌익분자들은 정계는 물론 사회 각 계각층에 침투하여 공산정권수립을 위한 공작활동을 강화하여 요인 암살, 폭동, 테러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하였다.

김제규 경위는 중부경찰서 관내지역에 침투한 무장폭도를 소탕하기 위해 1948년 10월 1일 출동하여 폭도들과 교전하다가 흉탄을 맞고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04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제 동 (金 濟 東) 육군 일등중사 군번 1606329

김제동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남후면(南後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와 동해안 서림리, 잔교리지역으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3월부터 4월까지는 오대산 일대에서 김달삼부대 및 김상호부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주력을 소탕하였다.

김제동 일등중사는 오대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0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권 (金 鐘 權)　육군 이등병 군번 1105229

김종권 이등병은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삼기면(三岐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부터 적성－현리간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아 경비하던 중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하는 대전과를 올렸다. 그 후 연대는 의정부 및 동두천지역에서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권 이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규 (金 鐘 圭)　육군 일등병 군번 8101900

김종규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50년 1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는 안동, 밀양, 양산, 언양, 울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규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규 (金 鐘 圭) 육군 일등중사 군번 2701788

김종규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영덕군(靈德郡) 달산면(達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자 연대는 각 사령부에 1개 대대씩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종규 일등중사는 호남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근 (金 鐘 根) 육군 일등병 군번 2503737

김종근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고, 동년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다.

김종근 일등병은 이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근 (金 鐘 根)　육군 이등병 군번 0333370

김종근 이등병은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삼산면(三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위천,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종근 이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3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근 (金 鐘 根)　육군 일등병 군번 2503733

김종근 일등병은 1927년 8월 15일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상도동(上道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제2대대를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다.

김종근 일등병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1949년 6월 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 안장번호 동(東) 7-29740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근 (金 鐘 根)　경찰 경위

김종근 경위는 1919년 11월 20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행안면(幸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병력은 사건 발생 9일만에 군·경토벌부대에 의해 완전진압되어 지방 좌익분자들과 합세,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종근 경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보성지역에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4－100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기 (金 鐘 基)　육군 하사 군번 0335659

김종기 하사는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서학동(西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었다.

김종기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

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길 (金 鐘 吉) 경찰 경사

김종길 경사는 1926년 1월 1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진양면(珍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금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병력과 여수, 순천지역의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지방 좌익분자들도 합세하여 활동하였다.

김종길 경사는 금산경찰서 관내 금산군 금성면 일대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50년 3월 23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낙 (金 鐘 樂) 육군 일등병 군번 2803394

김종낙 일등병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소사면(素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옹전사에 예속되어 제1, 제2차 옹진

전투에 참가하였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마친 후 옹진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대에 합류하였다.

김종낙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대 (金 鐘 大)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1080

김종대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성덕면(城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대 일등중사는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덕 (金 鐘 德) 육군 일등병 군번 1601585

김종덕 일등병은 경기도 연천군(漣川郡) 왕징면(旺澄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

며, 1950년 1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운문산, 화악산, 수석봉,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덕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록 (한자미상) 경찰 순경

김종록 순경은 1913년 1월 11일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정릉동(貞陵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통신과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내 남로당 지하조직은 1947년 8월 15일을 기하여 전국 각지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획책하였으나 경찰에 사전탐지되어 경찰이 전국적으로 좌익분자검거에 착수하자 남로당은 붕괴되었으며 체포되지 않은 좌익분자들은 월북하거나 입산도주한 후 경찰관서 습격이나 우익인사 납치 및 테러, 약탈 등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김종록 순경은 서울시내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수색작전을 전개하던 중 1950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묵 (金 鐘 默) 경찰 경위

김종묵 경위는 1921년 4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금정구(金井區) 부곡동(釜谷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통영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으로 10

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 일대에서 준동하였다. 1949년 여름, 지리산지구에는 이현상이 지휘하는 북한인민유격대 제2병단(병력 약 650명)이 근거지를 구축하고 경상남도 하동군, 전라남도 광양군, 보성군 일대의 경찰관서와 부락을 습격하여 경찰관을 사살하고 무기, 탄약, 식량 등을 약탈하는 등 사회불안을 조성하였다.

이에 치안국에서는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를 설치하고 육군과 합동으로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종묵 경위는 이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50년 2월 28일 지리산에서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배 (金 鐘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335369

김종배 일등병은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동면(陽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 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중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내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배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배 (金 鐘 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992

김종배 이등중사는 1924년 3월 22일 경기도 양주군(陽州郡) 양주면(陽州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1949년 1월 12일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기간에는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김종배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범 (金 鐘 範) 육군 이등상사 군번 2900001

김종범 이등상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과

를 올렸다.

김종범 이등상사는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봉 (金 鐘 鳳) 경찰 순경

김종봉 순경은 1921년 8월 10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산외면(山外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진압되었으나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지역과 영남서부지역 일대에서 준동하였다. 또한 1949년 후반기에는 이현상이 지휘하던 북한인민유격대 제2병단 약 650여명이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김종봉 순경은 정읍군 산외면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50년 2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상 (金 鐘 祥) 육군 일등병 군번 1305456

김종상 일등병은 경기도 양주군(陽州郡) 구리면(九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덕유산, 괘관산, 반선리 일대에서 김지회, 홍순석 등 간부급 17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원대복귀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상 일등병은 전라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2-06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서 (金 宗 瑞)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44

김종서 이등병은 1927년 12월 4일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 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된 후 설악산, 영덕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서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석 (金 鐘 石)　육군 일등병 군번 1400016

김종석 일등병은 1930년 1월 9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신태인면(新太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석 (金 鐘 錫)　경찰 경위

김종석 경위는 1925년 9월 28일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직산면(稷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충청남도경찰국 온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4·3폭동사건이 발생하여 제주도내가 행정이 마비되고 치안 부재상태가 계속되자 미군정청 경무부에서는 8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1,700명을 차출하여 제주도에 급파하여 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김종석 경위는 공비토벌차 제주도에 출동하여 북제주군 애월면 애월지서에서 근무 중 공비들로부터 기습을 받고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선 (金 鐘 鮮)　육군 일등병 군번 1701717

김종선 일등병은 1923년 7월 8일 경상남도 거창군(居昌郡) 남하면(南下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중동부전선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병력으로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의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군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고 반격작전을 직접지휘하여 8월 26일 마침내 적을 격퇴시켰다.

김종선 일등병은 신남지역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49년 9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02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섭 (金 鐘 涉)　경찰 경사

김종섭 경사는 1924년 11월 1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켜 당일로 여수시내를 완전점령한 후 20일에는 순천시내까지 점령하여 경찰관서와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단체인사들을 학살하였으며 시민들을 선동 및 강요하여 반란에 가담시켰다.

이에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는 전 병력을 동원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진압에 실패하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김종섭 경사는 순천지역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1948년 10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성 (金 鐘 成) 육군 일등병 군번 0346305

김종성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대창면(大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당시 사단 예하의 제7연대는 춘천에, 제8연대는 원주에, 제10연대는 춘천-강릉간 13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후 1949년 6월 20일 제10연대는 강릉에서 창설된 제8사단으로 예속 변경되어 강릉지구38도선 35km를 담당하였다.

사단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로 침공하자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으로 반격작전을 실시하였으나 적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증원하여 8월 26일에 적을 격퇴시켰다.

김종성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성 (金 鐘 聲)　육군 일등병 군번 1402354

김종성 일등병은 1932년 8월 10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동광동(東光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성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성 (金 鍾 聲)　육군 일등병 군번 0363614

김종성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중앙동(中央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남제주군(南濟州郡) 대정면(大井面) 모슬포(慕瑟浦)에서 창설된 후 1948년 4월 3일 김달삼이 주동이 되어 4·3폭동을 일으키자 제주경찰과 합동으로 폭동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어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8년 7월 15일부로 재편성되었다.

김종성 일등병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8월 13일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수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306741

김종수 일등병은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일면(北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7516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수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수 (金 宗 洙) 경찰 경위

김종수 경위는 1929년 10월 29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낙안면(樂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군을 완전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호남지역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군·경토벌부대는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종수 경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3월 19일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

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수 (金 鍾 壽) 육군 일등병 군번 0346945

김종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명동(大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제1연대는 동년 6월 12일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투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사단은 제9연대와 제19연대에서 1개 대대씩 차출하여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수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수 (金 鍾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704763

김종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용남면(龍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읍(淸州邑) 사천리(斜川里)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3일부터 16일 사이에 대구 주둔 제6연대 본부요원과 김천 및 포항에 파견된 병력을 무장해제시켰다. 그후 연대는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

부터 제천, 단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종수 일등병은 제천, 단양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琮 植) 경찰 경사

김종식 경사는 1918년 1월 15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임회면(臨淮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해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전라남도경찰국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군·경합동으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여 사건 발생 9일만에 반란군을 완전 진압하고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후 반란군잔당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영·호남지역 일대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군·경토벌부대는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식 경사는 장흥군 유치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1950년 3월 2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鍾 植) 육군 하사 군번 5200349

김종식 하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

진압작전을 실시하여 반란을 진압하고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식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30일 전라남도 해남지역에서 공비와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1-2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鍾 植) 경찰 경사

김종식 경사는 1924년 9월 18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 별량면(別良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순천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병력이 10월 20일 오전 순천지역으로 진입하자 전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순천을 반란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김종식 경사는 이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鍾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64029

김종식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면(扶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6915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鍾 植)　육군 일등중사 군번 5202471

김종식 일등중사는 1931년 8월 25일 충청남도 서산군(瑞山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6월 15일 온양으로 이동하였다가 1949년 1월 25일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연대는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 개성지구38도선에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제2대대는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종식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5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14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식 (金 鍾 植)　육군 이등병 군번 2602455

김종식 이등병은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봉양면(鳳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제16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제3사단에 편입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그후 연대는 8월 11일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창원, 양산, 밀양, 언양, 울산, 안동 등 경상남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종식 이등병은 경상남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오 (金 鍾 吾)　육군 일등병 군번 0343955

김종오 일등병은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임천면(林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오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옥 (金 鍾 玉) 경찰 경위

김종옥 경위는 1925년 5월 10일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초전면(草田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창녕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에 완전진압되어 여수, 순천지역의 치안이 회복되었다. 그후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 일대에서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종옥 경위는 창녕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7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완 (한자미상) 육군 일등중사 군번 8101171

김종완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밀양군(密陽郡) 산내면(山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한 후 8월 11일부터 1950년 6월 15일까지 창원, 양산, 밀양, 언양, 울산, 안동 등 부산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종완 일등중사는 경상남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완 (金 鍾 完)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617

김종완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웅남면(熊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출동하여 10월 27일까지 보성, 화순, 여수지역을 탈환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완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요 (金 鍾 要) 육군 일등중사 군번 1803585

김종요 일등중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4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제3대대가 1948

년 11월 14일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태기산, 영월 및 사자산전투에서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제1대대를 춘천에, 제2대대를 홍천에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요 일등중사는 사자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48년 12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우 (金 鍾 友) 육군 일등병 군번 0400941

김종우 일등병은 1923년 4월 20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어회면(禦悔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종우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우 (金 鍾 友)　육군 일등중사 군번 2801008

김종우 일등중사는 서울시 동대문구(東大門區) 청량리(淸涼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7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기도 시흥에서 창설되어 1949년 6월 23일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제1대대와 제2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제1차 및 제2차 옹진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한편 제3대대는 1949년 9월 2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옹진지구를 이동하여 연대에 합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우 일등중사는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리고 1950년 6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욱 (金 鍾 旭)　육군 일등병 군번 5100686

김종욱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선화동(宣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제5여단에 편입되었다가 1950년 1월 25일부로 제5사단에 편입되었다. 연대는 1950년 1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예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5월 1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제6사단에 편입되었다.

김종욱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

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0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욱 (金 鍾 旭) 육군 이등상사 군번 5101523

김종욱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규암면(窺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2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2월 1일 제19연대를 편입하였으며,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을 토벌하기 위해 오대산, 태백산 및 보현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욱 이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원 (金 鍾 元) 육군 일등병 군번 0355531

김종원 일등병은 충청북도 제원군(堤原郡) 봉양면(鳳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6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제4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8년 12월 24일 제6여단으로 개칭되었다가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와 제8연대로써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소양강을 도하하여 신남지역을 침공하자 홍천지구에 배치되어 있던 제7연대 제1대대를 투입하여 반

격하였으나 적은 증원병력을 받아 완강히 저항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8연대를 증원하여 사단장이 직접 지휘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그후 1950년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홍천지역 홍정산 일대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500여명을 소탕하기 위해 제7연대 제2대대와 제8연대 일부병력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원 일등병은 홍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은 (金 鍾 殷) 경찰 경사

김종은 경사는 1924년 7월 29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보성면(寶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으로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고 잔여반란군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종은 경사는 보성군 겸백면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 5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의 (金 鍾 義)　경찰 순경

김종의 순경은 1923년 9월 21일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광활면(廣活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한내 공산세력은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로동당(약칭 남로당)을 결성하여 표면화된 공작활동을 전개하다가 전국철도노조총파업, 10·1대구폭동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및 대구반란사건 등을 일으키자 미 군정당국은 남로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검거하게 되자, 그들은 지하로 잠입하거나 산악지대로 도피하여 빨치산활동을 하게 되었다.

김종의 순경은 장성군 북하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7년 12월 2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일 (金 鍾 日)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종일 일등병은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그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또한 연대는 제1대대를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4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광양지역으로 이동하여 6월 24일까지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김종일 일등병은 광양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정 (金 鍾 井) 육군 일등병 군번 1205252

김종정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봉산동(鳳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철수하여 1950년 6월 20일 홍천지역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정 일등병은 홍천지역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조 (金 鍾 祚) 육군 일등중사 군번 2702031

김종조 일등중사는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강동면(江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제5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제3여단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6월 1일에 제4여단(6여단으로 개칭)에 편입된 후 11월 25일 제5여단에 편입되었다.

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3개 대대를

반란군진압작전에 투입하여 반란을 진압한 후 1950년 4월 30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조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2일 백운산에서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직 (金 鍾 直)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4893

김종직 일등중사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20일 원주로 이동 후 5월 3일 춘천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직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진 (金 鍾 振) 육군 일등병 군번 3807069

김종진 일등병은 경기도 평택군(平澤郡) 고덕면(告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4월 29일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제5여단으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증편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제5사단을 중심으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제15연대와 제19연대는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한 후 광주로 복귀하여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진 일등병은 전라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진 (金 鍾 璡) 육군 일등중사 군번 1302664

김종진 일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초포면(草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와 구례, 광양, 하동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진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남원지역에 출현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9년 1월 1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0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천 (金 鍾 千) 육군 이등병 군번 8500412

김종천 이등병은 1930년 9월 27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월남한 민간인 367명을 기간으로 영등포에서 창설된 후 3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평창, 제천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8월 13일 영등포학원으로 개편되어 전부대원이 현역군으로 편입되어 설악산지역과 영덕지역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천 이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4일 교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0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철 (金 鍾 喆) 육군 소위 군번 223285

김종철 소위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우성면(牛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보성, 화순,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종철 소위는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여 후송된 후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8-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철 (金 鍾 鐵) 육군 일등병 군번 2300777

김종철 일등병은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김해면(金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이후에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5월 4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전개된 2차에 걸친 송악산전투에서 송악산을 탈환하는 빛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50년 4월 12일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사단의 예비연대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철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치 (金 宗 治) 육군 이등병 군번 1502001

김종치 이등병은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제주읍(濟州邑) 노형리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동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여 제2사단에 편입된 후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안동지역으로 출동하여 1950년 2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치 이등병은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50

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태 (金 鍾 太) 육군 이등병 군번 0212898

김종태 이등병은 1925년 10월 13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를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종태 이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태 (金 鍾 泰) 육군 일등병 군번 1605193

김종태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청하면(淸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9일 경상북도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7월 10일 2개 대대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1개 대대를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반란군잔당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6연대는 3차에 걸친 반란사건으로 1949년 4월 15일 제22연대로 개편된 후 1949년 8월 30일부터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부터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운문산, 화악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종태 일등병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19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하 (金 鍾 河) 육군 일등병 군번 1205904

김종하 일등병은 1927년 1월 17일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한림면(翰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3차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한 후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하 일등병은 제3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9년 10월 1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11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학 (金 鍾 鶴) 육군 일등병 군번 1506448

김종학 일등병은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풍세면(豊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제2대대가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1대대는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수행하였다.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으로 이동하여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학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27일 책임지역내에 출현한 공비들과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해 (金 鍾 海)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2799

김종해 일등상사는 1933년 8월 27일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수원읍(水原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5월 5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월 12일 문산으로 이동, 1개 대대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군 제1사단 제3연대 예하 증강된 1개 대대 약 1천명이 5월 3일 미명을 기해 기습남침하여 송악산일대 292고지, UN고지, 155고지 및 비둘기고지

를 점령하였다.

이에 제11연대장은 제 1대대 예하 제3, 제4중대를 제2대대에 증원하고 연대하사관 교육대를 투입하여 5월 4일 미명을 기해 반격작전을 감행하였다. 이때 서부덕 일등상사 등 육탄 10용사는 박격포탄을 안고 적 토치카에 돌진하여 자폭함으로써 14:00시경 UN고지를 탈환하였다.

김종해 일등상사는 제1차 송악산전투에 참가하여 1949년 5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일등병에서 일등상사로 추서하고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0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현 (金 鍾 玄) 경찰 경사

김종현 경사는 1925년 6월 10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하면(北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소속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 진압되고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지역에 출몰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종현 경사는 담양군 월산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현 (金 鍾 賢)　육군 일등병 군번 2903280

김종현 일등병은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중구(中區) 남포동(南浦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가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가 증파되어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고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현 일등병은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당하여 제5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皓)　경찰 경위

김종호 경위는 1927년 6월 15일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유곡면(柳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함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10월 27일 완전 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등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동부지역인 광양, 곡성, 남원, 장수, 무주지역과 경상남도 북서부 지역인 산청, 함양, 거창, 진주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종호 경위는 함양경찰서 관내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

동하여 공비와 교전하다가 1948년 12월 14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浩) 경찰 경위

김종호 경위는 1929년 4월 16일 경상남도 하동군(河東郡) 악양면(樂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산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에 완전히 진압되고 잔여반란군은 지방 좌익분자들과 함께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종호 경위는 1949년 12월 6일 산청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공비들의 흉탄에 맞아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浩) 육군 하사 군번 1604802

김종호 하사는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4월 15일 제6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8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3월 17일까지 운문산, 화악산, 향로봉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호 하사는 청도,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운 후 1949년 12월 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浩) 육군 일등병 군번 1700475

김종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의성면(義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부터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6일 북한군 제1경비여단 예하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으로 침공하자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종호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27일 책임지역내로 침투한 공비와 교전 중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浩) 육군 일등병 군번 0364017

김종호 일등병은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염산면(鹽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후 1950년 1

월 6일부터 제2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4월 26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4월 19일부로 제5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6사단으로 예속되었으며, 4월 26일 남원에서 원주로 부대이동을 실시한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호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0일 책임지역내로 침투한 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浩) 육군 일등병 군번 1211890

김종호 일등병은 1927년 12월 19일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백운산,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자 연대는 각 사령부에 1개 대대씩 배속시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2개 대대를 배속시켜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종호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鎬)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332

김종호 이등상사는 1929년 6월 1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보성, 화순, 여수를 탈환하고 10월 30일부터 호남방면전투사령부 예하 북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2월 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로 출동하여 제주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49년 5월 15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종호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1949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호 (金 鍾 鎬)　경찰 경사

김종호 경사는 1917년 5월 15일 전라남도 구례군(求禮郡) 광의면(光義面)에서 태어나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 완전진압되어 여수, 순천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1950년 6월까지도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약탈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종호 경사는 1949년 11월 25일 곡성군 오곡면지역에 출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공비들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당하여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환 (金 鍾 煥) 경찰 경사

김종환 경사는 1924년 1월 6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청일면(晴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10차에 걸쳐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강원도 오대산지역을 통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침투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횡성, 평창 일대와 제천, 단양 일대까지 침투하여 준동하였으나 군·경토벌부대에 의해 대부분 소탕되었다.

김종환 경사는 횡성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50년 5월 2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환 (金 鍾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337765

김종환 일등병은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신림면(新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제1대대를 1949년 6월 5일부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

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의 공격을 받아 치열한 공방전 끝에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종환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3일이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환 (金 鍾 煥) 육군 하사 군번 5103016

김종환 하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부대정비를 마치고 1950년 1월부터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정종근(鄭鍾根) 대위 외 64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연대는 4월 25일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안동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김종환 하사는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2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효 (金 鍾 孝) 육군 일등병 군번 1703107

김종효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창수면(蒼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원군 충주읍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20일부터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2월 2일 제천, 단양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북한군 1개 대대가 1949년 8월 6일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을 침공하자 연대는 제1대대를 투입하여 홍천경찰 1개 중대와 합동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북한군이 연대병력으로 증강되자, 제6사단장은 제8연대를 투입, 반격작전을 감행하여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으며, 그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종효 일등병은 신남전투에 참가한 후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후 (金 鍾 厚) 육군 일등병 군번 0362040

김종후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효목동(孝睦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경상남·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사단창설 직후부터 제22연대는 포항, 청도, 안동 등 경상북도지역에서, 제23연대는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등 경상남도지역에서 1950년 3월 27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에도 사단은 경상남·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종후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3-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종 훈 (金 鍾 勳) 육군 중령 군번 10237

김종훈 중령은 1920년 9월 15일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화산면(花山面)에서 태어나 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교하여 1946년 12월 14일 소위로 임관된 후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동년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제2대대를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2대대(대대장, 김종훈 대위)는 청단, 연안, 배천, 송악산 일대에 배치되어 진지구축작업을 하던 중, 1949년 5월 3일 북한군 1개 대대규모(약 1,000명)로부터 송악산 292고지를 침공당하여 292고지를 적에게 탈취당하고 말았다.

따라서 제11연대장 최경록(崔景祿) 중령은 5월 4일 새벽, 제2대대장 김종훈 대위에게 제1대대의 제3, 제4중대와 제2대대의 제7중대를 지휘하여 정면공격하도록 하고 연대 하사관교육대(1개 중대)를 교육대장 김영목(金永穆) 대위가 지휘하여 신관지서(新館支署) 후방에서 공격하도록 하였다.

적이 점령하고 있던 비둘기고지, 155고지, UN고지 및 292고지에는 10개의 유개진지가 있어 완강히 저항하였다. 제2대대는 7부능선까지 진출하였으나 급경사 지형인데다 엄폐물이 없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이날 11 : 30경 공격이 돈좌되고 말았다. 따라서 연대장은 하사관교육대 제1소대 제1분대장 서부덕(徐富德) 이등상사 외 8명의 일등병들로 특공대를 편성하여 육탄공격을 감행, 적 토치카 10개소를 폭파하고 공격을 계속하여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끝에 5월 8일에는 탈취당했던 모든 진지를 탈환하고 원상태를 회복하였다.

연대는 이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제2대대장 김종훈 소령, 하교대장 김영목 대위, 하교대 제1소대장 김성훈 소위, 제1분대장 서부덕 이등상사 외 사병 35명 등 총 39명이 전사하여 5월 26일 서울운동장에서 합동위령제를 거행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소령에서 중령으로 추서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01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곤 (金 注 坤) 육군 일등병 군번 0336343

김주곤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6월 10일 서울에서 창설된 후 6월 12일 제1연대가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에 침입한 적 200여명을 맞아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으며,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3일까지 2개 대대를 지리산 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그후 제1연대를 동두천 정면에, 제9연대를 포천 정면에 배치하여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주곤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덕 (金 周 德) 육군 일등병 군번 2902593

김주덕 일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제1대대를 1949년 6월 5일부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에는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적 2개 대대를 격퇴시키고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운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철수하였다.

김주덕 일등병은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락 (한자미상) 육군 이등병 군번 2302582

김주락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9년 5월 1일 제1여단을 증편하여 서울 남산동에서 창설된 후 제11연대는 동년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제1차 송악산전투 및 배천전투를 수행하였으며,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제2차 송악산전투에서 적을 격퇴시키고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사단은 제12연대와 제13연대 제2대대를 옹전사에 배속시켜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은파산전투에 참가하여 국사봉, 까치산 및 은파산을 탈취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주락 이등병은 이 기간 중 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

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봉 (金 珠 鳳) 경찰 경사

김주봉 경사는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군·경의 진압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반란군 잔당들은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및 영남 지역에 출몰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주봉 경사는 벌교경찰서관내 지역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8년 12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선 (金 周 善) 육군 이등병 군번 7905167

김주선 이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주선 이등병은 오대산 및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성 (金 周 星)　육군 일등병 군번 0346523

김주성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양군(英陽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 기갑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기갑연대는 1948년 1월 1일 고양군 은평면 수색리에서 2개 중대규모의 수색대로 창설된 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2월 10일 기갑연대로 승격되었다. 연대는 1949년 9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김주성 일등병은 이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수 (金 柱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5306210

김주수 이등상사는 1929년 6월 10일 전라남도 광주군(光州郡) 광주면(光州面) 방림리(芳林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해체하여 창설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주수 이등상사는 지리산지구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영 (金 周 榮) 육군 일등병 군번 1806190

김주영 일등병은 1928년 7월 20일 강원도 원주군(原州郡) 흥업면(興業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지역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8월 15일 북한인민유격대 40여명이 명지산, 용문산을 거쳐 공작산지역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가 출동하여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또한 1949년 8월 20일 이호제가 이끄는 인민유격대 360여명이 원주지역을 거쳐 태백산으로 침투하자 제8연대는 경찰과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주영 일등병은 홍천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0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영 (金 周 永) 육군 하사 군번 5204367

김주영 하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송봉면(松逢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자 육군본부는 10월 30일 광주에 호남방면전투사령부(사령관 송호성 준장)를 설치하고 전투지대를 남과 북으로 분할하여 남원에 북지구전투사령부를, 순천에 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동년 11

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때 제12연대 예하 2개 대대는 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1월 8일 새벽 구례초등학교와 봉성산 일대에서 공비두목 김지회부대로부터 기습을 받았으나 반격을 감행하여 20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1문, 기관총 7정 및 소화기 수십정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9년 1월 29일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여 제2여단으로부터 예속해제되어 제1여단에 예속된 후 인천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주영 하사는 인천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3-19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용 (金 柱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30845

김주용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이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1948년 6월 27일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내에 설치되어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인민유격대가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직할부대에서도 최대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김주용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1-0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철 (金 胄 喆) 경찰 경사

김주철 경사는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순천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병력이 10월 20일 오전 순천지역으로 진입하자 전 경찰병력을 총동원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순천을 반란군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에 군·경은 10월 21일부터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 순천을 탈환하고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회복하였다.

김주철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2일 순천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철 (金 柱 喆) 육군 일등병 군번 0341200

김주철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창수면(倉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로 제11연대에 편입되었다가 동년 7월 15일 재편성되었다. 그후 연대는 1949년 2월 1일 서울지역으로 이동,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6월 19일 포천지역으로 이동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주철 일등병은 포천지역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9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주 환 (金 朱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345495

김주환 일등병은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을 반란진압작전에 투입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반란군잔당에 대한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호남지구 및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각각 1개 대대씩 배속시켜 5월 9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그후 지전사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지전사가 해체되자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200여명의 공비들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특히 이현상이 지휘하던 인민유격대 제2병단(약 650명)은 지리산, 백운산, 조계산 및 덕유산 일대에서 준동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1949년 9월 28일부로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치안국에서도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를 설치하여 합동작전을 실시하였다. 제15연대 제2, 제3대대는 지전사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주환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경 (金 俊 卿) 육군 하사 군번 2201667

김준경 하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 옥천리(玉川里)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후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30일까지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공비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준경 하사는 오대산 및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7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권 (金 準 權) 육군 중위 군번 14383

김준권 중위는 1926년 2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부로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준권 중위는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0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규 (金 俊 奎) 육군 일등병 군번 2300635

김준규 일등병은 1929년 3월 22일 경기도 인천시(仁川市)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동년 5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1월 12일 이후에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전개된 제1차 송악산전투에서 반격작전을 실시하여 치열한 공방전 끝에 적을 격퇴시키고 송악산 일대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준규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1949년 6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2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규 (金 準 奎) 경찰 경위

김준규 경위는 1916년 1월 7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화양면(花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남한내 공산세력은 1946년 11월 23일 남조선로동당을 결성하여 표면화된 공작활동을 전개하다가 전국철도노조총파업, 10·1대구폭동사건, 여수·순천반란사건 및 대구반란사건 등을 일으

키자 미 군정당국은 남로당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당원을 검거하게 되자 그들은 지하로 잠입하거나 산악지대로 도피하여 빨치산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김준규 경위는 순천지역에 출현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8년 3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록 (金 俊 祿) 육군 일등병 군번 0344278

김준록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중앙동(中央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와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포병전술을 교육하기 위해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내에 설립하여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대전차포 등에 관한 조포훈련과 사격술 등을 교육하였다.

1949년 중반부터 지리산, 오대산 및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육군본부에서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9월 28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대대적으로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 차출하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준록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3-0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배 (金 俊 培) 경찰 경위

김준배 경위는 1927년 11월 15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남목면(南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으로 10월 27일에 완전진압되자 반란군잔당은 백운산, 지리산 일대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한 후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준동하였다.

김준배 경위는 양산군 선리지서를 완전무장한 공비 80여명이 습격하자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교전하다가 1949년 7월 8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섭 (金 俊 燮) 육군 일등병 군번 0212927

김준섭 일등병은 1931년 3월 5일 출생한 후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1949년 5월 5일부터 제1대대를 청단-고랑포간에 배치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동년 5월 31일부로 제2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6월 22일까지 두락산, 은파산, 작산(鵲山) 일대를 탈환한 후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한 후 문산으로 복귀시켰다.

김준섭 일등병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

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섭 (金 俊 燮) 육군 하사 군번 5305231

김준섭 하사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평면(長平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지역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제1대대를 지전사에 배속시켜 1949년 9월 28일부터 이듬해 3월 15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려 총참모장으로부터 부대표창을 받았다.

김준섭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수 (金 俊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112

김준수 이등상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옥계면(玉溪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6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8월 15일 북한인민유격대 40여명이 명지산을 경유, 용문산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군·경합동작전을 전개하여 2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20일 이호제(李昊濟)가 이끄는 인민유격대 360여명이 양구에서 원주를 거쳐 태백산으로 침투하자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준수 이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2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식 (金 俊 植) 경찰 경사

김준식 경사는 1923년 7월 20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도양면(道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반란을 일으켜 당일로 여수시내를 완전장악하고 10월 20일에는 순천시내까지 점령하여 경찰관서 및 행정관서 등을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무참하게 학살하였으며 시민들을 선동 및 강요하여 반란에 가담시켰다.

이에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는 전 병력을 동원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진압에 실패하고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10월 21일 광주에 반군토벌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육군총참모장 송호성 준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제2, 제5여단 예하 5개 연대(10개 대대)를 투입하여 군·경합동작전을 전개,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고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회복하였다.

김준식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1948년 10월 21일 순천시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

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영 (金 俊 榮) 경찰 경사

김준영 경사는 1922년 5월 7일 경상북도 울진군(蔚珍郡) 서면(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울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오대산, 명지산지역으로 침투하여 태백산, 보현산 일대와 일부는 원주, 제천지역까지 진출하여 경찰관서 습격, 우익인사 학살, 양민납치 및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하였다.

김준영 경사는 1949년 11월 1일 울진군 서면 일대에 출현한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해 출동하여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의 (金 俊 依) 육군 일등병 군번 0327245

김준의 일등병은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용지면(龍池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50년 3월 17일까지 제22연대는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3연대는 창원, 양산, 밀양, 언양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준의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

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현 (金 俊 鉉) 육군 일등병 군번 1200480

김준현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기성면(杞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고 그해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으며,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준현 일등병은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현 (金 俊 鉉) 육군 소위 군번 223295

김준현 소위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기성면(杞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되어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2월 5일까지 남원, 구례지

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대는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5월 15일까지 육군, 해군 및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고 그해 8월 13일까지 제주지구경비임무를 수행한 후 9월 5일 옹진지구로 이동, 옹진지구전투를 수행하였으며, 11월 15일 인천으로 철수하였다.

김준현 소위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부대를 지휘하다가 1949년 11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8-18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호 (金 俊 浩) 경찰 경위

김준호 경위는 1928년 4월 23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경산면(慶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2개 대대병력은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에 군·경토벌부대에 의해 완전진압되고 반란군잔당들이 백운산, 지리산 일대를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지방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 일대에서 경찰관서 습격, 양민납치,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하였다.

김준호 경위는 1949년 8월 23일 거창경찰서를 습격해 온 100여명의 무장공비와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환 (金 俊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349466

김준환 일등병은 전라남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5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 삼척, 안동, 울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김달삼(金達三)부대의 주력을 격멸하였다.

김준환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준 환 (金 俊 煥)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3440

김준환 일등중사는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대야면(大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제2대대가 1948년 5월부터 7월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제3대대는 1948년 10월 23일부터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전사에 배속되어 덕유산, 괘관산 일대에서 공비주력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이동, 제2사단에 예속되어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온양으로 복귀하였다.

김준환 일등중사는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한 후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0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곤 (金 重 坤) 육군 이등중사 군번 6601550

김중곤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2월 1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되어 6월 10일 강원도 삼척으로 이동, 서울－강릉간 도로 이남지역에서 주요시설경계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1대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오대산, 황병산, 중봉산, 계방산, 대관령 일대에서 김상호부대와 이호제부대 및 분조침투유격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중곤 이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많은 전과를 올린 후 1950년 4월 1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공 (金 衆 孔) 육군 하사 군번 1704425

김중공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읍(忠州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직할 보충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김중공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근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109491

김중근 일등병은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선원면(仙源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야포 등을 국군에 이양하게 됨에 따라 1948년 6월 27일 대구 주둔 제6연대 내에 설치되었으며 미 제6사단 병기교육단이 경기관총, 박격포, 로켓 및 대전차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부터 북한인민유격대가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최대한 병력을 차출하여 토벌작전을 지원하였다.

김중근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섭 (金 仲 燮) 경찰 경사

김중섭 경사는 1924년 5월 17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도암면(道岩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약 2개 대대 병력과 지방 좌익분자들은 여수, 순천을 점령한 후 벌교, 고흥, 보성 및 광양경찰서를 점령하였다.

이에 군·경은 10월 21일부터 군·경합동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10월 25일 순천, 벌교, 보성 및 광양을 탈환하고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의 치안을 완전회복하였다.

김중섭 경사는 1948년 10월 20일 반란진압차 순천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용 (金 重 龍) 육군 이등상사 군번 2701871

김중용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죽장면(竹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후 7월 15일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동년 8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창원, 양산, 부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월 5일 영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제22연대와 제23연대 및 공병대대를 투입하여 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 76명을 사살하고 11명을 생포하였으며, 박격포 1문, 소총 15정 등 많은 장비를 노획하였다.

김중용 이등상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1950년 1월 6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인 (金 仲 仁) 육군 중위 군번 14463

김중인 중위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후 1948년 5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대대가 제주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23일 제1대대를 여수항에 상륙시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제3대대는 1949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9년 7월 10일 부산에서 온양으로 부대이동을 하여 제3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2사단에 예속되었다.

김중인 중위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충남지역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3-0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환 (金 仲 煥) 경찰 경위

김중환 경위는 1925년 4월 20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곡성면(谷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은 군·경합동진압작전에

의해 사건 발생 9일만인 10월 27일에는 완전진압되어 여수, 순천지역의 치안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일부 반란군잔당과 지방 좌익분자들이 백운산,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근거지를 구축하고 호남 동부지역과 영남 서부지역에서 1950년 6월까지도 공비활동을 계속하였다.

김중환 경위는 1949년 10월 2일 곡성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중 환 (金 重 煥) 경찰 경위

김중환 경위는 1916년 7월 29일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 고소면(姑蘇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일으킨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은 지방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10월 20일 17 : 00경에는 순천지역까지 점령하였으며 일부 반란군은 광양, 벌교, 고흥, 보성 방면으로 진출하여 경찰관서를 점령하고 우익인사들을 학살하였다.

김중환 경위는 반란진압차 순천지역으로 출동하여 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규 (金 知 圭) 육군 일등상사 군번 1801357

김지규 일등상사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대방동(大方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8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태기산, 사자산 및 영월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홍천군 동면 공작산 일대에서 제4차침투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지규 일등상사는 공작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우고 1949년 8월 11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0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순 (金 止 ○)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1482

김지순 이등중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해룡면(海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후 1949년 6월 5일 제1대대를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시켰으며, 동년 6월 27일 2개 대대를 증파하여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계명산전투에서 북한군 2개 대대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 탈취당했던 진지를 탈환하는 빛나는 전공을 세웠다.

김지순 이등중사는 제2차 계명산전투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린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영 (金 知 永) 육군 일등병 군번 9300227

김지영 일등병은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함평면(咸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5월 12일 제3여단을 증편하여 대구에서 창설된 후 1950년 3월 말까지 제22연대는 경상북도 포항, 청도, 안동지역에서, 제2연대는 경상남도 창원, 양산, 밀양, 언양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지영 일등병은 이 기간 중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옥 (金 智 玉) 육군 일등병 군번 1805887

김지옥 일등병은 1932년 7월 21일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춘천읍(春川邑) 소양리(昭陽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되어 원주, 춘천을 거쳐 1950년 4월 홍천으로 이동하였다. 연대는 1948년 1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양군 서면 일대에 침투한 180여명의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1949년 8월 15일 북한인민유격대 40여명이 명지산, 용문산을 경유, 공작산으로 침투하자 제3대대를 출동시켜 홍천군 동면 일대에서 군·경합동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 20여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50년 3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인제군 율전리, 매봉산, 홍정산 일대에서 김무현부대를 소탕하였다.

김지옥 일등병은 김무현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5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우 (金 知 佑) 육군 일등병 군번 1105832

김지우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언양면(彦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에서 1개 대대 병력으로 남조선국방경비대 제1연대로 창설된 후 1949년 5월 23일 양주군 의정부읍 금오리에서 계능리로 이동하여 미군으로부터 적성-현리간 9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하였다.

1949년 6월 12일 북한군 200여명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를 침공하자 제1연대는 2개 중대를 투입,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적 120명을 사살하고 격퇴시켰다. 그후 연대는 포천 및 동두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지우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원 (金 支 源) 육군 일등중사 군번 2301715

김지원 일등중사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1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된 후 동년 5월 5일 제주도 제주읍으로 이동, 7월 24일까지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30일 연대본부를 개성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까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김지원 일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지 현 (金 志 鉉) 육군 이등상사 군번 5304445

김지현 이등상사는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한 후 제5사단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제4연대를 개편하여 창설된 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구례, 광양 및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며, 남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잔여공비토벌작전을 계속 수행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제1대대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지현 이등상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5-1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갑 (金 鎭 甲)　경찰 경사

김진갑 경사는 1924년 5월 2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화양면(華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예하 약 2개 대대병력이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켜 당일로 여수시내를 점령한 후 10월 20일 17 : 00경에는 순천시내까지 점령하여 경찰관서와 행정관서를 습격, 방화하고 경찰관과 우익단체 인사들을 학살하였다.

이에 여수경찰서와 순천경찰서는 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으나, 병력과 장비의 열세로 진압에 실패하고 수백명의 사상자만 발생하였다.

김진갑 경사는 여수지역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반란군과 교전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장렬히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0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광 (金 鎭 光)　육군 소령 군번 12935

김진광 소령의 출신지는 기록에 없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4연대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0일 개칭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950년 2월 5일에는 호남 일대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나

이현상 일당에 대한 토벌작전이 계속되자 공비들은 민간으로부터 고립되어 귀순자와 투항자가 속출하였다.

김진광 소령은 제20연대가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 서(西) 6-279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구 (金 振 求)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1490

김진구 일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 송정리(松亭里)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진구 일등중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구 (金 振 龜) 육군 일등병 군번 2301454

김진구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갈산동(葛山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

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11월에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靑丹)에서 고랑포(高浪浦)에 이르는 38도선경비지역을 인수하고 진지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국군의 진지구축작업 방해와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송악산과 배천 일대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 제3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약 1,000명)는 1949년 5월 3일, 이러한 진지구축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를 침공하여 모두 탈취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탈환하였다.

김진구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근 (金 鎭 瑾) 육군 일등병 군번 0323223

김진근 일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의 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진근 일등병은 군이 전·후방에서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길 (金 鎭 吉) 육군 이등중사 군번 8816070

김진길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원대동(院垈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예속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고 있었다.

김진길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 수행 중 1950년 3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달 (金 鎭 達)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92

김진달 일등병은 1924년 8월 23일 서울시 용산(龍山)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김진달 일등병은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임무 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만 (金 鎭 萬) 육군 일등병 군번 1505704

김진만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 황남면(皇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전투력 발전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향토방위작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연대 내부에 좌익분자가 침투, 1948년 1월 이른바 인민혁명군 사건이 발생하였다.

김진만 일등병은 인민혁명군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명 (金 眞 明) 육군 하사 군번 1804863

김진명 하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작전임무 수행 중, 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하였다.

1949년 9월 28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는 홍천군 일대에 제8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약 50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명 하사는 태백산맥을 따라 제8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20일 홍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방 (金 振 邦) 육군 하사 군번 1102392

김진방 하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강릉면(江陵面) 금학리(錦鶴里)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전투력 발전과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1949년 5월 23일 의정부 계릉리로 이동하여 이전까지 미군이 담당하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2일 새벽 200여명의 북한군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공격해오자 제1연대 2개 중대가 매복작전에 의해 격퇴시켰다.

김진방 하사는 이 사직리전투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배 (金 辰 培) 육군 일등병 군번 6800514

김진배 일등병은 1928년 10월 15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김진배 일등병은 태백산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2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범 (金 鎭 範) 육군 하사 군번 2200994

김진범 하사는 1929년 9월 9일 강원도 울진군(蔚珍郡) 울진면(蔚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 소속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반론산지역에서 김달삼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북한군 제38경비대가 정족산을 공격하였을 때 반격작전으로 이들을 격퇴하였다.

김진범 하사는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벽 (金 振 壁)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2089

김진벽 이등중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주문진읍(注文津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파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반론산지역에서 김달삼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벽 이등중사는 김달삼부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04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상 (金 鎭 尙)　경찰 경위

김진상 경위는 1928년 12월 25일 경상남도 진양군(晋陽郡) 미천면(美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진상 경위는 여수지역 일대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섭 (金 鎭 燮) 경찰 경사

김진섭 경사는 1922년 2월 20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이평명(梨坪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남한의 공산당은 1946년 초까지는 사회적 혼란과 미 군정청의 민주일변도 시책에 편승하여 공산주의자들이 합법적 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46년 9월부터 좌익계열의 살인, 방화 등 폭동이 잇따르자, 이것을 계기로 제재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지하로 잠입하여 남한의 사회질서를 계속 혼란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서 습격 및 요인암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진섭 경사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치안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던 중, 남로당원이 쏜 권총에 맞아 1947년 3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섭 (金 陳 燮) 육군 일등병 군번 2901356

김진섭 일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화성면(花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제1차 옹진지구 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진섭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2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수 (金 振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2201264

김진수 이등상사는 강원도(江原道)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 소속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태백산맥을 따라 제6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수 이등상사는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07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수 (金 振 洙)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4207

김진수 일등중사는 1928년 4월 1일 경기도 옹진군(甕津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된 이래, 부대증편 및 전투력 발전과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던 중, 1949년 5월 23일 의정부 계릉리로 이동하여 이전까지 미군이 담당하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12일 새벽 200여명의 북한군이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일대를 공격해오자 제1연대 2개 중대가 매복작전에 의해 격퇴시켰다.

김진수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수 (金 振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504571

김진수 일등병은 1926년 9월 6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남외면(南外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김진수 일등병은 여수·순천반란진압 후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1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수 (金 鎭 洙) 육군 일등병 군번 6700344

김진수 일등병은 1933년 7월 7일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봉산면(鳳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은 옹진지역에 대한 제1차공격(1949. 5. 21 ~ 6. 29)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후 이들은 제1차 공격의 실패를 만회하고 옹진지역을 점령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제2차(1949. 8. 4 ~ 8. 8)와 제3차(1949. 10. 14 ~ 11. 15)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국군(제12·제13연대 2개대대, 제18연대)의 반격으로 그들의 이러한 시도는 무위로 끝이 났으며 38도선은 원상태로 회복되었다.

김진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15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수 (金 鎭 洙) 육군 일등병 군번 8101594

김진수 일등병은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동강명(洞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진수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여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

(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실 (金 進 實) 육군 하사 군번 2902196

김진실 하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침입으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진실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열 (金 鎭 烈)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1404

김진열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광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를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그후, 다시 1950년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켰다.

김진열 이등중사는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6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오 (金 鎭 五) 육군 일등병 군번 0325381

김진오 일등병은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지정면(芝正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진오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2-0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용 (金 鎭 龍) 육군 일등병 군번 6600770

김진용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비안면(比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

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활동이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용 일등병은 태백산지구의 잔여공비소탕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우 (金 珍 祐) 육군 일등병 군번 0324047

김진우 일등병은 제주도 제주군(濟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진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우 (金 鎭 宇) 경찰 경사

김진우 경사는 1925년 7월 4일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 안좌면(安佐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김진우 경사는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9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욱 (金 振 旭) 육군 이등중사 군번 6700288

김진욱 이등중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대화면(大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 제3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약 1,000명)가 1949년 5월 3일, 국군 제1사단의 진지구축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를 침공하여 모두 탈취하였다. 이에, 제1사단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모두 탈환하였다.

김진욱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원 (金 鎭 原)　육군 일등병 군번 0323046

김진원 일등병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약목면(藥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진원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원 (金 鎭 遠)　육군 일등병 군번 0327311

김진원 일등병은 충청북도 제천군(堤川郡) 덕산면(德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진원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천 (金 鎭 川)　육군 일등병 군번 2901056

김진천 일등병은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가락면(駕洛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 동년 6월 북한군의 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확보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옹진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진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태 (金 鎭 泰) 육군 하사 군번 6803010

김진태 하사는 1928년 12월 21일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회현면(澮顯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진태 하사는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택 (金 鎭 澤) 경찰 순경

김진택 순경은 1926년 12월 2일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하동면(下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영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북한은 1948년 11월 14일부터 1950년 6월 20일까지 오대산 일대를 통하여 10차에 걸쳐 2,400명의 인민유격대를 침투시켜 후방교란을 획책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강원도 양양에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으로 태백산, 일월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택 순경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4일 경상북도 청송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학 (金 振 學) 육군 일등병 군번 0326172

김진학 일등병은 서울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각 지방의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진학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해 (金 鎭 海)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6247

김진해 이등중사는 1931년 2월 2일 서울시 성동구(城東區)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여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였다.

1949년 8월 4일부터 11월까지는 홍천지역에 제4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김진해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소탕작전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20일 홍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0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호 (金 津 湖)　경찰 경위

김진호 경위는 1921년 2월 28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당시의 공산분자들은 남한사회를 혼란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호 경위는 울주군 일대를 침입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1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호 (金 珍 昊) 경찰 경위

김진호 경위는 1929년 1월 25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서생면(西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당시의 공산분자들은 남한사회를 혼란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진호 경위는 양산경찰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호 (金 鎭 浩) 육군 하사 군번 8102836

김진호 하사는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서생면(西生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경상남도 산악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진호 하사는 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50년 4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홍 (金 振 弘)　육군 일등병 군번 8810525

김진홍 일등병은 충청북도 대덕군(大德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수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예속시켰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의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계속해서 수도서울의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진홍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화 (金 珍 華)　경찰 경사

김진화 경사는 1923년 11월 3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군내면(郡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진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지리산지구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근거지를 상실한 일부공비들은 각 지방으로 도피하여 그곳의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관공서를 습격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진화 경사는 공비들과 교전 중 1950년 5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황 (金 珍 黃) 육군 일등병 군번 2201055

김진황 일등병은 1927년 5월 28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원도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진황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과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황 (金 振 黃) 육군 하사 군번 1705004

김진황 하사는 강원도 인제군(麟蹄郡) 신남면(新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홍천과 춘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도선경비대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 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여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김진황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후 (金 鎭 厚) 육군 일등병 군번 0125326

김진후 일등병은 1927년 5월 3일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대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파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김진후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진 훈 (金 鎭 勳) 육군 일등병 군번 2901050

김진훈 일등병은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석산면(石山面) 용두리(龍頭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제1차 옹진지구 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진훈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1-19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차 수 (金 且 洙) 경찰 경위

김차수 경위는 1926년 2월 16일 부산(釜山) 동래군(東萊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사회의 혼란을 조성시켜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하에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였다.

김차수 경위는 울산군 서면 일대의 경주행 버스내에서 무장공비 약 30명으로부터 기습받아 교전 중 1949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착 술 (金 搾 述) 육군 일등병 군번 0321490

김착술 일등병은 1929년 12월 10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삼일면(三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세력과 합세

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착술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찬 성 (金 燦 星) 육군 하사 군번 2903857

김찬성 하사는 서울시 성동구(城東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찬성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7년 1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찬 옥 (金 贊 玉)　육군 이등상사 군번 1900301

김찬옥 이등상사는 제주도 남제주군(南濟州郡) 표선면(表善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찬옥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8－1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찬 한 (金 贊 漢)　육군 이등중사 군번 1506438

김찬한 이등중사는 1926년 2월 17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지천면(枝川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하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전개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찬한 이등중사는 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50년 5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찬 호 (金 贊 鎬) 육군 일등병 군번 1900238

김찬호 일등병은 경상남도 진양군(晋陽郡) 정촌면(井村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었으며, 1948년 4월 3일 제주 주둔 제9연대 내의 일부 좌익분자와 지역내에 있던 좌익세력이 합세하여 제주도지역 공산화와 5·10총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자, 경찰과 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찬호 일등병은 제주4·3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4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권 (金 昌 權) 육군 하사 군번 5100683

김창권 하사의 본적은 기록에 없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어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6사단 제19연대는 사단 후방지역 방어작전과 오대산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의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창권 하사는 제2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7-03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규 (金 昌 奎) 경찰 경위

김창규 경위는 1926년 11월 20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와 함께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창규 경위는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근 (金 昌 根) 육군 일등상사 군번 1306579

김창근 일등상사는 1924년 1월 13일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영동읍(永同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그리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방면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철수시 원대복귀하였다.

김창근 일등상사는 지리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을지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3-03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영 (金 昌 寧) 육군 하사 군번 1507350

김창영 하사는 1931년 1월 30일 전라북도 남원읍(南原邑) 보절리(寶節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1949년 9월 2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군·경합동으로 전개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이후에도 4월 말까지 독자적으로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창영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동 (金 昌 東)　해군 일등수병 군번 8102057

김창동 일등수병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손양면(巽陽面)에서 태어나 해안경비대에 입대하여 인천기지 제1정대에서 복무하였다.

해안경비대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해군으로 재발족하였으며, 해안경비와 해상수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체제정비를 강화하였다.

1948년 2월 14일에는 인천기지에 제1정대, 부산기지에 제2정대, 목포기지에 제3정대, 진해기지에 제1훈련정대를 배치하였으며, 제1정대는 서해 38도선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에 이르는 해상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동 일등수병은 서해 해안경비임무를 수행 중 1948년 7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2－0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동 (金 蒼 東)　육군 일등병 군번 2202422

김창동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와룡면(臥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동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래 (金 昌 來) 육군 하사 군번 1505730

김창래 하사는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월룡면(月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 후, 호남지역 및 지리산 일대에 출몰하는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수차에 걸친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포위 및 수색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제15연대와 제19연대를 투입하여 4월 30일까지 잔여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창래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전라남도 광주로 복귀하여 호남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만 (金 昌 萬)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1550

김창만 일등상사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예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친 38

도선상의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불법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으며, 계속해서 수도서울의 경비 및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만 일등상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민 (金 昌 珉) 경찰 경사

김창민 경사는 1922년 7월 2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광양면(光陽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창민 경사는 순천 역전 도로에서 반란군들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배 (金 昌 培) 육군 하사 군번 1201747

김창배 하사의 본적지는 기록에 없으며,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1949년 8월 13일 옹진반도로 이동하여 동년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 10월 14일 05 : 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해 오자,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제2연대는 11월 15일 작전임무를 종료하고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배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3－0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배 (金 昌 培)　육군 일등병 군번 8700072

김창배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창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배 (金 昶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322085

김창배 일등병은 서울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창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임무 수행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5-19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복 (金 昌 福)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0739

김창복 이등중사는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석산면(石山面) 용동리(龍東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고수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창복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

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복 (金 昌 福) 육군 하사 군번 1704056

김창복 하사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불정면(佛頂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경비대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가 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해 왔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 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고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김창복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3-04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사 (金 昌 舍) 육군 하사 군번 1703884

김창사 하사의 본적지는 기록에 없으며, 1930년 9월 3일에 태어나 국방

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도선경비대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해 왔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고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김창사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상 (金 昌 祥)　육군 일등중사 군번 6600967

김창상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울진군(蔚珍郡) 평해읍(平海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이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활동이 극심

해지자, 1949년 9월 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창상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3일 삼척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4-0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수 (金 昌 洙) 육군 일등상사 군번 1305185

김창수 일등상사는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태인면(泰仁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철수시 원대복귀하였다.

김창수 일등상사는 전라북도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10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순 (金 昌 淳) 경찰 경위

김창순 경위는 1914년 12월 29일 서울시 연희동(延禧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일어난 무장폭동사건은 제9·제11연대가 투입되어 7월 중순경에 소탕작전이 완료되기는 하였으나, 10월에 이르러 이들은 또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김창순 경위는 북제주군 애월면(涯月面) 수산리(水山里) 일대에서 무장공비 50여명과 조우전을 전개하던 중 1948년 10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식 육군 일등병 군번 0323387

김창식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식 (金 昌 植) 육군 하사 군번 8103652

김창식 하사는 1918년 6월 19일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공비토벌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령부내에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관·민합동으로 대규모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창식 하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식 (金 昌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125608

김창식 일등병은 1931년 3월 1일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식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옥 (金 昌 玉) 육군 일등중사 군번 6801386

김창옥 일등중사는 1926년 8월 10일 서울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

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3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창옥 일등중사는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5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옥 (金 昌 玉) 육군 이등상사 군번 0320104

김창옥 이등상사는 서울시 종로(鍾路)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창옥 이등상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2-12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용 (金 昌 龍)　육군 하사 군번 5308017

김창용 하사는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와부면(瓦阜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4연대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0일에 개칭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무장공비 10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창용 하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용 (金 昌 龍)　경찰 경사

김창용 경사는 1927년 3월 1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영산포면(榮山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창용 경사는 전라남도 강진군 방두산 일대에서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잔여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윤 (金 昌 潤) 육군 일등병 군번 0126244

김창윤 일등병은 1929년 9월 18일 경기도 광주군(廣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 소속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김창윤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윤 (金 昌 潤) 경찰 경사

김창윤 경사는 1929년 7월 20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고군면(古郡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진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에 의해 진압되자 일부 반란군과 지방공비들은 백운산 및 지리산으로 도피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인근 경찰서와 부락을 습격하여 식량을 약탈하는가 하면 살인, 납치,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1949년 3월 1일부터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였다.

김창윤 경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9일

전라남도 곡성 지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윤 (金 昌 潤) 경찰 경사

김창윤 경사는 1928년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군내면(郡內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이 군·경합동작전에 의하여 진압되자, 일부 반란군과 지방공비들은 백운산 및 지리산 일대로 도피하여 거점을 확보하고 인근 경찰서와 부락을 습격하여 살인, 납치, 방화, 약탈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창윤 경사는 곡성군 오곡면 일대에 출현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1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일 (金 昌 一) 육군 일등병 군번 0326497

김창일 일등병은 경상남도 사천군(泗川郡) 사천읍(泗川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창일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조 (金 昌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24117

김창조 일등병은 강원도 평창군(平倉郡) 방림동(芳林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좌익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지원하였다.

김창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주 (金 昌 周) 육군 하사 군번 1205807

김창주 하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하장면(下長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1949년 8월 13일 옹진반도로 이동하여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0월 14일 05 : 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해 오자,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

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김창주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5-09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진 (金 昌 振) 육군 일등병 군번 2806425

김창진 일등병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일왕면(日旺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대전·온양 지역에 주둔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창진 일등병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하 (金 昌 夏) 육군 이등중사 군번 0324946

김창하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황간면(黃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좌익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방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창하 이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3-04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헌 (金 昌 憲) 육군 일등병 군번 5101664

김창헌 일등병은 충청남도 대전(大田)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광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를 배속시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그후, 1950년 1월 3일부터 4월 25일까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잔여공비의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격리시켰다.

김창헌 일등병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6일 경상남도 산청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현 (金 昌 鉉)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0360

김창현 일등중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군서면(郡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좌익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방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창현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4-23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호 (金 昌 鎬) 육군 일등병 군번 2902244

김창호 일등병은 평안남도 강동군(江東郡) 봉진면(鳳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확보하였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의 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김창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

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2-12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호 (金 昌 鎬) 육군 일등병 군번 0616112

김창호 일등병은 1932년 5월 3일 경기도 이천군(利川君) 백사면(栢沙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신병을 모집하여 A중대를 창설하였고, 동년 9월 11일에 B·C중대를 모병하여 제1대대를, 뒤이어 제2·제3대대도 편성되어 1948년 6월 15일에 연대규모로 성장하였다.

그후, 1948년 11월 2일 제6연대 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곽종진 상사 주도하에 3차에 걸쳐 반란이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실패하고 팔공산(八公山)과 포항(浦項) 서쪽 도덕산(道德山)으로 도주하였다.

김창호 일등병은 대구반란진압작전시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호 (金 昌 鎬) 경찰 경위

김창호 경위는 1928년 1월 11일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고경면(古鏡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포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부터 북한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무려 10차에 걸쳐 2,300명의 게릴라 요원을 남파시켰으며, 이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한국 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창호 경위는 경상북도 영일군 신광면 일대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던 무장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환 (金 昌 煥) 육군 일등병 군번 0344496

김창환 일등병은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공덕동(孔德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9년 1월 7일 서울 용산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의정부로 이동하고, 동두천과 포천 정면에 제1·제9연대를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1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도발을 감행하였으나 무위로 끝이 났다.

김창환 일등병은 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3-2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창 훈 (金 昌 勳)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2553

김창훈 이등상사는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양강면(楊江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경상북도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였으며,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창훈 이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2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채 진 (金 埰 珍)　경찰 순경

김채진 순경은 1927년 10월 16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하남면(河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해남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채진 순경은 해남지역 일대의 반란군소탕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배 (金 天 培) 육군 하사 군번 1704079

김천배 하사는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동산면(東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천배 하사는 제7연대의 후방지역인 홍천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1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섭 (金 千 燮) 육군 일등병 군번 1900590

김천섭 일등병은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소라면(召羅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개성과 옹진지역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9연대에 의해 격퇴되었다.

김천섭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수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329309

김천수 일등병의 출신지와 생년월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천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 및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식 (金 天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4183

김천식 이등중사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금왕읍(金旺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에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도선경비대 제1여단 예하의 1개 대대는,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해 왔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제2연대는 8월 20일 600고지를 각각 탈환하였다.

김천식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0월 30일 전사하

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우 (金 千 宇) 육군 일등병 군번 5307627

김천우 일등병은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평면(長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천우 일등병은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5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천 호 (金 泉 浩) 육군 일등병 군번 2649970

김천호 일등병은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삼청동(三淸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와해된 지하조직을 재건하고 국군의 전투력을 후방지역에 고착시킬 목적으로, 1948년 11월부터 10차에 걸쳐 2,300여명의 게릴라 요원을 남파시켰다.

김천호 일등병은 1949년 11월 6일 제9차로 침투한 무장공비를 소탕하

는 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규 (金 喆 圭) 육군 일등병 군번 8207303

김철규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산동(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부대 증·창설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향토방위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20일부로 제2사단에 예속되어 중부지역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1950년 1월 21일 연대주둔지를 경상북도 안동으로 이동한 후, 4월 2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격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러나 1950년 4월 8일에는 중부지역작전에서 전사한 고 정종근(鄭鍾根) 대위 이하 64위의 합동위령제를 경상북도 안동농업학교에서 거행하였다.

김철규 일등병은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기 (金 喆 起) 육군 일등병 군번 1606313

김철기 일등병은 1924년 12월 5일 강원도 원주시(原州市) 우산동(牛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제1훈련학교에

서 복무하였다. 이 훈련학교는 105㎜ 포의 교육과 아울러 병기조작법 등 기초적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1949년 9월 28일, 육군본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와 계속적으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뒤에도 육군은 공비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동년 4월 30일까지 계속 잔여공비토벌에 주력하였다.

김철기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락 (金 喆 洛)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2885

김철락 이등상사는 1926년 8월 26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덕천면(德川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에서 A중대가 창설되었으며, 각 장교들이 여러 지방을 출장하면서 모병하여 A·B·C중대순으로 편성, 교육훈련을 시작하였다.

그후, 제3연대는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1949. 5. 9)된 후,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은 제5사단 예하의 제15연대(순천), 제20연대(광주) 및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고 있었다.

김철락 이등상사는 남원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1-0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수 (金 哲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0923

김철수 이등중사는 1926년 10월 17일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공덕동(孔德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예하 1개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예하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400명)를 옹진지역에 파견하였다.

국군과 경찰대가 옹진지역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증강된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국군 제1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38도선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김철수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5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수 (金 喆 守)　육군 하사 군번 1805687

김철수 하사는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동북면(東北面)에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창설 이래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 중, 북한에서 정치공작과 유격훈련을 수료한 남한출신 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공을 세웠다.

김철수 하사는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46-09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수 (金 喆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5202468

김철수 이등상사의 출신지와 생년월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창설된 후 동년 10월 20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차 2개 대대를 순천지역으로 출동시켜 반란진압작전을 실시하였다. 그후 연대는 1949년 5월 하순 옹진지구로 이동하여 두락산전투에 참가한 후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7월 5일 인천으로 철수, 1950년 4월 12일부터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철수 이등상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이 (金 喆 伊) 육군 일등중사 군번 1504339

김철이 일등중사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영등포동(永登浦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 후, 1949년 7월 10일 온양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철이 일등중사는 충청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접 (金 喆 接) 육군 일등병 군번 2501508

김철접 일등병은 충청남도 천안군(天安郡) 봉명동(鳳明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천안에 주둔하였던 제2연대 1개 중대를 기간으로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후, 제1여단에 예속되었으며, 6월 15일에는 대전에서 온양으로 이동하였다.

김철접 일등병은 충청남도 일대의 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48년 12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6－1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현 (金 喆 鉉)　경찰 경사

김철현 경사는 1922년 10월 6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수북면(水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공비들은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 일부에 출현하여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갖는 만행을 자행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함으로써 일반 양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군은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철현 경사는 담양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철 환 (金 喆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4497

김철환 이등중사는 1929년 10월 18일 전라북도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경상북도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였으며,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주도지역의 공비들은 제9·제10·제2연대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 7개월만인 1949년 5월 15일에 대부분 소탕되었다.

그후, 제2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되어, 옹진지

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였다.

김철환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추 병 (金 秋 炳) 육군 일등상사 군번 5301432

김추병 일등상사의 출생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는 육군에 입대한 후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광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4연대를 제20연대로 개칭하고 제4여단에 예속되었으나 1949년 2월 1일에는 제4여단에서 제5여단으로 예속 변경되었다.

김추병 일등상사는 나주군 봉황면 장성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경 (金 春 京) 경찰 경사

김춘경 경사는 1922년 1월 17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진원면(珍原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각 지방으로 분산하여 주민 납치 및 살해,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였다.

김춘경 경사는 담양군 월산면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곤 (金 春 坤) 경찰 경사

김춘곤 경사는 1926년 2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新安郡) 지도면(智島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각 지방으로 분산 도주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조직을 강화한 후, 주민 살해 및 납치,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였다.

김춘곤 경사는 해보면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광 (金 春 光) 육군 이등상사 군번 : 미상

김춘광 이등상사는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소수면(沼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에 있는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태백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춘광 이등상사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2－2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기 (金 椿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45583

김춘기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완산동(完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에 제1·제9연대를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1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무력도발을 시도하였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김춘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9－1－18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성 (金 春 成) 육군 이등중사 군번 110994

김춘성 이등중사는 서울시 성동구(城東區) 옥수동(玉水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의무대 및 헌병대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춘성 이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성 (金 春 城) 육군 일등병 군번 8813130

김춘성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덕군(盈德郡) 병곡면(柄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 및 제17연대와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춘성 일등병은 수도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식 (金 春 植) 경찰 경위

김춘식 경위는 1907년 3월 24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연안면(延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황해도경찰국 연안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연백평야 통수(通水) 거부사건은 북한 공산당이 광복 후 최초로 남한의 농민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반미, 반정부 의식을 고취시키려고 의도적으로 자행한 사건이었다.

연백평야의 관개시설로는 상·하 양저수가 계단식으로 된 구암저수지가 있었는데, 상위 저수지가 38도선 이북에 속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1946년 5월 8일 북한 공산당은 그 일대의 농민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공산당국은 수시로 수문을 활짝 열어 놓음으로써 38도선 이남 농토에 홍수 피해를 입게 하였다.

김춘식 경위는 연백군 장곡면에서 북한군과의 충돌로 인하여 1948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9-71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태 (金 春 泰) 육군 이등상사 군번 0121794

김춘태 이등상사의 출신지와 생년월일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은 태백산맥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1948년 11월부터 10차에

걸쳐 2,300여명의 게릴라 요원을 남파시켰으며, 이들은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춘태 이등상사는 태백산맥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호 (金 春 浩) 경찰 경사

김춘호 경사는 1919년 7월 15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읍(伐橋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춘호 경사는 반란군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춘 희 (金 春 熙)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4843

김춘희 일등중사는 서울시 마포구(麻浦區) 마포동(麻浦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7년 11월 15일 서울 태릉 현촌에서 창설되어 1948년 11

월 15일 현촌에서 서빙고로 이동하여 교육훈련에 임하였으며, 1949년 1월 22일 서빙고 주둔지에서 경기도 양주군 금오리로 이동한 후 또다시 1949년 5월 23일 의정부 가능리로 이동하여 적성에서 현리간 90km에 이르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춘희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09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충 규 (金 忠 圭) 육군 일등중사 군번 0323222

김충규 일등중사는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서빙고동(西氷庫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헌병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태백산맥과 동해안을 따라 남파된 무장공비들은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영역을 확장해 나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과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의 대부분을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충규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충 린 (金 忠 麟) 육군 일등병 군번 0344693

김충린 일등병은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 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 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국군 제9연대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김충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충 식 (金 充 植) 육군 일등상사 군번 1200826

김충식 일등상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유성면(儒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경상북도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대전으로, 그리고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충식 일등상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5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충 인 (金 沖 仁) 육군 중위 군번 144643

김충인 중위는 1925년 2월 14일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현저동(峴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3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준동 중인 무장공비들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하여, 이 지방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충인 중위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4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충 현 (金 忠 顯) 육군 중위 군번 14401

김충현 중위의 출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그는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남한사회의 혼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충현 중위는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대전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

10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치 곤 (金 致 坤) 육군 이등중사 군번 0321417

김치곤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유호읍(楡湖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제1공병대대에서 복무하였다.

이 대대는 1948년 1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제1자동차중대를 기간으로 하여 사령부 제1공병대대로 편성되었으며, 8월 20일 공병단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경기도 부평으로 이동하였다.

김치곤 이등중사는 수도권 일대에 대한 공병지원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치 만 (金 致 萬) 육군 하사 군번 0321578

김치만 하사는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장승포읍(長承浦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치만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8-1-0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치 숙 (金 致 淑) 육군 일등병 군번 1601206

김치숙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 제27병원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지원하였다.

김치숙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치 운 (金 致 雲) 육군 하사 군번 1602075

김치운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치운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치 호 (金 致 浩)　육군 일등병 군번 0115916

김치호 일등병은 1920년 6월 25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치호 일등병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칠 곤 (金 七 坤)　육군 일등병 군번 1909621

김칠곤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옥포면(玉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역에서 새로운 도발을 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9연대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번번이 실패하였다.

김칠곤 일등병은 포천지구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5-8-10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칠 만 (金 七 萬) 육군 일등병 군번 8700141

김칠만 일등병은 1931년 1월 20일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다산면(茶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김칠만 일등병은 수도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칠 성 (金 七 星) 육군 중위 군번 23370

김칠성 중위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칠성 중위는 수도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곤 (金 泰 坤)　육군 하사 군번 5100848

김태곤 하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비산동(飛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곤 하사는 사단 후방지역방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권 (金 太 權)　경찰 경사

김태권 경사는 1925년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손불면(孫佛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함평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시 도주한 일부 공비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 도주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조직을 강화한 후, 주민 살해 및 납치, 식량 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여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였다.

김태권 경사는 함평군 나산면지역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권 (金 泰 權)　육군 일등병 군번 1307226

김태권 일등병은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김제읍(金堤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탈환작전에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은 제5사단 예하의 제15연대(순천), 제20연대(광주) 및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였다.

김태권 일등병은 전라북도 남원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균 (金 泰 均)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03081

김태균 이등중사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관산면(冠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제1차 공격(1949. 5. 21~6. 29)에 뒤이어, 북한군은 5월 26일에 다시 국사봉에서 비파리에 이르는 약 8km에 걸친 정면에서 국군 경계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1,300여명의 북한군이 38도선 5km 남쪽에 위치한 서경리까지 침공하여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육군은 제12연대, 제13연대 제2대대, 제18연대 제1대대와 38유격대로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1949년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38도선 부근에 위치한 두락산과 작산을 탈환하고 38도선 이북 700m 지점에 위치한 은파산까지 진출하였다.

김태균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기 (金 泰 基) 육군 하사 군번 6804374

김태기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서구(西區) 아미동(峨嵋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기 하사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1950년 3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5-13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련 (金 泰 練) 육군 일등병 군번 2905163

김태련 일등병은 함경남도 흥남시(興南市) 서상동(西上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2월 1일 제3여단 예속에서 제2여단에 편입되었으며, 6월 6일에는 옹진으로 이동하여 옹진전투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면서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

무를 수행 후, 1950년 1월 20일 용산으로 이동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된 제18연대는 수도방위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태련 일등병은 수도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백 (金 態 伯) 육군 대위 군번 13569

김태백 대위는 1927년 11월 10일 서울시 성북구(城北區) 안암동(安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남한사회의 혼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게릴라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에 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고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태백 대위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봉 (金 泰 鳳) 육군 일등병 군번 6805306

김태봉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

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봉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섭 (金 泰 燮) 육군 일등병 군번 1301770

김태섭 일등병은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반란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은 제5사단 예하의 제5연대(순천), 제20연대(광주),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였다.

김태섭 일등병은 전라북도 남원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8-0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수 (金 太 守) 경찰 경사

김태수 경사는 1927년 11월 27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대덕면(大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공비들은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 일부에 출현하여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함으로써 일반 양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김태수 경사는 곡성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17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수 (金 泰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705123

김태수 일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북산면(北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에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의 38도선경비대인 제1여단 예하 1개 대대는 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을 감행,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신남 일대에 대한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가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여 원래의 방어선을 모두 회복하였다.

김태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

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수 (金 泰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4556

김태수 일등병은 충청북도 단양군(丹陽郡) 단양읍(丹陽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9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북부지역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태수 일등병은 전라남도 북부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13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순 (金 泰 純) 경찰 경위

김태순 경위는 1922년 11월 28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금정동(金井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창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공비들은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 일부에 출현하여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하였다.

김태순 경위는 창원지역에서 전개된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

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술 (金 台 述) 육군 일등병 군번 0388665

김태술 일등병은 1925년 6월 21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암동(新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 북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태술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식 (金 台 式) 육군 일등병 군번 1505493

김태식 일등병은 1929년 2월 6일 부산시(釜山市) 부산진구(釜山鎭區)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을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하여 무장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태식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였으며,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6-6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식 (金 泰 植) 육군 하사 군번 8811157

김태식 하사는 1920년 1월 2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칠성동(七星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그후,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김태식 하사는 수도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안 (金 泰 安) 경찰 경사

김태안 경사는 1923년 1월 11일,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흥읍(長興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중이던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공비들은 분산된 공비를 수습, 집결시켜 양민들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급급하고 있었다.

그들은 1949년 6월 초에는 각지에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하동(河東)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였다.

김태안 경사는 백운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6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연 (金 泰 年)　육군 일등병 군번 8818991

김태연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송군(靑松郡) 진보면(眞寶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6월에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그후,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연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영 (金 泰 榮)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0853

김태영 일등중사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영월읍(寧越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7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영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영 (金 泰 永) 육군 일등중사 군번 8200183

김태영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청양군(靑陽郡) 운곡면(雲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제19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1949년 6월 20일부로 제3사단에 예속되어 중부지역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4월 8일에는 중부지역작전에서 전사한 정종근 대위 이하 64위의 합동위령제를 경상북도 안동농업학교에서 거행하였다.

김태영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의성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용 (金 泰 用)　육군 일등병 군번 0334043

김태용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감문면(甘文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국군이 미군으로부터 38도선경비임무를 인수한 후 옹진, 개성, 춘천 등 38도선 일대에서는 북한군의 불법침공 및 총격전으로 상호 충돌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다.

1949년 7월 6일, 북한은 3번째로 약 200여명의 인민유격대를 오대산으로 침투시켰으나 국군의 소탕작전으로 대부분 사살되었다.

김태용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및 공비토벌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3－4－19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원 (金 泰 元)　육군 이등중사 군번 0251434

김태원 이등중사는 1928년 7월 8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본부는 호남지구에 공비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자,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에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태원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

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원 (金 泰 源) 육군 일등병 군번 6800190

김태원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영천읍(永川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 내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쳐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태원 일등병은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인 (金 泰 仁) 경찰 경위

김태인 경위는 1927년 4월 3일 전라남도 구례군(九禮郡) 구례면(九禮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패배한 일부 공비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 도주하여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조직을 강화한 후, 주민살해 및 납치, 식량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였다.

김태인 경위는 구례지역에 침투한 무장공비들과의 교전 중 1949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인 (金 太 仁) 경찰 경감

김태인 경감은 1913년 2월 6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보성면(寶城面)에서 태어나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태인 경감은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1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인 (金 泰 仁) 육군 이등중사 군번 5200698

김태인 이등중사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1개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국군 제1

사단 제12연대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400명)를 옹진지역에 파견하였다.

국군과 경찰대가 옹진지역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2차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국군 제1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38도선은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김태인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인 (金 泰 仁) 육군 일등병 군번 0156343

김태인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성서면(城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인 일등병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주 (金 泰 住)　경찰 경사

김태주 경사는 1924년 6월 24일 전라남도 순천시(順天市) 덕암동(德岩洞)에서 태어나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1948년 10월 19일 반란을 일으켰다.

김태주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진 (金 泰 鎭)　경찰 경위

김태진 경위는 1924년 6월 8일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성송면(星松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북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패배한 일부 공비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 도주하여 지방공비와 합세하여 주민살해 및 납치, 식량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더욱 조성하였다.

김태진 경위는 영광군 와룡면 일대의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1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진 (金 泰 震)　육군 이등중사 군번 190441

김태진 이등중사의 출생지는 기록에 없으나 그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어 1948년 4월 17일 제주도폭동사건(1948. 4. 3)을 진압한 후, 제3여단에서 예속변경되어 제5여단으로 편입된 후, 연대본부는 1949년 6월 19일 서빙고에서 의정부로 이동하여 38도선의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태진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2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하 (金 台 河) 경찰 경위

김태하 경위는 1921년 5월 18일 평안북도 용천군(龍川郡) 북중면(北中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제주도의 무장공비들은 교통 및 통신시설을 파괴하여 민심을 극도로 혼란시켰으며, 또한 이들은 5·10총선거마저 폭력행동으로 방해하였다.

김태하 경위는 남제주군 대정면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5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형 (金 泰 亨) 육군 일등병 군번 9397869

김태형 일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괴산읍(槐山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예속시켰다.

김태형 일등병은 옹진지역전투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호 (金 泰 浩)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16

김태호 일등병은 1920년 2월 25일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횡성읍(橫城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태호 일등병은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2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태 화 (金 太 和) 육군 일등병 군번 0659397

김태화 일등병의 출생지는 기록에 없으나 그는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지원하였다.

김태화 일등병은 작전지원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택 기 (金 澤 起) 육군 일등병 군번 7900058

김택기 일등병은 1936년 9월 28일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대화면(大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택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택 부 (金 澤 富) 육군 일등병 군번 1103075

김택부 일등병은 경기도 평택군(平澤郡) 오성면(梧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연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서 창설된 후, 1946년 9월 18일 연대 편성을 완료한 후, 1947년 12월 1일 제1여단에 예속되어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김택부 일등병은 주둔지역 일대에 대한 수색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6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택 이 (金 澤 伊) 경찰 경위

김택이 경위는 1952년 1월 18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복산면(福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산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이 지역의 공비들은 다시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 집결시켜 양민들을 납치하여 병력 보충에 전력하였으나 그간 군·경의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양민들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병력보충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1949년 6월 초에는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면서 농번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김택이 경위는 산청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택 주 (金 澤 柱) 육군 일등병 군번 0326816

김택주 일등병은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청하면(靑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를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김택주 일등병은 충청남도지역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3-1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기 (金 判 基) 육군 하사 군번 0321999

김판기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6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 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판기 하사는 사단 후방지역에 침투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6-3-1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기 (金 判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22180

김판기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산내면(山內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제6연대 주둔지 내의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으며, 이 훈련학교는 105㎜ 포와 57㎜ 무반동총의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김판기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동 (金 判 童) 경찰 경사

김판동 경사는 1917년 3월 9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송정면(松汀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이 지역의 공비들은 다시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 집결시켜 양민들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전력하였으나 그간, 군·경의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양민들이 이에 불응함에 따라 병력보충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1949년 6월 초에는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면서 농번기를 이용하여 경상남도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김판동 경사는 광산 일대의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복 (金 判 福) 육군 일등병 군번 0329395

김판복 일등병은 전라북도 순창군(淳昌郡) 구림면(龜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무력도발을 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9연대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김판복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술 (金 判 述) 육군 일등병 군번 5109934

김판술 일등병은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풍각면(豊角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6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판술 일등병은 사단 후방지역방어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열 (金 判 烈) 육군 일등병 군번 1305701

김판열 일등병은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반란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동년 11월 30일까지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판열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2-1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판 용 (金 判 用) 육군 하사 군번 2603413

김판용 하사는 1929년 9월 29일, 경상남도 진주시(晋州市) 초전면(草田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49년 6월 수도경비사령부 예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김판용 하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1-15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팔 예 (金 八 禮) 육군 일등병 군번 6703508

김팔예 일등병은 1925년 9월 29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면(康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경기도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예하 1개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400명)를 옹진지역에 파견하였다.

국군과 경찰대가 옹진지역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국군 제1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38도선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김팔예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5-26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평 준 (金 平 準) 육군 이등중사 군번 9368217

김평준 이등중사는 1931년 4월 7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

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평준 이등중사는 사단의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1949. 9. 28~1950. 3. 15) 기간 중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포 식 (金 抱 植) 경찰 경사

김포식 경사는 1931년 4월 7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동진면(東津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에 실패한 김지회 중위 및 홍순석 중위 이하 약 350명의 공비들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그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하여 유격근거지를 구축하였다.

김포식 경사는 전라남도 구례군 양문면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1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풍 래 (金 豊 來) 경찰 경감

김풍래 경감은 1924년 9월 7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울산면(蔚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수사과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풍래 경감은 1948년 10월 27일 여수탈환작전에 참가한 후, 울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풍 영 (金 豊 泳) 육군 이등중사 군번 1203810

김풍영 이등중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경상북도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였으며,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주지역의 공비들은 제9·제10·제2연대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 7개월만인 1949년 5월 15일에 대부분 소탕되었다.

그후, 제2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되어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였다.

김풍영 이등중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필 수 (金 弼 洙) 육군 하사 군번 2604274

김필수 하사는 충청남도 충주면(忠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필수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2-09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필 수 (金 必 洙) 육군 일등병 군번 6802265

김필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안정면(安井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필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달 (金 下 達) 육군 이등중사 군번 8105864

김하달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고령군(高靈郡) 다산면(茶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

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하달 이등중사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두 (金 何 斗) 육군 이등중사 군번 2702604

김하두 이등중사는 1929년 8월 4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병영면(兵營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5월 4일 진해 주둔 제5연대 1개 대대 병력을 기간으로 편성되어 제3여단에 편입되었으며, 1948년 6월 1일 제3여단에서 해편되어 제4여단에 편입되었다.

마산 주둔 제15연대는 창설 이후 5개월간 완편을 못하고 있다가 1948년 10월 중순경에야 완편되었으며, 이때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병력은 반란군소탕작전에 출동하여 호남지구로 이동하여 오던 중, 작전상 여수에 주둔하게 되었으며, 연대본부를 여수로 이동하였다.

그후, 제15연대는 제3여단에서 해편되어 제5여단에 편입된 후 1950년 5월 3일 전라남도 순천 주둔지에서 전라북도 전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하두 이등중사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봉 (金 河 鳳) 육군 일등병 군번 0340859

김하봉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우정면(牛亭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 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하봉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삼 (金 河 三) 육군 일등병 군번 6641424

김하삼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일군(迎日郡) 죽장면(竹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하삼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식 (金 夏 植) 경찰 경사

김하식 경사는 1926년 6월 18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황룡면(黃龍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이 지구의 공비들은 재차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 집결시켜 양민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전념하였으나, 그간 아군의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이에 불응하자, 동년 6월 초에는 각 지역에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였다.

김하식 경사는 영광군 모량면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식 (金 河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191

김하식 이등중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 오정면(吳丁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4일 제1여단에 예속되었다가, 1949년 1월 12일 경기도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경비지역을 인수하고 북한군 진지에 가까운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에 방어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김하식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16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식 (金 河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40334

김하식 일등병은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신림면(新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대구 대명동에 위치한 제6연대 주둔지 내의 육군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105㎜ 포와 57㎜ 무반동총의 교육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김하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하 현 (金 河 顯) 육군 일등병 군번 0344089

김하현 일등병은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 호명면(虎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하현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8-2-1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학 구 (金 鶴 九)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6953

김학구 이등중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북아현동(北阿峴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제2여단에 편입되었으며, 1948년 5월 15일 제주도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경기도 수원에서 1949년 6월 5일 경기도 개성으로 이동하여 제1사단에 예속되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학구 이등중사는 개성지구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6-01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학 규 (金 學 圭)　육군 일등병 군번 1301044

김학규 일등병은 1928년 3월 12일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반포면(反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전공을 세웠다.

김학규 일등병은 여수·순천탈환 후, 평정작전지원 중 1948년 10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6-12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용 (金 漢 容)　경찰 경사

김한용 경사는 1919년 8월 17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청도면(淸道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남로당은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지막으로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곽종진 상사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들은 1948년 11월 2일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으며, 함양 방면에 파견되었던 연대하사관 교육대와 2개 중대 병력이 육군본부 명령에 따라 철수를 재개하여 대구 근교 월배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 제2차 반란을 일으켰다.

김한용 경사는 반란군토벌작전 중 1949년 8월 29일 월배 부근의 화원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용 (金 漢 鏞)　육군 일등병 군번 0323975

김한용 일등병은 경기도 화성군(華城郡) 송산면(松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이 38도선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제1사단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송악산, 은파산, 옹진 및 개성지역 일대에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실패하였으며, 제1사단은 38도선경비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김한용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5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1-11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우 (金 韓 羽) 육군 대위 군번 14091

김한우 대위는 서울시 용산구(龍山區) 한남동(漢南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한우 대위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원 (金 漢 源) 경찰 경감

김한원 경감은 1919년 9월 4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함창면(咸昌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점촌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1948년 11월부터 1950년 3월까지 10차에 걸쳐 2,300여명의 게릴라 부대를 남파시켜 유격전을 전개하였으나, 국군의 토벌부대에 의하여 그 주력은 대

부분 격멸되고, 그중 일부는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주민 납치, 살인, 방화,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였다.

김한원 경감은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태 (金 漢 太) 육군 일등병 군번 0331211

김한태 일등병은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영오면(永吾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한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태 (金 漢 泰)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한태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

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한태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지원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한 호 (金 漢 鎬) 육군 이등상사 군번 2300135

김한호 이등상사는 경기도 수원시(水原市) 매산동(梅山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5월 4일 경기도 수원에서 창설되어 제2여단에 편입되었으며, 1948년 5월 15일 제주도폭동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경기도 수원에서 1949년 6월 5일 개성으로 이동하여 제1사단에 예속되어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한호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15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항 돈 (金 恒 敦) 육군 계급·군번 : 미상

김항돈은 1922년 7월 3일,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지방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항돈은 경상북도 안동지구의 공비토벌작전 지원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교 (金 害 橋)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588

김해교 이등중사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주천면(酒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춘천에서 창설되어 동년 11월 3일 울진폭동 진압차 1개 대대를 주문진에 파견하여 완전 진압한 후, 1948년 1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원주로 이동하여 제4여단에 편입된 후, 1949년 2월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교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구 (金 海 求) 육군 일등병 군번 9304046

김해구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현풍면(玄風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

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구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근 (金 海 根) 육군 계급·군번 : 미상

김해근은 1932년 3월 29일 경상북도 군위군(軍威郡) 의흥면(義興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지방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해근은 경상북도 안동지구의 공비토벌작전 지원 중, 1950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복 (金 海 福)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4587

김해복 이등중사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주천면(酒泉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춘천에서 창설되어 동년 11월 3일 울진폭동 진압차 1개 대대를 주문진에 파견하여 완전 진압한 후, 1948년 1월 30일 강원도 춘천에서 원주로 이동하여 제4여단에 편입된 후, 1949년 2월 28일

강원도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동,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교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성 (金 海 成) 육군 중위 군번 12700

김해성 중위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당산동(堂山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부로 전라북도 이리(裡里)에서 창설된 후 1947년 5월 1일 제5여단에 예속되었고,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부연대장 송석하(宋錫夏) 소령 지휘하에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그후,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은 제5사단 예하의 제15연대(순천), 제20연대(광주), 제3연대(남원)가 수행하였다.

김해성 중위는 전라북도 남원 일대에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성화랑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2-04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수 (金 海 洙) 경찰 경사

김해수 경사는 1929년 7월 14일,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약목면(若木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덕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시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김해수 경사는 태백산맥을 따라 영덕군 창수면 일대에 침투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9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용 (金 海 龍) 육군 이등상사 군번 0320487

김해용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대창면(大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용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5-08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운 (金 海 雲) 육군 이등중사 군번 1702172

김해운 이등중사는 1928년 6월 4일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 북일면

(北一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청북도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춘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운 이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원 (金 海 源) 육군 일등병 군번 012958

김해원 일등병은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중동면(中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해원 일등병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2일 내율곡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진 (金 解 振) 육군 이등상사 군번 2201407

김해진 이등상사는 강원도 강릉군(江陵郡) 운정동(雲亭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5월 1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되어 강릉지구38도선 경비임무와 지역내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1950년 1월 말까지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였다.

김해진 이등상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해 청 (金 海 淸) 육군 일등병 군번 1101526

김해청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견곡면(見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에서 제1·제9연대를 배치하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지역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1연대에 의하여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도발을 감행하였지만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김해청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향 만 (金 香 萬) 육군 일등병 군번 0345648

김향만 일등병은 경상북도 포항시(浦項市) 죽도동(竹島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향만 일등병은 경상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7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헌 선 (金 憲 善) 육군 일등병 군번 6604352

김헌선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 도개면(桃開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헌선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헌 태 (金 憲 泰) 육군 이등상사 군번 1200886

김헌태 이등상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신풍면(新豐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경상북도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복귀하였으며,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주지역 공비는 제9·제10·제2연대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 7개월만인 1949년 5월 15일에 대부분 소탕되었다.

그후, 제2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되어,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였다.

김헌태 이등상사는 옹진지구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06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혁 두 (金 赫 斗) 육군 일등병 군번 2700767

김혁두 일등병의 본적은 기록에 없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의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지리산지구가 평정되자, 정부는 1950년 2월 5일부로 호남 일대에 선포되었던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육군본부는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하고 잔여 공비소탕임무는 광주 주둔 제5사단 예하 제15연대(순천)와 제19연대(남원)가 계속 수행하였다.

김혁두 일등병은 경상남도 하동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4-10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기 (金 賢 起) 육군 일등병 군번 2309687

김현기 일등병은 충청남도 연기군(燕岐郡) 전동면(全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경기도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현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5-05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대 (金 顯 大) 육군 일등병 군번 6600219

김현대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풍산읍(豐山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 및 경상북도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현대 일등병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상 (金 顯 尙) 육군 일등상사 군번 1801817

김현상 일등상사는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북면(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현상 일등상사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성 (金 鉉 聲) 육군 일등병 군번 1201939

김현성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림동(松林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외곽의 비행장에서 1946년 2월 18일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이 일어나자, 1개 중대가 김천 일대로 이동하여 폭동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한 후, 1948년 12월 19일 제주도로 이동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폭동은 이때 출동한 제9·제10·제2연대의 토벌작전으로 7개월만인 1949년 5월 15일에 소탕되었다. 그후 제2연대는 1949년 11월 15일 수도경비사령부에 배속되어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 격퇴하였다.

김현성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15일에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수 (金 賢 洙) 육군 일등중사 군번 : 미상

김현수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대흥동(大興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충청남도 대전시 비행장에서 창설되어 1946년 10월 1일 경상북도 김천 일대에서 발생한 10·1폭동사건을 진압한 후, 다시 대전으로 이동하여 1949년 3월 1일 제주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김현수 일등중사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8-1-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식 (金 玄 植)　경찰 순경

김현식 순경은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현식 순경은 순천－벌교를 거쳐 보성까지 진출하여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식 (金 鉉 植)　육군 하사 군번 2603944

김현식 하사는 1931년 10월 6일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계성면(桂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8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제15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연대를 편성하여 제3여단에서 1949년 6월 20일 보병 제2사단에 예속되어 태백산, 소백산, 일월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현식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2－00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양 (金 顯 良) 육군 일등병 군번 5203641

김현양 일등병은 충청남도 금산군(錦山郡) 남이면(南二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현양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어 (金 賢 御) 육군 일등병 군번 2200250

김현어 일등병은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0연대는 1948년 7월 1일부터 태백산 및 오대산을 중심으로 준동하던 잔존공비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동년 11월 20일 북한에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고자 1개 대대를 출동시켜 다대한 전과를 올리고 38도선경비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김현어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오 (金 鉉 五) 육군 일등병 군번 2200224

김현오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현오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주 (金 鉉 洲) 육군 대위 군번 227046

김현주 대위는 1925년 9월 25일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현주 대위는 인민유격대를 소탕하기 위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3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8-1-07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철 (金 鉉 哲)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96

김현철 일등병은 1926년 12월 3일 강원도 주문진면(注文津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현철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태 (金 玄 泰) 육군 일등병 군번 5200749

김현태 일등병은 전라북도 군산(群山)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예하 1개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400명)를 옹진지역에 파견하였다.

국군과 경찰대가 옹진지역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를 공격해 왔으나 증강된 제12연대 제3대대는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제1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38도선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김현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태 (金 玄 泰) 육군 하사 군번 0321524

김현태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범일동(凡一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대구로 이동하고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월 5일 공비토벌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사령부에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관·민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현태 하사는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 전개된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7-8-23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현 호 (金 鉉 皓) 육군 일등병 군번 0321841

김현호 일등병은 1932년 5월 15일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가야읍(伽倻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월 5일 공비토벌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단사령부에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관·민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현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2-2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협 술 (金 浹 述) 육군 하사 군번 2603636

김협술 하사는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성산면(星山面)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8년 10월 28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제15연대 1개 대대를 기간으로 연대를 편성하여 제3여단에 예속되었다. 1949년 6월 20일 제8사단에서 보병 제2사단에 배속되어 태백산, 소백산, 일원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협술 하사는 태백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규 (金 馨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343019

김형규 일등병은 경기도 시흥군(始興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대구시 대명동에 위치한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제1훈련학교는 105㎜ 포술 교육과 아울러 병기조작법에 의한 기초적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1949년 9월 28일, 육군본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와 계속적으로 남파된 인민유격대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김형규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7-4-17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기 (金 亨 起) 육군 일등병 군번 0331438

김형기 일등병은 강원도 명주군(溟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2-1-11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남 (金 亨 南) 경찰 경사

김형남 경사는 1920년 9월 14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면(筏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형남 경사는 순천의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대 (金 炯 大) 경찰 경위

김형대 경위는 1917년 11월 27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강원도경찰국 영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자 공산주의자들은 지하로부터 나와 합법적 정치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남로당의 세력 확장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반대, 그리고 남한 내의 교란활동을 목적으로 민심교란, 선동과 폭동,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군내부의 반란 획책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형대 경위는 영월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6년 6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도 (金 炯 道)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2182

김형도 이등중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

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도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문 (金 炯 文) 육군 일등병 군번 2201820

김형문 일등병은 경상북도 울진군(蔚珍郡) 울진읍(蔚珍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배 (金 炯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320472

김형배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광도면(光道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동해안과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형배 일등병은 경상북도 안동지구의 공비토벌작전 지원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병 (金 炯 炳) 경찰 경사

김형병 경사의 출신지는 기록에 없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형병 경사는 순천-벌교를 거쳐 보성 일대까지 진출한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전라남도 보성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봉 (金 炯 奉) 육군 일등병 군번 2300892

김형봉 일등병은 경기도 파주군(坡州郡) 적성면(積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국군 제11연대는 1948년 11월에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경비지역을 인수하

고 진지구축작업에 들어갔다.

북한군은 국군의 진지구축작업 방해와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송악산과 배천 일대에 대한 무력도발을 자행하였으나 국군 제11연대는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488고지 하단의 등대고지와 292고지 및 비둘기고지 등도 이를 끝까지 확보하였다.

김형봉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석 (金 炯 石)　육군 대위 군번 12066

김형석 육군 대위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흑석동(黑石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 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에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형석 대위는 전남지역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섭 (金 亨 燮)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3745

김형섭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예천군(醴泉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에 전개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김형섭 이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7-5-03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수 (金 亨 水) 육군 일등병 군번 0336685

김형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하청면(河淸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수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4-5-2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수 (金 亨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6606111

김형수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예하의 제22연대는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는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세웠으며, 이후부터는 대구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수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수 (金 炯 洙)　경찰 경사

김형수 경사는 1929년 5월 27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보성면(寶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도주한 일부 공비들은 각 지방으로 분산 도주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지방공비들과 합세하여 조직을 강화한 후, 주민살해 및 납치, 식량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면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고 있었다.

김형수 경사는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

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수 (金 炯 洙) 육군 일등병 군번 5207486

김형수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시(全州市) 인후동(燐後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21일, 북한군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옹진 일대의 국사봉을 공격해 왔으며, 국군 제12연대는 이들과 격전을 벌였으나 지형이 불리한데다가 대규모 병력이 공격함에 따라 진지가 돌파될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김호 이등상사 외 5명은 포탄을 안고 적진에 돌진하여 산화하는 등 격전을 치른 끝에 진지를 고수하였다.

김형수 일등병은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식 (金 亨 植) 경찰 경사

김형식 경사는 1919년 3월 13일 전라남도 진도군(珍島郡) 진도면(珍島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군부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형식 경사는 강진지역 일대의 반란군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18일 방두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식 (金 炯 植) 육군 일등병 군번 1100824

김형식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영북면(永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과 옹진에서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도발을 감행하였으나 그때마다 제1연대 2개 중대 규모의 매복부대에 의하여 격퇴되었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의 도발을 저질렀으나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김형식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6-2-1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식 (金 炯 植) 육군 하사 군번 1504147

김형식 하사는 1929년 12월 2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영원면(永元

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제2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하여 반군토벌사령부에 배속, 반란군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한 후, 동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였다.

김형식 하사는 경상북도 안동 일대에서 1950년 2월 20일부터 1950년 4월 22일까지 전개한 중부지구공비토벌작전 중 1950년 4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엽 (金 炯 燁)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00

김형엽 일등병은 1921년 5월 20일 강원도 원주군(原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형엽 일등병은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엽 (金 炯 燁) 육군 이등상사 군번 0320803

김형엽 이등중사는 1927년 8월 25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州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반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진압작전 및 잔당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김형엽 이등상사는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용 (金 亨 龍) 육군 일등병 군번 03228851

김형용 일등병은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동곡면(東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용 일등병은 경북 북부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2-07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우 (金 炯 禹) 육군 하사 군번 2201263

김형우 하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삼척읍(三陟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우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인민유격대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원 (金 亨 源) 육군 하사 군번 8101961

김형원 하사는 1922년 8월 19일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촌면(陽村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1949년 11월 2일부터 전개한 경상북도 안동지구 및 보현산 일대와 경상남도 양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김형원 하사는 경상남도 양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인 (金 亨 仁)　육군 일등병 군번 0332186

김형인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부안읍(扶安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1949년 9월 28일 육군본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와 계속적으로 남파되는 인민유격대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태백산, 보현산 일대를 중심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1950년 3월 15일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된 뒤에도 육군은 공비세력을 완전히 뿌리뽑기 위하여 4월 30일까지 계속 잔여공비토벌에 힘썼다.

김형인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제 (金 炯 濟)　경찰 경사

김형제 경사는 1927년 8월 17일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읍(康津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이 지구의 공비들은 재차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집결시켜 양민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전념하였으나 그간 아군의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이에 불응하자, 동년 6월 초에는 각 지역에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였다.

김형제 경사는 영광군 모량면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

무수행 중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준 (金 亨 俊) 육군 일등중사 군번 1704094

김형준 일등중사는 충청남도 대덕군(大德郡) 기성면(杞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20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한 후, 춘천지구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형준 일등중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2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진 (金 炯 辰) 육군 일등병 군번 0335236

김형진 일등병은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서울 용산에 위치했던 제2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국내에서 활동하던 공비들이 남로당의 9월공세를 퍼트리며 계속적으로 남파되어 온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지리산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이듬해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 대부분을 소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강원도, 오대산 일대에도 인민유격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형진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으며,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4-211번으로 봉안하였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칠 (金 炯 七) 육군 일등병 군번 2200033

김형칠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38경비대의 1개 중대 병력이 서림방향으로 공격하고,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잔교리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반론산지역에서 김달삼부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형칠 일등병은 공비두목 김달삼부대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29일 경북지역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형 휘 (金 炯 輝)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0149

김형휘 이등상사는 1927년 8월 25일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운주면(雲州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0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 잔여병력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

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김형휘 이등상사는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권 (金 浩 權) 육군 하사 군번 6800972

김호권 하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금성면(金城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호권 하사는 경상남·북도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권 (金 鎬 權) 경찰 경사

김호권 경사의 출신지와 생년월일은 기록에 없으며,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호권 경사는 순천-벌교를 거쳐 보성까지 진출한 반란군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달 (金 浩 達) 육군 이등상사 군번 2601650

김호달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포항읍(浦項邑) 용흥동(龍興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1일부로 제2사단에서 제8사단으로 예속 변경된 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호달 이등상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덕 (金 好 德) 육군 하사 군번 6701003

김호덕 하사는 경상남도 진주군(晋州郡) 옥봉남동(玉峰南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호덕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9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방 (金 好 方) 육군 하사 군번 1204000

김호방 하사는 충청남도 대전시(大田市) 가양동(佳陽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호방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석 (金 昊 錫) 경찰 경위

김호석 경위는 1928년 2월 25일 제주도 제주군(濟州郡) 서귀포면(西歸浦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제주도경찰국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제주도폭동사건은 동년 7월 중순경에 소탕작전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10월에 이르러 이들은 또다시 10월 러시아혁명기념일을 기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이 폭동은 이때 출동한 제9·제10·제2연대의 본격적인

토벌작전으로 7개월만인 1949년 5월 15일에 소탕작전이 완료되었다.

김호석 경위는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5일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연 (金 浩 連) 경찰 경사

김호연 경사는 1913년 1월 10일 전라남도 보성군(寶城郡) 벌교읍(伐橋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호연 경사는 여수·순천반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1월 5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열 (金 鎬 烈) 육군 일등중사 군번 1902631

김호열 일등중사는 강원도 홍천읍(洪川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었으며, 1948년 4월 3일 제주 주둔 제9연대 내의 일부 좌익분자와 지역내에 있던 좌익세력이 합세하여 제주도지역 공산화와 5·10선거 방해 목적으로 폭동 및 반

란사건을 일으키자, 경찰과 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8년 4월 10일 부산에 주둔 중이던 제15연대 제2대대를 제주도로 급파하여 제9연대에 배속시켰으나 남로당원인 제2대대장은 장병들의 훈련미숙을 이유로 토벌작전을 소극적으로 실시하자, 경비대사령부는 공비토벌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창설하여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키고 곧이어 제9연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시켜 7월 23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호열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여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483)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23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익 (金 昊 翊) 경찰 총경

김호익 총경은 1919년 1월 31일 경상남도에서 태어나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공산당은 1946년 초까지는 미군정청의 민주시책에 편승하여 공산주의의 합법적 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46년 9월부터 좌익계열의 살인방화 등 폭동이 잇따르자, 이것을 계기로 제재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지하로 잠입하여 남한의 사회질서를 계속 혼란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서 습격 및 요인암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김호익 총경은 서울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하던 중, 남로당원이 쏜 권총에 맞아 1949년 8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준 (金 浩 俊) 경찰 경위

김호준 경위는 경상북도 영주군(永州郡) 영주읍(永州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점촌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와 지방공산분자들과 합세하여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 살인, 방화, 납치, 관공서 습격 등 갖은 만행을 끊임없이 자행하였다.

김호준 경위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6일 문경군 산북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중 (金 鎬 中) 육군 일등병 군번 1147557

김호중 일등병은 경상남도 함안군(咸安郡) 칠서면(漆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의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확장되어가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전라북도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에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호중 일등병은 1949년 9월 28일부터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지 (金 好 地)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24

김호지 일등병은 1928년 7월 20일 강원도 홍천군(洪川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김호지 일등병은 설악산 및 영덕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483)훈장을 수여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2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진 (金 鎬 鎭)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김호진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7사단 예하 1개 중대가 철수함에 따라 육군본부는 이 지역을 미군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하여 1949년 1월에 국군 제1사단 제12연대 1개 중대와 경기도 경찰기동대(400명)를 옹진지역에 파견하였다.

국군과 경찰대가 옹진지역에 배치되자, 북한군은 국군의 전투력을 탐색하기 위하여 국사봉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증강된 제1연대 제3대대는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2차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였으나 제1사단은 이들의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38도선은 본래의 상태로 회복되었다.

김호진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

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진 (金 浩 鎭) 경찰 경사

김호진 경사는 1925년 2월 9일 경상북도 영주군(永州郡) 이산면(伊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덕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 일부가 태백산맥으로 도주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와 지방의 좌익분자들과 합류하여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영덕경찰서는 안동, 영덕지역에서 관공서 습격 등 공비들의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자,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호진 경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7일 영덕군 지품면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호 택 (金 湖 澤) 육군 일등병 군번 0402208

김호택 일등병은 1928년 12월 15일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내남면(內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호택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곤 (金 洪 坤) 경찰 경위

김홍곤 경위는 1925년 9월 8일 전라남도 구례군(九禮郡) 구례읍(九禮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홍곤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국 (金 洪 國) 육군 일등병 군번 2700704

김홍국 일등병은 1931년 5월 6일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화북면(化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남파된 게릴라 요원들은 태백산맥을 따라 한국의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여 국내의 현지공비와 합류한 후,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김홍국 일등병은 경상북도 북부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국 (金 鴻 國)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0341

김홍국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면천면(沔川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경비대인 제3여단이 1949년 5월 21일 국사봉의 국군 제12연대 진지를 공격하였으며, 이에 제12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하였다.

그후, 북한군은 5월 26일에 다시 국사봉 비파리에 이르는 약 8km에 걸친 정면에서 국군 경계진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에 국군(제12·제13연대(1－), 제18연대)은 동년 6월 29일까지 북한군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여 38도선 부근에 위치한 두락산과 작산을 탈환하고 38도선 이북 700m지점에 위치한 은파산까지 진출하였다.

김홍국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6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려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483) 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6－007

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규 (金 洪 圭) 육군 일등병 군번 8205631

김홍규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주력부대로 참전하였다. 제25연대는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섬멸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홍규 일등병은 태백산, 일월산, 문수산 일대의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기 (金 鴻 基) 육군 하사 군번 8105634

김홍기 하사는 서울시 영등포구(永登浦區) 양평동(楊坪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사단의 작전명령에 따라 1950년 3월 27일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었다.

김홍기 하사는 영남지방의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대 (金 洪 大) 육군 일등중사 군번 2102952

김홍대 일등중사는 1929년 8월 18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하양읍(荷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야전의무단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홍대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래 (金 洪 來) 경찰 경사

김홍래 경사는 1923년 12월 27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 매곡동(梅谷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홍래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3일 순천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량 (金 洪 亮) 육군 일등병 군번 0149058

김홍량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 현저동(峴底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 20일 경상남도 마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3월 27일까지 경상남도 양산, 밀양, 언양, 울산지역에서 준동 중이던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여 대부분 소탕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홍량 일등병은 경상남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배 (金 洪 培) 육군 일등병 군번 0334471

김홍배 일등병은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음성읍(陰城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홍배 일등병은 사단 후방지역방어작전과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식 (金 洪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29493

김홍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명동(大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홍식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4-1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식 (金 弘 植) 육군 하사 군번 1306877

김홍식 하사는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무주읍(茂朱邑)에서 태어나 국

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홍식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7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3-11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재 (金 洪 再)　해병 일등병 군번 9100179

김홍재 일등병은 1933년 3월 6일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봉동(大鳳洞)에서 태어나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5중대에서 복무하였다.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덕산비행장)에 창설된 이래 1949년 8월 26일 진주로 이동,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지리산을 근거지로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고 진주 일대의 치안을 유지하였다.

무장공비 약 80명이 1949년 10월 16일 경상남도 진양군 수곡면 효곡리 일대에 출현하여 경찰지서에 위협사격을 가하면서 면사무소에 방화한 후 도주하였고, 10월 18일에는 진주와 하동을 연결하는 통로의 요지인 평원지서 부근에 무장공비 8명이 출현하였으나 해병대 제1분초에서 6명을 체포하였다.

김홍재 일등병은 진주 외곽 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제 (金 弘 濟)　육군 일등병 군번 0326605

김홍제 일등병은 충청북도 청원군(淸原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홍제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2－2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조 (金 弘 祚)　육군 하사 군번 1110164

김홍조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부전동(釜田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으며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 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권지역경비임무를 전담하였다.

김홍조 하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진 (金 洪 鎭) 육군 하사 군번 6800966

김홍진 하사는 경상북도 경주읍(慶州邑) 성내동(城內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태백산지구 안동지역과 경상북도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 30일까지는 경북 일대의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김홍진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6-05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홍 훈 (金 洪 勳) 경찰 경감

김홍훈 경감은 전라남도 강진군(康津郡) 강진읍(康津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전에서 실패한 김지회 중위 및 홍순석 중위 이하 약 350명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유격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함으로써 일반 양민을 불안과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 30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담진산-구례-압록-삼지-옥천-담양-고창을 연하는 선을 남북지구전투지경선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홍훈 경감은 담양군 월산면 일대의 무장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

무수행 중 1949년 2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화 영 (金 華 榮) 육군 일등병 군번 0341002

김화영 일등병은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단촌면(丹村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화영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환 돈 (金 煥 敦) 육군 하사 군번 1805857

김환돈 하사는 강원도 춘천시(春川市) 약사동(藥司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환돈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

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황 해 (金 黃 海) 경찰 경위

김황해 경위는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두서면(斗西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울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부산에 주둔 중인 제3여단은 경상남·북도 치안책임자회의와 시국강연 등을 통하여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일부 지방주민을 계몽하는 한편,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김황해 경위는 울주군 두서면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회 섭 (金 會 燮) 경찰 경위

김회섭 경위는 1918년 10월 14일 전라남도 순천면(順天面) 옥천리(玉天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김회섭 경위는 1948년 10월 23일 순천경찰서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

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효 범 (金 孝 範) 육군 일등병 군번 2600101

김효범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대봉동(大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경북 일대에서 경찰지서 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그후,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터 다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되어 1950년 5월 4일까지 준동하던 공비들을 거의 소탕하였다.

김효범 일등병은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청주로 이동한 후 교육훈련 및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효 태 (金 孝 泰) 육군 일등병 군번 0328135

김효태 일등병은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효태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달 (金 興 達) 육군 일등중사 군번 6600865

김홍달 일등중사는 강원도 평창군(平昌郡) 방림면(芳林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태백산지구에 투입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홍달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0일 강원도 삼척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래 (金 興 來) 육군 일등병 군번 0310702

김홍래 일등병의 출신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그는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은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여 국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을 교란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에 전

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공병, 포병, 병참, 통신 및 의무대 등을 지원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홍래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29일 전사하였으나 정확한 전사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수 (金 興 洙) 육군 하사 군번 6800596

김홍수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는 경상남·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 공비들을 대부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김홍수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5-5-26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시 (金 興 時) 육군 이등중사 군번 0190700

김홍시 이등중사는 1932년 3월 1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수색에 위치하고, 문

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홍시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식 (金 興 植) 육군 일등중사 군번 6600636

김홍식 일등중사는 1930년 11월 2일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태백산맥지구에 투입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김홍식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영 (金 興 永) 육군 이등중사 군번 5101412

김홍영 이등중사의 본적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나 그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사

단을 창설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홍영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용 (金 興 溶) 육군 일등병 군번 5308417

김홍용 일등병은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노안면(老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4연대를 해체하여 1948년 11월 20일 창설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는 제1대대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 지역내 잔여공비들의 보급공급원인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홍용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0-5-22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용 (金 興 龍) 육군 하사 군번 9302244

김흥용 하사는 1928년 6월 25일 경상남도 울주군(蔚州郡) 농소면(農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9년 10월 수도경비사령부 산하에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한 후,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가 육군본부 직할로 예속변경되자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김흥용 하사는 수도서울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6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준 (金 興 俊) 육군 하사 군번 6601728

김흥준 하사는 1922년 8월 27일 강원도 정선군(旌善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사단을 창설하였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김흥준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흥 철 (金 興 鐵)　경찰 경위

김흥철 경위는 1924년 12월 6일 경상남도 합천군(陜川郡) 삼가면(三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거창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지리산전투부대가 1949년 5월 9일 철수하자, 이 지역의 생존공비들은 다시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 집결시켜 양민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급급하고 있었으며, 동년 6월 초에는 각 지역에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김흥철 경위는 경찰서를 습격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9년 8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도 (金 喜 道)　육군 일등병 군번 0331002

김희도 일등병은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문평면(文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후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인수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피탈된 진지를 탈환하였으며, 계속해서 수도권지역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희도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1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1－228번으

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석 (金 喜 錫) 육군 하사 군번 0232299

김희석 하사는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3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인민유격대 제2병단은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인근 일대에 출몰하여 양민을 납치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년 9월 28일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군·경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동계작전을 전개하여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김희석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식 (金 喜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41069

김희식 일등병은 전라북도 무주군(茂朱郡) 적상면(赤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4연대를 해체하여 1948년 11월 20일 창설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는 대대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 지역내 잔여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점차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희식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열 (金 曦 烈) 육군 일등중사 군번 3300196

김희열 일등중사는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야전의무단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은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여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을 교란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공병, 포병, 병참, 통신 및 의무대를 지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희열 일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용 (金 喜 龍) 육군 이등상사 군번 1601567

김희용 이등상사는 1926년 10월 2일 경상북도 경산군(慶山郡) 경산읍(慶山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1949년 11월 2일부터 동년 11월 8일까지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면 일대에 출현하여 살인, 납치,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질렀다.

김희용 이등상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7-1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천 (金 熙 川) 육군 일등중사 군번 1100480

김희천 일등중사는 서울시 종로구(鍾路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헌병학교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은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여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을 교란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의무대 및 헌병 등을 지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김희천 일등중사는 수도권 일대에서 은거중인 공비토벌작전지원 기간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철 (金 熙 哲) 육군 일등병 군번 3802857

김희철 일등병은 평안남도 평양(平壤)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

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희철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김 희 춘 (金 熙 春) 육군 일등중사 군번 2502481

김희춘 일등중사는 1930년 3월 16일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둔포면(屯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김희춘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나 예 범 (羅 禮 範) 육군 하사 군번 2904099

나예범 하사는 경기도 옹진군(甕津郡) 온천리(溫泉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 경비작전을 전개하던 중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국사봉 일대의 아군진지를 확보하는 전승을 거두었으며,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아군진지를 계속 확보하였다.

그후 계속적인 북한군의 불법공격을 격퇴하면서 1950년 1월 20일까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였다.

나예범 하사는 1950년 1월 20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10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3-3-10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나 종 열 (羅 鍾 烈) 육군 일등병 군번 5301345

나종열 일등병의 출신지는 기록에 없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해빙기를 맞아 제5사단은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 중인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6월까지 호남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나종열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계 창 (南 啓 昌) 경찰 순경

남계창 순경은 1925년 8월 20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금정면(金井面)에서 태어나 전라남도 철도경찰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3월 1일 설치된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공비의 출몰을 엄중히 경계하면서 각처에 포위망을 펴고 이들에게 대대적인 타격을 가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공격을 거듭하였다.

이들은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만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목포행 호남선 열차를 정차시키는 등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였다.

남계창 순경은 목포역에 침입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9년 5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궁 일 (南 宮 一)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1257

남궁일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태백산지구 안동지역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 20일까지 경북 일대의 잔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다.

남궁일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

수행 중 1949년 1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1-21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궁 엽 (南 宮 燁) 육군 일등병 군번 0345472

남궁엽 일등병은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현동(松峴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경상북도 대구에 위치했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이 훈련학교는 105㎜ 포의 교육과 아울러 병기조작법 등 기초적인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49년 9월 8일 육군본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비와 계속적으로 남파되는 북한인민유격대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 및 태백산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및 보현산 일대에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남궁엽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궁 축 (南 宮 祝) 육군 일등병 군번 5202399

남궁축 일등병은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고부면(古阜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제3연대 제2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어 1948년 5월 1일부로 제2여단에 예속되어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진압작전에 참가하였다.

남궁축 일등병은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을 전개한 후, 평정작전 기간중에 잔여 폭도들과 교전 중, 1948년 11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4-2-12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궁 환 (南 宮 煥)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3707

남궁환 이등상사는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청하면(靑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남궁환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1-15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규 채 (南 奎 採) 경찰 경사

남규채 경사는 1921년 9월 8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노안면(老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구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인민유격대 제2병단은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인근 일대에 출몰하여 양민

을 납치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년 9월 28일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이 지구에 전투경찰대와 군·경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동계작전을 전개하여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남규채 경사는 군·경합동으로 전개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금 용 (南 金 容) 육군 하사 군번 2008785

남금용 하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원덕면(遠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 제38경비대 1개 중대병력이 서림방면으로 공격하고 또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남하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완전히 격퇴시켰다. 또한, 제10연대는 1950년 3월 16일부터 3월 23일까지 반론산지역에서 김달삼부대 토벌작전을 전개하였고, 4월 26일부터 4월 22일까지 북한군 제38경비대가 정족산을 공격하였을 때 반격작전으로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남금용 하사는 제10연대가 강릉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금 용 (南 金 溶)　육군 하사 군번 0087845

남금용 하사는 강원도 명주군(溟州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남금용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병 (南 基 炳)　육군 일등병 군번 : 미상

남기병 일등병은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인민유격대 제2병단은 지리산, 덕유산, 백운산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인근 일대에 출몰하여 양민을 납치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년 9월 28일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는 군·경합동으로 1950년 3월 15일까지 동계작전을 전개하여 지리산 일대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남기병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성 (南 基 成) 경찰 경위

남기성 경위는 1920년 9월 21일 부산시(釜山市) 남구(南區) 대연동(大淵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남기성 경위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한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성 (南 基 盛) 경찰 경위

남기성 경위는 1920년 9월 22일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정곡면(正谷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하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기성 경위는 하동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1949년 1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영 (南 基 永) 육군 일등병 군번 0329449

남기영 일등병은 경상남도 마산시(馬山市) 서성동(西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영남전투사령부 작전명령 제34호(1950. 3. 17)에 따라 1950년 3월 18일부터 양산, 밀양, 언양, 울산 등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남기영 일등병은 경상남도지역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1-4-09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엽 (南 基 燁) 육군 일등병 군번 0103559

남기엽 일등병은 1928년 11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상촌동(上村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기엽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2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우 (南 基 佑) 육군 일등병 군번 0127295

남기우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는 10차에 걸쳐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방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인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남기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장소와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기 형 (南 基 炯) 육군 대위 군번 11962

남기형 대위는 충청북도 음성군(陰城郡) 금왕읍(金旺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에 많은 전공을 세웠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가 후, 1949년 7월 10일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여 향토방위작전을 수행하였다.

남기형 대위는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20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도 원 (南 道 元) 경찰 경사

남도원 경사는 1923년 6월 19일 전라남도 승주군(昇州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해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도원 경사는 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3일 여천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동 암 (南 東 岩) 육군 일등병 군번 9398163

남동암 일등병은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불정면(佛頂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는 10차에 걸쳐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남동암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장소와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두 현 (南 頭 鉉) 경찰 경사

남두현 경사는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평면(長平面)에서 태어나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해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두현 경사는 고흥군 경찰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12월 16일 고흥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모 현 (南 牟 賢) 육군 이등상사 군번 700361

남모현 이등상사는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는 10차에 걸쳐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남모현 이등상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문 희 (南 文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188168

남문희 일등병은 경기도 여주군(驪州郡) 가남면(加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국내의 교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남문희 일등병은 강원도 횡성군 일대에 침투한 무장공비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복 규 (南 福 圭) 경찰 경사

남복규 경사는 1912년 2월 27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일직면(一直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영천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대구에서 박헌영 일당에 의하여 조정되었던 1946년 9월 총파업의 연장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주, 칠곡, 고령, 영천, 경산, 의성, 군위 등지에서 수천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각 지역 경찰서 등을 습격하면서 만행을 저질렀다.

남복규 경사는 폭도진압작전 임무수행 중 1949년 10월 3일 영천군 창구면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상 원 (南 相 元) 육군 하사 군번 : 미상

남상원 하사는 전라남도 순천읍(順天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는 10차에 걸쳐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남상원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석 택 (南 錫 澤)　경찰 경위

남석택 경위는 1927년 12월 14일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의령읍(宜寧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함양경찰서에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석택 경위는 순천지역에 출동하여 반란군을 진압하고 그후 반란군잔당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48년 12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성 희 (南 聖 熙)　육군 일등병 군번 201696

남성희 일등병은 충청남도 논산군(論山郡) 논산면(論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38도선경비강화를 위하여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연대는 동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성희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8－3－16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용 문 (南 龍 文)　육군 일등병 군번 0331724

남용문 일등병은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 공화읍(公和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38도선경비강화를 위하여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연대는 동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용문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2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윤 (南　潤)　육군 일등중사 군번 2200095

남윤 일등중사는 강원도 울진군(蔚珍郡) 울진읍(蔚珍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남윤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2－17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응 용 (南 應 容)　육군 일등중사 군번 600721

남응용 일등중사는 강원도 삼척군(三陟郡) 근덕면(近德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응용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인 수 (南 麟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4042

남인수 일등병은 부산시(釜山市) 중구(中區) 남포동(南浦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는 10차에 걸쳐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 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 공병, 포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남인수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일 성 (南 一 星)　육군 일등병 군번 0322860

남일성 일등병은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일운면(一運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3연대는 1949년 6월부터 1950년 3월까지 경상남도 산악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한 후, 경상남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일성 일등병은 경상남도지역 향토방위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일 우 (南 一 祐)　경찰 경위

남일우 경위는 1920년 10월 20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일우 경위는 여수·순천반란군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정 혁 (南 延 赫)　경찰 경사

남정혁 경사는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영암읍(靈岩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지리산지구의 공비들은 야산대를 조직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확장에 몰두하였고, 남로당 계열의 9월공세설에 호응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에, 군·경은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사살 365명, 생포 187명, 귀순 4,964명, 아지트 파괴 168개소 등의 다대한 전과를 획득하였다.

남정혁 경사는 전라남도 영암지역의 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종 수 (南 鍾 洙)　경찰 경위

남종수 경위는 1922년 7월 3일 전라남도 여천군(麗川郡) 소라면(召羅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해 놓았던 행동대원 40여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남종수 경위는 반란군진압작전을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1일 순천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종 수 (南 鍾 洙) 육군 하사 군번 1603574

남종수 하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신암동(新岩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종수 하사는 경상남도지역의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종 우 (한자미상) 육군 이등상사 군번 0402861

남종우 이등상사는 경상북도 남원군(南原郡) 송동면(松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 및 덕유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남종우 이등상사는 덕유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준 규 (南 俊 圭) 육군 일등병 군번 0112309

남준규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월배면(月背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또는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남준규 일등병은 1949년 8월 4일부터 홍천지역에 침투한 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준 우 (南 俊 佑)　육군 하사 군번 9201789

남준우 하사는 충청남도 서천군(舒川郡) 마서면(馬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영남지구전투사령부 작전명령 제27호에 따라 1950년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동해안 및 경남 동북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남준우 하사는 경상남도 동북부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진 봉 (南 鎭 鳳) 경찰 경사

남진봉 경사는 1922년 4월 18일 강원도 태백군(太白郡) 황지읍(黃池邑)에서 태어나 강원도경찰국 정선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북한은 각종 폭동과 반란을 일으켜 남한사회의 혼란을 획책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그들의 지하조직마저 와해되자, 그 다음 수단으로 게릴라 부대를 남파하여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인민유격대 약 50명이 1949년 9월 28일 제38여단 일부병력의 엄호하에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금옥치리로 제8차로 침투하였으나 국군 제8사단에 의하여 격멸되고 일부는 월북 도주하였다.

남진봉 경사는 태백산맥을 타고 북상중인 공비들을 추격하던 중 1949년 10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진 희 (南 振 熙) 육군 일등병 군번 0325257

남진희 일등병은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동성동(東城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남진희 일등병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

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찬 식 (南 贊 植) 육군 하사 군번 2700867

남찬식 하사는 1926년 6월 26일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찬식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5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창 기 (南 昌 起) 육군 일등병 군번 0344344

남창기 일등병은 강원도 명주군(溟州郡) 옥계면(玉溪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2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해빙기를 맞아 제5사단은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 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6월까지 호남지구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창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

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춘 우 (南 春 祐) 육군 일등병 군번 0167291

남춘우 일등병은 1928년 10월 27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소래읍(蘇萊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단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남춘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50년 5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4-5-26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충 빈 (南 忠 彬) 경찰 경위

남충빈 경위는 1924년 11월 24일 경상남도 부산시(釜山市) 사직동(社稷洞)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청도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청도경찰서는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 본부 및 포항파견부대에서 좌익분자들에 의하여 반란이 일어나자, 이들에 대한 진압작전에 참가한 후 경상북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남충빈 경위는 경상북도지역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25일 청도군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한 규 (南 漢 奎) 육군 일등병 군번 5302650

남한규 일등병은 전라남도 장흥군(長興郡) 장평면(長平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1월 30일 호남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어 토벌부대 일부가 철수하자, 지리산지역의 공비들은 행동반경을 확대하여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로 1개 대대를 지리산 및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시켜 동년 5월 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남한규 일등병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5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남 현 주 (南 現 住) 육군 하사 군번 0337309

남현주 하사는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남현주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

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와 장소는 기록이 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광 춘 (盧 光 春) 육군 이등중사 군번 2802662

노광춘 이등중사는 1932년 7월 1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전개하였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4월까지 태백산지구 및 경북 안동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광춘 이등중사는 안동지구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후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8-08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기 용 (盧 基 容) 경찰 경위

노기용 경위는 1924년 5월 8일 경상남도 거창군(居昌郡) 가북면(加北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산청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지리산전투부대가 1949년 5월 9일 철수하자, 이 지역의 잔존공비들은 다시 분산된 공비들을 수습 집결시켜 양민을 납치하여 병력보충에 급급하

고 있었으며, 동년 6월 초에는 각 지역에 야산대를 조직하고 소위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하여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노기용 경위는 산청경찰서를 습격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9년 8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동 구 (盧 東 九) 육군 일등중사 군번 5206675

노동구 일등중사는 경상북도 대구시(大邱市) 동인동(東仁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2연대는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옹진지구 국사봉 일대로 공격해 오자, 반격작전을 전개하여 6월 30일에는 아군진지를 회복하였다.

제12연대는 1949년 6월 5일 인천에서 문산으로 이동후,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동구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다가 1949년 8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동 래 (盧 東 來) 육군 일등병 군번 1604427

노동래 일등병은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석적면(石積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9연대는 1946년 11월 16일 제주도 모슬포에서 창설되었으며,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총책 김달삼이 주동이 되어 제주도지역 공산화와 5·10 선거 방해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자, 경찰과 합동으로 초기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

국방경비대 총사령부는 1948년 4월 10일 부산에 주둔 중이던 제5연대 제2대대를 제주도로 증파하여 제9연대에 배속시켰으나 남로당원인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장병들의 훈련미숙을 이유로 토벌작전을 소극적으로 전개하자, 경비대사령부는 공비토벌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창설하여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키고 곧이어 제9연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시켜 7월 23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노동래 일등병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8－120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동 희 (盧 東 熙)　육군 중령 군번 10986

노동희 중령은 1927년 11월 10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

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노동희 중령은 공비토벌작전 지원 기간 중 1950년 1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두 수 (盧 斗 洙) 육군 일등병 군번 1908552

노두수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두수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병 기 (盧 炳 基) 육군 일등병 군번 0325493

노병기 일등병은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1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

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중이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병기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6-23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병 연 (盧 炳 連) 육군 일등병 군번 0401572

노병연 일등병은 1926년 2월 27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은 인민유격대를 남파하여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후방을 교란시켜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구에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예하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및 의무대 등을 지원하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대부분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병연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6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4-3-06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병 천 (盧 炳 天)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62

노병천 일등병은 1928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노병천 일등병은 대유격작전 및 공비토벌작전기간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174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복 주 (盧 福 住) 육군 일등병 군번 0321317

노복주 일등병은 1924년 11월 15일에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9년 5월 12일 강원도 원주에서 제6여단을 증편하여 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사단은 제7연대를 춘천에, 제8연대를 원주에, 제10연대를 강릉에 배치하여 춘천-강릉간 130㎞에 이르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복주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상 갑 (盧 相 甲) 육군 하사 군번 8102520

노상갑 하사는 경상남도 부산시 초량동(草梁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

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은 1950년 1월 5일, 공비토벌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남지구공비토벌사령부를 설치하여 군·관·민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노상갑 하사는 영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성 근 (盧 成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30482

노성근 일등병은 전라북도 임실군(任實郡) 성수면(聖壽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성근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성 용 (盧 成 容) 육군 일등병 군번 1103496

노성용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신녕면(新寧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성용 일등병은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성 환 (盧 成 煥) 육군 이등상사 군번 1302412

노성환 이등상사는 1927년 3월 28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산외면(山外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 잔여병력의 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철수시 원대복귀하였다.

노성환 이등상사는 지리산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손 석 (盧 孫 錫)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4039

노손석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칠곡군(漆谷郡) 약목면(若木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3연대는 1948년 5월 4일 충청남도 대전에서 창설된 이래, 38도선경비강화를 위하여 1949년 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으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연대는 동년 7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주둔지를 이동함과 동시에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손석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순 만 (盧 順 万)　육군 일등병 군번 0325384

노순만 일등병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외서면(外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 제3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전한 후, 호남지역 및 지리산 일대에서 출몰 중인 공비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육군본부는 수차례에 걸친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몰하는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노순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09－6－

12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승 우 (盧 承 雨)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3913

노승우 이등중사는 강원도 춘천시(春川市) 온의동(溫衣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홍천, 원주, 춘천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그후, 1949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홍천지역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노승우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의 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6-135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안 석 (盧 安 石) 육군 하사 군번 2602883

노안석 하사는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고암면(高岩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전개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시, 경상북도 일대에서 경찰지서 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안석 하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2-1-069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영 길 (盧 榮 吉) 육군 하사 군번 15055228

노영길 하사는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울산면(蔚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한 후, 1949년 7월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영길 하사는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1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무성화랑무공훈장(4-175)을 추서하였고,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96-06-006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용 호 (盧 龍 浩)　경찰 경사

노용호 경사는 1919년 9월 25일 전라남도 화순군(和順郡) 화순읍(和順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전투부대가 철수하자, 이 지역의 공비들은 야산대를 조직하여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노용호 경사는 화순군 한천면 일대의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7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원 곡 (盧 元 谷)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0206

노원곡 이등중사는 경기도 부천군(富川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태백산 일대의 안동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는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노원곡 이등중사는 경상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12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윤 환 (盧 允 煥)　육군 일등병 군번 1304743

노윤환 일등병은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구례기습작전에서 실패한 김지회, 홍순석 이하 350여명의 반도들은 지리산 일대로 철수하여 유격근거지를 전전하면서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의 일부를 위협함으로써 일반 양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에, 호남지구전투사령부 예하의 북부지구사령부 제3연대는 1948년 10월 30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유격근거지를 포위공격하는 동시에 선무공작을 전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윤환 일등병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1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을 식 (盧 乙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327156

노을식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서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을식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3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익 수 (盧 益 洙)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606

노익수 이등상사는 1933년 5월 5일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노익수 이등상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전사일자 및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인 구 (盧 寅 九) 육군 이등상사 군번 1801606

노인구 이등상사는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춘천, 홍천, 원주지역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침투(제1차)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였다. 그후, 1948년 8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홍천군 일대에 침투(제4차)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노인구 이등상사는 북한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8월 16일 강원도 홍천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

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0-5-10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인 수 (盧 仁 守) 육군 일등병 군번 0341971

노인수 일등병은 경상남도 울산군(蔚山郡) 온산면(溫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8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서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노인수 일등병은 잔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일 창 (盧 一 昶) 육군 하사 군번 5304050

노일창 하사는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나산면(羅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진압작전에 참전 후, 호남지역 및 지리

산 일대에 출몰하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에 주력하였다.

노일창 하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재 용 (盧 在 龍) 육군 일등병 군번 1201542

노재용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28일 창설 이래,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참전하여 이 지역을 평정하는데 기여하고 지리산, 백운산 일대로 도주한 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29일부터 1949년 7월 6일까지 제주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복귀하여 경기도 옹진반도로 이동, 8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그후, 11월 15일부로 수도경비사령부로 예속되었다.

노재용 일등병은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재 술 (盧 在 述) 경찰 경감

노재술 경감은 1921년 9월 29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생림면(生林面)에서 태어나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노재술 경감은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양산경찰서 선리지서에서 무장공비 80여명의 내습을 받아 교전을 벌이다가 1949년 8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

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재 을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379324

노재을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상북동(上北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9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광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9월 4일부터 1950년 1월 2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1개 대대가 추가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그후, 제19연대는 1950년 1월 3일 남원으로 이동한 이후부터 4월 25일까지 연대 전체가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농촌재건사업 및 민심수습, 원호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잔여공비 대부분을 소탕하고 주민과 공비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노재을 일등병은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23-4-003번으로 봉안하였으며, 또한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종 환 (盧 鍾 煥)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202

노종환 이등중사는 경기도 수원읍(水原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11월에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경비지역을 인수하고 북한군의 진지에 가까운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에 진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 제3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는 1949년 5월 3일 이러한 진지구축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격해 왔으나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모두 탈환하였다.

노종환 이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4-172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종 환 (盧 鍾 歡) 육군 이등중사 군번 8100202

노종환 이등중사는 경기도 수원읍(水原邑) 일왕면(日旺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3사단 제23연대는 연대작전명령 제20호(1949. 9. 15)에 따라 1949년 9월 15일부터 1950년 1월 15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경상남도 양산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종환 이등중사는 양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2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준 용 (盧 俊 龍)　육군 하사 군번 1504737

노준용 하사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준용 하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준 호 (盧 俊 鎬)　육군 이등중사 군번 1803343

노준호 이등중사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영등포면(永登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연대는 1946년 4월 1일 강원도 춘천에서 창설된 후, 1949년 4월까지 춘천, 홍천지역 일대에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중, 북한인민유격대 180명이 1948년 11월 14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지역으로 제1차 침투함에 따라 동년 11월 30일까지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전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였다.

또한 연대는 1949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홍천군지역에 제4차로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300여명에 대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50년 3월 26일부터 강원도 인제군지역에 제10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 350명을 소탕하였다.

노준호 이등중사는 인민유격대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5-7-268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준 호 (盧 俊 鎬) 경찰 경감

노준호 경감은 평안북도 영변군(寧邊郡) 입원면(入院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에서 도주한 일부공비들이 각 지방으로 분산하여 주민납치 및 살해, 식량약탈, 관공서 습격 등을 자행하고 있었다.

노준호 경위는 보성군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5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위에서 경감으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진 용 (盧 鎭 龍) 경찰 경사

노진용 경사는 1929년 6월 18일 전라남도 함평군(咸平郡) 학교면(鶴橋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구례기습작전에 실패한 공비들은 근거지를 이동하면서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지역 일부에 출현하여 관공서 습격, 방화, 약탈, 살해,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일반양민들을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여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 다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노진용 경사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1월 19일 구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

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찬 호 (盧 讚 鎬) 육군 이등중사 군번 2902552

노찬호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도원동(桃原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한 후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1949년 6월 6일 경기도 옹진으로 이동하여 동년 6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전개한 제1차·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 북한군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의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그후, 제18연대는 옹진지구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 후, 1950년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방위작전을 전개하였다.

노찬호 이등중사는 수도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4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창 섭 (盧 昌 燮) 육군 일등중사 군번 1200570

노창섭 일등중사는 전라북도 금산군(錦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수색학교에서 복무하였다.

수색학교는 1948년 11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수색(제1여단사령부내)에서 육군본부 직할부대로 창설되었으며, 동년 12월 6일 독립제1대대를 편성하고 무장공비소탕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서울유격대로 개칭하여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노창섭 일등중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2월 6일 경상남도 함양 일대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안장번호 동(東) 6-29329번으로 안장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태 운 (盧 胎 雲) 경찰 경위

노태운 경위는 1926년 6월 15일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화원면(花園面)에서 태어나 경상남도경찰국 거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지창수 상사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노태운 경위는 여수지역 일대의 평정작전 지원 기간 중 1949년 2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학 문 (盧 學 文) 육군 일등병 군번 1144511

노학문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내남면(內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노학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1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희 식 (盧 熙 植) 육군 이등중사 군번 6800858

노희식 이등중사는 경상북도 상주군(尙州郡) 외서면(外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6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창설된 제6연대의 좌익분자들이 3차에 걸친 반란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제6연대를 개편하여 1949년 4월 15일 창설되었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는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지역내의 공비들을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노희식 이등중사는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2월 2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노 희 열 (盧 熙 烈) 육군 대위 군번 12205

노희열 대위는 서울시 종로구(鍾路區) 안국동(安國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38도선경비대 제1여단 예하 1개 대대는, 국군 제7연대의 전투력 탐색과 소양강을 연한 38도선상의 유리한 감제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8월 6일 미명에 682고지 일대에 포격을 가한 후 소양강을 도하하여 공격해 왔다. 이들은 600고지와 682고지를 점령하고 신남 일대에 대하여 위협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국군 제7연대는 8월 7일 이들에게 반격을 개시하여 피탈된 682고지를 탈환하여, 원래의 방어선을 회복하였다.

노희열 대위는 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49년 10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리어 1950년 12월 30일 무성화랑훈장(4-19)을 추서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47-1-237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도 달 균 (都 達 均) 육군 일등병 0326728

도달균 일등병은 부산시 동래구(東萊區) 구포동(龜浦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1950년 3월 1일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군본부 직할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사령부는 수도경비만을 전담하였다.

도달균 일등병은 수도서울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

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0-3-06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도 상 효 (都 商 孝) 육군 일등병 군번 8101569

도상효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농소면(農所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도상효 일등병은 경상남·북도지역 일대에서 전개한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도 일 조 (都 日 祚) 육군 일등병 1201252

도일조 일등병은 경상북도 월성군(月城郡) 견곡면(見谷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도일조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12-2-237번으로 봉안

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도 재 열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10341292

도재열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도재열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경 천 (羅 景 千) 육군 일등병 군번 2603260

라경천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6연대는 1950년 4월 5일부로 제2사단에서 예속해제되어 제8사단에 편입된 후, 1950년 4월 5일부터 5월 5일까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라경천 일등병은 제16연대가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청주지역으로 이동하여 잔여공비의 침투에 대비한 향토방위작전 기간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긍 수 (羅 肯 洙)　경찰 순경

라긍수 순경은 1926년 10월 2일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상면(北上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의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근거지를 상실한 무장공비들은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군·경토벌부대에게 산발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라긍수 순경은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대산리 일대에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5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명 삼 (羅 明 三)　육군 이등중사 군번 5304525

라명삼 이등중사는 1923년 6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海南郡) 현산면(縣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제4연대로 창설되어 1948년 11월 20일 개칭되었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개된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라명삼 이등중사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3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전공을 기리어 무성화랑무공훈장(4-272)을 추서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명 식 (羅 明 植)　육군 일등병 군번 0221633

라명식 일등병은 서울시 서대문구(西大門區)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 대전, 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무장공비소탕작전에 참가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 및 지방에 잔존하고 있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라명식 일등병은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 안동지구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2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봉 의 (羅 鳳 儀)　경찰 경사

라봉의 경사는 전라남도 장성군(長城郡) 북상면(北上面) 동현리(東峴里)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호남지구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의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으로 근거지를 상실한 무장공비들은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납치 등의 갖은 만행을 자행하면서 군·경토벌부대에 산발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었다.

라봉의 경사는 전라남도 승주군 황전면 대산치(大山峙) 일대에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5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삼 용 (羅 三 龍)　육군 일등병 군번 2700439

라삼용 일등병은 경상남도 의령군(宜寧郡) 의령읍(宜寧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5연대는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연대 전 병력이 여수로 출동하여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백운산 일대에서 공비의 은거지를 기습하는 등 공비소탕에 주력하였으며, 전투사령부가 해체된 후에도 호남지역공비토벌임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라삼용 일등병은 지리산지구공비소탕작전 기간 중 1949년 4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상 수 (羅 尙 洙)　경찰 경위

라상수 경위는 1925년 2월 4일 전라남도 영암군(靈岩郡) 시종면(始終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지방공비의 활동은 2·7구국투쟁 사건 이전까지는 무지몽매한 군중들을 감언이설로 선동하여 비무장폭동을 일으키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으나, 2·7사건이후 소위 무장 유격대가 조직되어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각 지방에서 무력에 의한 관공서 습격, 살인, 약탈 등 소규모적인 유격활동을 전개하였다.

라상수 경위는 영암군 군서면(郡西面)에 침입한 무장공비와 교전 중 1948년 5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상 주 (羅 尙 珠) 육군 일등병 군번 31066314

라상주 일등병은 부산 서구(西區) 신평동(新平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라상주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석 환 (羅 錫 煥) 육군 하사 군번 1100865

라석환 하사는 1928년 2월 6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수암면(秀岩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개성지구와 옹진지구에서의 무력도발에 실패한 북한군은 포천지구에서 새로운 무력충돌을 감행하였다. 북한군은 1949년 6월 12일 약 200명의 병력으로 사직리를 공격하였으나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국군 제1연대가 사전에 2개 중대를 매복시켰다가 북한군을 격퇴하였다.

라석환 하사는 38도선경비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

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승 용 (羅 昇 龍) 육군 중위 군번 14019

라승용 중위의 본적은 기록에 없으며,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1949년 6월 10일 제8사단에 예속되어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구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해 오다가, 1949년 8월 20일 제6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의 후속부대 40여명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라승용 중위는 태백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영 복 (羅 永 福) 경찰 경사

라영복 경사는 1923년 1월 1일 경상남도 부산시 대신동(大新洞)에서 태어나 경상남도경찰국 밀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경상남도 일대에서 준동 중인 지방공비들이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7일 밀양경찰서를 습격하였다.

라영복 경사는 밀양경찰서를 습격해 온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8년 2월 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사로 추서하였으며,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옥 돌 (羅 玉 乭)　육군 일등병 군번 0335718

라옥돌 일등병은 경상북도 선산군(善山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 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라옥돌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1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완 흥 (羅 完 興)　육군 일등병 군번 0337819

라완흥 일등병은 전라북도 전주(全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했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라완흥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용 덕 (羅 鏞 德)　육군 일등병 군번 0360838

라용덕 일등병은 경상북도 금릉군(金陵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 천안호로 여수 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한 후, 1949년 7월 10일 제2사단에 예속되어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가, 1950년 3월에 태백산맥을 따라 제9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의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라용덕 일등병은 태백산지구 인민유격대소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중 1950년 3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재 근 (羅 在 根)　경찰 경위

라재근 경위는 1924년 3월 26일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 하일면(下一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충무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연대 인사계 선임하사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중위 등과 함께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합세하여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반란을 일으켰다.

라재근 경위는 여수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

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재 덕 (羅 在 德) 육군 하사 군번 2101878

라재덕 하사는 1928년 11월 23일 전라북도 정읍군(井邑郡) 소성명(所聲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공병대대에서 복무하였다.

공병부대는 194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통위부 후방사령부 직할로 창설되었던 제1공병대대를 비롯한 제1자동차중대, 공병 경장비중대, 제1정비중대, 제1공병 기지중대 및 공병중장비 중대 등이 긴요한 장비마저 갖추지 못한 채 교육훈련에 임해 오다가 8월 20일 경기도 부평에서 창설된 제1공병단에 편입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라재덕 하사는 노량진 일대에서 공병지원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 국립현충원(國立顯忠院)에 위패번호 31-2-051번으로 봉안하였으며,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진 옥 (羅 珍 玉) 경찰 경사

라진옥 경사는 1927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산군(光山郡) 서창면(西倉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라진옥 경사는 여수·순천반란사건의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창 호 (羅 昌 浩) 경찰 경위

라창호 경위는 1924년 9월 8일 경상남도 거제군(巨濟郡) 거제읍(巨濟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복무하였다.

라창호 경위는 양산경찰서를 습격해 온 완전무장한 약 80명의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8일 양산경찰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순경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태 조 (螺 台 祚) 육군 일등병 군번 0362663

라태조 일등병은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화원면(花園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라태조 일등병은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판 균 (羅 判 均)　경찰 경위

라판균 경위는 1924년 8월 15일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영산면(榮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라판균 경위는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경사에서 경위로 추서하였으며,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기리고 후세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라 형 수 (羅 馨 洙)　육군 하사 군번 5201814

라형수 하사는 전라북도 김제군(金堤郡) 금산면(金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제12연대는 전라남도 순천으로 이동하여 10월 21일 광주에 설치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진압작전에 참전하여 5일만에 순천, 벌교, 보성 및 광양을 탈환하였다.

또한, 지리산 일대로 도주한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1948년 10월 30일부터 1948년 11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자 제12연대는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지리산 일대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라형수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8년 11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그의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건 우 (柳 建 宇) 경찰 경위

류건우 경위는 1918년 2월 13일 강원도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8·15 광복 이후, 공산당은 1946년 초까지는 사회적 혼란과 미군정청의 민주주의시책에 편승하여 합법적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46년 9월부터 좌익계열의 살인, 방화 등 폭동이 잇따르자, 이를 계기로 경찰에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지하로 잠입하여 남한의 사회질서를 계속 혼란시키기 위해 경찰관서 습격 및 요인암살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류건우 경위는 서울시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던 중, 공산주의사상에 오염된 남로당원이 발사한 권총에 맞아 1950년 6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追慕)하고 있다.

## 류 경 열 (柳 京 烈) 육군 일등병 군번 1104587

류경열 일등병은 경기도 이천군(利川郡) 모가면(暮加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 제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경열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관 (柳　琯)　육군　하사　군번 5101262

류관 하사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이인면(利仁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6사단 제19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6사단은 1948년 6월 14일 충청북도 충주에서 창설된 제4여단이 동년 11월 20일에 제6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충주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고 춘천과 홍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9연대는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이 종료된 직후인 1950년 4월 26일 강원도 원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오대산 지구에 침투한 북한인민유격대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류관 하사는 제8차로 침투한 인민유격대의 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11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광 엽 (柳 光 燁)　육군　일등병　군번 5203451

류광엽 일등병은 1930년 4월 5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광엽 일등병은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광 진 (柳 光 鎭)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0767

류광진 이등중사는 1931년 11월 26일 충청남도 홍성군(洪城郡) 구항면(龜項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5연대는 1949년 6월 20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동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시 주력부대로 참전하였으며, 태백산맥을 따라 준동하던 인민유격대와 잔여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류광진 이등중사는 태백산, 일월산, 문수산 일대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귀 남 (柳 貴 南) 경찰 순경

류귀남 순경은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화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육군본부는 지리산지역 일대에서 준동하고 있던 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5개 대대 규모의 육군부대를 배속시켜 경찰부대와 합동으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김지회, 홍순석 등을 포함하여 많은 공비를 소탕하였다.

류귀남 순경은 춘양지서를 습격한 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3월 1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규 열 (柳 奎 烈) 육군 일등중사 군번 2300541

류규열 일등중사는 경기도 강화군(江華郡) 불은면(佛恩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8년 11월에 수원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여 미 제7사단 제32연대로부터 청단에서 고랑포에 이르는 38도선경비지역을 인수하여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군 제1사단 제30연대의 증강된 1개 대대(약 1,000명)는 1949년 5월 3일 아군의 진지구축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격을 감행하여 292고지와 유엔고지 그리고 비둘기고지를 모두 점령하였다. 이에, 제11연대는 5월 4일 피탈된 3개 고지에 대한 반격을 개시하여 5월 8일에 이를 탈환하였다.

류규열 일등중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근 만 (柳 根 萬) 육군 이등중사 군번 2300249

류근만 이등중사는 1929년 8월 20일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소래읍(蘇萊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문산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1연대는 1949년 1월 12일 38도선경비임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수원에서 문산지역으로 이동하여 개성지구 일대 48km의 광정면을 경비하던 중, 북한군의 불법침공을 맞아 송악산전투, 배천전투 등에서 많은 전공을 세웠으며, 또한 1949년 7월 25일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개성 부근 488고지를 침공해 오자, 5일간에 걸쳐 전투를 계속한 결과 북한군을 격퇴시켰다.

류근만 이등중사는 488고지 일대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1949년 7월 2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근 술 (柳 根 述) 육군 일등병 군번 0124834

류근술 일등병은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성주읍(星州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의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류근술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기 영 (柳 基 永)　육군 이등중사 군번 0233232

류기영 이등중사는 경기도 인천시(仁川市) 송림동(松林洞)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여수 신항에 상륙, 반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또한,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1949년 7월 10일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부대이동을 실시하여 충남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기영 이등중사는 충남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기 욱 (柳 基 旭)　육군 하사 군번 8201246

류기욱 하사는 육군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제7사단으로 개칭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 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기욱 하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기 창 (柳 基 昌) 경찰 경위

류기창 경위는 1917년 6월 3일 황해도 연백군(延白郡) 화성면(花城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특경대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원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류기창 경위는 여수·순천반란군 잔당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기 호 (柳 基 浩) 육군 이등상사 군번 8500009

류기호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서 복무하였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0일 서울에서 제2연대와 제17연대 및 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고, 사단사령부를 서울 용산에 설치하고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49년 10월 옹진지구전투사령부를 육본직할로 예속변경한 후, 수도경비만을 전담하고 있었다.

수도경비사령부는 1949년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차에 걸친 38도선상의 옹진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불법으로 침입한 북한군을 격퇴하고 아군진지를 탈환하였다.

류기호 이등상사는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6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길 현 (柳 吉 鉉) 육군 이등중사 군번 8801374

류길현 이등중사는 1924년 10월 16일 전라북도 부안군(扶安郡) 상서면(上西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연대는 1946년 2월 8일 대전에서 창설되어, 제주도공비토벌작전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1949년 8월 13일 옹진반도로 이동하여 동년 11월 14일까지 38도선경비작전을 수행하던 중, 10월 14일 05:00에 북한군이 은파산을 공격해 오자 피아간 치열한 공방전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적을 격퇴하고 진지를 고수하였다. 제2연대는 11월 15일 작전임무를 마치고 인천으로 철수하여 수도경비사령부에 예속되어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길현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대 권 (柳 大 權) 경찰 경위

류대권 경위는 1929년 10월 28일 경상남도 김해군(金海郡) 가락면(駕洛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남도경찰국 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공산분자들은 남한사회를 혼란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하에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경찰관과 우익인사들을 학살하는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이에 경찰은 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대권 경위는 양산경찰서를 습격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덕 영 (柳 德 永)　육군 하사 군번 1606286

류덕영 하사는 1924년 9월 11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송천동(松川洞)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 제6연대로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의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 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로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류덕영 하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7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동 열 (柳 東 烈)　육군 일등병 군번 0401684

류동열 일등병은 1928년 11월 28일 부산시(釜山市) 초량동(草梁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북한의 인민유격대는 부단히 남파되어 지방의 불순좌익세력과 합세하여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등을 유격근거지로 각 지역에서 경찰관서 습격, 양민학살, 약탈, 방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며 38도선 후방을 교란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0월부터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그들을 소탕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의 포병, 공병, 통신, 의무 및 유격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류동열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동 철 (柳 東 哲)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0986)

류동철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오산면(五山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9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월 2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전개된 여수·순천반란진압작전과 반란군 잔여병력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를 올렸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철수하자, 분산도주하여 은거하던 잔여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에 따라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이들에 대한 소탕작전에 참가하였다.

류동철 이등중사는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1월 1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동 환 (柳 東 煥) 육군 일등병 군번 1300415

류동환 일등병은 전라북도 이리읍(裡里邑) 동산동(銅山洞)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10

월 2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 잔여병력의 소탕작전을 전개하였고,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는 호남·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가하여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우고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철수시 원대복귀하였다.

류동환 일등병은 전라북도지역향토방위임무 수행 중 1949년 2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동 희 (柳 東 熙) 육군 하사 군번 1504674

류동희 하사는 경상남도 양산군(梁山郡) 양산읍(梁山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 제5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5연대는 1946년 1월 29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5월 15일 이후, 70여일간 1개 대대가 제11연대에 배속되어 제주도 한라산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동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 반란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10월 23일 1개 대대가 LST천안호로 여수 신항에 상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반란군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그후, 1949년 3월 1일부터 동년 5월 9일까지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1개 대대가 참전한 후, 1949년 7월 10일 제2사단에 예속되어 충청남도 온양지역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동희 하사는 충청남도지역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0월 3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두 석 (柳 斗 錫) 육군 일등병 군번 0302774

류두석 일등병은 제주도 북제주군(北濟州郡) 구좌읍(舊左邑)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북한인민유격대 침투와 더불어 지방공비의 세력이 점차적으로 증가되어 살인, 방화, 약탈, 납치 등을 자행하자, 육군본부는 1949년 9월 28일 남원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제5사단에 5개 대대를 배속시켜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두석 일등병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명 수 (柳 明 洙) 육군 이등중사 군번 2200222

류명수 이등중사는 강원도 정선군(旌善郡) 정선읍(旌善邑)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2월 하순 북한군 제38경비대의 1개 중대병력이 서림 방면으로, 또다른 1개 중대는 기사문리에서 동해안으로 침투하여 잔교리 일대를 공격하자, 이에 제10연대가 출동하여 이들을 격퇴시켰다.

류명수 이등중사는 강릉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4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

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명 열 (한자미상) 육군 일등병 군번 0172492

류명열 일등병은 경상북도 경주군(慶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 제2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제3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고, 예하 연대는 경상남·북도 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2연대는 1949년 8월 30일부터 안동과 청도군 비슬산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으며, 1949년 11월 2일부터 1950년 3월까지는 경상북도 일대의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대부분의 공비를 사살 및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다.

류명열 일등병은 경상북도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명 우 (柳 明 佑) 경찰 경위

류명우 경위는 1924년 11월 11일 경상북도 의성군(義城郡) 신평면(新平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안동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2일부터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의 반란군이 태백산으로 도주하여 인민유격대 및 지방의 좌익분자들과 합류한 후,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안동, 영덕지역에서 관공

서 습격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자, 안동경찰서는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명우 경위는 안동군 풍산지역을 습격한 무장공비를 소탕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전개하던 중 1949년 4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문 암 (柳 文 岩) 육군 이등중사 군번 2602826

류문암 이등중사는 경상남도 통영군(統營郡) 통영읍(統營邑)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경상북도 일대에서 경찰지서 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대부분 소탕하였다.

류문암 이등중사는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봉 구 (柳 奉 九) 경찰 순경

류봉구 순경은 1929년 3월 2일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가련면(加蓮

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장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9년 5월 9일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이 지역의 공비들은 야산대를 조직하여 9월공세설을 유포하고 농번기를 이용, 하동 화개장 일대의 경찰지서 및 부락 등을 습격하면서 세력강화에 몰두하고 있었다.

류봉구 순경은 장성 일대에 출현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7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상 림 (柳 尙 林) 경찰 경사

류상림 경사는 1923년 2월 27일 전라남도 여수군(麗水郡) 돌산면(突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여수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원 지창수 상사와 김지회 중위, 홍순석 중위 등은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들이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류상림 경사는 반란군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0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상 욱 (柳 相 旭) 경찰 경위

류상욱 경위는 1926년 9월 6일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영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모든 경찰서는 재정비를 가진 후, 공비토벌작전을 계속하여 많은 전과를 획득하였다.

류상욱 경위는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1949년 9월 8일 영광 불갑산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석 헌 (한자미상) 육군 이등중사 군번 8201014

류석헌 이등중사는 충청남도 당진군(唐津郡) 신평면(新平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창설된 제2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대전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청주·대전·온양지역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다.

제2사단은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5월 4일까지 태백산지구 및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류석헌 이등중사는 안동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선 수 (柳 宣 洙) 경찰 경사

류선수 경사는 1927년 11월 7일 전라남도 곡성군(谷城郡) 오산면(梧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원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류선수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948년 10월 20일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섭 남 (柳 燮 南) 경찰 경위

류섭남 경위는 1926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 풍기읍(豊基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봉화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1월 2일부터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의 반란군이 태백산으로 도주하여 인민유격대 및 지방의 좌익분자들과 합류하여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안동, 영덕, 봉화지역에서 관공서 습격 등 각종 만행을 자행하자, 봉화경찰서는 군부대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섭남 경위는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6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성 완 (柳 成 ○) 육군 일등중사 군번 0551423

류성완 일등중사는 1924년 1월 4일 서울시 성북구(城北區)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 일대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에 주둔하면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상북도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오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충청북도 단양에 설치된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단양, 제천, 영월, 정선지역에서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성완 일등중사는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기간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수 복 (柳 壽 福)　경찰 순경

류수복 순경은 1928년 2월 16일 전라남도 담양군(潭陽郡) 월산면(月山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공산분자들은 사회의 혼란을 조성하여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도하에 각 지방에 출현하여 살인, 방화, 약탈 및 관공서 습격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류수복 순경은 담양군 월산면 일대에 침입한 무장공비들과 교전 중 1949년 2월 28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승 철 (柳 乘 喆) 경찰 경위

류승철 경위는 1924년 2월 29일에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서울시경찰국 중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광복 이후 공산당은 1946년 초까지는 사회적 혼란과 미군정청의 민주주의 일변도시책에 편승하여 합법적 정치투쟁을 전개하였으나 1946년 9월부터 좌익계열의 살인, 방화 및 폭동이 잇따르자, 이것을 계기로 제재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지하로 잠입하여 남한의 사회질서를 계속 혼란시키기 위하여 경찰관서 습격 및 요인암살 등 만행을 자행하였다.

류승철 경위는 서울시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활동하던 중, 남로당원이 쏜 권총에 맞아 1948년 5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시 규 (柳 時 奎) 육군 일등중사 군번 9474087

류시규 일등중사는 강원도 춘천군(春川郡) 죽림면(竹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 학살 등 갖은 만행과 폭동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류시규 일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인 학 (柳 仁 學)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6596

류인학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 초포면(草浦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7사단은 1948년 1월 7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7여단이 1949년 2월 1일 수도여단으로 개칭된 후 1949년 6월 20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를 서울에서 의정부로 이동하고, 포천과 동두천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인학 이등중사는 의정부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2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연 기 (柳 然 基)　육군 일등병 군번 2205069

류연기 일등병은 강원도 춘성군(春城郡) 남면(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연기 일등병은 강릉지구38도선경비작전 기간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연 식 (柳 淵 植)　경찰 경위

류연식 경위는 1921년 8월 9일 경상북도 안동군(安東郡) 안동면(安東面)에서 태어나 경상북도경찰국 영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영양경찰서는 1948년 11월 2일부터 1949년 1월 30일까지 대구에 주둔하고 있던 제6연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이 태백산맥 일대로 도주하여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와 지방의 좌익분자들과 합세하여 태백산, 문수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 일대를 근거지로 관공서 습격 등 각종 만행을 끊임없이 자행하자,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연식 경위는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8일 영양군 청기면에서 공비 2개 소대와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영 곤 (한자미상)　경찰 경사

류영곤 경사는 1922년 1월 5일 경상북도 달성군(達城郡) 동촌면(東村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에서 복무하였다.

대구에서 박헌영 일당에 의해 조종되었던 1946년 9월 철도노조총파업에 이어서 공산당 세력을 확장시킬 의도하에 폭동을 일으켜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성주, 칠곡, 고령, 영천, 경산, 의성, 군위 등지에서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좌익세력은 각종 만행을 자행하며 각 지역 경찰서 등을 습격하였다.

류영곤 경사는 대구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폭도들과 교전 중 1946년 10월 3일 대구역전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영 범 (柳 永 範)　육군 일등병 군번 0343054

류영범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녕군(昌寧郡) 영산면(靈山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5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5사단은 1948년 6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창설된 제5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광주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전라남·북도 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5사단은 지방공비의 발호가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군·경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영범 일등병은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3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영 종 (柳 永 鍾)　육군 일등병 군번 8500411

류영종 일등병은 1922년 9월 10일 강원도 강릉군(江陵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호림부대에서 복무하였다.

호림부대는 1949년 2월 25일 서울 영등포에서 특수부대로 창설된 이래, 북한에서 침투한 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에 참가하였다.

류영종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49년 9월 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완 (柳 玩) 육군 일등병 군번 0331022

류완 일등병은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 용안면(龍安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류완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1950년 5월 2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완 근 (柳 完 根) 육군 하사 군번 2604380

류완근 하사는 충청북도 충주면(忠州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8사단 제16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8사단은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제10연대와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창설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강릉에 위치하고, 예하 연대는 강릉지역 정면의 38도선경비임무와 태백산지역의 공비토벌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6연대는 1949년 9월 28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경상북도 일대에서 경찰지서 습격, 교량파괴, 식량약탈, 양민학살과 납치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던 공비들을 소탕하였다.

류완근 하사는 태백산지역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용 남 (柳 龍 男) 육군 일등중사 군번 5700997

류용남 일등중사는 1925년 1월 25일 경기도 광주군(光州郡) 능평면(陵平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류용남 일등중사는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여 임무수행 중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는 기록이 안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웅 열 (柳 雄 烈) 육군 이등중사 군번 2502595

류웅열 이등중사는 1929년 5월 1일 경기도 평택군(平澤郡) 현덕면(玄德面)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사단 제1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사단은 1947년 12월 1일 서울에서 창설된 제1여단이 증강되어 1949년 5월 12일에 사단으로 승격되었으며, 사단사령부는 수색에 위치하고,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제1사단 제13연대는 1949년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 대대가 옹진전투에 참전하였으며, 연대는 동년 6월 1일 수색에서 문산으로 주둔지를 이동하여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웅열 이등중사는 개성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원 갑 (柳 元 甲)　육군 일등병 군번 0333199

류원갑 일등병은 경상북도 영주군(榮州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건국 초기 지방좌익세력들이 남파된 인민유격대와 합세하여 각 지역에서 약탈, 방화, 양민학살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르자, 육군본부는 수차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여 공비들을 발본색원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육군본부직할의 포병, 공병, 병참, 통신, 수색 및 의무대 등도 공비토벌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류원갑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5월 1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윤 호 (柳 潤 鎬)　경찰 순경

류윤호 순경은 1928년 1월 6일 경상북도 청도군(淸道郡) 금천면(錦川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경상북도경찰국 남부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류윤호 순경은 대구시 대명동 일대를 순찰 도중, 불시 검문을 수행하다가 좌익분자가 발사한 총탄에 맞아 1950년 3월 9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은 수 (柳 殷 洙)　경찰 경사

류은수 경사는 1924년 1월 22일 전라남도 광양군(光陽郡) 광양읍(光陽邑)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하여 전라남도경찰국 벌교경찰서에서 근무하

였다.

여수 주둔 제14연대 내의 남로당 조직책인 지창수 상사는 1948년 10월 19일 야간에 그가 미리 포섭하여 놓았던 행동대원 4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류은수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10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를 길이 추모하고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인 수 (柳 仁 秀) 육군 이등중사 군번 1306595

류인수 이등중사는 전라북도 완주군(完州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1948년 2월 15일 전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1948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제2대대가 반란군 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지리산 및 백운산 등지로 입산(入山) 도주한 잔여반란군들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을 위해 연대는 1948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연대는 여수·순천반란군 주력을 격멸하고자 주둔지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동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으로써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연대

주둔지를 남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인수 이등중사는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인 천 (柳 寅 千) 육군 이등상사 군번 5202485

류인천 이등상사는 1929년 2월 13일 전라북도 익산군(益山郡)에서 태어나 조선경비대에 입대하여 제12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2연대는 1948년 5월 1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제3연대 제2대대를 기간으로 창설된 후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반란사건진압을 위해 10월 20일 전라남도 순천으로 출동, 반란군토벌사령부에 배속되어 진압작전에 참가하여 10월 25일에는 순천, 벌교, 보성, 광양을 탈환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여수지역을 탈환하고 치안을 회복하는 혁혁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이후부터는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입산(入山) 도주한 반란군에 대한 토벌작전을 위해, 제12연대는 호남방면 전투사령부 예하 남지구전투사령부에 다시 배속되어 194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49년 1월 29일 주둔지를 군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후 제12연대는 제2대대를 옹진지구로 이동시켜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옹진지구에서 제2대대와 경찰기동대 3개 중대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북한군이 1949년 5월 21일 옹진지구 국사봉 일대를 공격 점령하였다.

이에 제12연대는 육군본부에서 설치한 옹진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 참가하여 탈취당했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그후 제12연대는 1949년 7월 5일 주둔지를 인천에서 문산으로 이동하였으며, 그중 1개 중대는 수색으로 이동하고, 북한군의 침입에 대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인천 이등상사는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3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일 규 (柳 一 圭) 육군 일등병 군번 8824683

류일규 일등병은 1929년 2월 5일 전라남도 정읍군(井邑郡)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의 기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및 야포가 한국군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병기조작과 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훈련학교를 창설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인민유격대를 계속 남파시키고 38도선 일대의 경기도 옹진, 개성, 의정부, 강원도 홍천, 춘천, 강릉지구에서 불법총격과 침공을 빈번히 자행하였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는 좌익분자 및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역별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軍警)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류일규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일 혁 (柳 溢 赫)　육군 일등병 군번 5301797

류일혁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20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0연대는 1946년 2월 15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방경비대 제4연대로 창설되어 부대의 증창설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책임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0일 제20연대로 개칭되었다.

연대는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호남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 무장공비 10여명을 사살하고 20여명을 생포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다.

류일혁 일등병은 호남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3월 1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장 근 (柳 長 根)　육군 일등병 군번 0334244

류장근 일등병은 경상남도 창원군(昌原郡) 진해면(鎭海面) 경화리(慶和里)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사단은 1947년 12월 1일 경상남도 부산에서 창설된 국방경비대 제3여단이 1949년 2월 24일 경상북도 대구로 이동한 후 동년 5월 12일 사단으로 승격되었다.

사단은 1949년 6월 25일부터 1950년 3월 25일까지 경상북도 안동 포항지역 및 향로봉 일대와 경상남도 창원 양산지역 등 경상남북도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이 지역내에서 준동하던 공비들을 거의 소탕하는 전공(戰功)을 세웠으며,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류장근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2월 10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

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장 우 (柳 壯 雨) 육군 일등병 군번 2902828

류장우 일등병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18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18연대는 1948년 11월 20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창설된 이래 충청남도 온양을 거쳐 1949년 6월 6일 옹진지역으로 이동한 후,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면서 동년 6월 북한군의 불법침입으로 야기된 제1차 옹진지구전투에서 치열한 격전(激戰)을 벌인 끝에 적(敵)을 격퇴하고 국사봉 및 은파산 일대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전승(戰勝)을 거두었다.

이어서 6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한 제2차 옹진지구전투에서도 탈취당했던 아군진지를 탈환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18연대는 계속적인 북한군의 불법침입을 격퇴하면서 1950년 1월 20일까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장우 일등병은 옹진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9월 6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장 호 (柳 章 鎬) 육군 일등병 군번 0125495

류장호 일등병은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가천면(伽泉面)에서 태어나 육군본부 직할 제1훈련학교에서 복무하였다.

국방경비대가 창설되면서 군의 기초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중화기 및 야포가 한국군에게 이양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병기조작법과 전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1948년 6월 27일 훈련학교

를 창설하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강원도지역으로 인민유격대를 계속 남파시키고 38도선 일대의 경기도 옹진, 개성, 의정부, 강원도 홍천, 춘천, 강릉지구에서 불법총격과 침공을 빈번히 자행하였다.

한편 전국 각 지역에서는 좌익분자 및 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하였다.

이에 육군본부는 각 지역별로 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군경(軍警)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류장호 일등병은 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50년 1월 1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재 덕 (柳 在 德) 경찰 순경

류재덕 순경은 1924년 1월 16일 전라남도 순천군(順天郡)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광양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류재덕 순경은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경찰서를 습격해 온 반란군과의 교전 중 10월 20일 광양군 다압면(多鴨面)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재 동 (柳 在 東) 육군 일등병 군번 0400815

류재동 일등병은 1922년 1월 4일 경상북도 성주군(星州郡) 벽진면(碧珍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여수·순천반란군 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류재동 일등병은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재 수 (柳 在 洙) 육군 일등병 군번 0339228

류재수 일등병은 강원도 횡성군(橫城郡) 횡성면(橫城面)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2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2사단은 1947년 12월 1일 대전에서 제2여단으로 창설되어 부대정비와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충남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재수 일등병은 충남지역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7년 12월 21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재 윤 (柳 載 潤) 육군 일등병 군번 0400862

류재윤 일등병은 1923년 3월 5일 충청남도 보령군(保寧郡) 천북면(川北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 복무하였다.

1948년 11월 이후 북한인민유격대 2,300여명이 10차에 걸쳐 강원도 오대산지역으로 남파되어 준동하였으며, 1949년 초부터 38도선을 따라 북한군의 불법침공과 총격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여수·순천반란군 잔당이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영·호남지역에서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육군본부에서는 군·경합동공비토벌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육군본부 직할부대에서도 가용한 병력을 최대한으로 차출하여 토벌작전에 참가시켰다.

류재윤 일등병은 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나 전사일자와 장소는 미확인되었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재 진 (柳 載 珍)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0510

류재진 이등상사는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3여단에서 복무하였다.

제3여단은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이래, 1948년 4월 3일 제주4·3폭동사건이 발생하자 폭동진압작전 및 잔여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에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진압을 위해 출동하여 반란군 진압작전을 수행하여 10월 25일 순천, 광양, 보성지역을 완전 탈환하였고, 잔여반란군과 좌익분자 등 1,000여명이 지리산, 백운산 등지로 도주하자, 1948년 10월 31일부터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류재진 이등상사는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1월 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정 만 (柳 正 萬) 육군 일등병 군번 9249606

류정만 일등병은 경기도 포천군(抱川郡) 포천면(抱川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21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21연대는 삼척 주둔지에서 독자적으로 태백산지구 및 경북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가, 인민유격대와 지방공비들의 만행이 극심해지자 1949년 9월 28일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1950년 3월 15일까지 태백산지구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제21연대는 1950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까지는 북상하려는 김달삼부대 토벌작전을 펼쳐서 김달삼을 사살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으며, 또한 1950년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북상하던 이호제부대가 삼척군으로 진출하자 5일간에 걸친 끈질긴 토벌작전으로 이들의 대부분을 소탕하였다.

류정만 일등병은 태백산맥 동부지역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던 중 1950년 6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제 이 (柳 濟 伊) 육군 하사 군번 1305938

류제이 하사는 전라북도 고창군(高敞郡) 고수면(古水面)에서 태어나 육군에 입대하여 제3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3연대는 1946년 2월 26일 전라북도 이리에서 창설되어 1948년 2월 15일 전주로 이동하여 향토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반란사건이 일어나자 1948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제2대대가 반란군 진압작전에 참가하였으며, 그후 지리산 및 백운산 등지로 입산 도주하여 공비화된 잔여반란군들에 대한 본격적인 토벌을 위해 연대는 1948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을 실시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연대는 여수·순천반란사건 주력을 격멸하고자, 주둔지를 전주에서 남원으로 이동한 후, 1949년 3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위천지역전투, 덕유산포위작전, 괘관산전투에 참전, 공비두목을 사살하는 등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다.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해체되자, 분산 도주하여 은거하던 공비들이 유격활동을 재개함으로써 1949년 9월 28일부로 다시 설치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한 후, 1950년 1월 27일 연대는 주둔지를 남원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동하여 수도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류제이 하사는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9년 12월 5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종 열 (柳 鍾 烈)　경찰 순경

류종열 순경은 1925년 12월 18일 전라남도 영광군(靈光郡) 불갑면(佛甲面)에서 태어나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광산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반란군들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산하 모든 경찰서는 재정비를 가진 후, 계속되는 공비토벌작전시 선봉적 역할을 하였다.

류종열 순경은 호남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공비와 교전 중, 1950년 3월 2일 영광 불갑산(佛甲山)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중 갑 (柳 重 甲)　경찰 경사

류중갑 경사는 1930년 3월 13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포두면(浦頭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순천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있던 육군 제14연대 내의 좌익분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시내를 장악한 다음 1948년 10월 20일 15:00경 순천경찰서로 공격해 오자, 순천경찰서 경찰관들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병력 및 장비의 열세로 인해 반군들에게 무참히 피살당하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류중갑 경사는 이 과정에서 반란군과 교전 중 1948년 10월 22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중 영 (柳 重 映)　경찰 순경

류중영 순경은 1918년 5월 23일 전라남도 고흥군(高興郡) 고흥면(高興面)에서 태어나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고흥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고흥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이후 본격적인 공비토벌작전에 참가하여 많은 전공을 세웠다.

류중영 순경은 1948년 11월 20일 고흥경찰서를 습격해 온 공비들과 교전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중 탁 (柳 重 卓) 경찰 경사

류중탁 경사는 건국 초기 경찰에 투신, 전라남도경찰국 보성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보성경찰서는 1948년 10월 19일 발생한 여수·순천반란사건 당시 50여 명의 병력과 절대부족한 무기를 가지고 보성지구에 침입한 반란군을 진압하는데 성공하여 공비들의 세력확장 저지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류중탁 경사는 반란진압작전에 참가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48년 10월 21일 여수에서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류 지 열 (柳 趾 烈) 육군 이등상사 군번 1700399

류지열 이등상사는 충청북도 옥천군(沃川郡)에서 태어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여 제7연대에서 복무하였다.

제7연대는 1946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창설되어 1949년 2월 원주를 거쳐 5월에 춘천으로 이동하여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를 수행하였다.

1949년 8월 6일 북한군 1개 대대가 홍천군 신남면 부평리지역에 침입하자 제7연대 제1대대와 경찰 1개 중대를 투입, 반격작전을 전개한 후 제8연대 병력을 증원받아 8월 26일 적을 격퇴시켰다.

류지열 이등상사는 춘천지구38도선경비임무 수행 중 1949년 10월 14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살신보국정신(殺身保國精神)을 선양하고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하여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戰死者銘碑)에 이름을 새겨 추모하고 있다.

# 主要 引用文獻資料


『國防史』第1卷,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4.

『陸軍發展史』陸軍本部, 1970.

『海軍史』海軍本部, 1961.

『空軍史』空軍本部, 1964.

『海兵戰鬪史』海兵隊司令部, 1962.

『戰死者 名簿』戰爭紀念事業會, 1992.

『武功受勳資料』國防部 人事局.

『警察 武功受勳資料』警察廳.

『警察 戰死者 個人 資料表』警察廳.

『國立顯忠院 安葬資料』서울 國立顯忠院.

『國立顯忠院 安葬資料』大田 國立顯忠院.

『對非正規戰史』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8.

『韓國戰爭史』第1卷,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67.

『警察戰史』智異山의 砲聲, 山淸警察署, 1989.

『警察戰史』泰安寺 別曲, 李龍河, 圖書出版 法政, 1992.

『韓國警察史』內務部 治安局, 1973.

『大韓警察戰史』第1輯, 民族의 先鋒, 內務部 治安局, 1952.

『警察史』內務部, 1986.

『護國警察戰史』尹長鎬, 도서출판 제일, 1995.

『共匪討伐史』陸軍本部, 1954.

『共匪沿革』陸本 情報參謀部, 1971.

『創軍前史』陸軍本部, 1980.

『部隊史』第1師團 ~ 第8師團, 首都師團, 第18聯隊, 1966.

『兵科別 部隊歷史』陸軍本部, 1959.

『陸軍士官學校 50年史』陸軍士官學校, 1966.

『陸軍士官學校 50年史 寫眞集』陸軍士官學校, 1966.

『陸軍歷史 寫眞集』第1卷, 陸軍本部, 1972.

『肉彈 10勇士』肉彈10勇士顯忠會, 圖書出版 法政, 1986.

『10勇士의 神話』忠勇戰友宣揚會, 賢文出版社, 1974.

『韓國戰爭要約』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6.

『砲兵의 발자취』陸軍 砲兵學校, 1963.

『海軍 30年史 寫眞集』海軍本部, 1978.

『寫眞으로 본 空軍 20年史』空軍本部, 1974.

其他 參考資料(部隊 略歷表, 部隊沿革, 師團別 略史)

□ 主　幹 : 宣揚事業團長　鄭 錫 均
□ 執　筆 : 先任研究員　高 在 南(김숙봉~김진갑)
　　先任研究員　金 仲 坤(김진광~류지열)

# 護國戰歿勇士功勳錄

제 2 권

1997年 9月 23日　印刷

1997年 9月 30日　發行

發行處　國　防　部

發行人　國防軍史研究所長 嚴 燮 駉

印刷處　서울인쇄공업협동조합

〈정간위심의필 97-11-3-22〉　〈非賣品〉